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 가치

2023. 8.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 가치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32-01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보고서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 가치

2023. 8.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2. 이 보고서는 I장 과제 개요, II장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III장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지식, IV장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 V장 요약 및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3. 이 보고서에서 제주 갈옷 관련 용어 중 '갈옷'은 '감옷', '감든옷'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갈중의도 '갈중이'와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4. 보고서 내용 중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5. 보고서 중 구술 인용은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괄호 안에 표준어를 병기하였다.
6. 인용 자료 가운데 신문기사 등은 당시 기사의 표기와 띄어쓰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수행한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 가치』 미래무형유
산 발굴·육성 사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8.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김순자

목 차

I. 과제 개요 _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_ 15
2. 연구 방법 _ 17
 - 1) 제주 갈옷 조사 연구 _ 17
 - 2) 제주 갈옷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_ 17
 - 3) 제주 갈옷 학술대회 _ 18
 - 4) 제주도민 제주 갈옷 인식 설문조사 _ 18
3. 연구진 _ 19
4. 연구 수행 일정 _ 21
5. 과제 수행 성과 _ 22
 - 1) 문헌조사 결과 _ 22
 - 2) 제주 갈옷 전통지식 현장 조사 결과 _ 22
 - 3) 제주 갈옷 아카이브 구축(총 1,100여 건) _ 26
 - 4) 제주 갈옷 학술대회 _ 27
 - 5) 제주 갈옷 인식 설문 조사 _ 29
 - 6) 연구 보고서 구성 _ 29

II.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_ 31

1. 제주 갈옷의 기원과 용어의 구분 _ 33
 - 1) 제주 '갈옷'에 대한 전설과 추측 _ 33
 - 2) 갈옷과 갈의의 용어 구분 _ 34
 - 3) 감물과 감물들이기 용어와 한자 표기 _ 37
2. 조선 시대,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 _ 39
 - 1) 「도중잡영」 한시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감물들이기 _ 39

- 2) 『증보탐라지』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감물들이기 _ 40
- 3.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문화 _ 43
 - 1) 일제강점기, 감물들이는 옷의 종류와 형태 _ 43
 - 2) 일제 강점기의 감물들이기 _ 46
- 4. 옷에 감물들이기, 제주의 지역적 차별성 _ 50
 - 1)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 _ 50
 - 2) '갈옷' 용어의 등장과 사용 _ 53
- 5. 해방 이후,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의 변천 양상 _ 57
 - 1)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제주 갈옷 _ 57
 - 2) 196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_ 60
 - 3) 197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_ 64
 - 4) 198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_ 68
 - 5) 1990년대 제주의 갈옷과 감물들이기 _ 69
 - 6) 2000년 이후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_ 72

Ⅲ.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지식 _ 75

- 1. 제주 갈옷의 종류와 쓰임새 _ 79
 - 1) 갈옷의 정의와 명칭 _ 79
 - 2) 갈옷의 종류 _ 81
 - 3) 갈옷의 용도 _ 100
 - 4) 갈옷의 효능과 효용성 _ 104
 - 5) 갈옷의 느낌과 표현 _ 111
 - 6) 착용 환경 _ 113
 - 7) 갈옷의 세탁과 관리 _ 119
- 2. 감물들이기 _ 124
 - 1) 감물들이는 시기 _ 125
 - 2) 재료 준비 _ 126
 - 3) 감물들이기의 실제 _ 141

- 3. 제주 갈옷 관련 주변문화 _ 161
 - 1) 생활 도구의 감물 염색 _ 161
 - 2) 갈옷의 재활용 _ 163
 - 3) 갈옷 관련 구비전승과 공동체문화 _ 168

IV.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 _ 173

- 1.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 발굴 _ 175
 - 1)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 _ 175
 - 2) 기술성 _ 177
 - 3) 대표성 및 지역성 _ 178
 - 4) 사회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성 _ 182
 - 5) 지속가능성 _ 183
- 2. 제주 갈옷의 전형 설정과 전승체계 구축 방향 _ 187
- 3. 제주 갈옷의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및 지정 방식 _ 190

V. 요약 및 제언 _ 193

〈참고문헌〉 _ 201

〈부록〉 옛 사진 속의 갈옷 _ 209

표 목차

- 〈표 1〉 연구진 현황 _ 19
- 〈표 3〉 집필진 현황 _ 20
- 〈표 2〉 자문위원 현황 _ 20
- 〈표 4〉 연구 수행 일정 _ 21
- 〈표 5〉 조사 지역과 제보자 명단 _ 23
- 〈표 6〉 영상 촬영 일정과 시연자 명단 _ 27
- 〈표 7〉 김갑생의 구술사례 _ 82
- 〈표 8〉 조사 마을별 갈옷 종류 _ 97
- 〈표 9〉 제주도내 박물관별 소장 유물 대표 사진 및 점수 _ 98
- 〈표 10〉 감물을 들었을 때의 옷 상태 표현 _ 112
- 〈표 11〉 '갈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나 감촉 표현 _ 112
- 〈표 12〉 사진을 통해 본 감물들이는 과정 _ 157
- 〈표 13〉 구술로 살펴본 감물들이는 과정 _ 160

그림 목차

- 〈그림 1〉 제주 갈옷 현장조사 지역 (● 중산간 지역, ● 해안 지역) _ 24
- 〈그림 2〉 연령대 분포 _ 179
- 〈그림 3〉 거주지 분포 _ 179
- 〈그림 4〉 제주 갈옷을 얼마나 자주 입는지 분포 _ 179
- 〈그림 5〉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문화재 지정 필요 _ 180
- 〈그림 6〉 제주 갈옷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노력 분포 _ 180

사진 목차

- 〈사진 1〉 제주 갈옷 구술채록자료집 _ 25
- 〈사진 2〉 천지동 현장 조사 _ 25
- 〈사진 3〉 고부자 씨 댁 현장 조사 _ 25
- 〈사진 4〉 제주 갈옷 아카이브 홈페이지 메인화면 _ 26
- 〈사진 5〉 제주 갈옷 학술대회 리플릿 표지 _ 28
- 〈사진 6〉 제주 갈옷 학술대회 리플릿 내지 _ 28
- 〈사진 7〉 제주 갈옷 특별전시회 _ 29
- 〈사진 8〉 토론 장면 _ 29
- 〈사진 9〉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과 갈굴중이 _ 45
- 〈사진 10〉 1940년대 제주 갈옷 _ 58

- 〈사진 11〉 1950년대 제주 갈옷 _ 59
- 〈사진 12〉 1960년대 제주 갈옷 _ 62
- 〈사진 13〉 1970년대 제주 갈옷 _ 67
- 〈사진 14〉 2000년 이후의 상품화된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제품 _ 74
- 〈사진 15〉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 구술채록 장면 _ 82
- 〈사진 16〉 적삼(해녀박물관 소장) _ 85
- 〈사진 17〉 등지계(국립민속박물관 소장) _ 85
- 〈사진 18〉 밭일하는 제주 여성(1910년대) _ 91
- 〈사진 19〉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사진 _ 104
- 〈사진 20〉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공연 사진 _ 104
- 〈사진 21〉 윤봉조의 시문집 『포암집(圃巖集)』(卷之三) 중, ‘凌雨柿染衣’ _ 109
- 〈사진 22〉 제보자 김유현이 입던 옷에 감물을 들인 옷 _ 110
- 〈사진 23〉 갈천 부른구덕(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_ 111
- 〈사진 24〉 갈몸빼 입고 일하는 여성들(1960년대 흥정표 촬영) _ 117
- 〈사진 25〉 마을에 있는 감나무 _ 124
- 〈사진 26〉 제주 토종감 _ 128
- 〈사진 27〉 낭도고리와 덩드렁마께 _ 134
- 〈사진 28〉 돌확과 덩드렁마께 _ 134
- 〈사진 29〉 감물들여서 말리는 모습 _ 136
- 〈사진 30〉 감꼭지 오려내는 모습 1 _ 141
- 〈사진 31〉 감꼭지 오려내는 모습 2 _ 141
- 〈사진 32〉 돌확에서 감 빵기 _ 142
- 〈사진 33〉 낭도고리에서 감 빵기 _ 142
- 〈사진 34〉 감을 빵은 후 골라낸 감씨 _ 143
- 〈사진 35〉 항아리에 담근 짐칠탄 _ 144
- 〈사진 36〉 옷감 뒤집기 _ 145
- 〈사진 37〉 빵은 감 자루에 넣기 _ 146
- 〈사진 38〉 감물 짜기 _ 146
- 〈사진 39〉 옷에 빵은 감 넣고 주무르기 1 _ 147
- 〈사진 40〉 옷에 빵은 감 넣고 주무르기 2 _ 147
- 〈사진 41〉 감주시 털기 1 _ 147
- 〈사진 42〉 감주시 털기 2 _ 147
- 〈사진 43〉 대에 감물들인 중의를 끼우는 모습 _ 149
- 〈사진 44〉 대에 감물들인 적삼을 끼워서 말리는 모습 _ 149
- 〈사진 45〉 명석에 널기 _ 150
- 〈사진 46〉 빨래줄에 널기 _ 150
- 〈사진 47〉 손보기 1 _ 152
- 〈사진 48〉 손보기 2 _ 152
- 〈사진 49〉 물 적시기 1 _ 154

- 〈사진 50〉 물 적시기 2 _ 154
- 〈사진 51〉 바래기 1 _ 156
- 〈사진 52〉 바래기 2 _ 156
- 〈사진 53〉 바래기 3 _ 156
- 〈사진 54〉 갈치술 _ 162
- 〈사진 55〉 담배쌈지 _ 163
- 〈사진 56〉 화성 _ 164
- 〈사진 57〉 초신 _ 164
- 〈사진 58〉 구렛방석 _ 164
- 〈사진 59〉 감부른구덕 _ 165
- 〈사진 60〉 감물들인 정동벌립 _ 168
- 〈사진 61〉 연합뉴스 및 한라일보 기사 _ 181

I. 과제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감을 활용하여 옷에 물을 들이는 풍속이 있다. ‘갈옷’이 그것이다. 갈옷은 감이 털 익었을 때 염색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염색과는 조금 다르다.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로 오로지 감만을 사용한다. 제주인이라면 누구나 갈옷을 한번쯤은 입어봤을 것이다. 갈옷의 우수성을 말하라면, 저마다 갈옷의 효용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갈옷 문화는 특별하지만 매우 보편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감, 물 그리고 바람과 햇볕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옷에 감물을 염색해서 입을 수 있다.

제주 갈옷은 옛부터 오늘날까지 제주인이 함께 만들며 이어온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지식으로써의 무형유산이다. 제주 갈옷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무형유산으로 사람과 주변 환경, 자연, 역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공동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왔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제주 갈옷은 다양하게 변주해 왔다.

제주 갈옷은 화산회토 제주섬이 만들어 놓은 제주 무형유산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나 그 연구가 아직은 미비한 점이 없지 않다. 제주 갈옷은 ‘갈적삼’, ‘갈점뱅이’, ‘갈중의’, ‘갈굴중의’¹등으로 불린다. 감물 염색은 풋감을 뺀 즙을 내어 옷에 풀을 먹이듯이 주물러서 햇볕에 말린 후 다시 물을 적셔서 햇빛에 바래는 작업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갈옷은 내구성이 강하고 풀 먹인 듯 뽀뽀하여 따로 풀 먹일 필요가 없다. 관리가 편하고 땀이 나도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으며, 그 사이로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다. 노동복이나 일상복으로 주로 입었다.

제주 갈옷은 1960년대까지는 제주도민들의 주된 노동복이자 일상복으로 전승되었다. 최근에는 소재, 형태, 종류가 현대적 수요에 맞춰 다양화되고 있다. 제주 갈옷 제작 전통 지식은 가정 내에서, 마을 내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구전이나 체험으로 전승되었다. 재료의 계량이나 가공법 역시 경험에 의존해 나름의 다양한 규칙들이 만들어졌다.

제주 갈옷은 현재 의류산업 측면에 치우쳐 있을 뿐 무형유산으로서 인식이나 학술적인 조사·연구 성과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치 발굴과 주변 문화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 갈옷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승 활동의 체계성을 갖추고 제주의 미래 자원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1 ‘갈중의’, ‘갈굴중의’의 ‘중의’ 표기는 표준어 ‘중의(中衣)’의 표기와 동일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문헌자료 또는 제보자나 학자 등에 따라 ‘갈중이’, ‘갈굴중이’라 기술하기도 하여 이 보고서에서도 혼용하여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이에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갈옷 문화가 실행되었던 각 마을 현장에서 제주도민들의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구술자료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갈옷 관련 고문서와 신문기사, 학술연구 논문 및 단행본, 옛 사진 등에 대한 수집 정리, 제주 갈옷 관련 도민 인식도 설문조사, 도내 박물관 및 전시관 소장 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하여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도출하고 무형문화재 지정 방향까지 제시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 현장 조사, 설문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자료 조사를 기초하여 현장 조사와 박물관 유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해 도민 인식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진 포럼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제주 갈옷 조사 연구

- 제주도 갈옷, 감물염색 관련 고문헌 자료 조사, 옛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 등 발췌 정리, 기존 조사 연구 성과인 단행본, 논문 등 수집 및 정리.
- 갈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던 80대 이상을 대상으로 제주 갈옷의 전통 및 전승 지식, 전승 현황, 주변 문화 구술 조사.
- 제주도 내 박물관 갈옷 유물 현황 현장 조사를 통한 실측 및 사진 촬영.
- 제주 갈옷 관련 산업화, 상품화 양상 현장 조사.
- 제주 갈옷의 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발굴 조사.

2) 제주 갈옷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제주 갈옷 관련 기존 자료 수집,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및 콘텐츠화.
- 제주 갈옷 콘텐츠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원천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 제주 갈옷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 제주 갈옷 제작의 전 과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영상 제작.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 컬렉션으로 구축, 문화콘텐츠 원천소스로 활용.
- 제주 갈옷 관련 확보 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공개.
 - 제주학 아카이브 탑재 시, 공공누리 유형 명시해 대중적 활용도 제고.
 - 제주학 아카이브 특화 콘텐츠로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3) 제주 갈옷 학술대회

- 도내외 염색 관련 업체 관계자, 연구자, 도민 등이 한자리에서 제주 갈옷 및 감물염색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 갈옷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도출.
- 학술대회와 전시, 패션쇼를 결합하여 많은 도민이 행사에 참여하여 제주 갈옷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함.
- 학술대회 관련 언론과 도민 사회 관심 증폭.

4) 제주도민 제주 갈옷 인식 설문조사

- 제주도민과 갈옷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설문 내용: 제주 갈옷 관련 인식도, 제주 갈옷의 문화재적 가치, 제주 갈옷의 활성화와 대중화 방안 등.

3. 연구진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진과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센터 내부 연구진 6명, 외부 연구진 9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6명, 문헌조사 연구원 1명, 현장조사 연구원 6명, 연구 전체 진행 1명으로 구성하였다. 자문위원은 의류 관련 연구자 3명, 농업 관련 연구자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연구 방향, 연구 결과에 대한 자문 및 감수를 진행하였다. 연구보고서 집필진은 연구원 4명과 전체 편집 담당 1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과 집필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급	전공 분야	참여구분	역할	비고
내부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국어학	연구책임	사업 총괄, 구술확인, 보고서 집필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민속학	공동연구	실무 진행, 보고서 집필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역사학	공동연구	갈옷 관련 문헌 발굴 및 정리	
	고은솔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문화재 정책학	공동연구	갈옷 문화재 지정 기초자료 구축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국어학	공동연구	구술조사, 제주 갈옷 아카이브 구축	
	송정희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문학	위촉 연구위원	사업 진행, 구술조사, 집필	
외부	홍희숙	제주대학교 교수	의류학	공동연구	보고서 집필	비상임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생활사	공동연구	"	비상임
	김미형	제주대학교	역사학	문헌조사	갈옷 문헌 발굴 및 정리	비상임
	김보향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국어학	현장조사	현지 조사 및 전사	비상임
	박진향	제주대학교 강사	일문학	"	"	비상임
	강경민	제주대학교	문학	"	"	비상임
	양인정	제주대학교	문학	"	"	비상임
	권지영	제주대학교	문학	"	"	비상임
	고선희	제주대학교	문학	"	"	비상임

〈표 2〉 자문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급	전공 분야	참여구분	역할	비고
자문 위원	고부자	단국대 명예교수	의류학	자문위원	갈옷 및 감물염색 자문	
	현진숙	문화재위원	"	"	"	
	장현주	제주대 교수	"	"	"	
	문선희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농학	"	감 및 감즙 자문	

〈표 3〉 집필진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급	전공 분야	참여구분	역할	비고
내부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국어학	연구책임자	보고서 집필 총괄 및 검수 I 장, III 장 집필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민속학	공동연구원	보고서 원고 수합 III 장 3. 제주 갈옷 관련 주변 문화, IV 장·V 장 공동 집필	
	송정희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문학	위촉 연구위원	전체 편집, I 장 공동 집필	
외부	홍희숙	제주대학교 교수	의류학	공동연구원	II 장 집필 IV 장·V 장 공동 집필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생활사	공동연구원	III 장 3. 제주 갈옷 관련 주변 문화, IV 장 공동 집필, 부록 집필	

4. 연구 수행 일정

-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총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그 중 제주학연구센터는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였다.
- 전체 연구 수행 일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다.

〈표 4〉 연구 수행 일정

일정	내용
2022. 9. 19.	- 연구진 구성 및 위촉
2022. 9. 20. ~ 2023. 3. 6.	- 제주 갈옷 관련 고문헌 기록, 신문 기사, 각종 연구 성과 등
2022. 9. 20. ~ 2023. 8. 24.	- 제주 갈옷 영상 기록화를 위한 영상 제작
2022. 9. 20. ~ 2023. 6. 1.	- 전국 박물관 갈옷 유물 현황조사(e뮤지엄) - 제주도 내 박물관 갈옷 유물 현황조사(실측 및 사진 촬영)
2022. 9. 29.	- 자문을 위한 연구진 포럼
2022. 12. 1. ~ 2023. 8. 21.	- 제주 갈옷 현장 조사 및 구술자료집 발간
2022. 12. 12.	- 제1차 연구진 전체 회의(현장 조사 질문지 관련)
2023. 1. 11.	- 제1차 현장 조사 연구원 워크숍(제주어 및 제주어 표기 관련)
2023. 1. 18.	- 제2차 현장 조사 연구원 워크숍(제주 갈옷)
2023. 1. 30.	- 집필진 전체 회의
2023. 2. 20.	- 제3차 현장 조사 연구원 워크숍(갈옷 실측 방법)
2023. 2. 21. ~ 2023. 4. 28.	- 제주 갈옷 가치 인식도 설문조사
2023. 3. 16.	- 제2차 연구진 회의(설문지 관련)
2023. 5. 2.	- 제3차 연구진 및 외부 협력기관 회의(학술대회 관련)
2023. 5. 11. ~ 2023. 8. 22.	- 제주 갈옷 사업 아카이브 구축
2023. 6. 27.	- 제4차 연구진 회의(학술대회 관련)
2023. 7. 10.	-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가치' 학술대회
2023. 7. 21.	- 제5차 연구진 회의(연구보고서 집필 관련)
2023. 8. 17. ~ 2023. 8. 19.	- 연구보고서 최종 서면 자문 - 제주 갈옷 기록화를 위한 영상제작 최종 서면 자문
2023. 1. ~ 2023. 8.	- 공동연구원 집필진 원고 작성 및 편집 - 원고 교열과 감수 - 최종 원고 편집과 연구보고서 발간

5. 과제 수행 성과

1) 문헌조사 결과

문헌 자료 조사는 고문헌 『후한서』 권28 <동이열전> 제15 한에 기록된 내용을 시작으로 1930년대까지 25권을 조사하였고, 근현대 신문기사 자료는 1914년 중추원 조사자료에서부터 1999년도 신문기사까지 113건을 조사하였다. 제주 갈옷을 기록한 단행본으로는 허복구·박지혜의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을 비롯하여 41권을 조사하였고, 116편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조사하였다.

2) 제주 갈옷 전통지식 현장 조사 결과

- 갈옷 제작 관련 전승자 현지 조사 및 전승 현황 등 구술조사
- 제주도 내 박물관 갈옷 유물 현황 및 실측 조사
- 감물들이기 전 과정과 전승지식 조사
- 제주 갈옷 관련 산업화, 상품화 양상 조사(도내 갈옷 관련 업체 등 4곳 선정)

조사 지역은 제주도 내 읍면동 지역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을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중산간 마을로 애월읍 광령2리, 한림읍 명월리, 한경면 낙천리, 대정읍 신평리, 안덕면 감산리, 서귀포시 천지동, 남원읍 신흥2리, 표선면 가시리, 성산읍 난산리, 구좌읍 덕천리, 조천읍 와산리, 제주시 화북2동을 대상 마을로 선정하였고, 해안 마을은 애월읍 금성리, 한림읍 수원리, 한경면 용수리, 대정읍 일과1리, 안덕면 사계리, 서귀포시 법환동, 남원읍 태흥2리, 표선면 하천리, 성산읍 오조리·고성리·신산리, 구좌읍 월정리, 조천읍 북촌리, 제주시 삼양2동·삼도2동을 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제주도 내 갈옷 전승 현황, 전승 지식 등이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알 수 있었다. 조사 지역 총 27개 마을에서 제보자는 42명으로 여성 40명, 남성 2명이다. 제보자 남녀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옷에 관하여 전승자 또는 전승 대상이 주로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현장 조사 시 제주 갈옷 질문지를 중심으로 대면 조사를 하였고, 질문지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1.제보자 인적 사항, 2.제주 갈옷 착용 경험 유무, 3.제주 갈옷 제작

과정(염색 중심), 4.제주 갈옷 소장품 설명, 5.기타(감물염색 활용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조사는 제주어로 묻고 답하였다. 현장조사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내부 연구원 3명, 외부 연구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1) 조사 지역과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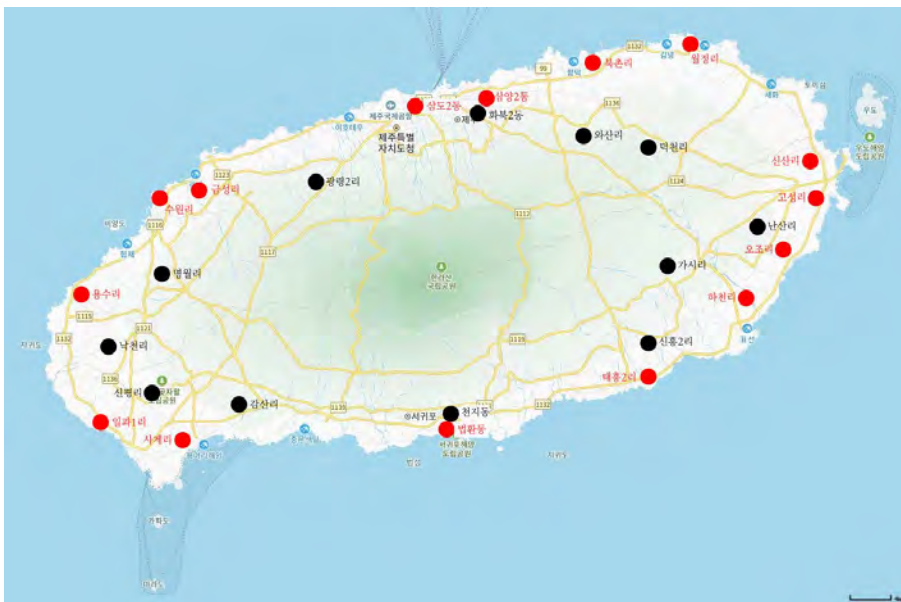
조사는 제주도 내 읍면동 12개 지역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는 한 마을당 1~3명으로 모두 42명이다. 제보자 연령별로는 90대 7명, 80대 26명, 70대 8명, 60대 1명이다. 성별로는 여자 40명, 남자 2명이다. 조사 지역과 제보자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조사 지역과 제보자 명단

번호	조사지역	제보자	성별	출생연도	조사일
1	제주시 삼양2동	강병숙	여	1929년생	23. 1.19.
2		강전향	여	1943년생	
3	제주시 화북2동	백순성	여	1934년생	23. 1.19.
4	제주시 삼도2동	강청자	여	1942년생	23. 2.12.
5	애월읍 광령2리	박복선	여	1946년생	23. 1.13.
6	애월읍 금성리	이화자	여	1940년생	23. 1.13.
7		홍옥균	여	1939년생	23. 1.30.
8		양수자	여	1942년생	
9	한림읍 명월리	장태선	여	1939년생	23. 1. 6./23. 1.17.
10		양순자	여	1942년생	
11		양문자	여	1942년생	
12	한림읍 수원리	김희춘	여	1934년생	23. 1.10./23. 1.18.
13	한경면 낙천리	김정평	여	1933년생	23. 2.16./23. 2.17.
14	한경면 용수리	양태월	여	1934년생	23. 2.17.
15	대정읍 신평리	이순자	여	1942년생	23. 2. 7.
16	대정읍 일과1리	이춘희	여	1932년생	23. 1. 4./23. 2. 7.
17		고순자	여	1944년생	23. 1. 4.
18	안덕면 감산리	김유현	남	1940년생	23. 1.11./23. 1.20.
19		강일선	여	1945년생	23. 1.11.
20	안덕면 사계리	허금자	여	1957년생	23. 2. 1.
21		천세선	여	1947년생	
22		유애자	여	1941년생	
23	서귀포시 법환동	현옥열	여	1944년생	23. 1.14.
24	서귀포시 천지동	임종은	여	1933년생	22.12.30./23. 1. 5.
25	남원읍 태흥2리	양기화	여	1938년생	23. 1. 9.
26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	여	1924년생	23. 1. 9./23. 1.19.

번호	조사지역	제보자	성별	출생연도	조사일
27	표선면 가시리	오계중	여	1927년생	23. 1.16.
28		안정생	여	1926년생	
29	표선면 하천리	강경순	여	1938년생	23. 1.13.
30	성산읍 난산리	고순덕	여	1938년생	23. 1. 9.
31	성산읍 신산리	강대선	여	1937년생	23. 1.10./23. 1.12.
32	성산읍 고성리	강대춘	여	1945년생	23. 1.10.
33		이복자	여	1946년생	
34	성산읍 오조리	강경순	여	1937년생	23. 1. 9.
35		현춘홍	여	1935년생	
36		고금자	여	1940년생	
37	구좌읍 월정리	현봉래	여	1939년생	23. 2. 6.
38	구좌읍 덕천리	이정숙	여	1939년생	22.12.29.
39	조천읍 와산리	김귀례	여	1934년생	23. 1.16.
40	조천읍 북촌리	이승찬	남	1945년생	23. 1. 9.
41		백여옥	여	1942년생	
42		변순여	여	1938년생	

조사 지역은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을 나눠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을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로 구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주 갈옷 현장조사 지역 (● 중산간 지역, ● 해안 지역)

(2) 구술채록 및 기록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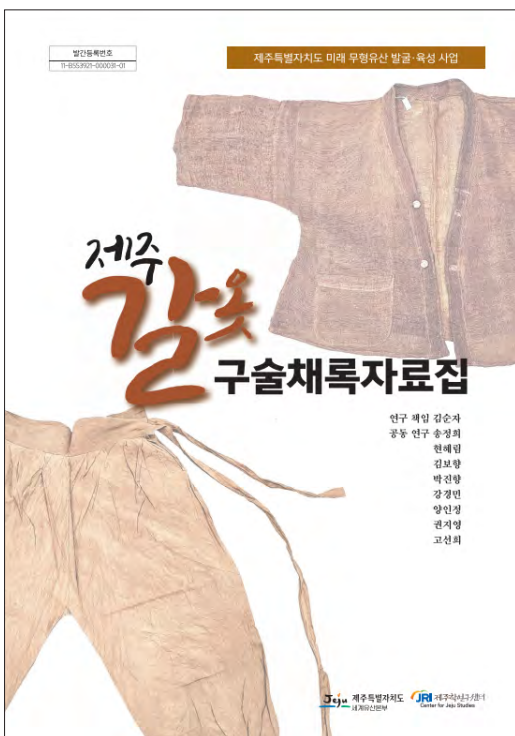
구술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제주도 내 27개 마을에서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도 내 갈옷 전문 업체 5곳

을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 기기는 휴대전화, 녹음기, 캠코더 등을 활용하였다.

현장 조사 구술채록은 1차 전사, 2차 확인 과정을 거쳤다. 1차 전사는 조사 시점에 시작하여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2차 확인 작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사는 제주어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기는 제주어표기법에 따랐다. 조사 분량은 총 37시간 57분 44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갈옷 명칭 △갈옷 종류 △갈옷에 대한 인식 △감 종류 △감물 들이기 전 과정 △착용 상황 △유의점 △기타 감 활용 등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양상,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지혜와 전승지식이다.

현장 조사 결과물은 『제주 갈옷 구술채록자료집』으로 발간하였고, 영상, 녹음, 사진 자료는 아카이브 자료로 구축하였다.



〈사진 1〉 제주 갈옷 구술채록자료집

(3) 제주도 내 박물관 소장 유물 중 갈옷 현황 조사

제주도 내 박물관에 소장된 갈옷 유물을 현지조사하였다. 박물관 별 'e뮤지엄'으로 현황 파악을 한 후에 박물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 조사를 하였다. 소장 유물 갈옷의 실측과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 조사를 위하여 먼저 제주도 내 박물관 중 본태박물관, 세계유산본부, 제주감귤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선녀와나무꾼, 제주항일기념관, 돌문화공원, 갯전시관, 제주4·3평화기념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웅기박물관, 김만덕기념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등 17곳을 선정하여 갈옷 유물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후 갈옷을 소장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감귤박물관, 제주항일기념관, 본태박물관 등 8곳에서 총 87점 갈옷에 대한 실측과 사진 촬영을 하여 기록화 작업을 하였다. 제주4·3평화기념관 조사는 유물 상태를 고려하여 현장 조사를 못하고 사진만 제공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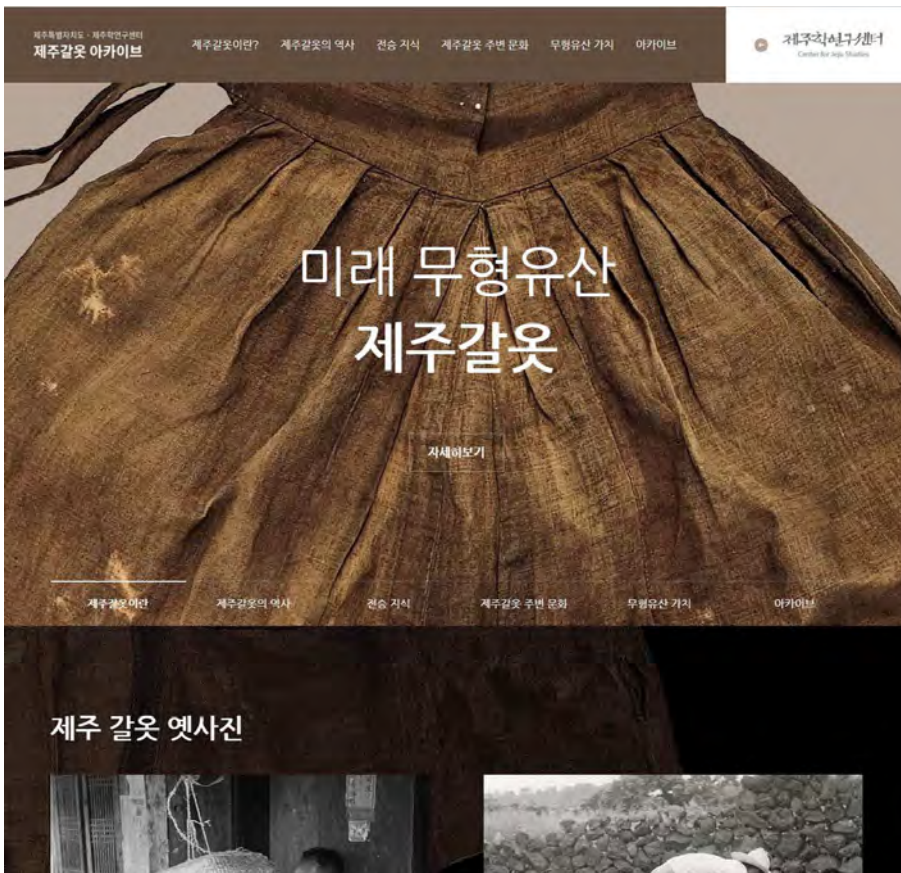
〈사진 2〉 천지동 현장 조사



〈사진 3〉 고부자 씨 댁 현장 조사

3) 제주 갈옷 아카이브 구축 (총 1,100여 건)

- 제주 갈옷 관련 고문헌 및 기존 자료 수집 정리(320여 건)
 - . 고문헌, 신문 기사 자료, 학술논문, 단행본 등 수집 및 업로드
 - . 갈옷 관련 옛 사진, 영상 등 아카이브 구축
- 제주 갈옷 현장 조사 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구축
 - . 『제주 갈옷 구술채록자료집』 PDF 파일 업로드
 - . 현장 조사 자료, 박물관 소장 자료 등 500여 건 구축
- 제주 갈옷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 . 제주 갈옷 제작의 전 과정에 대한 사진촬영 및 업로드(디지털이미지 및 Full HD 동영상, 기록본/보급본/유튜브 게시용 등)
 - . 제주 갈옷 관련 전승지식 등에 대한 심층 면담 자료 동영상 촬영 및 아카이브 구축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 컬렉션으로 구축, 문화콘텐츠 원천소스로 활용
- 제주 갈옷 관련 확보 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게재 및 공개
 - . 제주학 아카이브 탑재 시, 공공누리 유형 명시해 대중적 활용도 제고
 - . 제주학 아카이브 특화 콘텐츠로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사진 4〉 제주 갈옷 아카이브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주 갈옷의 제작 과정을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여 제주 갈옷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현지 촬영 등을 진행하였다. 제주 갈옷 제작 과정은,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표선면 성읍리, 한림읍 명월리, 한경면 낙천리, 남원읍 위미리 네 곳을 선정하여 심층 조사와 촬영을 하였다. 제주 갈옷 홍보영상 2개(3분, 10분)와 제주 갈옷 시연 영상 4개를 제작하였다. <표 6>은 영상 촬영 일정과 시연자 명단이다.

<표 6> 영상 촬영 일정과 시연자 명단

번호	조사지역	제보자	성별	출생연도	촬영일
1	표선면 성읍리 ²	송심자	여	1951년생	22. 10. 14.
		강성자	여	1950년생	22. 10. 19.
2	한림읍 명월리	장태선	여	1939년생	23. 7. 28. ~ 23. 7. 31.
		양순자	여	1942년생	
		양문자	여	1942년생	
3	한경면 낙천리	김정평	여	1933년생	23. 8. 2. ~ 23. 8. 14.
		문명희	여	1963년생	
4	남원읍 위미리	오복인	여	1940년생	23. 8. 14.
		박지혜	여	1968년생	

4) 제주 갈옷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를 주제로 현재까지 조사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을 주제로 한 기초발표와 도내외 발표자 4명, 토론자 4명으로 진행하였다. 학술대회를 하기 전에 대회장 로비를 활용하여 감물염색 관련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학술대회장 마무리 행사로 ‘제주 갈옷 패션쇼’를 진행하였다. 학술대회는 제주도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갈옷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하였다.

- 주제: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 일시: 2023년 7월 10일(월) 13:00~19:00
- 장소: 라마다호텔 8층 연회장
- 발표
 - 기초 발표: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고부자, 전 단국대학교 교수)
 - 주제 발표(좌장: 현승환, 제주대학교 교수)
 - .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홍희숙, 제주대학교 교수)
 - .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지식(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 .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계승 방안(허복구, 한국천연염

2 표선면 성읍리 조사는 ‘갈옷 조사’ 사업의 사전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업 시작이 늦어지면서 감물들이는 시기가 지나 익은 감으로 옷에 감물을 들였다. 탄닌 성분이 많은 여름에 들인 갈옷보다 색깔이 옅고, 풀기가 적은 점이 특징이었다.



〈사진 7〉 제주 갈옷 특별전시회



〈사진 8〉 토론 장면

5) 제주 갈옷 인식 설문 조사

제주도 내 일반도민과 전문 갈옷업체를 대상으로 제주 갈옷 및 감물염색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제주 갈옷의 문화재적 가치 및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 내용은 제주 갈옷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갈옷 착용 유무, 갈옷 제작 유무, 제주 갈옷의 문화재적 가치, 제주 갈옷의 활성화 및 대중화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표본 집단은 일반도민 414명(89.2%), 갈옷 업체 50명(10.8%)이고, 도민은 남성 174명(42%), 여성 240명(58%)이며, 갈옷 업체는 남성 4명(8%), 여성 46명(92%)이다. 조사 대상 연령대는 20대 42명(9.1%), 30대 75명(16.2%), 40대 92명(19.8%), 50대 141명(30.4%), 60대 79명(17%), 70대 이상 35명(7.5%)이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78명(81.5%)이 제주도를 고향으로 두고 있고, 86명(18.5%)은 도외를 고향으로 두고 있었다.

조사는 대면으로 자기기입식 방식(Administrative questionnaire)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갈옷 디자인, 가격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지만, 갈옷의 기능성과 무형문화재 지정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6) 연구 보고서 구성

연구 보고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다. I장 ‘과제 개요’는 연구 목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진, 연구 수행 일정과 과제성과를 기술하였다. 연구 내용의 간략 요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II장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은 갈옷의 기원, 용어, 시대별 감물들이기 문화의 변천, 감물들이기 제주 지역의 차별성 등으로 제주 갈옷에 관한 문헌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감물들이기 문화 변천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III장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지식’은 제주 갈옷의 종류, 쓰임새, 주변문화 그리고

감물들이기 전통지식을 서술하고 있다. IV장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는 제주 갈옷 무형유산 가치 발굴, 감물들이기 전형 설정, 전승체계 구축, 문화재 지정 필요성과 지정 방식 등으로 서술하였다. V장은 보고서 전체 요약과 향후 제주 갈옷 연구에 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II.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제주 갈옷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원료로 이용하여 감물들이기 옷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제주 갈옷의 기원과 역사는 물론 갈옷의 변천 양상을 정리한 문헌이나 논문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매우 부족하다.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은 제주에서 감물들이기 옷이 입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보된 자료 내에서 감물들이기 옷의 종류와 형태 및 감물들이기 변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고문헌, 서적, 논문, 정기간행물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주를 방문하였던 행정관리자, 학자, 유배인 등이 작성한 문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주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제주의 갈옷이나 감물염색에 관한 연구논문은 물론 이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 한국 복식, 제주 갈옷과의 관련성이 추측된 몽골 복식과 아시아 민속 복식에 관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1920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경향신문, 제주일보, 제주환경일보, 미디어제주 등에 게재된 기사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감물염색을 표현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시염, 시자염, 시삽염, 시칠, 柿染, 柿子染, 柿澁染, 柿汁 등), 갈옷의 명칭(갈옷, 갈적삼, 갈중이, 갈굴중이, 갈뽕배 등), 기존 연구에서 갈옷으로 해석된 '갈의'와 관련한 한글과 한자 표기(갈, 갈의, 단갈, 褐, 葛衣, 褐衣, 短褐 등)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넷째, 제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시대별 갈옷 형태나 갈옷 차림새는 사진집 서문이나 사진 설명에 표기된 촬영 연대에 근거하였다.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는 본문에 표기하였다.

1. 제주 갈옷의 기원과 용어의 구분

1) 제주 '갈옷'에 대한 전설과 추측

제주 '갈옷'의 기원이나 감물염색이 시작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남국의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저서에는 약 700여년 전에 고기잡이 할아버지가 낚시줄이 자주 끊어짐에 낚시줄에 감물을 들였더니 낚시줄이 더 질겨지고 고기는 더 잘 잡혔다는 하나의 전설이 등장한다.¹ 조선 시대와 1935년 일제강점기에 어망이나 그물에 감물을 들였고,² 특정한 물건, 선박, 건축물에 감물을 칠하면 내구성이 높아진다는 시칠(柿漆)에 관한 기록이 있다.³ 그러나 낚시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 약 12~13세기 전부터 행해졌음을 뒷받침하거나 이 시기부터 옷에 감물을 들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맛은 달아서 날로 먹을 만하며, 찢어 부수어서 즙에 담그는 것을 시칠(柿漆)이라고 일컫는데 어망이나 부채(扇) 등의 물건을 염색할 수 있다.⁴

사리때가지나고 조곰이 되어민어가 잘 잡히지안는때나 폭풍이 심한 때에는 배를 포구에 대고 그물에다 감물(澁柿(삽시))을 들이여 돛대에 거러노코 언덕우헤 꺾딱지카티 막을 치논 술집문을 두다리여 열근히 몇잔먹어 덧뵈분틈을 타서 소처올르는 『흙씩』을 위안한다.⁵

1 진성기,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9, 257쪽.

2 최한기 저, 『농정회요 II』 고농서국역총서 11, 농촌진흥청, 2006, 147쪽 (원문 471~473쪽).

성인기, 『生活海戰從軍記 13 江華島 민어잡이 B』, 『조선일보』 3면, 1935. 8. 16.

3 “單寧原料確保는 柿實로되는 柿漆도 充分”, 『동아일보』 7면, 1938. 9. 16.

4 최한기, 앞의 책.

5 성인기, 앞의 신문.

6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 『탐라성주유사』, 고씨중문회총본부, 1979, 125쪽.

제주 고씨 가문의 역사와 탐라 시대의 풍속이 서술된 『탐라성주유사(耽羅星州遺事)』에는 제주를 약 100년 동안 지배했던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 태조가 원나라 정권을 지원하며 끝까지 저항했던 운남국의 왕족과 그 일가를 고려시대에 제주로 이주시켰다는 내용이 있다.⁶ 이 문헌에는 이들이 두 번에 걸쳐 제주로 이주하던 고려시대(1382년 우왕 8년, 1392년 공양왕 4년)에 갈옷이 원나라 풍속과 함께 제주에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있다. 김태능이 저술한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攷)』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하나의 추측으로 서술되어 있다.⁷

1382년(禰王 8) 명태조(明太祖)는 전원(前元)의 제후국(諸侯王)인 운남국(雲南國)을 평정하고 양왕(梁王)의 태자인 백백태자(伯伯太子)와 그의 아들 육십노(六

十奴) 등 권속들을 탐라에 이주(移住)시켰다. 또한 1392년(恭讓王 4)에도 양왕(梁王)의 자손인 애안첩목아(愛顔帖木兒)와 그 가족을 먼저 이주한 왕족(王族)들과 함께 거주(居住)케 하였으니, 백백태자는 이조 태종초(太宗初)에 적거(謫居)에서 죽었다. 이러한 전원(前元)의 상류사회(上流社會) 인물들이 제주에 우거(寓居) 또는 영주(永住) 하므로써 그들의 문화와 풍속(風俗)이 전래(傳來) 되었으며 특히 감물(柿汁)을 무명에 들여 만든 「갈옷」도 이때부터 전해진 것이라 한다.⁸

우왕(禰王) 8년에는 명군(明軍)에 의해 정복(征服)된 전원(前元)의 제후왕(諸侯王)인 운남양왕(雲南梁王)의 태자(太子)와 그의 자(子) 육십노(六十奴)를 명태조(明太祖)가 제주(濟州)에 보내어 이곳에 안치(安置)하였고 또 공양왕(恭讓王) 4년에도 양왕(梁王)의 손자(孫子) 4인(人)을 탐라(耽羅)에 이천(移遷)하여 백백태자(伯伯太子)와 더불어 친족(親族)끼리 서로 완취거래(完聚去來)하게 하였다. 육십노는 공양왕 3년에 제주에서 죽었고 백백태자는 이조태종초(李朝太宗初)에 역시(亦是) 제주에서 적사(謫死)하였다. 이 운남인(雲南人)들은 양왕의 자손들 이외에도 화자(火者)와 복니(卜尼)를 비롯한 많은 종자(從子)들이 따라와서 있었으므로 제주에 비로소 묘족(苗族)이 살기 시작했던 것이며 이들이 풍속(風俗)인 갈옷(감물들인 갈색옷)도 제주에 전해진 듯하다.⁹

그러나 역사학계나 복식학계 모두에서 ‘갈옷’이 몽고 풍속과 함께 제주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문은 관찰되지 않는다. 제주도 복식을 민족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고부자도 갈옷이 몽고 풍속의 하나로 고려시대에 제주에 전해졌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 근거가 애매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¹⁰ 『탐라성주유사』에서 언급한 운남성(雲南省) 지역의 묘족(苗族)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전통문화와 전통복식을 잘 이어오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민족복식을 연구한 의류학자들의 논문들에서도¹¹ 감물염색이 언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갈옷이 ‘감물을 들인 옷’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출처가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주 갈옷의 역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2) 갈옷과 갈의의 용어 구분

한자로 표기된 ‘갈의(葛衣, 褐衣)’를 감물염색한 ‘갈옷’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갈옷의 역사를 이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갈옷의 역사를 규명하기에 앞서 ‘갈옷’과 ‘갈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선 시대 제주의 사회, 경제 상황, 풍속, 자연환경을 기록한 문헌들 중 조선 중기(선조 34년, 1601년)에 안무어사로 제주를 방문하고 6개월 동안의 일상을 기록한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에는 최부(崔溥)의 35절(崔溥詩三十五絶) 한시(漢詩)가 실려 있다.¹² 35절 한시는 최부가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1487년(성종 18년) 11월에 제주에 도

- 7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42쪽.
- 8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괄호 안의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 9 김태능, 앞의 책. 괄호 안의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 10 고부자, 「제주도 복식의 민족학적 관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44쪽.
- 11 손경자,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복식의 양식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14, 한국복식학회, 1990, 21~39쪽.
손경자,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I)-고려시대의 몽고 침략기를 중심으로-」, 『복식』 16, 한국복식학회, 1991, 15~42쪽.
박춘순, 「중국 남, 북방 소수민족 복식의 비교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1, 1~10쪽.
박춘순, 「중국묘족 복식의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1, 11~21쪽.
소황옥, 「한·몽 복식문화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22, 비교민속학회, 2002, 91~132쪽.
박춘순 임영주, 「흥노의 복식문화 소고」, 『중국사연구』, 25, 중국사학회, 2003, 205~221쪽.
김일우, 「고려 후기 제주,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45~72쪽.
배수희, 「元末·明初의 雲南과 故元後裔의 濟州 移住」, 『동양사학연구』 119, 동양사학회, 2012, 197~226쪽.
서봉하,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 복식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0, 19~31쪽.
- 12 김상헌 저, 김희동 역저,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72~80쪽.
- 13 위의 책, 78쪽.
- 14 임준성, 「금남 최부의 <탐라시 35절>」, 『도서문화』 3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313쪽.
- 15 시경<국풍>1권 주남(周南)>2. 葛覃(첩덩굴) “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莫莫, 是刈是漚, 爲絺爲綌, 服之無斁”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2510&Lang=%ED%95%9C%EA%B8%80&Page=1>

- 16 고운 갈포(綺)-침베 치
- 17 거친 갈포(紵)-침베 격
- 18 최한기 저, 앞의 책, 329-330쪽.
- 19 이규태, “李圭泰 코너 貴賓室”, 『조선일보』 5면, 1993. 3. 18.
이규태, 『재미있는 우리의 옷이야기』, 기린원, 1991, 51쪽.
-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구당서 >고구려)“國人衣褐戴弁, 婦人首加巾幘”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l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ko&types=o&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ld=ko_034_1550_0010&position=-1 괄호 안의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 2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중국정사조선전 >신당서(新唐書)(1)>동이열전(東夷列傳) >고구려(高句麗)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幘”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l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jo&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ld=jo_015r_0020_0010_0030&position=-1 괄호 안의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 22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 문화 뿌리학(상)』, 우진출판사, 1997, 63쪽.
진성기, 「갈중이와 제주인의 지혜」, 『제주도 지방의정』, 제주도, 1996, 355쪽.
- 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중국정사조선전)신당서(新唐書)(1)>동이열전(東夷列傳) >신당서 >신라) “男子褐袴, 婦長襦”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levelld=jo_015r_0020_0030_0030&types=r
- 24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경신인쇄사, 2007, 55~56쪽. 여기서 “一裘一褐”은 ‘베옷’과 ‘솜옷’으로 번역되어 있음. 솜옷은 기본적으로 목화를 소재를 하는 것으로 가죽옷, 털옷, 베옷과는 다른 옷임.

착하여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경험한 제주의 역사와 풍물을 압축한 대서사시로 이 시에 “革帶芒鞋葛織衣(현대망혜갈직의)”란 문구가 있다.¹³ 일부 연구자는 여기에 제시된 ‘葛織衣(갈직의)’를 갈옷이라고 지칭하고, 이를 “감잎을 물들여 지은 옷”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갈의(葛衣)’와 감물염색한 ‘갈옷’을 혼동하고 있다.¹⁴ 이 문장에 나타난 ‘葛織衣(갈직의)’는 ‘침으로 짠 베옷’을 뜻하는 것으로 감물염색한 ‘갈옷’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갈(葛)’은 ‘침 갈’ 혹은 ‘침으로 짠 베 갈’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침을 캐어 그 것으로 베를 짠다는 것은 중국의 주(周)나라 초기부터 춘추시대(春秋時代) 초기까지 황하 중류지방에서 전해지는 민요를 정리하여 305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 『시경(詩經)』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시경의 국풍 1권 주남(周南)에는 “침덩굴 뺨어, 골짜기로 뺨어가네, 잎들이 뻐뻐하여라, 베어내고 삶아내어, 가는 베 굵은 베 만드네, 옷 입고 좋아하네”라는 문장들이 있다.¹⁵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 ‘갈(葛)’이 사용된 용례를 볼 때 ‘갈의(葛衣)’는 침으로 짠 굵은 베옷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최한기가 1830년경에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해 저술한 『농정회요』에도 침(葛)은 야생인 것도 있고 집에서 가꾸는 것도 있는데 봄에 싹이 나오면 덩굴이 1~2길이나 뻗어 나가고 색깔은 자주색이며 수확한 다음에는 다듬어서 고운 갈포(綺)나¹⁶ 거친 갈포(紵)를¹⁷ 만들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¹⁸ 따라서 ‘갈의(葛衣)’는 침덩굴을 다듬어서 만든 실로 짠 갈포(葛布)를 이용해서 만든 옷으로¹⁹ 중국의 춘추시대 이전부터 등장했고, 한국의 조선 시대에도 이용되었던 옷인 ‘침으로 짠 베옷’을 뜻한다.

한편, ‘갈(褐)’은 ‘갈색 갈’, ‘베옷 갈’, ‘굵은 베 갈’, ‘털옷 갈’을 일컫는 한자이며, ‘갈의(褐衣)’는 ‘갈색 옷’, ‘굵은 베로 짠 옷’, ‘모직물의 털옷’을 의미한다. 중국의 당나라 역사와 함께 주변국에 대해 기록한 구당서(舊唐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나와 있는 고구려(高句麗) 부분에서 “國人衣褐戴弁(국민의갈대변), 婦人首加巾幘(부인수가수귀)”²⁰ 문장이 관찰된다. 신당서(新唐書)의 「동이열전」에서도 고구려 사람에게 대해 기록한 “庶人衣褐(자인의갈), 戴弁(대변), 女子首巾幘(여자수가수귀)”²¹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갈(褐)’은 ‘굵은 베로 만든 옷’으로 해석되며 감물들인 바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褐衣(갈의)’를 ‘감옷’ 즉 감물들인 갈옷의 전신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²² 신당서의 「동이열전」신라(新羅) 부분에도 “男子褐袴(남자갈고), 婦長襦(부장유)”라는 문장이 있는데, ‘갈고(褐袴)’는 신라의 일반적인 여성 복식과 대비시킨 남성 복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신라 백성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던 ‘굵은 베(褐)로 만든 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²³ 감물들인 바지라고 보기 어렵다. ‘갈(褐)’을 ‘베 옷’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조선 시대의 제주에 대해 설명하는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서도 관찰된다. 『남명소승』은 임제가 1577년 11월(선조 10년)에 제주목사인 부친을 방문하여 4개월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동안 제주의 지리, 기후, 역사, 경승, 풍속, 언어, 물산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이 저서에서 제주목사의 질문에 노인이 “베옷 한 벌과 가죽옷 한 벌로 여기서 삼십 년 살아왔답니다”라고 응답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²⁴ 여기에 제시된 “一裘一褐者(일구일갈자)” 문구에서 裘(구)는 겨울철에 착용하는 가죽옷(갓옷)을 의미

하는 것이고, 襦(갈)은 이와 대비되는 따뜻한 계절에 입는 짧은 베틀을 의미한다.

60세 이전까지는 자주 관가의 부림을 받았었죠. 이제는 늙어서 신역이 면제된 이후, 비로소 몸이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풍년 또는 흉년에 따라 밥이 되건 죽이 되건 먹으며, 해가 뜨고 지는 데 따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 쉬곤 하지요. 일을 일부러 벌이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으며, 베틀 한 벌과 솜옷 한 벌로 여가서 삼사십 년 살아왔습니다.²⁵

또한, 갈(襦)이라는 한자에는 ‘털옷 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서 토끼의 털로 만든 모포나 모직물을 토갈(兔襦)이라 일컫고, 낙타의 털로 만든 모포(毛布)를 타모갈(駝毛襦)로 표기한다. 즉 襦(갈)과 襦衣(갈의)는 서민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입었던 옷으로 하등급의 모직물(襦)로 만든 짧은 길이의 포(袍) 형태의 의복(短衣)이다.²⁶ 신라시대와²⁷ 고려시대에는²⁸ 귀족들이 고급 모직물인 ‘계(罽)’로 만든 옷을 착용한 반면 벼슬이 없는 일반 남성이나 천한 계급의 사람들(賤士)은 짐승의 털(毛布)로 제작한 하등급의 모직물인 ‘갈(襦)’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단의(短衣)인 ‘갈(襦)’을 착용하였다. 갈(襦)을 털옷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풍속을 기록한 『시경』이나 중국 송나라 역사와 주변국에 대해 기록한 『宋史(송사)』 등의 고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시경』의 국풍 15권 빈풍(豳風)에는 “동짓달에 찬바람 불고, 선달에는 매섭게 추워진다. 옷과 털옷이 없으면(無衣無襦), 어찌 한해를 넘길까”를 의미하는 문장이 있다.²⁹ 『송사』의 외국열전에 나와 있는 고려(성종 11년, A.D. 992년)에 관한 내용에는 “솜옷과 짧은 털옷을 입고 옥립과 계신에 대한 걱정 속에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유학 기간을 마칠 듯하였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다.³⁰ 여기서도 문맥상 ‘온포(緇袍)’는 솜을 넣어서 만든 두루마기 형태의 의복인 포(袍)를 뜻하고, ‘短襦(단갈)’은 낮은 등급의 모직물로 만든 길이가 짧은 털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공이 고려(인종 1년, A.D. 1091~1153년)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도 ‘短襦(단갈)’이란 한자가 관찰된다. 즉 고려의 사회적 신분과 풍속 및 생활용품에 대해 설명하는 19권(民庶)에 “짧은 갈옷(短襦)을 몸에 걸치지만, 아래에는 바지(袴襦)를 입지는 않는다”라고 번역된 문장이 있다.³¹ 그러나 이 문헌에 따르면 고려에는 “모시(紵)와 삼(麻)을 스스로 심어 많은 사람들이 베틀을 입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을 보아³² 이 문장에 언급된 ‘단갈(襦)’은 짧은 길이의 짧은 베틀이나 하등급의 모직물이나 털옷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감물염색한 갈옷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한문으로 표기된 葛衣(갈의)는 ‘참을 캐어 삶아서 실을 뽑아 베를 짜고 그것으로 만든 참 베틀’을 의미한다. 한문으로 표기된 ‘襦衣(갈의)’는 의미가 중의적이어서 ‘짧은 베로 짠 베틀’ 혹은 ‘동물의 털로 제직하여 거칠고 두꺼운 하등급의 모직물로 만든 옷’을 의미하며, 동물의 털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털옷’으로 표현되기

- 25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 林梯, 「남명소승(南溟小乘)」, 2007. “六十年前 則屢被官家之驅使 而老除之後 始得安逸 饘粥之食 隨歲豐歉 動息之節 隨日出入 無營無欲 一裘一褐者 或三十年 或四十年於此矣”.
- 26 박순지·이춘계, 「명칭으로 본 모직물의 발달-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복식』 21, 한국복식학회, 1994, 24~25쪽.
- 27 김동욱, 「흥덕왕 복식 금제의 연구-신라말기 복식 재구를 중심으로-」, 『동양학』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1, 9쪽.
- 28 박순지·이춘계, 앞의 논문, 25쪽.
- 29 시경(국풍)빈풍(7월) “一之日鶩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襦, 何以卒歲”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2510&Lang=xxx&Page=15>
-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중국정사조선전)송사(외국열전)고려(성종 11년, A.D. 992) “緇袍短襦, 玉粒桂薪, 堪憂食貧, 若爲卒歲”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l&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jo&types=r&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eingInfo=&levell=jo_018r_0010_0010_0150&position=-1
- 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고려시대)선화봉사고려도경(권 19)백성(民庶)주인(舟人) “短襦被體, 下無袴襦”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cnkd&types=o#detail/cnkd_019_0060
-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고려시대)선화봉사고려도경(권 23)풍속(雜俗)2 특산물(土産)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cnkd&bookId=&types=o#detail/cnkd_023_0080

도 한다. ‘褐衣(갈의)’가 둘 중 어떤 뜻을 갖는지는 한문이 표기된 문맥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이 감물염색한 ‘갈옷’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물염색한 ‘갈옷’의 역사를 ‘감(柿), 감즙(柿汁), 감물(柿水), 시염(柿染), 염색(染色), 시칠(柿漆)’ 등의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갈(葛, 褐)’이나 ‘갈의(葛衣, 褐衣)’라는 글자인 경우, 감물염색을 의미하는 한자들과 연결되어 사용되었는지에 관심을 두고 ‘갈옷’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3) 감물과 감물들이기 용어와 한자 표기

제주 사람들은 감즙염색을 ‘감물들인다’고 표현한다. ‘감물’은 감에서 나오는 물을 의미한다. ‘감물’은 한자로 감나무를 의미하는 한자인 ‘시(柿)’와 과실에서 베어나오거나 짜낸 액체를 의미하는 ‘즙(汁)’을 합하여 ‘시즙(柿汁)’으로 표기한다.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 ‘감물’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총 53건이었고, 이 중에서 감물염색과 관련된 것은 42건이었다. 한글로 ‘감물’이라고 표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글과 한자를 함께 써서 ‘감물(柿汁)’이라고 표기하거나 ‘柿汁’이란 한자만 사용해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동아일보에 옷에 묻은 감즙을 ‘감물’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³³ 감물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되었으며, 이 용어는 제주와 관련 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염색과 관련하여 ‘감물’이란 용어가 사용된 기사들인 경우, 절반 이상이 제주와 연관되어 있었다. 감물을 한자 그대로 표기하여 ‘시수(柿水)’라고 표현한 사례도 관찰된다. 즉 조선 시대에 제주 목사로 재임하였던(1765년 8월~1766년 6월) 윤시동이 저술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푸른 색의 털 익은 감을 부수어 나온 감물로 물들인 베옷’이라는 의미의 ‘우이단갈상염청시수(又以短褐嘗染靑柿水)’란 기록이 있다.³⁴ ‘시수(柿水)’라는 용어는 1929년 동아일보에서도 관찰된다.³⁵ ‘감물(柿水)들인 듯한 바지저고리 한 벌’을 묘사할 때 ‘감물’이란 한글과 ‘시수’란 한자가 함께 표기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 시대 고문헌에 표기되었던 ‘柿水’라는 한자 표기가 순우리말로는 ‘감물’을 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물’이란 용어는 조선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조선 시대부터 사용된 ‘감물’이란 용어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감물들이기’는 물들 염(染)을 써서 시염(柿染)이라고 표기한다. 시염(柿染)이란 용어는 조선 시대의 농학자인 유중립(柳重臨)이 1766년 경 저술한 『增補山林經濟(증보산림경제)』³⁶와 실학자 최한기(崔漢綺)가 1830년 경 조선 후기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농정회요』³⁷ 저서에서 감물염색법[柿染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감물들이기’는 뿔은 감으로 물들인다는 의미로 뿔을 ‘삽(澱)’을 추가하여 시삽염(柿澱染)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나무의 잎이 아닌 감나무 열매로 염색한다는 의미에서 열매 ‘자(子)’를 추가하여 ‘시자염(柿子染)’으로 표기하기도 한

33 “세탁강습회에서 강의들은대로(四)”, 『동아일보』 5면, 1930. 11. 19.
 34 윤시동 저, 김영길 역주, 『국역 증보탐라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원, 2016, 148쪽.
 35 “咸興水組工事場監督 住民殺傷事件真相”, 『동아일보』 3면, 1929. 11. 24.
 36 유중립 저, 『증보산림경제 I』, 고농서 국역총서 4, 농촌진흥청, 2003, 160쪽(원문 418~419쪽).
 37 최한기 저, 2006, 앞의 책, 146쪽(원문 472쪽).
 38 임준성, 앞의 논문, 313쪽.
 39 유중립 저, 2003 앞의 책, 160쪽에 “감의 씨”로 번역됨.
 최한기 저, 2006, 앞의 책, 146쪽(원문 472쪽)에는 “열매 1되”로 번역됨.

다. 일부 저서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시염(柿染)’을 감나무 잎으로 염색하거나³⁸ ‘시자염(柿子染)’을 감의 씨를 이용하여 염색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관찰되는데³⁹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문기사들에서는 柿染(시염)이나 柿子染(시자염)이란 한자 용어가 관찰되지 않았다. 감물염색에 대한 한자 표기들 중에서 시삽염(柿澁染)이나 시삽(柿澁)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신문, 감물염색에 관한 일본어 문헌, 일본 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신문에서 관찰된 ‘시삽(柿澁)’이란 한자는 총 12건이었는데, 모두 1927년부터 1946년 12월 이전의 신문들에서 사용되었다. 시삽(柿澁)과 시삽염(柿澁染)에 대한 신문기사들은 주로 뚝은 감의 채취, 생산, 부업, 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조사했던 겐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제주도생활상태조사』⁴⁰와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 『제주도(濟州島)』⁴¹에서도 감물염색은 시삽(柿澁)과 시삽염(柿澁染)으로 표기되어 있다.

감물염색을 시칠(柿漆)이란 용어로 표기한 사례도 있다. 시칠(柿漆)은 감 혹은 감나무를 일컫는 ‘시(柿)’와 옷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칠(漆)’로 구성된 용어이다. 시칠(柿漆)이란 용어는 『농정회요』에 제시된 “搗碎浸汁謂之柿漆(도쇄침즙위지시칠) 可染罽扇諸物(가염증선제물)” 문장에서 보듯이 감즙에 담그는 상황에서도 사용되지만, 물건이나 물체의 표면에 감즙을 칠하는 경우에까지 사용되고 있다.⁴² 조선 후기 영조시대에 살았던(1764~1845) 실학자 서유구(徐有榘)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⁴³ 제2권 ‘섬용지(贍用志)’에도 감물의 제조나 감물의 이용법과 관련한 설명에서 시칠(柿漆), 시칠제법(柿漆造法)이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924년과 1938년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여행과 시칠제조방법에 대한 신문기사에서도 ‘柿漆(시칠)’이란 한자 용어가 2건 등장한다.⁴⁴

요약하면, 감물염색을 의미하는 ‘감물들이기’는 한자로는 시염(柿染), 시자염(柿子染), 시삽염(柿澁染), 시칠(柿汁)로 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 표기는 직물과 의류의 염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재료나 물건을 감물로 염색하거나 감물염료를 칠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에 대한 기록은 조선 시대 이전의 자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40 善生永助 著, 『生活狀態調査(基二) 濟州島』, 朝鮮印刷株式會社印刷, 1929, 135쪽.
- 41 泉靖一著,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212쪽.
- 42 최한기 저, 앞의 책, 145~147쪽(원문 471~473쪽). 괄호 안의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 43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 2」, 풍석문화재단, 2016, 310쪽.
- 44 권덕규, “濟州行 (十六) 濟州의民居”, 『동아일보』 1면, 1924. 8. 27. 권덕규, “濟州行 (十八) 濟州의民居 (三)”, 『동아일보』 1면, 1924. 8. 29. 권덕규, 위의 신문, “單寧原料確保는 柿實로되는 柿漆도 充分”.

2. 조선 시대,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기록은 조선 시대와 그 이후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봉조의 『포암집(圃巖集)』에 실린 「도중잡영(島中雜詠)」 한시와 윤시동의 『증보탐라지』 2권의 문헌에서 ‘감물들이기 옷’에 대한 표현이 등장한다. 다음에서는 이 고문헌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에 대해 제시하였다.

1) 「도중잡영」 한시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감물들이기

윤봉조(1680년~1761년)는 조선 후기 문인이자 학자였으며, 1728년에서 1729년까지(영조 4년~5년) 약 2년 동안 제주 정의현에 유배되었다.⁴⁵ 제주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지은 「도중잡영」이란 한시가 『포암집』에 들어있다. 「도중잡영」 한시에는 “凌雨柿染衣(릉우시염의), 冒雪皮爲帽(모설피위모)”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여기서 ‘凌(릉)’은 능가함 혹은 정도가 지나침을 의미하는 한자로 릉우(凌雨)는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올 때를 말한다. 모설(冒雪)은 눈을 무릅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릉우(凌雨)’라는 단어를 ‘모설(冒雪)’에 대비시키면 문맥상 릉우(凌雨)와 모설(冒雪)은 ‘장마지는 여름’과 ‘추운 겨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柿染衣(시염의)’이다. 이것은 옷에 감물을 들인다는 뜻으로 감물을 들이는 대상이 직물(布, 綿, 織物)이 아닌 옷(衣)임을 의미한다. 「도중잡영」에 나온 이 문장을 통해 제주에서는 추운 겨울에는 가죽으로 만든 ‘가죽감태’ 모자를 쓰고, 여름에는 옷에 감물을 들여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 조선 시대 후기 이전부터 제주에서는 감물들이기 문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제주에 안무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은 1601년 9월부터 1602년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선조 34~35년) 제주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바를 일기체 형식으로 『남사록』이란 책을 저술하였다.⁴⁶ 이 문헌에서 김상헌은 제주 성안에는 감이 많이 있으나 크기가 작고 씨가 많으며 맛이 없다고 하였다.⁴⁷ 1765년 8월부터 1766년 6월까지(영조 41년~42년) 약 1년 동안 제주에 거주했던 제주목사 윤시동 또한 감나무가 제주성 안에 많이 있지만 크기가 어린 감(子柿)만큼 작고 맛도 덜하다고 기록하였다.⁴⁸ 이것은 조선 전기 당시에 식용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크기가 매

45 심규호·주기평·최석원·송인주·김규태, 『제주 한시 300수』, 제주학연구센터, 2022, 131쪽.

46 김상헌 저, 홍기표 역주, 『남사록』, 제주문화원, 2011, 13~18쪽.

47 위의 책, 107쪽.
“柿則本州成中 亦多有之 而小如子柿 多核味薄”

48 윤시동 저, 김영길 역주, 위의 책, 2016, 181쪽.

우 작은 감이 제주에서 자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남사록』에는 제주의 감물들이기 풍속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주 성안에 식용하기 어려운 감이 많았다는 것은 이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도 제주에서 감물들이기 풍속이 있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林臥不防虎(임와불방호) 숲에 누워 있어도 호랑이 걱정 없고
 戶開不警盜(호개불경도) 문 열려 있어도 도둑 경계 필요 없네
 牧兒驅牛去(목아구우거) 목동이 소 몰고 나가면
 嘯聲夜四到(소성야사도) 휘파람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고
 寒風振哀壑(한풍진애학) 차가운 바람이 구슬프게 골짜기에 불어오는데
 村徑葉不掃(촌경엽불소) 마을 길은 낙엽 쌓여도 쓸지 않네
 凌雨柿染衣(릉우시염의) 장맛비 올 때는 옷에 감물들이고
 冒雪皮爲帽(모설피위모) 추운 겨울에는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네
 牛肥載薪多(우비재신다) 살진 소에 땀나무 많이 실어
 歸及蕪夜竈(귀급설야조) 돌아와 아궁이에 불이나 때어야겠네
 今夜善飼牛(금야선사우) 이 밤 소나 잘 먹여
 秋稼滿畦倒(추가만휴도) 가을 벼 논 두둑 가득하겠네
 田家歲功成(전가세공성) 농가 한해 농사 이루었으니,
 喜色動相告(희색동상고) 기쁜 낫빛으로 서로 알리며 다니겠지
 獨有離家客(독유리가객) 홀로 집 떠난 나그네 되어
 眼穿望鄉耗(안천망향모) 눈은 뚫어지게 고향만 바라보네
 滿目非我故(만목비아고) 눈에 가득 보이는 풍경은 내 고향이 아니니
 歸心農旌羶(귀심농정독) 돌아가고픈 마음 깃발처럼 나부끼네⁴⁹

따라서 향후 다른 고문헌들의 발굴과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의 감물들이기 역사가 「도중잡영」 한시가 지어진 시기보다 앞선 약 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도중잡영」 한시가 지어진 시기가 윤봉조가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1728~17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시염법(柿染法)이나 시칠제법(柿漆造法)이란 용어로 감물염색을 소개하고 있는 유증립의 『증보산림경제』가 저술된 시기(1766년), 최한기의 『농정회요』가 저술된 시기(1830년),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저술된 시기(1806~1836년)보다 앞선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가 다른 지역에서의 감물염색보다 더 빨리 성행했을 가능성도 높다. 다른 지역에서 행해졌던 감물들이기와의 연관성 파악은 다른 지역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49 윤봉조 지음, 『포암집』 「도중잡영」의 10번째 한시. 심규호·주기평·최석원·송인주·김규태, 앞의 책, 134쪽; 허복구·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 화와 감물염색』, 세오와 이제, 2013, 42쪽.

2) 『증보탐라지』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감물들이기

「도중잡영」 한시를 통해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제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윤시동의 『증보탐라지』를 통해서도 제주의 감물들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윤시동은 1729년에 태어나서 1797년까지 살았던 학자로 1765년 8월부터 1766년 6월까지(영조 41년~42년) 약 1년 동안 제주목사로 재임하였다.⁵⁰ 『증보탐라지』는 제주의 생활상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이 문헌에는 조선 시대 목화와 마의 재배 상황, 제주에서 사용되었던 직물의 유형, 제주 사람들이 착용했던 의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의복의 종류로는 개 가죽 옷, 오소리 가죽 모자, 가죽 행진, 가죽 버선, 감물들이 옷이 제시되었다. 즉 “又以短褌嘗染靑柿水(우이단갈상염청시수) 其色赤黑(기색적흑) 雖旬月不濯(수순월불탁) 曾不汗汙(증불한오) 農家尤爲好着(농가우위호착)”이라는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에 감물들이기 풍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 조선 시대 감물들이는 원료, 감물들이는 대상, 감물들이는 소재, 감물들이는 옷의 색상과 기능에 대해 엿볼 수 있다.

‘染靑柿水(염청시수)’라는 문구에 근거할 때 조선 시대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의 원료는 푸른색의 털 익은 풋감이며, 풋감에서 짜낸 액체인 감물(柿水)을 이용하여 염색함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풋감을 육지로부터 가져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감물들이는 원료는 제주산이라고 볼 수 있다. ‘단갈(短褌)’이란 단어를 통해 조선 시대 제주에서 감물을 들였던 대상은 천이 아닌 옷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선 시대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옷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즉 “又以短褌嘗染靑柿水” 문장에 등장하는 ‘단갈(短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에 여지가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갈의(褌衣)는 중의적인 의미(베옷, 모직물 털옷)를 보이는 한자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여기서 ‘단갈(短褌)’은 감물들이기가 가능한 소재여야 하므로 ‘베로 짠 옷’이라는 점이나 ‘짧은 길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감물을 들이는 단갈(短褌)의 형태는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단갈(短褌)을 제주 사람들이 농사일할 때 입는 짧은 길이의 바지인 ‘베잠방이’로 해석하기도 하지만⁵² 단갈(短褌)을 베로 만든 갈의(褌衣)의 일종으로 짧은 포(袍) 형태의 의복인 단의(短衣)로 보는 학자도 있다.⁵³ 따라서 이 문장에 등장하는 단갈(短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료나 더 많은 사료가 필요하다.

한편, ‘기색적흑(其色赤黑)’이란 문구로 볼 때 조선 시대에 감물들이 입었던 옷의 색상은 검붉은 색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그리고 감물들이는 옷은 ‘농가우위호착(農家尤爲好着)’이란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농가에서 농부가 밭일할 때 입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순월불탁(雖旬月不濯), 증불한오(曾不汗汙)’란 문장은 감물들이는 옷은 자주 세탁하지 않아도 더러움을 타지 않을 만큼 땀과 오염에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제주 사람들은 조선 시대부터 감물들이는 옷의 장점이나 기능성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으로 축적하고, 감물들이는 옷을 밭일하는데 지혜롭게 활

50 윤시동,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index/GC00701548?category=%EC%9D%B8%EB%AA%85&depth=2&name=%EC%82%AC&page=13&search=%EC%8B%A0%EA%B4%91%EC%A7%91>

51 윤시동 저, 김영길 역주, 앞의 책, 148쪽.

52 위의 책, 148쪽.

53 김동욱, 앞의 논문, 9쪽.

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정 면에서만 약간씩 목화를 재배한다. 그러나 꽃을 맺음이 매우 적어서 육지와는 크게 다르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마(麻)를 재배하여 베를 짜서 이것으로 추위와 더위(寒煖)⁵⁴에 의지한다. 간혹 저고리에 솜을 대신하여 베를 찢어서 넣기도 한다. 남자는 몸에는 개가죽 옷을 입고 머리에 오소리 가죽 모자를 쓰며, 발에 가죽 행진을 차고 가죽 버선을 신어서 추위를 막는다. 이것이 없으면 발가락이 병들고 혈이 터지게 된다. 또 푸른색의 털 익은 감을 부수어 만든 감물을 이용하여 베잠방이에 물들이면⁵⁵ 그 색이 검붉은데, 비록 열흘이나 한 달을 빨지 못해도 땀으로 더러워지지 않으니 농가에서 더욱 즐겨 입는다.⁵⁶

요약하면, 제주의 감물들이기 역사는 윤봉조가 지은 「도중잡영」 한시의 배경(1728~1729년)이 되었던 조선후기에 근거하여 약 300년 이전인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서 감물들이기에 사용되는 식용이 불가한 매우 작은 감이 조선 전기, 제주에서 자생했다는 『남사록』의 기록을 감안할 때,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약 4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전승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조선 시대 제주에서 감물 들이는 데 사용한 원료는 털 익은 풋감이었고, 감물을 들이는 옷은 주로 베옷이었으며, 감물들인 옷의 색상은 검붉은 색상이었고, 감물들인 옷의 장점은 빨지 않고 오래 입어도 땀으로 더러워지지 않는 점이다. 조선 시대 제주에서 감물들인 옷은 주로 농가의 농부들이 착용하였다.

54 원본은 한환(寒煖)으로 추위와 더위를 의미하는 한난(寒煖)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발레(發乃)는 방한용으로 개가죽을 사용하여 각반처럼 만든 물건을 이르는 제주 방언이다. (역자 붙임)

55 “短褌”을 하의에 국한하여 베잠방이로 해석하였음.

56 윤시동 저, 김영길 역, 『증보 탐라지』, 2016. 大靜面只有若干木花而結花甚小與陸地大異. 峽村之民畊麻織布 寒煖是資. 間有襦納者以破布代絮. 男則身着狗皮衣 頭戴土猪皮帽子 下着皮行纏俗稱發乃皮襪履. 乃得禦寒. 無此則指爲疲殘. 又以短褌嘗染青柿水, 其色赤黑, 雖旬月不濯 曾不汗汗, 農家尤爲好着.

3.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문화

제주에서 일제강점기 후반까지도 감물염색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겐쇼 에이스케가 1927년에서 1929년까지 2년 동안 제주를 방문하여 관찰한 내용을 보고한 『제주도생활상태조사』, 1937년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저술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 1924년부터 1938년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6건의 제주기행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문헌과 제주기행문을 통해 파악된 감물들이기 옷의 종류와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에 대해 제시하였다.

1) 일제강점기, 감물들이기 옷의 종류와 형태

『제주도생활상태조사』 보고서는 1929년에 발행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제주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제주는 육지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겐쇼 에이스케에게 촉탁하여 『제주도생활상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겐쇼 에이스케가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1929년에 일본어로 작성하였고, 홍성목이 1929년 당시 이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제주도생활상태조사』 보고서에는 흰색 옷이 많은 육지에 비해 제주에는 감물들이기 적갈색 옷이 많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감물염색이 조선 시대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제주에서 성행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착용했던 의복의 종류들은 제시되었지만, 어떤 종류의 옷에 감물을 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감물들이기 옷을 지칭하는 명칭이나 용어 또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겐쇼 에이스케는 “柿澁を施したる赤褐色のものがい”라는 문장을 통해⁵⁷ 당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성인 남녀들이 입는 옷들 중에서 여름용 홉겹의 삼베옷에는 감물들이기 붉은 갈색의 옷이 많았다고만 기록하였다.

남자의 복장은 육지부의 복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성년 남자로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지, 저고리, 토시, 버선, 대님, 허리끈, 두루마기를 입고 봄·가을에는 하양 면제품의 겹옷, 여름에는 삼베의 홉옷(감물을 들인 붉은 갈색 옷이 많다), 겨울에는 하얀 누비 솜옷을 입는다. -중략- 색상은 흰색이 가장 많

고, 그 밖에 쥐색, 갈색, 검은색 등이 있다. -중략-

성년의 여자로서 농업 혹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고리, 치마, 바지, 속바지, 버선,⁵⁸ 허리끈 등을 사용하고 봄, 가을에는 흰천으로 된 겹옷, 여름에는 삼베로 된 홑옷(감즙으로 염색한 적갈색옷이 많다), 겨울에는 하얀 솜옷을 입고 있다. -중략- 의복의 재료는 비단 면 무명 삼베 등을 쓰고 색배합은 치마는 흰색, 곤색, 검정, 청색 및 갈색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흰색이다.⁵⁹

제주에서 감물을 들이는 옷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헌은 1937년에 제주를 방문하고 20일간 제주의 생활상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문헌이다.⁶⁰ 이 문헌 또한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1966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후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제주도』 문헌에 따르면 1937년 당시 제주 사람들은 푸른 감을 돌 위에서 빵아 물을 약간 섞은 것에 무명 옷이나 삼베 옷을 담가 감물을 들였다.⁶¹ 이즈미 세이치는 감물들인 옷을 시삽의류(柿澁衣類)라고 표기하고 감물들인 옷의 종류를 시삽유의(柿澁褌衣), 시삽남자고의(柿澁男子袴衣), 시삽여자고의(柿澁女子袴衣)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즈미 세이치는 일어로 작성한 『제주도』 원문에 감물들인 옷과 감물들인 옷의 종류를 현재 제주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였다.⁶² 즉 시삽의류를 갈옷(kalot)으로 표기하는 한편 남자와 여자가 상의에 착용하는 감물들인 저고리인 ‘시삽유의’를 갈적삼(kal-joksan)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감물들인 남자 바지인 ‘시삽남자고의’는 갈중이(kaljung)로 표기하였으며, 감물들인 여자 바지인 ‘시삽여자고의’는 갈굴중이(kal-kuljung)로 표기하였다

『제주도』 문헌에 따르면 당시 제주의 남녀가 착용했던 갈적삼은 육지에서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즈미 세이치는 남자가 하의에 착용하는 감물들인 홑겹의 바지인 갈중이는 그 제작법이 육지와 다르며, 그 형태는 무릎 슬관절(膝關節) 부분에서 갑자기 좁아지고, 무릎 슬관절과 복사뼈 부위 두 군데를 끈으로 묶는 형태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갈중이의 형태가 남자용 한복 바지와 동일하다고 제시한 고부자의 의견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⁶³ 추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즈미 세이치는 일제강점기에 여자가 하의에 착용한 갈굴중이를 허리부터 슬관절까지는 일본의 몸뻬(もんべ)처럼 주름이 잡혀있고, 무릎 밑으로는 매우 좁아진 형태라고 설명하였으며, 남자 바지와 마찬가지로 두 군데를 끈으로 묶는다고 기술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즈미 세이치가 이 두 옷의 형태가 유사하다고 하였지만, 갈굴중이와 몸뻬는 근본적으로 다른 옷이라는 점이다.

즉 몸뻬는 1937년 중일전쟁에 이은 1941년 태평양 전쟁 때 국내로 들어온 일본 옷으로 영덩이 품과 바지통이 넓지만 허리와 바지 부리에 고무줄을 넣은 옷으로 허리와 발목 부위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⁶⁴ 즉 이즈미 세이치의 설명은 바지 통이 매우 넓은 갈굴중이를 착용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갈굴중이 착용 모습이 몸뻬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갈굴중이는 허리에 넓은 단이

57 善生永助 著, 앞의 책, 136쪽.
58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자,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우당도서관, 2002, 100~104쪽, 116쪽.
일본어 원문에 이 표기는 없지만 그림에 버선(말)이 표기되어 있어 홍성목 역자가 추가함.
59 겐쇼 에이스케 저, 앞의 책, 같은 쪽.
60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濟州島 V』, 제주: 경신인쇄사, 2010, 309~310쪽.
이즈미 세이치 지음, 김종철 옮김, 『제주도: 1935~1965』, 서울: 여름 언덕, 2014, 242~243쪽.
61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앞의 책, 309~310쪽.
62 泉靖一著, 앞의 책, 212~213쪽.
63 고부자,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47~48쪽.
64 조우현·김미진,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통해 본 한국패션」, 『복식』 65(7), 2015, 137쪽.

달리고, 허리 밑으로 주름이 많이 잡히고, 바지통 또한 매우 넓은 단속곳인 굴중이에 감물을 들인 것이다.⁶⁵ 몸뻐는 국내에 도입될 당시인 1940년경에는 조선총독부의 강요가 있었지만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⁶⁶ 이것은 조선 시대 여자 바지들 모두가 속옷 용도였고, 여자의 속옷은 가랑이가 터져있어서⁶⁷ 바지 형태의 옷을 겹옷으로 입는데 거부감이 컸기 때문으로 1950년 6.25전쟁 전까지 착용이 저조하였다.⁶⁸ 따라서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초에 제주에서 갈몸뻐가 입혀졌다는 의견이 있지만⁶⁹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를 방문한 1937년 당시에는 갈굴중이가 입혀지고 갈몸뻐는 입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이즈미 세이치가 제시한 옷 이외에 다른 옷에도 감물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서 “농군이 감물들인 잠빵능걸이에 커다란 정당벌립을쓰고 삼을메고가는양이”라는 문장을 통해 감물을 들이는 옷 중에는 ‘잠빵능걸이’라는 옷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8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 나와 있는 “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펄분 감물(柿汁)을 물들여”라는 문장을 볼 때,⁷⁰ 일제강점기에는 치마에도 감물을 들여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즈미 세이치가 작성한 『제주도』 문헌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치마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흔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漢孛山(한라산)이 視力範圍(시력범위)안에 들어와 서기는 실상 楸子島(추자도)에서도 훗석 이전이였섯는데 -중략- 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펄분 감물(柿汁)을 물들여 그비치赤土色(적토색)과 다를 데가 업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흙과 비에 젖지 안흐며 바다와 산에서 능히건딜 수 잇는것이니 예로부터 도적과 습유가업고 악날과 허풍이 없는 묘묘한 양상 약토에 핏파가리 아름다운 의상이 아니고 무엇이오리까!⁷¹

- 65 고부자, 1994, 앞의 논문, 40쪽.
- 66 조희진, 「몸뻐를 통해 본 의생활의 전통과 외래문화」, 『실천민속학연구』 4, 실천민속학회, 2002, 155~157쪽.
- 67 고부자,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3, 제주학회, 1986, 148쪽.
- 68 조우현·김미진, 앞의 논문, 139쪽.
- 69 고부자, 앞의 논문, 1972, 48~49쪽
- 70 정지용, “海邊風情記 南海篇 多島海記 (五) 一片樂土”, 『조선일보』 5면, 1938. 8. 28.
- 71 위의 신문.
- 72 고부자, 앞의 논문, 1994, 69쪽.
- 73 위의 논문.



문신생(여, 1911년생) 제주시⁷²
굴중이



밭일하는 여인들 (1910년대)⁷³
갈적삼, 갈굴중이

〈사진 9〉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과 갈굴중이

2) 일제강점기의 감물들이기

일제강점기의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 문화는 감물을 들이는 원료, 감물을 들이는 대상, 감물들인 옷의 소재와 색상, 감물들인 옷의 기능성과 용도, 감물들인 옷의 의복규범, 감물들인 옷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1924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들에서 “떨분 감물(柿汁)을 물들여”⁷⁴, “柿澁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⁷⁵이라는 표현을 볼 때, 조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도 감물들일 때 사용한 감물의 원료는 덜 익은 풋감이었다. 이것은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 문헌에서 1937년에 제주에서 관찰한 옷이 짧은 감으로 염색된 옷이었다는 점에서 ‘시삽의류’로 표기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감물을 들이는데 사용한 풋감은 조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자생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⁷⁶ 그리고 제주기행문에 나오는 “필자의 제의복(製衣服)에는 감물 작욕(作慾)을 무한(無限)이을 들여 입으며”라는 문장을 통해⁷⁷ 일제강점기에도 감물을 들이는 대상은 옷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교통이 불편 속에 별다른점한만치 언어품 이만다. 쇠털병생활은 검소하기 짝이없다. 남녀를 물론하고체격이 크고 완강하여 생기를피운 미학적미남녀가 만하치와 초경모에서 ‘필자의 제의복(製衣服)에는 감물 작욕(作慾)을 무한(無限)이을 들여 입으며 도끄은곳이다.’⁷⁸

석양때쯤하야 농군이 감물들인잠빵능걸이에 커다란 “정당벌립”을쓰고 삼을 메고가는양이 미상불고인을 보는 듯 순박고아하기 짝이없다.⁷⁹

특히, 조선 시대에는 무명보다 주로 베옷에 감물을 들였다면, 일제강점기에 감물을 들이는 옷의 소재는 쑤(葛袍), 삼(麻布), 거친 베 외에 무명, 고운 베, 모시까지 더욱 확장되었다. 이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 등장한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김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넣은 것은”,⁸⁰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가”,⁸¹ “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떨분 감물(柿汁)을 물들여”⁸², “綿布(면포), 柿澁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 活動的(활동적)인 作業服(작업복)이었으나”⁸³ 등의 표현을 통해 파악된다.

감물들인 옷의 색상은 “떨분 감물(柿汁)을 물들여 그비치赤土色(적토색)과 다를데가 없습니다”⁸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붉은 갈색이다. 이것은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이란 문구로도 뒷받침된다.⁸⁵ 또한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 문헌에서도 제주의 감물들인 옷은 적갈색이었다고 한 점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제주기행문에 등장하는 “이 물색은 오색이나 칠색에 들지안는 감물이다. 시골에서만 볼 희한한빛갈이다”⁸⁶라는 문장을 볼 때, 감물들인 옷은 오방색에도 속하지 않고 흔히 일컬어지는 전통 색상도 아니어서 외지인들에게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하고 특이한

74 정지용, 앞의 신문.

75 노익환, 寶庫濟州島視察記(中), 『동아일보』 1면, 1946. 12. 20.

76 김상헌 저, 흥기표 역주, 앞의 책, 107쪽.

77 황야, “八道風光(六其)”, 『동아일보』 3면, 1935. 10. 4.

78 위의 신문.

79 권덕규, 『동아일보』, 1924. 8. 27.

80 위의 신문.

81 김기림, “生活海戰從軍記 七 濟州島 G 海女篇”, 『조선일보』 3면, 1935. 8. 9.

82 정지용, 앞의 신문.

83 노익환, 앞의 신문.

84 정지용, 앞의 신문.

85 김기림, 앞의 신문.

86 권덕규, 앞의 신문.

색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색 조흔 해주라더니 해주의 물색은 다업서저버리고 제주에는 아즉도 제주 색이 남아있다 이 물색은 오색이나 칠색에 들지안는 감물이다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깎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넘은 것은 미상불(未薺不)이 시골에서만 볼 희한한빛같이다. 이것을 못보신이에게는 안좌이득으로 제주가지안코구 경할길이잇스니 잠간종로에건일것가트면 무슨옥이무슨춘이의 열분치마속으로 아난듯그런듯빛치는노란속것빛이다.”⁸⁷

한편, 일제강점기 제주 사람들은 조선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물들인 옷의 기능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즉 “흙과 비에 젖지 안흐며 바다와 산에서 능히 견딜 수 잇는것이니”⁸⁸, “석양때쯤하야 농군이 감물들인잠뽕능겉이에 커다란 정당 별립을쓰고”⁸⁹라는 문구들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에도 감물들인 옷은 흙이나 먼지를 잘 타지 않는 방오성을 비롯하여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과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수성이 높은 옷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비에 잘 젖지 않는 장점이 인식됨에 따라 조선 시대 농부의 옷으로 입혀지던 감물들인 옷이 일제강점기에는 밭이나 들에서 일하는 농업은 물론 산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목축업이나 어업과 관련한 일까지 착용 용도가 확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제주기행문에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깎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넘은 것은”⁹⁰이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제강점기에는 집안 생활에서도 감물들인 옷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漢拏山(한라산)이 視力範圍(시력범위)안에 들어와 서기는 실상 楸子島(추자도)에서도 훗석 이전이였서겻는데 -중략- 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떨분 감물(柿汁)을 물들여 그비치赤土色(적토색)과 다를 데가 업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흙과 비에 젖지 안흐며 바다와 산에서 능히견딜 수 잇는것이니 예로부터 도적과 습유가업고 악날과 허풍이 없는 묘묘한 양상 약토에 핏파가리 아름다운 의상이 아니고 무엇이오리까!⁹¹

주목할 점은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의 착용과 관련한 의복규범이 있었다는 점이다. 1935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는 “일할때에는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가도 외출할경우에는 말속한 한산세모시를 갈어입고는 머리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선다”⁹²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또한 이즈미 세이치는 1937년 당시 외출복에는 감물을 들이지 않았으며, 감물들인 옷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 일도 없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주 여성들은 사십여자고의(갈굴중이)를 농사나 작업 상황에서는 입을 수는 있지만, 공도(公道)에서는 감물들인 바지 위에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를 꼭

87 권덕규, 앞의 신문.

88 정지용, 앞의 신문.

89 권덕규, 앞의 신문, 1924. 8. 29.

90 권덕규, 앞의 신문, 1924. 8. 27.

91 정지용, 「조선일보」, 1938. 8. 28. 괄호 안의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92 김기림, 앞의 신문.

입어야 하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되었다.⁹³ 이즈미 세이치는 이와 관련하여 해촌 여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마을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받은 실제 사례를 『제주도』 문헌에 소개한 바 있다.

섬의여자들은 도모지 번적번적하는 인조건의 호화를 즐길줄 모른다. 그대신 무명이나 베나 모시의질박을 사랑할줄을 안다. 일할때에는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가도 외출할경우에는 말속한 한산세모시를 갈어입고는 머리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선다.⁹⁴

한편,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제주의 감물들인 옷은 양면적 측면에서 인식되었다. 즉 “섬의여자들은 도모지 번적번적하는 인조건의 호화를 즐길줄 모른다. 그대신 무명이나 베나 모시의질박을 사랑할줄을 안다”⁹⁵라는 문장에서 보듯이 외지인들은 감물들인 옷을 주로 착용하는 제주 사람들의 의생활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현대문화를 호흡못한 고색창연한 존재”⁹⁶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신문에 실린 외지인들의 기행문 모두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는 일제강점기에도 이색적이고 독특한 제주만의 고유한 향토 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기행문에 제시된 “물색 조흔 해주라더니 해주의 물색은 다업서저버리고 제주에는 아즉도 제주색이 남아있다”, “이것을 못보신이에게는 안좌이득으로 제주가지안코구경할길이잇스니”⁹⁷ 등의 문장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도 향토적인 염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거의 사라지고 제주의 감물들이기 풍속만이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漢拏靈山(한라영산)을 中心(중심)하여 島內(도내)의 海岸沿線(해안연선) 四百餘里(사백여리)를 一週(일주)하는 동안 一중략 나무를 지고가는 耆(자)도 女子(여자), 우마차를 고는 耆(자)도 女子(여자), 물을 지러가는 耆(자)도 女子(여자)이며, 짐지지만코 지내는 女子(여자)가 없고 服色(복색)은 手織(수직), 綿布(면포), 柿澁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 活動的(활동적)인 作業服(작업복)이었으나 모도가 現代文化(현대문화)를 呼吸(호흡)못한 古色蒼然(고색창연)한 存在(존재)였다.⁹⁸

요약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조선 시대의 감물들이기가 일제강점기 후반까지도 계속 전승되었으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남녀 모두가 일상적으로 감물들인 옷을 착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천이 아닌 옷에 감물을 들였다. 감물들이기에 사용된 원료는 털 익은 짧은 감이고, 감물을 들이는 옷의 소재는 칩, 베, 마 이외에 모시와 무명도 포함되어 조선 시대보다 감물을 들이는 옷의 소재가 더 확장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외출복에는 감물을 들이지 않았으며, 감물들인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감물을 들인 옷의 색상은 붉은 갈색으로 흙에 쉽게 더러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결에 쉽게 젖

93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앞의 책, 397쪽. 홍성목은 갈굴중이를 설명하면서 굴중이라고 표기하고 있음. 갈굴중이는 굴중이라는 옷을 감물들인 것으로 치마 속에 입는 속옷인 굴중이가 외의화 된 것.

94 김기림, 앞의 신문.

95 위의 신문.

96 노익환, 앞의 신문.

97 권덕규, 앞의 신문.

98 노익환, 『동아일보』, 1946. 12. 20. 괄호 안의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지 않는다는 경험적 지식이 전승됨에 따라 일제강점기 제주 사람들은 갈옷의 용도를 농림어촌의 활동에 필수적인 노동복으로도 그 쓰임새를 확장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감물들인 옷의 종류로는 남자용 갈적삼과 갈중이를 비롯하여 여자용 갈적삼과 갈굴중이가 있었으며 치마와 잠뱅능걸이에도 감물 들여서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외지인들에게 이색적인 제주만의 독특한 향토문화로 인식되었다.

4. 옷에 감물들이기, 제주의 지역적 차별성

1)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

제주는 화산섬으로 태생 자체가 육지부와 다르며, 이것은 제주 사람들의 의식주는 물론 행동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제주의 감물들이기가 옷에 특화된 배경 또한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에 기인한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의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조선 시대 제주 사람들에게 농업 활동은 어업과 목축보다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생업 활동이다.⁹⁹ 화산섬이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주의 토양 대부분은 화산 폭발로 나타난 화산재가 퇴적층을 이루어 형성된 화산회토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⁰ 다공성이 특징인 화산회토는 입자가 가벼워서 모래나 먼지처럼 바람에 쉽게 날릴 뿐만 아니라 수분을 함유하지 못해 점착력이 약하고 건조하여¹⁰¹ 척박한 농토의 원인이 된다.

조선 시대 1601년 8월부터 1602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제주에 살았던 김상헌은 『남사록』에 “흙의 성질은 푸석하고 건조하여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몰아서 밟아줘야 한다”¹⁰²고 썼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물들이 옷은 제주 사람들이 척박한 농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활문화로 제주의 농경문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밭에서 일하는 제주 사람들은 옷에 달라붙거나 옷 속으로 파고드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삶의 지혜로 감물들이 옷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감물은 점착력과 결착력이 강해 옷에 감물을 들이면 실과 실 사이, 섬유와 섬유 사이의 미세 공간을 메꾸어 옷의 표면을 코팅한 효과가 나타나¹⁰³ 먼지, 빗방울, 이슬을 쉽게 털어내거나 물결에 젖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다공성의 화산암류가 많은 제주의 경우,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드는 토질로 인하여¹⁰⁴ 높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물과 식수가 귀하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항균성과 방부성이 높은 풋감과 감물을 이용하여 염색한 옷은¹⁰⁵ 세탁을 자주 안 해도 썩지 않아 제주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물들이 옷은 물결에 자주 노출되어 쉽게 젖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쉽게 썩을 수 있는 어업 활동에도 매우 적합했을 것이다. 즉 제주에서 옷에 감물을 들이는 풍속이 발달한 것은 감물들이 옷이 화산섬이란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농업, 바다라는 생업 활동, 가시덤불에 굽히기 쉬운 한라산 증산간에서의 목축 활동 모두에 유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99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 I, 일신출판사, 2009, 558쪽.

100 현해남, 앞의 논문, 5쪽.
현해남·장공만·오상실·정종배, 「Groundwater Ubiquity Score를 이용한 제주도 토양 특성별 농약의 지하수 오염가능성 평가」, 『농약과 학회지』 11(3), 한국농약과학회, 2007, 144쪽.

101 현해남, 앞의 논문, 5쪽, 8쪽, 12쪽.

102 윤시동 저, 김경길 역, 앞의 책, 146쪽, 148쪽.

103 홍희숙·김기억,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펠트가 혼합된 줌치 한지의 감물염색에 따른 강도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45(6), 한국 의류학회, 2021, 1036~1037쪽, 1045쪽.

홍희숙·김기억,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줌치한지 종이소재의 강도 변화- 감물염색가공 여부와 감물농도 차이에 따른 변화」, 『한국의류학회지』 42(2), 한국의류학회, 2018, 230~231쪽.

104 현해남, 앞의 논문, 5쪽, 11쪽.

105 이혜선, 「갈옷 연구」, 『제주도연구』 19, 제주학회, 2001, 342쪽.

한영숙, 「감즙과 감즙 염색 면직물의 항균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대한가정학회, 2005, 122~123쪽.

이정숙, 「이조 중기 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5쪽.

한편, 1965년 7월 당시로서는 약 350년 전이고 현재로서는 약 408년 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물들인 면직물이 광주 무등산에서 출토된 바 있다. 출토 당시에 이 유물은 감이 갖는 방부성을 이용해 망자를 덮는 용도의 면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⁰⁶ 이 면직물 유물이 옷의 일부 혹은 옷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된 옷감은 아니지만,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직물이나 옷에 감물을 들이는 문화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허복구는 전라남도 진도에서도 옷에 감물을 들이는 문화가 있었음을 『근대 전남 진도의 감물염색 기술과 문화』에서 제시하였다. 이 문헌에서는 진도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1940년대 전후에 있었던 감의 이용과 감물들인 옷의 착용에 대해 면담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허복구는 감물염색이 진도 고유의 향토문화인지, 아니면 해남 지역의 염색문화가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진도에 오래 남아 있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40년대 전후까지 진도에서는 옷에 감물을 들였던 것으로 기술하였다.¹⁰⁷

그러나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들이기는 물들이는 방법, 절차, 횡수 및 발색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진도의 감물염색과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진도의 감물염색은 풋감을 따서 절구에서 공이로 감을 파쇄한 후, 옷을 절구에 넣어 1차로 감물을 들여 건조시키고, 풋감을 파쇄한 절구에 건조시킨 옷을 넣어 2차로 감물을 들인 후 건조만 시키고 발색 단계 없이 감물염색한 옷을 착용하였다. 아니면 1차로 감물염색한 옷을 건조시킨 후 시궁창 흙에 옷을 묻은 후 꺼내서 수세 후 2차 염색을 한 후 착용하였다.

반면 제주에서는 나무로 만든 낭도고리 혹은 돌로 만든 돌확에 풋감을 넣고 덩드렁마개로 빵아서 감물을 처음 들이면 옷을 착용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로 감물을 들이는 재염색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신 1차로 감물을 들인 후에는 맹물과 햇볕에 건조 시키는 ‘바래기’ 과정만 여러 번 반복하여 색을 낸 후에 감물들이기를 완료한다. 즉 감물들인 옷을 착용하기 전에 2차로 감물염색을 하거나 진흙염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주와 진도에서 감물염색에 사용하는 풋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의 감물들이기에 사용하는 풋감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풋감에 비해 탄닌 성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는 이미 학계에서 알려진 바이다. 즉 탄닌 성분이 많은 풋감으로 감물을 들이는 제주에서는 2차로 감물염색을 추가하거나 진흙 속에 있는 철을 매염제로 이용할 필요 없이 물과 햇빛에서의 건조만으로도 충분히 색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진도의 이러한 감물염색 내용은 1940년대 전후에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95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조선 시대 후기 이전부터 제주에서 입혀졌던 감물들인 옷과 제주에서 행해졌던 감물들이기 문화는 현대사회와 현대 기술의 변화에 발맞추어 현재까지 300년 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또한, 옷에 감물들이는 제주지역의 문화는 조선 시대에 전국의 산이나 농촌의 생활을 망라하여 저술된 『증보산림경제』¹⁰⁸, 『농정회요』¹⁰⁹, 『임원경제지』¹¹⁰에 설명되어 있는 감물염색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헌들에서 설명하는 감물염색 방법(柿染法, 柿漆造法)에 따르면 감을 찢어서 부순 감즙에 담그는 방법은 유

106 위의 논문, 2쪽, 38쪽.

107 허복구·박지혜, 앞의 책, 22쪽.

108 유종림 저, 앞의 책, 160쪽(원문 418~419쪽).

109 최한기 저, 앞의 책, 147쪽(원문 471~473쪽).

110 서유구, 앞의 책, 310~311쪽.

사하지만, 감물염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짧은 감에 제한되지 않는 점이나 감즙을 하루 이틀 묵혔다가 이용하는 점은 제주의 감물들이기 방법과 다르다.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는 발효감이나 묵힌 감이 아니라 감을 따서 그날 바로 염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제주도 주부가 동아일보에 게재한 '제주 갈옷'이란 글에서 표현한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찧어 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¹¹ 진성기 또한 제주에서는 "생감(풋감)"을 빵아 나온 짧은 물로 염색한다고 설명하였다.¹¹² 이와 같이 풋감을 따자마자 바로 감물을 만들어 염색하는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발효 감물을 주로 이용하는 일본의 전통 감물염색과도 다른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¹¹³

감물을 들이는 방법은 감씨[柿子]1되를 찧어 부수고 물 반 되를 부어 4~5시간 정도 뒤섞어 두었다가 짜서 물감을 취한다. 찌꺼기를 말렸다가 물을 재차 취해도 된다. 우산을 만드는데 쓸 수 있다.¹¹⁴

비시(裨柿)는 일명 칠시, 일명 녹시, 일명 청비, 일명 화비, 일명 적당시이니, 감나무 중에 작고 낮은 것을 말한다. 강주, 회주, 선주, 흡주, 형주, 양주, 민주, 광주 등지에서 나는데 비록 익더라도 짙은 녹색이며, 크기는 살구만 하다. 맛은 달아서 날로 먹을 만하며, 찧어 부수어서 즙에 담그는 것을 시칠(柿漆)이라고 일컫는데 어망이나 부채(扇) 등의 물건을 염색할 수 있다. -중략- 우리나라 동남쪽 바다 등지에 감이 있어, 푸른색이 나는데 비록 상강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고 먹으면 맛이 달아서 단감[甘子柿]이라고 부른다.¹¹⁵

한편,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작성된 『임원경제지』에도 옷에 감물을 들였다는 내용은 없다. 즉 "染紙爲衣(염지위의) 爲行李裹(위행이과) 染布爲酒搾袋(염포위주착대)"라는 문장이 나오지만, 이것은 의류용 종이¹¹⁶에 감물을 들이거나, 여행용 행낭 보자기에 감물을 들이거나, 베와 같은 천에 감물을 들여 술 짜는 포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¹¹⁷ 그리고 192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의 신문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감물염색이나 갈옷이 다른 지역과 연관되어 나타난 사례가 없었던 점과 제주기행문에서 감물염색이나 갈옷이 매우 기이하고 제주만의 특색이라고 서술된 점을 고려할 때¹¹⁸ 1940년대에 진도지역에서 감물염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주에서만 성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물을 옷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활용한 사례는 일제강점기의 신문기사들에서도 관찰된다. 이것은 김제에 거주하는 독자가 그물을 오랫동안 보존하여 사용하기 위해 질문한 시삽제조법(柿澁製造法)에 대한 답변¹¹⁹ 배나무의 병충해 예방을 위해 시삽을 도포하는 것에 대한 글¹²⁰ 원료청시(原料淸柿)를 절구에 찧어 압착하여 감즙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료시칠(原料柿漆)을 다양한 종류의 종이, 기구, 건축재료, 선박 등의 내구력 강화, 방부, 방수, 결착과 같은 기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글에서도 알 수 있다.¹²¹ 이외에도 강화도¹²², 의성군¹²³ 등에서 부업으로 시삽(柿澁)을 생산하거

111 문혜숙, "濟州의 갈옷", 『동아일보』 7면, 1965. 9. 9.

112 진성기, 앞의 책, 1969, 257쪽.

113 박순자, 「한국과 일본의 감즙 제조와 염색법 및 염색물 변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22(1),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11, 84쪽.

114 유중림 저, 앞의 책, 같은 쪽. "柿染法 每柿子一升 搗碎用水半升 釀四五時 搾取染 令乾染水再取 亦得可供雨傘用." 여기서 "柿子"는 본문에 인용된 번역문장에 제시된 "감씨"가 아니라 '감나무 열매'를 의미함.

115 최한기 저, 앞의 책, 147쪽(원문 471~473쪽). "裨柿 一名漆柿 一名綠柿 一名靑裨 一名烏裨 一名花裨 一名赤棠柿 乃柿之小而卑者 生江淮宜歙荆襄閩廣諸州 雖熟亦深綠色大如杏 味甘可生啖 搗碎浸汁謂之柿漆 可染罽扇諸物 域我東南南海等地有柿 色靑雖至霜降色不變 噉之味甘 名甘子柿"(『農政會要』卷10「農餘」).

116 의류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종이에 감물을 들인다는 의미로 파악됨. 즉 종이로 만든 옷본에 감물을 들였다는 의미로 파악됨. 그러나 이 책의 번역본에는 "종이에 물들여 옷을 만들거나"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17 서유구, 앞의 책, 310쪽.

118 권덕규, 앞의 신문, 1924. 8. 29.

119 "柿澁製造法如何", 『조선일보』 6면, 1935. 2. 27.

120 "梨의 摘課와 掛袋", 『조선일보』 5면, 1940. 7. 16.

121 "單寧原料確保는 柿實로되는 柿澁도 充分", 앞의 신문.

122 "柿澁生産百餘名 只生産七十萬 副業豐富한 華島", 『동아일보』 5면, 1928. 10. 16.

123 義城崔生, "義城舍谷柿實 年額梨川圓을 超過", 『동아일보』 4면, 1934. 12. 12.

나 판매하였던 사례들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시칠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평감 1두의 꼭지를 떼고 여기에 물 2.5승을 섞어 방아로 찼고 통에 담았다가 하룻밤이 지나서 짠다. 남은 찌꺼기도 물을 섞어 이틀을 묵혔다가 다시 짠다. 그 용도가 매우 많아 종이에 물들여 옷을 만들거나¹²⁴, 여행용 보자기를 만들거나, 베에 물들여 술 짜는 포대를 만들거나, 떡에 개어 대 흠통을 칠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두 물에 쉽게 썩지 않는다. 또는 옷칠하기에 앞서 먼저 시칠을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칠은 여름에는 말라서 저장에 어려우므로 가지 조각을 넣어 준다. 【(안) 지금 영호남의 둥글부채나 접부채의 검은 칠은 모두 시칠이다. 동북의 산골백성은 나무를 갈이틀로 둥글게 깎아 대야나 합 따위를 만들 때 먼저 시칠로 바탕을 칠한 뒤 그 위에 옷을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전부 옷으로 칠한 것과 다름이 없다. 또 방의 천장널 위에 종이를 바른 뒤에 송연으로 바탕을 칠하고 다시 그 위에 2~3번 시칠을 하면 광이 나서 사람을 비출 수 있다.】《화한삼재도회》¹²⁵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들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의복 용도에 특화되어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에 의해 생기는 감물의 결착성에 의한 내구성, 방오성, 방부성 등의 기능을 어망, 가구, 어선, 건축 등의 생활용품이나 생활공간에 이용하는 다른 지역의 감물염색 풍속이나 어구나 양조용 주머니를 비롯하여 주로 산업 자재의 염색에 이용하는 일본의 감물염색 문화와도 차별화되는 것이다.¹²⁶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가 옷에 특화된 것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척박한 농토에서의 생업환경을 비롯하여 한라산 중산간에서의 목축과 사면이 바다인 생업 환경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제주에서도 옷 이외에 갈치 잡는 낚시줄¹²⁷, 장판지, 그물, 고리짜, 구덕, 창호지, 멧빵, 명석 등 다른 것들에도 감물을 이용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¹²⁸ 옷에 감물 들이는 것만큼 보편화된 문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갈옷' 용어의 등장과 사용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들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옷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다.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즉 '옷에 감물들이다(柿染衣)', '감물들인 옷(柿澁衣類)', '감물염료(柿澁染料)로 물드린'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사람들은 감물들인 옷을 '갈옷'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 문헌에 감물들인 옷을 '柿澁衣類(kal-ot)'으로 표기하고, 갈옷의 종류를 현재 제주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 그대로를 영어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kal-joksan, kaljunggi, kal-kuljunggi) 일제강점

124 의류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종이로 만든 옷본에 감물을 들이는 것은 파악되지만 한문 번역 재검토 필요.

125 서유구 지음, 앞의 책, 310~311쪽. “柿漆造法 棹一斗去蒂 和水二升五合 確搗盛桶 經宿搾之 渣亦和水 經二日 再搾之 其用甚多 染紙爲衣 爲行李裹染布爲酒搾袋 或和墨塗箕 皆爲水不易朽 或漆塗之下 先用柿漆凡柿漆 夏月焦枯難貯 茄子切片投入(案) 今嶺湖南團扇 摺疊扇之黑漆者 皆柿漆也 東北峽民 斲木作槃盒之類 先用柿漆作底 然後以漆刷其上 則與全漆無異 又房室天板上既塗紙 後用松煙爲底 復上柿漆數三度 則光潤可鑑人 ○ 和漢三才圖會”

126 박순자, 앞의 논문, 80쪽.

127 고광민, 「제주도 민구(II)」, 『탐라문화』 제4호, 탐라문화연구원, 1985, 265쪽.

128 허복구·박지혜, 앞의 책, 91~93쪽.

기에도 제주에서는 이러한 명칭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나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를 1차로 조사한 시기가 1937년이지만 제주를 2차로 조사한 시기가 1965년이고, 『제주도』 문헌을 발간한 시기가 1966년이라는 점에서 이 문헌에 사용된 갈옷 명칭들은 1960년대 제주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표기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갈옷이나 갈옷의 종류를 한자나 일어가 아닌 영어로 표기한 점을 볼 때 ‘갈옷’이란 용어는 순우리말 표현으로 파악된다. 진성기는 『제주민속의 멋 1』에서 ‘갈옷’이란 ‘감옷’을 뜻하며, 한자 말이 아닌 순우리말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²⁹ 따라서 현재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갈옷’이란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서 ‘갈옷’이란 용어를 조사하고 용어가 등장하는 시기를 검토하였다.

‘갈옷’이란 한글 용어는 신문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기행문에서이다.¹³⁰ 조선일보에 실린 기행문에는 제주를 떠나며 멀리서 바라본 노인이 착용한 ‘검은 갈옷’에 대한 묘사가 있다. 여기서 갈옷이 검은 색상으로 묘사된 것은 멀리서 본 것이라 부정확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 되는 갈옷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감물들인 옷은 처음에는 적갈색이지만 입으면서 땀이나 세탁비누의 알칼리성 성분으로 인해 검은 갈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1965년 동아일보에서도 ‘갈옷’이란 용어가 관찰된다. 제주에 사는 주부가 감물염색과 갈옷의 장점을 소개하는 글에서 ‘제주 갈옷’이란 제목을 사용한 바 있다.¹³¹

이 외로운 섬에 사는 사람을 자세히 탐색하였드니 모옥에서 나부깨이는 검은 갈옷 입은 노인 한분과 젊은 처녀가 해안 쪽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인다. 어엿분 섬의 처녀여-얼마나 대륙이 그리우냐? 이러는 동안에 배는 점점 제주도를 멀리 뒤에다 남기고 수평선에 연하여 서남방의 대양으로 나가버렸다.¹³²

나는 제주도에서 널리 애용되는 노동복(갈옷)을 권장하고 싶다. 이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찧어서 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¹³³

한글로 ‘갈옷’ 혹은 ‘감옷’이라고 표기한 사례는 1965년과 1968년에 발행된 제주에 관한 문헌들에서도 관찰된다. 1965년에 발행된 『제주도 대한지지 I』에 “참으로 이 갈옷이야 말로 外國產(외국산) 나이롱에 못지않는 勞農服(노동복)으로서 질기고 簡便(간편)하고 經濟的(경제적)이다”라는 문장이 있다¹³⁴. 그리고 ‘갈옷’은 아니지만 ‘감옷’이란 용어가 1968년에 발행된 『원대정군지』에서 관찰된다¹³⁵. 이 문헌은 대정현의 설치부터 대정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각종 시설 등을 한문과 한글 혼용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문헌에는 대정마을 사람이 1763년(영조 39년)에 대정면 감산리에 유배되었던 심래복(沈來復)과 얽혀 한양[皇城]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았다는 일화가 ‘시의면화(柿衣免禍)’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즉 심문하는 형

- 129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 1, 열화당, 1986, 17쪽.
- 130 홍양명, “上海紀行(五) —보헤미안 航海記錄—”, 『조선일보』 1면, 1931. 4. 10.
- 131 문혜숙, 앞의 신문.
- 132 홍양명, 앞의 신문.
- 133 문혜숙, 앞의 신문.
- 134 우락기, 『濟州道 大韓地誌』 I, 한국지리연구소, 1965, 22쪽. 한자의 괄호 안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 135 고병오·박용후, 『元大靜郡誌』, 박문출판사, 1968, 122~123쪽. 괄호 안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관(刑官)이 대정 사람이 착용한 ‘감옷’이 특이하여 이에 대해 질문하자, “이것은 濟州(제주)의 農夫(농부)의 옷인데 밭일을 하는 날 王命(왕명)이 忽然(홀연)히 내렸으므로 이것을 벗을 겨를이 없었습니다”¹³⁶라고 대답하자, 형관이 이를 불쌍히 여겨 죄를 면하였다는 내용이다. 대정 사람의 답변에 따를 때, 1763년(영조 39년) 당시 대정면 감산리에서는 농부들이 갈옷을 입고 일했음을 알 수 있으며, 『원대정군지』를 작성하던 1968년에는 이 감물들인 옷을 한자(柵衣)와 한글(감옷)로 혼용하여 표기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옷’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는 “이 감옷이야말로 위생상으로는나 경제적 면으로는나 나이롱 이상의 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¹³⁷라고 서술한 진성기의 1969년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 연구자들이 제주의 민속 복식인 ‘갈옷’을 ‘감옷’으로는 부르지 않았다는 의견과는 다른 것이다.¹³⁸ 따라서 제주에서는 적어도 1960년대 중반에는 ‘갈옷’과 ‘감옷’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참으로 이 갈옷이야말로 外國產(외국산) 나이롱에 못지않는 勞農服(노동복)으로서 질기고 簡便(간편)하고 經濟的(경제적)이다.¹³⁹

皇城(황성)에 이르러 裸體(나체)로 刑(형)을 신문할 때 감옷이 나타나므로 刑官(형관)은 처음으로 감옷을 본데 놀라서 特異(특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濟州(제주)의 農夫(농부)의 옷인데 밭일을 하는 날 王命(왕명)이 忽然(홀연)히 내렸으므로 이것을 벗을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刑官(형관)은 그 事情(사정)을 들을 때 불쌍한 생각이 나서 임금께 여주어 赦免(사면)하였다.¹⁴⁰

이렇게 보아가면 사실 외국에서는 “나이롱”을 노동복으로 입는다고 하지만, 이 감옷이야말로 위생상으로는나 경제적 면으로는나 “나이롱” 이상의 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¹⁴¹

1960년대 이후 1999년까지 ‘갈옷’이란 용어가 신문에서 사용된 사례를 연대별로 검토한 결과, 2건만 관찰되었던 1960년대와 달리 1970년대(5건), 1980년대(3건), 1990년대(28건)로 갈수록 ‘갈옷’이란 한글 용어의 사용은 증가하였으며 이 용어는 거의 모두 제주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신문에 발표된 갈옷에 관한 38건의 글 중 37건이 제주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표기하던 일제강점기는 물론 본 연구의 신문자료 조사 범위인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약 79년 동안 ‘갈옷’이란 단어가 한자와 함께 표기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갈옷’이란 용어는 진성기의 의견대로 순우리말 표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정마을에 관한 내용에서 한글 표기인 ‘감옷’과 한자 표기인 ‘柵衣(시의)’가 하나의 단락에 함께 혼용되어 표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갈옷’이란 용어는 ‘가죽옷’보다는 ‘감옷’이나

136 아래 제시된 인용 문헌들에서 괄호 안의 한글 음은 집필자가 추가함.

137 진성기, 앞의 책, 1969, 260쪽.

138 이해선·박지혜·고은숙, 『제주의 감물염색』, 제주사람들, 2009, 21쪽. 장현주,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 『복식』 54(8), 한국복식학회, 2004, 89쪽.

139 우락기, 앞의 책.

140 고병오·박용후, 앞의 책.

141 진성기, 앞의 책, 같은 쪽.

감옷의 색상인 '갈색'과 연관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갈옷' 용어의 기원은 더 많은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들에 의할 때 '갈옷'이란 순우리말 용어는 적어도 1931년 이전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 약 92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된다.

요약하면, '갈옷'이란 용어는 한문으로 표기되지 않는 순우리말일 가능성이 높다. 1931년 조선일보 신문에 '갈옷'이란 용어가 등장한 점을 보아 이 명칭은 현재까지 적어도 92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감물들인 옷을 '갈옷'이란 명칭으로 부른 역사 또한 거의 100년에 가깝다는 점을 의미한다.

5. 해방 이후,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의 변천 양상

의복은 정치, 사회, 문화, 기술의 변화와 맞물려 형태, 소재, 차림새 등이 함께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제주 갈옷의 변천 과정을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 수준의 변화, 나일론과 화학섬유의 보급, 국가의 정책적 측면과 연관시켜 고찰하였다. 특히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갈옷의 종류와 형태, 갈옷의 착용 여부와 차림새, 갈옷의 제작 주체와 감물들이는 대상, 감물들이는 소재와 방법을 중심으로 변천 양상을 분석하였다.

1)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제주 갈옷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제주에서 착용되었던 제주 갈옷에 대해 설명하는 문헌이나 논문은 찾기 어렵다. 신문기사 검색에서도 ‘갈옷’, ‘감옷’, ‘감물’, ‘감물들이’, ‘시염’, ‘시삽’, ‘시칠’, ‘시자염’, ‘시즙’, ‘시수’ 라는 용어는 한글로도 한자로도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제주에서 집집마다 행해졌던 감물들이기 문화나 갈옷 착용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갈옷 착용이 단절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는 한국 경제가 성장 기반을 잃고 절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시기이다.¹⁴² 제주 또한 1947년 3월에 발생한 4·3사건이 7년 동안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경제 정체기였다.¹⁴³ 1950년대 제주의 지역경제는 전통적인 농업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¹⁴⁴ 일제강점기에 이용되었던 갈옷이 계속 입혀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80세와 90세 가까운 노인 여성들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주에서 감물들이기를 직접 했거나 자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¹⁴⁵ 그리고 1940년대에 국내에 유입된 나일론은 1950년대까지도 가격이 비싸고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국내에서도 대중화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서¹⁴⁶ 나일론이 제주의 갈옷을 대체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갈옷은 1950년대까지도 제주에서 착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1940년대의 갈옷 종류와 형태

1940년대 제주에서 착용되었던 갈옷에 대한 사진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사진집

142 구본호·이규익,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1991, 127~130쪽.

143 김태보, 「제주지역경제의 발전사적 고찰」, 『사회발전연구』 14,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1998, 453쪽.

144 위의 논문, 452쪽.

145 허복구·박지혜, 앞의 책, 26쪽.

146 홍병숙·정미경, 「나일론이 의생활 및 섬유 산업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945년부터 1970년을 중심으로-」, 『복식』 28, 한국복식학회, 1996, 33쪽.

『제주 100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 실린 사진들에서 촬영 연도가 명확히 기록된 갈옷 사진은 2장만 확보되었다.¹⁴⁷ 여기서 이 사진들에만 의존하여 1940년대 후반에 입혀졌던 제주 갈옷에 대해 파악하였다. 사진 하나는 4.3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여름에 토벌대와 함께 있는 중산간 청년이 착용한 갈옷이며, 또 다른 하나는 1949년에 말을 끌고 귀가하는 남성 노인이 착용한 갈옷이다. 중산간 청년과 남성 노인이 착용한 갈옷 상의는 한복 깃이나 고름은 없고, 단추로 좌우 앞판을 여미며, 목파임이 둥글게 된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이다. 사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갈적삼의 길이가 허리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단추가 여러 개 달리고 포켓도 좌우 2개 달린 것으로 파악된다. 중산간 청년이 착용한 갈중이는 엉덩이 품은 매우 넉넉하고 바지통이 발목까지 헐렁하게 내려오다가 발목에서 오므려진 형태이다. 노인이 하의에 착용한 갈중이는 바지 허리에서 끈으로 매고 허리 위로 나온 부분을 접어서 끈 아래로 내리는 착용 방식이며, 엉덩이 품은 넉넉하고 발목 부분은 묶지 않고 일자로 내려진 모습이다. 한편, 해방 이후 1940년대에 촬영한 사진들에서 여성의 갈옷 차림은 찾기 어려웠다. 갈옷 차림으로 추측되는 몇 개의 사진이 관찰되지만, 갈옷의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중산간의 주민과 토벌대(1948년)¹⁴⁸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사진 10〉 1940년대 제주 갈옷



어느날의 귀가(1949년)¹⁴⁹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2) 1950년대의 갈옷 종류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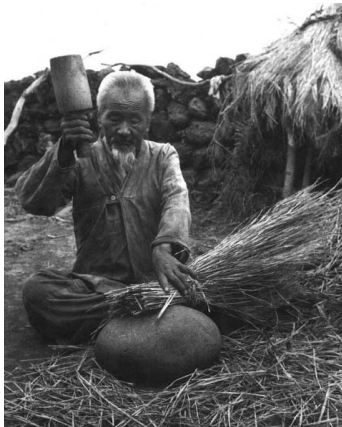
『제주 사람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출판된 만농 홍정표 선생의 사진집들에는 농사일을 하는 농부나 어선을 배경으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들이 등장한다.¹⁵⁰ 사진집 서문에는 이 사진들이 주로 1950년대에 촬영된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 따라서 이 사진집에서 관찰된 갈옷들을 통해 1950년대 남녀 갈옷의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1950년대 제주에서 남성들이 주로 착용하였던 갈적삼은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한복 저고리 형태로 깃과 쇠은 있고 고름이 없는 대신 깃이 끝나는 지점에 달린 단추 1개로 좌우 앞판을 여미는 것으로 허리까지 길이였다. 다

- 147 제주도, 『제주 100년』, 현대문화인쇄사, 1996, 109쪽.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1, 도서출판 각, 2009, 76쪽.
- 148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사진집, 76쪽.
- 149 위의 사진집, 109쪽.
- 150 국립제주대학교, 『만농 홍정표선생 사진집-제주사람들의 삶』, (주)일원피앤씨, 2002. 참조.
제주대학교박물관, 『만농 홍정표선생 사진집-제주사람들의 삶』 II, (주)알프로세스, 1995. 참조.

- 151 제주도, 앞의 사진집, 146쪽.
- 152 조우현·김미진, 앞의 논문, 140쪽.
- 153 제주대학교 박물관, 앞의 사진집, 41쪽.
- 154 제주대학교 박물관, 앞의 사진집, 19쪽.
- 155 제주대학교, 앞의 사진집, 22쪽.
- 156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사진집, 99쪽.

른 유형은 목이 둥글게 파인 마고자 형태로 깃과 고름이 없고, 단추가 여러 개 달려서 앞판 좌우를 여미는 것으로 길이는 허리까지이다.

홍정표의 사진집에 나오는 여성의 갈옷 차림은 거의 모두가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이었다. 즉 저고리에 깃이 달려있고, 깃이 끝나는 지점에서 매듭단추 하나로 좌우를 여미는 갈적삼이다. 특히, 1950년대 갈적삼은 저고리 길이가 매우 짧아 갈적삼 안에 입은 속옷이 겉으로 드러나 보였으며, 갈적삼의 품은 꼭 끼는 것이 특징이었다. 1950년대 사진에서 여성들이 하의로 착용한 갈옷은 허리 아래로 주름이 풍성히 잡히고, 엉덩이 품과 바지통은 넓고, 발목이 오므려진 몸빼 형태였다.¹⁵¹ 이것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에서 관찰한 갈옷의 형태, 즉 허리 밑으로 주름이 많이 잡히고 무릎 밑에서는 남자 한복처럼 끈으로 묶는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편, 1950년대의 갈옷 차림에서는 검정색의 적삼이나 몸빼를 갈옷과 함께 입은 사례도 자주 관찰된다. 검정색 의복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의 의복 개량과 백의금지를 위해 검정색 염료의 보급과 함께 권장되었던 것으로, 해방 이후 민속의식 고취로 백의를 착용하다가 6.25 전쟁으로 물자 결핍, 경제성, 실용성 등의 이유로 1950년대에 다시 애용되었다.¹⁵²



덩드렁과 덩드렁마개¹⁵³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연자매¹⁵⁴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짐 지어 나르기¹⁵⁵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갈몸빼
〈사진 11〉 1950년대 제주 갈옷



마차끄는 아낙네(1951)¹⁵⁶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검정 몸빼

요약하면,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 남성이 착용한 갈적삼은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과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으로 구분된다. 하의로 입은 갈중이는 엉덩이 품은 크고, 밑은 길었으며, 발목 부위는 끈으로 묶거나 그냥 일자로 내려서 입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여성이 상의에 착용한 갈적삼은 저고리 형태로 길이가 짧고 품이 짝 끼는 것이 특징이며, 하의에는 갈몸빼를 입었다.

2) 196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1960년대의 갈옷 착용과 갈옷의 형태

1960년대는 한라산 제1횡단 도로인 5.16 도로를 포장하고, 일주도로, 항만, 제주공항, 전력과 통신, 상수도 등을 확장하며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시기이다.¹⁵⁷ 이 시기에 제주를 두 번째로 방문했던 이즈미 세이치는 1937년에 생활필수품처럼 입혀지던 갈옷이 1965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주로 육지풍의 복장을 하고, 남성들은 양복이나 제복 차림이었다고 기록하였다.¹⁵⁸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1~2권에 포함된 1960년대의 관덕정 사진(1962년 이전), 서문시장 주변에 열린 오일장 사진(1967년 7월, 10월), 중앙로 거리 사진(1960년대 말) 등에서 갈옷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¹⁵⁹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 세시풍속』에서도¹⁶⁰ 갈옷을 옛날 탐라 사람들이 척박한 생활을 개척하는데 기여한 향토적 민속공예품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1965년에 발행된 『제주도 대한지 I』에는 갈옷과 외국산 나일론 옷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¹⁶¹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960년대 중반 이후 시내에서는 나일론 옷을 입으면서 갈옷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사례는 감소하고 주로 작업 상황에서만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60년대 제주 농업은 전근대적인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1960년대 초까지도 제주의 영농방식은 원시적이었고 생산성은 매우 낮았다.¹⁶² 당시에는 농림어업 중심의 1차 산업 분야로의 취업률이 81%~86.5%에 달할 정도로 제주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다.¹⁶³ 1960년대의 이러한 농업 환경을 고려할 때 갈옷은 주로 농촌과 어촌 지역 및 작업 상황에서 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60년대의 갈옷의 종류나 형태는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1』,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2』, 『제주 100년』,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에 포함된 사진들을 통하여 파악되었다.¹⁶⁴ 사진들 대부분은 농사일, 도로와 포구의 공사, 어항과 어선 주변 및 통조림 공장에서의 작업, 부두 방파제에서의 곡식 말리는 작업, 마소나 마차를 끄는 상황 등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 사진들에 근거할 때 1960년대 남성의 갈옷 차림은 갈적삼과 갈중이 착용 및 서양복과 갈중이 착용으로 구분되었다. 1960년대 사진에서 관찰된 마고자형 갈적삼과 갈중이는 195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1960년대 사진에 나타난 여성의 갈옷 차림 또한 갈적삼과 갈몸빼, 서양복과 갈몸빼 두 유형이었다. 착용된 여성의 갈몸빼는 허리 아래로 주름이 풍성하게 잡히고, 엉덩이 품과 바지통도 넉넉하여 1950년대 형태와 유사하였다. 1960년대부터 나일론이나 화학섬유의 옷들이 대중화됨에 따라 전통적 이미지가 강하기도

- 157 김태보, 앞의 논문, 453~455쪽.
- 158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앞의 책, 397쪽.
- 159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사진집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도서출판 각, 2010.
- 160 진성기, 앞의 책, 17쪽.
- 161 우락기, 앞의 책, 22쪽.
- 162 한국장기신용은행·고려대 경제연구소, 『지역경제발전패턴과 제주도의 산업개발전망』, 한국장기신용은행, 1984, 119~120쪽.
- 163 김태보, 앞의 논문, 454쪽.
- 164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사진집 1~2권 참조. 제주도, 앞의 사진집 참조.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자료집』, 제주여성사자료총서 I,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참조.

하고 활동에도 불편한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은 착용이 감소하고 서양복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갈중이와 갈몸빼는 노동이나 활동에 편리하기 때문에 1960년대에서도 계속 착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갈중이와 함께 착용된 남성용 서양복은 주로 남방셔츠와 티셔츠였으며, 갈몸빼와 함께 착용된 서양복은 주로 스웨터, 블라우스, 티셔츠였다.

한편, 1960년대 제주 갈옷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남녀 갈옷 모두를 ‘갈중이’로 통칭하여 부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1960년대와 그 이후 문헌이나 자료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다. 예컨대, 1960년대 신문에서는 ‘갈중이’란 용어가 단 1건만 관찰되었는데, 관찰된 1964년 조선일보 신문에 갈옷 차림으로 등장한 사람은 할머니였다.¹⁶⁵ 이것은 이즈미 세이치가 1937년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이 착용하는 갈옷을 다르게 구분한 점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남녀 갈옷을 통칭하여 갈중이로 부르게 된 것은 단속곳에 뿌리를 둔 갈굴중이가 사라지고 상의에도 갈옷을 거의 입지 않게 됨에 따라 ‘갈중이’ 명칭이 주로 이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의로 착용하는 갈중이가 갈몸빼보다 대중적으로 더 많이 불리고 갈옷을 대표하는 명칭이 된 것은 몸빼가 일본의 잔재라는 점에서 그 용어의 사용이 회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시까지 남아있던 남존여비 의식에 의한 것이다. 과거에 갓 태어난 초생아의 싸개로 남성이 착용하는 갈중이는 사용하게 하면서 여성이 착용하던 갈옷으로 물애기를 싸지 못하게 했던 맥락과 유사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¹⁶⁶

여덟살땐 물에 곤두박아 海女(해녀) 修業(수업), 눈빛은 물색으로 뭉어져 이제 눈물을 흘리는 구실이 고작인 눈 한숨의헛바람을 두갈래로 찢는 송곳니 하나 굵은날씨를 짜릿짜릿 느낀다는 뼈마디만이 살아있는 그런 몸이 누더기 감물[갈중이]옷속에양상하게 담겨져있다. 그 「할매」의 어느 부분에 5백50가지의 민요가 담겨져있는지 모를 일이다.¹⁶⁷

이와 같이 상의와 하의의 갈옷을 통칭하여 갈중이로 부르거나, 하의로 착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갈옷 모두를 갈중이로 부르거나, 갈몸빼란 용어 대신 여자 갈중이로 부르는 사례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계속 관찰된다. 예컨대, 제주민속복식에 관한 1972년 논문에서도 남녀 공용 하의를 통칭하여 갈중이로 불렀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여성용 갈옷을 ‘갈중이(굴중이)’로 표기하였다.¹⁶⁸ 1996년 제주민속박물관장이었던 진성기 또한 『濟州島 議定』에 발표한 글에서 원고 제목을 ‘갈중이’로 의뢰를 받았지만 민간에서는 감물들인 바지 모두를 통칭하여 ‘갈옷’이라고 부름으로 표제를 ‘갈옷’으로 통일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¹⁶⁹ 1990년대에 갈옷을 갈중이란 용어로 통칭하는 신문 기사¹⁷⁰ 서적, 논문, 간행물에 실린 글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용어들의 혼용 사례¹⁷¹, 박물관 유물 관리 카드에 여성용 갈옷을 갈중이로 표기하는 사례 모두 1960년대부터 민간에서 나타난 이러한 용어 혼용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165 이규태, “人間民謠集 北濟州城山 面の康起賣할머니”, 『조선일보』 7면, 1964. 9. 6.
 166 제주도, 『제주여성문화』 제주도문화자료총서 8, 경신인쇄사, 2001, 156쪽.
 167 이규태, 앞의 신문.
 168 고부자, 앞의 논문, 48쪽.
 169 진성기, 앞의 글, 354쪽.
 170 장승홍, “토속 작업복 「갈옷」 제조 활기”, 『조선일보』 27면, 1991. 9. 3.
 허호준, “제주 ‘갈중이’ 멋내기 의상 변신”, 『한겨레』 19면, 1994. 6. 7.
 171 진성기, 앞의 글, 354쪽.
 고부자, 앞의 논문.



말과 마차의 행렬(1960년대)¹⁷²
갈적삼, 갈중이



추곡수매 (1960년대 초반)¹⁷³
갈적삼, 갈몸뻬



일주도로 공사(1969)¹⁷⁴
갈적삼, 갈몸뻬



서귀포 어항의 아침(1960년대)¹⁷⁵
서양복, 갈몸뻬

〈사진 12〉 1960년대 제주 갈옷

(2) 1960년대의 감물들이기

1960년대 제주 갈옷 문화에서 주목할 점은 갈옷 제작 방식에서의 변화와 감물을 들이는 대상의 변화이다.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옷을 만든 후에 감물을 들였다. 그러나 1967년도 동아일보에 발표된 '제주 갈옷'에 대한 글에서 "이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짰어 생긴 물을 옷감에 들어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¹⁷⁶ 이것은 적어도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옷감'에도 감물을 들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 세시풍속』 문헌에는 일제강점기에서처럼 '옷'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만들었다고 서술되어 있다.¹⁷⁷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옷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만들거나, 옷감인 천에 감물을 들인 후 옷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옷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1960년대에 제주에서 감물을 들이는 대상은 '옷'과 '옷감' 두 종류였음을 알 수 있다.

감물 들이는 방법이나 절차는 일제강점기와 유사하였다. 『남국의 세시풍속』과 1967년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 갈옷'에 관한 글에 따르면, 음력 6월과 7월 사이에

172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사진집 1권, 282쪽.

173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앞의 사진집, 81쪽.

174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사진집 1권, 213쪽.

175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사진집, 151쪽.

176 문혜숙, 앞의 신문.

177 진성기, 앞의 책, 257쪽.

덜 익어서 뽀은 싱싱한 생감을 따서 감물을 만들고, 감물에 옷이나 옷감을 담가 물 들였으며,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맹물에 적시고 햇볕에 건조하는 반복 과정을 통해 발색시켰다.¹⁷⁸ 특히, 1967년 동아일보에 실린 글에서 “물에 담갔다가 또 말리고 해서 몇 번 거듭해가면 그 색이 고동색으로 짙어간다. 천은 광목이나 무명이 많이 쓰인다.”라는 문장을 볼 때, 감물에 담그는 옷이나 옷감은 주로 광목이나 무명이었으며, 감물들이 옷이나 옷감의 색상은 갈색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제주도에서 널리 애용되는 노동복(갈옷)을 권장하고싶다. 이것은 아직 채익지않은 싱싱한 감물 방아에 쪼어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 물에 담갔다가 또 말리고 해서 몇 번 거듭해가면 그 색이 고동색으로 짙어간다. 천은 광목이나 무명이 많이 쓰인다. 이 옷은 ① 고동색이니 더러움이 안타고, ② 빨래할 적에 비누가 필요 없어 경제적이고, ③ 언제나 풀한 것처럼 고슬 고슬해서 기분이 상쾌하다. 이 옷은 땀흘려 노동하는 분이면 한번 애용해 볼 만하다.¹⁷⁹

특히, 진성기는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 세시풍속』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자료들과는 달리 감물들이 색상과 재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원래 감물들이 색상은 처음에는 붉은 기운이 강하고 재질은 풀떡인 것처럼 뽀뽀하지만 입을면서 시간이 지나면 색상은 점차 갈색이나 검은 기운이 도는 암갈색으로 변하고 재질 또한 부드러워진다고 하였다. 『남국의 세시풍속』에는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방법과 감물들이 옷의 장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진성기는 감물을 들인 후 햇빛에 건조 시키는 발색 과정을 ‘햇볕에 바랜다’라고 표기하였다. 이것은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순우리말 표현으로 다른 천연염색과 달리 가열하지 않고 햇볕으로 색상을 내는 감물염색만의 고유한 차별적 특징이다.

진성기는 이 책에서 감물들이 옷의 장점을 10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이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 자료들에서 확인되었던 내용과 일치한다. 즉 1960년대에도 감물을 들이면 강도가 더 질겨지는 내구성, 땀이 묻어도 썩거나 땀 냄새가 나지 않는 위생성, 뽀뽀하여 풀할 필요가 없는 편리성 등 갈옷의 장점이 제주 사람들에게 잘 인식되었다. 또한, 계속 입어도 더러운 줄 모르고, 먼지나 거친 오물이 묻어도 쉬이 떨어지는 방오성으로 갈옷이 농사일이나 목축에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감물들이 옷은 비를 맞아도 쉬이 젖지 않아서 몸에 달라붙지 않는 방수성과 물기가 묻어도 쉽게 떨어지는 발수성 등으로 이슬 맺힌 밭에서 일하거나 물결에 젖는 어부들의 일에도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제주 사람들이 농림업의 작업 상황에서 감물들이 옷을 활용한 것은 이러한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얻어진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196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문화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옷과 옷감 모두에 감물을 들였으며, 갈중이와 갈몸뻐 위에 갈적삼이 아닌 서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점이다. 이렇게 갈옷을 하의 중심으로 착용하게 됨에 따라 민간에서

178 진성기, 위의 책.
179 문혜숙, 위의 신문.

는 갈옷의 종류 모두를 통칭하여 ‘갈중이’로 부르기 시작한 점도 1960년대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3) 197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1970년대의 갈옷 착용

1970년대에 제주에는 이전에 구축한 경제기반 시설을 토대로 양적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구조에서 질적인 변화를 이루며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¹⁸⁰ 이 당시 제주는 관광 주도형 지역개발 전략을 추진하여 특급관광호텔과 쇼핑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관광지 면모를 갖추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 또한 증가하였다.¹⁸¹ 이 시기에 농림어업 중심의 1차산업 취업 비율(72.2%)은 1960년대보다 15.9% 낮아졌으며, 제주는 전근대적인 농업 방식에서 벗어났다.¹⁸² 특히, 1970년대는 모든 국토의 산업화, 모든 일손의 생산화, 모든 농민의 기술화를 목표로 하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농촌 현대화가 추진된 시기이다.¹⁸³ 제주 또한 이 시기에 초가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농가들이 자취를 감추었고¹⁸⁴ 전통문화도 급격하게 상실되었다. 1970년대에 촬영된 사진, 신문, 논문 자료들에 근거할 때 제주 갈옷 또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입다가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1970년대 초반에 제주 사람들이 갈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1971년 8월부터 10월 약 3개월 동안 제주의 모습을 촬영한 이토 아비토(伊藤亞人)의 사진집인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¹⁸⁵를 통해서 파악된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 포함된 1970년대 사진들, 제주시 화북동에서 있었던 1970년대 새마을운동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¹⁸⁶ ‘1970년대의 제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블로그 사진들¹⁸⁷에서도 갈옷 차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들은 주로 당시 농촌 마을이었던 오라동, 아라동, 외도동, 화북동, 광령리, 애월읍 하加里, 남제주군에서 촬영된 것으로 갈옷은 주로 노동이나 작업 상황에서 착용된 것이었다. 1975년 경향신문에 발표된 기사에서 청년들은 작업복을 입고, 노인들은 갈옷(제주도 농촌의 작업복)을 입고 일터로 나갔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¹⁸⁸ 1970년대 초반까지도 노인들은 갈옷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71년 새마을운동의 불길이 일어나자 벵타이를 매고 빈둥거리던 청년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명주 바지를 입었던 마을 노인들은 갈옷(제주도 농촌의 작업복)으로 치장을 바꾸어 일터로 나섰다.¹⁸⁹

그러나 1971년 8월 제주시 오일장을 3회 방문하여 약 100명의 여성을 관찰한 고부자의 연구에 따르면, 30대와 40대 여성 거의 모두가 치마/블라우스를 착용했으며 갈옷 착용자는 매우 드물었다.¹⁹⁰ 이것은 관찰 대상이 40~50대 여성이기도 하

- 180 김태보, 앞의 논문, 456쪽.
- 181 위의 논문, 456-457쪽.
김현돈, 「제주문화의 재창조」, 『제주주리뷰』 3,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7, 62쪽.
- 182 강경숙·김준표, 「제주도 지역개발 시기 제주 여성의 노동과 지위」, 『탐라문화』 69, 탐라문화연구원, 2022, 199쪽.
김태보, 앞의 논문, 456-457쪽.
- 183 “새마을, 所得增大 운동으로”, 『경향신문』 1면, 1973. 1. 6.
- 184 김현돈, 앞의 논문, 62쪽.
- 185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소,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경신인쇄사, 2019. 참조.
- 186 현경희, “(화제)70대 새마을운동의 현장. 제주시 화북동 주민들 맨손으로 돌 날랐다”, 『제주환경일보』, 2023. 2. 20.
- 187 안장현, “제주도 풍물 1970년대의 제주”, 『안장현의 문화유산과 사진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2018. 2. 27.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hnjh1204&logNo=221217543853>
- 188 강관영, “새마을意志르포 (13) 兩班村에 이룬 감공農園”, 『경향신문』 7면, 1975. 2. 10.
- 189 강관영, 앞의 신문.
- 190 위의 논문, 29쪽.

고, 관찰 장소가 시장인데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즉 공도에 나갈 때는 갈옷 착용을 금지했던 일제강점기의 의복규범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갈옷 차림이 관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¹⁹¹ 이것은 멀리 외출할 때에는 하의로 착용한 갈옷 위에 흰색의 광목 치마나 베치마를 한 겹 두르고 나갔다는 1970년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¹⁹² 이와 같이 197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갈옷은 농림어촌의 노인이나 작업 상황에서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갈옷이 제주민속복식으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는 신문기사나¹⁹³ 문화행사에서나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⁹⁴ 본 연구에서 확보한 사진 자료들에 근거할 때 1970년대 남성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갈옷을 착용하였다. 마고자형의 갈적삼과 갈중이를 착용하거나 갈중이에 서양복을 착용하였다. 갈옷을 상의와 하의에 착용한 사례는 오라동과 광령리에서 촬영된 노인의 사진에서 볼 수 있으며¹⁹⁵ 갈옷을 하의로만 착용한 사례는 아라동에서 촬영된 남성 사진에서 볼 수 있다.¹⁹⁶ 1970년대 남성들의 갈중이 차림새는 제시된 아라동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엉덩이 품과 바지통이 넉넉하고 헐렁하며, 허리에서 바지를 끈으로 묶고 남는 윗부분은 아래로 접어서 착용하였다. 길이는 발목까지이며, 발목 부위를 끈으로 묶은 것도 있었다. 또 다른 유형은 오라동 노인이 착용한 것처럼 엉덩이 품과 바지통 품이 모두 좁은 형태로 발목을 묶지 않는 형태이다. 그리고 1970년대 남자 노인이 착용한 갈옷에서는 V 형태로 목이 파인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도 관찰되었다. 즉 길이는 허리까지이고, 여러 개의 단추로 좌우를 여미게 되어있으며, 포켓이 2개 달린 형태였다. 따라서 1970년대 남성용 갈적삼과 갈중이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지만, 갈중이는 엉덩이 품과 바지통이 좁아진 것도 있었다. 남성들이 갈중이 위에 착용한 서양복 상의는 남방셔츠, 티셔츠, 스웨터 등이었다.

1970년대 여성들의 갈옷 차림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갈적삼과 갈몸빼를 착용한 것이다. 1970년대에 여성이 갈적삼과 갈몸빼를 착용하였다는 사실은 1970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제주 해녀에 대한 글에서 확인된다. 즉 “흙감둥이가 된 『몸빼』와 땀진 감물적삼을 툭툭 털고 김매던 조밭에서 보리밭으로 소리친다”라는 문장을 고려할 때¹⁹⁷ 1970년대에도 갈적삼과 갈몸빼가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하나는 서양복에 갈몸빼를 착용한 것이다. 이것은 1972년 당시 갈몸빼를 주로 착용했다는 고부자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¹⁹⁸ 그리고 허벅지고 물을 길러 가거나 이웃집에 떡반 돌리러 갈 때와 같은 동네의 일상생활에서도 활동에 편리한 바지 형태의 갈옷만 착용하고 상의에는 갈옷 대신 서양복을 입었다는 신문기사로도 뒷받침된다.¹⁹⁹ 1970년대 사진들에서 관찰된 갈몸빼의 형태는 허리 아래로는 주름이 잡혔고, 바지통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었으며, 발목은 대부분 오르려져 있었다. 갈몸빼 위에 착용한 서양복 상의는 주로 스웨터와 블라우스 유형이었다. 멀리 외출할 때에는 하의로 착용한 갈옷 위에 흰색의 광목 치마나 베치마를 한 겹 두르고 나갔다.²⁰⁰

질은 소금물, 강한 햇볕, 드러내놓은 살결, 보릿짚 냄새나는 황톳불 그리고 무

- 191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앞의 책, 397쪽.
- 192 정자환, “땀 흘리는 韓人 海女(25) 낭문갑”, 『동아일보』 7면, 1970. 7. 31.
- 193 “濟州道에 民俗自然史 박물관 6月 着工-특특한 風物 전시”, 『동아일보』 5면, 1978. 1. 6.
- 194 김광현, “民俗12종목 발굴”, 『동아일보』 5면, 1979. 10. 28.
- 195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앞의 사진집, 93쪽.
- 196 위의 사진집, 180쪽.
- 197 정자환, “땀 흘리는 韓人 海女(1) 물질”, 『동아일보』 1면, 1970. 7. 1.
- 198 고부자, 앞의 논문, 1972, 50쪽
- 199 정자환, 앞의 신문, 1970. 7. 31.
- 200 위의 신문.

쉽게 몰아치는 파도. 이것이 곧 해녀들의 생활조건의 전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개 많은 수의자녀들이있다. 김매야할 감자밭이 있고, 약뿌려야할 굴밭이 있고, 밭지어야할 가정이있다. 이 세상에서 일을 가장많이하는 여성, 그것은 한국 제주도해촌의 해녀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흙감둥이가 된 『몸빼』와 땀진 감물적삼을 툭툭 털고 김매던 조밭에서 보리밭으로 소리친다.²⁰¹

옷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무명에 감물을 들인 『갈옷』 한가지. 밭에 갈때는 물론 허벅(물동이)을 지고 물을 길러 갈때나 이웃집에 떡반을 돌리러 갈 때나 동네 생활은 거의 이 갈옷 하나로 통용된다. 땀질받아들이고 더러움 안타고 질긴 만능 의상이다. 위에는 얇은 쉼터 한 개. 만일 조금 멀리 인사 차례 가야할 때면 이 갈옷 위에 베치마나 광목 치마를 한겹 두르고 나서면 된다. 혹 동네 사람이 흰 옷을 입은 것이 보이면 으레 인사가 “외방 감수까?” (나들이 가십니까?)이다. - 중략 - 평균 오~육 가족을 가진 해녀가 월 평균 주식비는 삼천사백원꼴. 부식비가 일천사백원이며 피복비는 칠백십원이다.²⁰²

이와 같이 서양복이 남녀 모두의 갈적삼을 대체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나일론 옷이 전국적으로 대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는 블라우스나 스웨터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 데토론, 아크릴 등 다양한 합성섬유 또한 국산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²⁰³ 특히, 국산 나일론의 1970년 생산량은 1963년에 비해 207배나 증가하였다.²⁰⁴ 나일론 옷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섬유 옷의 증가는 1970년대에 제주 갈옷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80대 후반이거나 90대에 속하는 여성 노인분들이 “나일론 옷이 나오면서 안 입게 되었다”, “나일론이 보급되면서 힘들게 감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좋은 옷들이 많이 생기므로 안 입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내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²⁰⁵

(2) 1970년대의 감물들이기

1970년대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1972년에 발표된 고부자의 논문에 따르면, 감물들이는 시기는 7월과 8월 사이였으며,²⁰⁶ 감물은 만드는 원료는 풋감이었고, 감물을 들이는 절차는 감을 따서 짓이기고(바수기), 짓이기는 과정에서 나온 감물에 옷을 적셔 감물을 들이고(치대기), 감쩍질을 턴 후(털기), 햇볕에 말리고 다시 물을 적시는 반복된 과정(바래기)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970년대 감물들이기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집에 심은 감나무의 풋감을 이용하는 것 외에 시장에서 풋감을 사서 감물들이기를 했다.²⁰⁷ 이것은 1960년대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집에서 만든 무명옷에 감물을 들인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매한 무명옷에 물을 들인다는 점이다.²⁰⁸ 그리고 1974년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무명에 풋감을 뿜아 갈색 물을 들인 『갈옷』은 땀이 잘베고” 라는 문장에 근거할 때,²⁰⁹ 1970년대에는 옷 이외에 천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 1960년대에서 보다 더욱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

- 201 위의 신문.
- 202 정자환, “땀 흘리는 韓國人 海女 (25) 낭문밥”, 『동아일보』 7면, 1970. 7. 31.
- 203 홍병숙·정미경, 앞의 책, 42쪽.
- 204 위의 책.
- 205 허복구·박지혜, 앞의 책, 128~129쪽.
- 206 고부자, 앞의 논문, 46쪽.
- 207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앞의 사진집, 294쪽.
- 208 고부자, 앞의 논문, 45쪽.
- 209 유장홍·이동탁, “民謡의 故郷 18 濟州道 발밭기 노래”, 『조선일보』 5면, 1974. 7. 12.

- 210 유장홍-이동탁, 위의 신문.
- 211 고부자, 위의 논문, 46쪽.
- 212 위의 논문, 47쪽.
- 213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위의 사진집, 2019, 93쪽.
- 214 위의 사진집, 218쪽.
- 215 위의 사진집, 180쪽.
- 21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도로정비 새마을운동 전경(제주도)』, 『국가 지정기록물 온라인 전시관』, 1972.
- 217 안장현, 위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hnjh1204&logNo=221217543853>

은 1970년대에는 옷감의 구매가 보편화된 점과 옷감에 감물을 들인 후 옷을 제작하는 것이 얼룩 없는 갈옷을 제작하는 데는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의식주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 모두가 조, 보리밥을 먹고 제주도 특유의 『갈옷』을 입고 밭일을 한다. 무명에 풋감을 빵아 갈색 물을 들인 『갈옷』은 땀이 잘베고 때가 잘 안타 토박이 주민들이면 모두가 즐겨 입는 작업복.²¹⁰

마지막으로 1960년대 자료들에서는 관찰되지 못했던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고부자의 1972년 논문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²¹¹ 즉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데 사용하는 풋감은 씨가 많고, 크기는 지름이 약 3~4cm 정도이며, 감물들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남도고리와 덩드렁마끼라는 점이다.²¹² 그리고 옷의 안쪽이 겹이 되도록 뒤집은 후 옷 사이사이에 감 껍질을 넣고 주물러서 감물을 들이며, 감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섞어가며 주무르고, 감물을 들인 후에 감 껍질을 털어내야



오라동 (1971년)²¹³
 마고자형 갈적삼, 갈중이



광령리 (1971년)²¹⁴
 마고자형 갈적삼



아라동 모지 정비(1971년)²¹⁵
 셔츠, 갈중이



도로정비 새마을운동전경(1972년 제주도)²¹⁶
 블라우스, 갈몸뻬



정미소에서 알곡 도정하는 일
 1973 / 갈몸뻬²¹⁷

〈사진 13〉 1970년대 제주 갈옷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부자 논문에는 바래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옷을 널어서 말리는 장소로 명석, 지붕 위, 평평한 돌, 잔디 위 등이 가능하다는 점, 널 때는 옷의 모양을 반드시 하고, 마르는 과정에서 옷의 앞과 뒤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 여름 직사광선에서는 약 10일 정도 건조시키고,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장마가 계속되거나 날이 습하면 색이 죽고 풀떡인 효과가 낫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남국의 세시풍속』에 제시되었던 제주 갈옷의 장점들이 위생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시간 단축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그 내용이 재차 강조된 점을 볼 때,²¹⁸ 1970년대에도 감물들이기 옷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요약하면,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하고, 상의에 서양복을 착용하는 양상은 1970년대에 더욱 두드러졌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갈중이와 갈몸빼도 착용이 감소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감물들이기에 필요한 풋감이나 옷감을 시장에서 구매한 점도 1970년대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4) 198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제주는 1980년대에 양적, 질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취업 구조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1986년 농림어업으로의 취업 비율은 58.2%로 10년 전보다 20%가 감소하였지만, 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 취업 비율은 38.7%로 10년 전보다 22.5% 증가하였다.²¹⁹ 또한, 1980년대의 제주 농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업 특성을 보였고²²⁰ 관광산업은 국민의 여가 수요를 수용할만한 능력을 갖추었다.²²¹ 1986년 연간 제주 방문객은 내국인 기준 약 149만 2천명으로 10년 전보다 110만명 이상이 증가하였다.²²² 이와 같이 농림어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관광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증가,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은 농부와 어부들의 노동복이었던 갈옷의 사용 상황을 축소 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도심지로의 인구 집중, 제주도민의 1인당 소득수준의 향상,²²³ 과잉 생산에 따른 나일론 옷의 대중화와 전국적 보급,²²⁴ 여러 가지 합성섬유를 소재로 하는 의복의 다양화와 대중유행 등은 1980년대 제주도민의 의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에 착용된 갈옷이나 감물들이기에 대한 문헌, 논문, 사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80년대 신문들에서 검색된 감물들이기에 관한 글은 1건이었으며, 갈옷에 관한 글은 5건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모두 행사나 책에 대한 홍보였다. 따라서 7~8월 여름에 집집마다 자급자족하여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감물들이기 문화는 1980년대에 점차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12년에 실시한 천연염색업체 조사에 따르면 73개 업체 중 1980년대에 설립된 갈옷업체가 6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²²⁵ 이것은 개인이 자급자족으로 만들던 갈옷이 전문가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상품화된 갈옷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자, 제주 갈

- 218 고부자, 앞의 논문, 51~52쪽.
- 219 김태보 앞의 논문, 457쪽.
김태보,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발전방향과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 『사회발전연구』 1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1996, 36쪽.
- 220 김태보, 앞의 논문, 1995, 461쪽.
- 221 위의 논문, 460쪽.
- 222 위의 논문, 459쪽.
송준영, 「1960~1980년대 제주도 관광이미지에 대한 서설적 연구-관광사진첩 속 시각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8, 제주학회, 2022, 343~372, 347쪽.
- 223 김태보, 앞의 논문, 1995, 461쪽.
- 224 송준영, 앞의 논문, 355쪽.
- 224 홍병숙·정미경, 앞의 논문, 41~42쪽.
- 225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제주 천연염색산업 실태조사 및 디렉토리」, 연구용역보고서, 2012, 52쪽.
- 226 김태보, 앞의 논문, 1995, 461쪽.
- 227 강경숙·김준표, 앞의 논문, 2022, 199쪽.
김태보, 앞의 논문, 1995, 457쪽.

- 228 위의 논문, 1995, 459쪽.
- 229 오중석, “伝統문화의 세계화”, 『조선일보』 3면, 1988. 9. 18.
- 230 허연, “문화산업 고용효과 총 924만명”, 『매일경제』 29면, 1998. 6. 3.
- 231 하태원, “전승공예전 관광상품전 전통문화 빼어난 뎀시와의 만남”, 『동아일보』 43면, 1997. 11. 11.
- 232 차기태, “지역문화도 세계화 미술계 비엔날레 열풍”, 『한겨레』 17면, 1995. 7.18.
임학순, “삶의질 15대 과제 9. 지역 문화활성화 <하> 예술경영 전문가 키워 방방곡곡을 ‘문화도시’로”, 『한겨레』 5면, 1996. 9. 14.
- 233 장승홍, 앞의 신문.
- 234 임재영, “제주 고유 노동복 ‘갈옷’ 상품화 새롭게 디자인 시중 판매”, 『동아일보』 35면, 1996. 9. 7.
- 235 강홍균, “제주 ‘갈옷’ 되살리는 21인”, 『경향신문』 21면, 1997. 4. 25.
- 236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앞의 보고서, 2012, 52쪽.
- 237 임재영, 앞의 신문.
- 238 정상영, “제주 여름갈옷 기획전”, 『한겨레』 17면, 1996. 3. 28.
- 239 “신구범(愼久範) 제주지사(가운데)가 최근 서울 그랜드백화점에서 열린 향토 특산품전에서 출향 인사들과 함께 제주전통 작업복인 갈옷에 대한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20면, 1998. 1. 3.
- 240 어수용, “갈옷 전도사로 불러주세요”, 『조선일보』 39면, 1999. 3. 11.
윤영미, “서양에 블루진이 있다면 한국엔 제주 갈옷이 있다”, 『한겨레』 11면, 1998. 8. 29.
- 241 유인경, “추석엔 때깔고운 생활한복을 입자”, 『경향신문』 15면, 1998. 9. 25.
- 242 이선주, “실용성 강조한 우리옷 추석빔 마고자-고쟁이등 응용 전통한복의 약점 보완”, 『조선일보』 35면, 1994. 9. 16.
- 243 정상영, “추석때 입을 개량한복 전시 판매”, 『한겨레』 13면, 1994. 9. 6.
- 244 “배넛저고리를 외출복으로, 「우리옷」 여름 거리 활보”, 『경향신문』 13면, 1996. 5. 27.
- 245 박종인, “인사동 나들이길 생활한복점 둘러보자”, 『조선일보』 35면, 1998. 9. 25.

옷이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게 소비될 수 있는 상품 가치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80년대는 전문가가 제작한 상품화된 갈옷이 등장하는 시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5) 1990년대 제주의 갈옷과 감물들이기

(1) 상품화된 갈옷의 등장과 증가

1990년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시기로 제주의 농산물과 관광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개방된 시기이다.²²⁶ 1980년대에 비해 1차산업과 3차산업으로의 취업 비율이 26.9% 감소하고 28.5% 증가함에 따라 두 산업으로의 취업 비율은 각각 41.7%와 54.6%로 역전되어²²⁷ 제주에서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더욱 감소하였다. 반면, 1990년 제주 방문객(3164천명)은 1986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431,945백만원)은 약 3배 증가하여 관광객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졌다.²²⁸ 또한, 1990년대에는 86서울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를 계기로 전통문화의 세계화²²⁹와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며²³⁰ 이 과정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상품화²³¹는 물론 지역문화의 활성화 및 향토문화의 상품화가 활성화되었다.²³²

1990년대의 갈옷 상품화는 생활개선회와 생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생활개선회의 갈옷 상품화는 1970년대까지 갈옷 착용이 많았던 농가의 소득 증대 일환으로도 추진되었다. 즉 마을 노인들이 가계소득을 올리는 부업 형태로 시작한 갈옷 제작²³³이 남제주군 생활개선회²³⁴, 북제주군 수산리 생활개선회²³⁵ 등 여러 지역의 생활개선회를 통해 확대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생태환경, 에콜로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익창출 목적의 기업들도 증가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3개 업체들 중 약 19개 업체가 1990년대에 설립되었는데,²³⁶ 이것은 1980년대보다 2배 더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부터는 제주 고유의 노동복인 갈옷의 상품화,²³⁷ 서울 브랜딩 백화점의 제주 여름갈옷 기획전,²³⁸ 제주 도지사의 향토 특산품전에서 갈옷 판촉 활동,²³⁹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제주 갈옷 전문점 (주)봄데강 등에 관한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²⁴⁰ 제주 갈옷에 대한 유통과 판매촉진이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이루어졌다.

(2)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과 갈천 제품의 종류

1990년대는 전국적으로 약 10개 정도에 불과했던 생활한복 업체가 150여개로 증가할 정도로 생활한복이 대중화되던 시기이다.²⁴¹ 1990년대의 제주 갈옷도 이러한 시장 동향에 발맞추어 생활한복 스타일로 상품화되었다. 이것은 실용성을 강조한 우리옷 추석빔,²⁴² 추석 때 입을 개량 한복 전시 판매,²⁴³ 감물염색한 배넛저고리 스타일의 제주 갈옷,²⁴⁴ 감물 옷을 접할 수 있는 인사동 생활한복점,²⁴⁵ 감물

로 천연염색한 옷²⁴⁶ 등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1999년 조사에서도 제주지역 여성 응답자들 중 과반수 정도가 남성용 개량한복, 여성용 개량한복, 여성용 원피스, 아동용 개량한복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았다.²⁴⁷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1990년대에는 생활한복 형태의 갈옷이 주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부업화 상품들 중에는 일부 남성용 갈적삼과 갈증이 및 여성용 갈적삼과 갈증이도 있었다.²⁴⁸ 그러나 1990년대 상품화된 갈옷 대부분은 전통적 이미지(예: 매듭 단추, 저고리의 깃이나 쇄)와 서양복 제작 방식을 융합한 것이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 중에는 현대복 스타일도 있었다. 생활개선연구회에서는 무명과 삼베에 감물들이 갈천으로 조끼와 반바지를 제작하였으며²⁴⁹ 남제주군 대정농공단지에 설립되었던 의류업체 (주)봄데강에서는 감물들이 천으로 해너복 스타일의 원피스와 남녀 정장 스마복을 제작하고 갈옷 패션쇼를 선보였다.²⁵⁰ 이 당시에는 감물들이 갈천으로 모자, 가방, 테이블 세트, 자동차 좌석 등받이 등과 같은 패션잡화나 생활용품 또한 제작되었다.²⁵¹ 이것은 1990년대부터는 감물들이 갈천의 쓰임새가 의복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새롭게 확장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3) 1990년대의 감물들이기 변화 특성

1990년대 감물들이기인 경우, 그 절차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70년대와 같이 생감을 따서 감물을 내고 원단에 감물을 들인 후 햇볕에 건조 시키고 물에 적시기를 반복하여 바래기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모든 제품이 감물들이 갈천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즉 1990년대에는 상품화된 갈옷은 거의 모두가 갈천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옷에 감물을 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1990년대 감물들이기의 큰 변화는 소재의 확대, 감물들이는 도구의 기계화, 감물의 저온 저장과 상품화이다. 우선 1990년대에는 면, 마, 모시 등의 천연소재 이외에 인견과 같은 재생섬유 직물에도 감물을 들였다. 감물들이 다양한 갈천은 물론 패션잡화나 생활용품의 제작에까지 활용되어 그 쓰임새를 확대하였다.²⁵² 감물들이기 때 사용하는 도구가 변화된 점도 1990년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1970년대까지는 풋감을 으깨는데 주로 낭도고리와 덩드렁마개가 이용되었다면 1990년대에는 믹서기, 커터기, 착즙기 등의 기계가 활용되었다. 이것은 기계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과거의 도구나 손염색을 대체한 것도 있지만 1990년대의 감물들이기가 갈옷 생산업체에 의해 대량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계화에 동반하여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감물 특성이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감 껍질이 섞인 감물을 이용하였다면 1990년대에는 기계로 분리한 순수 감물만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감물을 들인 후 감 껍질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감물에 섞인 감 껍질이 감물들이 천에 붙어 햇볕 건조 시 생기는 얼룩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물들이기가 대량화됨에 따라 1990년대에는 풋감의 저장성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하 5도 정도로 저온 저장된 감물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감물의 저온 저장이 가능해지자 감물들이기는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도 연장되었다. 특히, 저온 저장한 감물을 용기에 담아 거래하는 감물 상품화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246 윤경은, “여름한복”, 『동아일보』 11면, 1998. 6. 4.
 247 홍희숙, 제주 갈옷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청 연구과제(1999. 5. 1.~2000. 4. 31.)
 248 장승홍, 앞의 신문.
 249 허호준, 앞의 신문.
 250 임재영, 앞의 신문.
 251 허호준, 앞의 신문.
 252 홍희숙(1999. 5. 1.~2000. 4. 31.), 앞의 연구과제.

큰 변화이다.

(4) 패션상품과 지역문화상품으로의 가치 전환

1999년에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주 갈옷에 대한 인지도 및 상품화된 갈옷의 구매 경험과 향후 구매 의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조사에 참여한 402명의 제주지역 여성들 중 98%가 갈옷에 대해 알고 있지만 상품화된 갈옷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갈옷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15% 정도였다.²⁵³ 이것은 제주 사람들 대부분이 상의 혹은 하의로 갈옷을 착용했던 과거의 양상과는 다른 점이다. 제주 사람들이 상품화된 갈옷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의 낮은 활용도, 선호도 낮은 스타일, 세련되지 못한 디자인과 디자인 다양성 부족, 제한된 색상과 소재, 다양한 현대적 아이템의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⁵⁴ 이것은 갈옷이 필수품이기가보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기호품으로 그 용도와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은 노동복으로 활용되었던 전통적 갈옷과 달리 개인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패션상품으로서의 특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특히, 1999년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갈옷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제주지역 여성의 49.9%가 향후에도 갈옷이나 갈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²⁵⁵ 상품화된 갈옷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취향, 가치관에 따라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것은 조선 시대에 감물들이던 제주의 의생활 문화나 제주의 민속 복식이 상품화된 갈옷을 통해 현대생활에 맞게 전승됨을 의미한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제주 관광객의 약 2/3 정도가 갈옷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²⁵⁶ 갈옷을 인지하고 있는 제주 방문객 중 약 17%의 관광객이 구매를 통해 갈옷을 소비한 경험이 있었으며, 51.6%가 향후에도 갈옷이나 갈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²⁵⁷ 이것은 조선 시대에 뿌리를 둔 상품화된 갈옷이 지역 문화상품이자 제주 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광기념품으로 수용됨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1990년대는 갈옷이 전문업체에 의해 상품화되어 그 성격이 패션상품과 지역문화상품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은 생활한복 스타일과 서양복 스타일이었으며, 상품화된 갈옷은 거의 모두 천연소재나 재생섬유 원단에 감물을 들인 갈천으로 제작되었으며, 갈천은 의류에 덧붙여 패션잡화와 생활용품의 재료로까지 그 쓰임새를 확대하였다. 1990년대 감물들이기의 특징은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계화된 도구의 사용으로 감 껍질이 없는 감물과 저온 저장된 감물이 이용되었으며, 감물 또한 상품화되었다.

253 홍희숙, 「제주지역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문화상품 '갈옷' 패션이미지와 '갈옷' 구매 행동」, 『제주도연구』 26, 제주학회, 2004, 240쪽.

254 위의 논문, 246~249쪽.

255 위의 논문, 245쪽.

256 홍희숙, 「추구혜택과 패션이미지가 제주지역 패션문화상품 갈옷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2), 대한가정학회, 2001, 78쪽.

257 위의 논문, 78쪽.

6) 2000년 이후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갈옷 전문 생산업체의 증가와 감물염색 제품의 다양화

2000년 들어 제주의 농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농가 규모와 농업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²⁵⁸ 특히, 2015년에는 1990년 대비 농업 가구와 농업 인구의 수는 각각 16.6%, 43.1% 감소하였다.²⁵⁹ 그러나 제주 갈옷업체는 제주지역의 농가나 농업인구의 감소에 상관없이 2000년대에 더욱 증가하였다. 감물염색 업체가 89%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73개 천연염색 업체들 중 27개 업체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21개 업체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설립되었다.²⁶⁰ 즉 2012년까지 48개 업체가 설립되어 19개 업체가 설립된 1990년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게 제주의 농가와 농업인구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갈옷 전문업체가 증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소비 지향에 기반한 친환경 시장의 확대에 따른 현대적 수요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2001년 갈옷 전문업체와 제주공항의 갈옷매장을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²⁶¹ 및 2003년²⁶², 2013년²⁶³, 2015~2016년²⁶⁴, 2020~2023년²⁶⁵에 갈옷 전문업체 매장을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와 업체 대표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파악되었다.

2000년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우선 현대 복식으로 상품화된 갈옷의 다양화와 고급화 및 갈천의 용도 확장이다. 2000년 이후 상품화된 갈옷은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적용된 원피스, 블라우스, 자켓, 셔츠, 조끼, 아동복 등이다. 특히, 2010년 이후 학계에서 이루어진 실험연구와 갈옷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를 통해 감물들이기 '갈천' 원단의 항균성과 소취성 등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상품화된 갈옷은 피부와 접촉하는 러닝, 티셔츠, 양말을 비롯하여 언더웨어 제품으로까지 그 용도가 확대되었다. 상품화된 언더웨어와 피부접촉 의류들은 2013년에 조사한 (주)몽생이나 농업회사법인 (주)갈중이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또한, 모자, 머플러, 스카프, 가방 등 1990년대에 처음 소개되었던 이러한 갈천 제품에 추가하여 2000년대에는 헤어밴드, 브로치, 이불, 침대 매트, 베개, 테이블 매트, 티코스터 등을 비롯하여 갈옷 입은 소녀, 해녀, 대장금, 곰돌이 인형 등과 같이 상품화된 갈천 제품이 더욱 다양해졌다. 따라서 갈천은 2000년 이후 패션잡화와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패션액세서리, 침구, 실내장식 용품의 소재로까지 그 쓰임새가 더욱 확장되었다. 2000년 이후 나타난 변화 중의 또 하나는 상품화된 갈옷의 소재와 문양 다양화이다. 1990년대 상품화된 갈옷에는 주로 면직물, 마직물, 인견 등이 적용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감물들이기가 소창과 텐셀 원단에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소금 뿌리기, 주름잡기, 흘치기 기법, 나염 프린팅을 적용한 문양 갈천을 갈옷의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갈옷이 갖는 단일 색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자인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2000년 이후의 변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2000년 이후에는 (주)몽생이와 몇몇 업체들이 갈천을 친환경 벽지의 용도로까지 그 쓰임

258 부남철, “숫자로 본 제주-제주지역 경제 성장 추이”, 『제주일보』, 2003. 9. 30.

259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보도 자료, 통계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구조 변화」, 2017년 4월 3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5148&list_no=359766&seq=4

260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2012, 52쪽.

261 홍희숙, 「제주 관광기념 의류상품 다양화를 위한 지역패션문화상품의 개발: 생활한복」, 중소기업청 연구과제(2002. 5. 1.~2002. 4. 31.).

262 홍희숙,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한국색채학회, 2003, 15쪽.

263 제주지역 갈옷 전문업체 매장 방문 및 홈페이지 조사.

264 홍희숙 외, 「감물 가공처리 한지가 죽 신소재를 활용한 글로벌 명품가방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2015. 9. 1.~2017. 8. 31.).

265 홍희숙 외, 「ICT 및 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과제(2020. 6. 1.~2023. 5. 31.).

새를 확장시켰다.

(2) 2000년 이후 나타난 감물들이기의 변화 특성

2000년 이후 감물들이기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제주의 전통 감물들이기를 응용한 감물복합염색의 등장과 적용이다. 2000대 중반부터 다른 천연염료로 이미 염색한 천을 감물로 다시 재염시키거나, 감물들이인 갈천을 쪽, 쪽, 감태 등의 염액에 담가 재염시킨 원단을 상품화된 갈옷의 소재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감물복합염색은 감물을 들이는 대상을 미가공 원단뿐만 아니라 다른 천연염색 원단까지 확대한 것이거나, 감물들이기가 끝난 갈천에 또 다른 절차 하나를 부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감물들이기를 응용한 또 하나의 감물염색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감물복합염색이 활성화된 것은 기능성 강화와 색조 다양화 두 측면에서의 유의성 때문이다. 예컨대, 천연염색 원단에 감물을 들인 감물복합염색 원단인 경우 염색건뢰도, 항균성,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다.²⁶⁶ 그리고 농도를 조금 약하게 한 감물염색 원단에 감태, 쪽, 쪽 등으로 재염을 하면 짙은 어두운 갈색, 검정 기미의 어두운 카키색, 푸른 기미의 먹갈색 등이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갈색이 엷보이지만 다양한 색조의 니앙스를 나타내는 상품화된 갈옷이 가능하다.

2000년 이후 나타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감물들이기 체험의 상품화와 대중화이다. 우선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화된 감물들이기 체험이 새로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지속가능성과 체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와 감물염색 업체의 상호협력에 의한 감물들이기 체험 학습, 지역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체험 행사, 천연염색 업체의 체험상품이 증가하면서 주로 갈옷 전문 업체에 제한되어 이루어졌던 감물들이기가 2000년 이후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도 대중화되었다. 제주지역 신문들에 따르면,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은 주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제주 추사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민속촌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감물들이기 체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2002년부터 제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의 하나로 감물들이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²⁶⁷ 약 20년 동안 매년 여름에 정기적으로 운영해온 이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하루 이틀 동안 1,000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최근에는 축제형식으로까지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개선회의 부업화를 통한 소득 증대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호 학습을 목적으로 감물들이기 체험이 마을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2000년 이후에는 갈옷 생산업체 이외에 일반인들에 의한 감물들이기가 대중화되었다.²⁶⁸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나타난 감물들이기 변화 중의 하나는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의 발색과 감물염색의 반자동화이다. 즉 1990년대에 풋감을 부수고 으깨는 작업이 카터기나 착즙기 기계로 대체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장마나 비와 같은 날씨 요인에 따라 방해받는 발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²⁶⁹ 실내 환경에서의 바래기가 추진되었다. 예컨대, (주)몽생이는 자연발색과 함께 유리온실에서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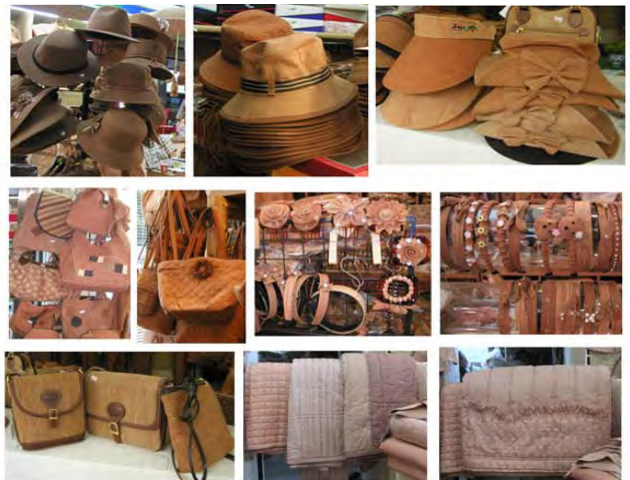
266 홍희숙, 「신타라 gift & 체험 프로젝트 사업: 건강기능성 패션상품 연구개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사업(2005. 7. 1~2006. 6. 30.).
267 강재병, “감물들이기 행사 이색 체험”, 『제주일보』, 2022. 8. 18.
268 “이도1동, 장애인 감물들이기 체험”, 『제주환경일보』, 2014. 9. 28. “[제주] 감물들이기 체험으로 농심 전해”, 『농촌여성신문』, 2012. 9. 3.
269 홍희숙, 앞의 논문, 2003, 16쪽.

물들이 천을 발색시키는 바래기를 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갈중이는 손으로 물들이던 과정을 반자동화된 염색 공정으로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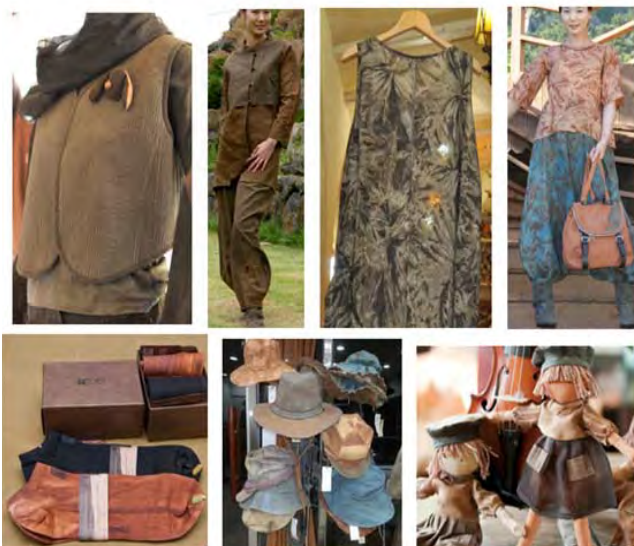
요약하면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큰 변화는 감물복합염색의 등장과 활성화이다. 감물복합염색 원단으로 2000년 이후의 상품화된 갈옷은 색상과 색조가 다양화되는 한편 기능성 또한 강화되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감물들이기의 상품화와 체험 대중화이다. 갈천에 적용된 문양염과 감물들이는 소재의 다양화도 2000년대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현대복식 형태의 갈옷이 1990년대보다 더욱 다양화되고 고급화된 점을 비롯하여 감물들이 갈천의 용도가 다양한 범주의 상품군으로 더욱 확장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생활한복과 현대복식(2001년)
제주공항과 제주 갈옷업체매장



패션잡화와 침구 (2001년)
제주공항과 제주 갈옷업체 매장



감물염색과 감물복합염색 제품 (2013년)
제주지역 갈옷업체 매장



감물염색과 감물복합염색 제품 (2021년)
제주천연염색기업지원사업

〈사진 14〉 2000년 이후의 상품화된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제품

Ⅲ.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지식

제주 갈옷은 제주 사람들이 예로부터 현재까지 입고 있는 전통 복식 중의 하나다. 갈옷에 대한 공식 기록은 조선 후기 제주에 유배왔던 윤봉조(尹鳳朝, 1680~1761)의 도중잡영(島中雜詠)¹ 열 번째 시에 나타나는 '능우시염의(凌雨柿染衣)'와, 윤시동(尹蓍東, 1729~1797)의² 『증보탐라지』에 기록된 '우의단갈상염청시수(又以短襦嘗染靑柿水)'와 '농가우위호착(農家尤爲好着)'을 통하여 제주 사람들은 조선 시대에도 일을 할 때 갈옷을 즐겨 입었음을 알 수 있다.³ 갈옷은 제주 사람들이 주로 밭이나 들일 등 노동을 하면서 입었던 일복이었다.

제주 갈옷은 보통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다. 배우에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한다. '갈옷'은 광목 따위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어거나 감물을 들인 천으로 만든 옷을 말한다. 무명옷이나 광목옷은 땀이 차나 갈옷은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 않아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다. 감물로 옷을 코팅하여 모기 등 해충의 피해도 덜 받아 여름철 노동복으로 제격이었다.

제주 전통 복식을 대표하는 제주 갈옷은 뜨거운 여름철에 만든다. 제주토종감이 물이 올라 씨가 여물기 전인 칠월칠석 경, 햇볕이 짙은 날에 '풀감'을 으깨어 그 즙을 이용하여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옷에 물을 들인다. 한복을 주로 입던 시기에는 적삼과 중의에 감물을 들였고, 1940년대 이후에는 일바지인 '몸빼'에도 감물을 들여 입었다. 공장에서 옷을 생산하는 시기에 들어서도 입던 와이셔츠 등에도 감물을 들여 일복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요즘에는 옷 대신에 천에 감물을 곱게 들인 후 개인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 입고 있고, 제주 갈옷의 제주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 갈옷은 미리 손질해 둔 옷감이나 옷에 으깬 감을 싸서 주무른 후에 찌꺼기를 털어낸 후 말린다. 완전히 마르면 물을 적셔 말리기를 반복한다. 널 때는 감물이 골고루 들게끔 옷감의 앞뒤를 번갈아 가며 말리고 적시고를 반복해야 하는데 물을 바르게 잘 퍼서 널어야 한다. 그래야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고 갈옷 색감도 곱다.

이처럼 제주 갈옷은 제주 토종감을 활용하여 하얀 옷을 여름날, 뜨거운 햇살에 말리고 바래기를 반복해 제주 고유의 불그스레한 감색으로 물들인 제주 특색의 옷이다.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정성이 오롯이 배인 제주 갈옷은 물들이고 말리고 손보고 바래는 과정을 반복해서 만들어 낸 '기다림의 미학'이다.

1 윤봉조, 『포암집(圃巖集)』(卷之三, 1767). 윤봉조는 1728년 제주에 유배 와서 1929년 육지로 이송되었다. 이 기간에 제주에서 봤던 풍물 등에 대해 시문으로 남겼다.
 2 윤시동은 1765년 8월부터 1766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제주 목사를 지냈다.
 3 윤시동은 『증보탐라지』에서 갈옷에 대하여 '又以短襦嘗染靑柿水 其色赤黑, 雖旬月不濯 曾不汗汗, 農家尤爲好着.'라고 소개하고 있다.(윤시동 저, 김영길 역주, 국역 『增補耽羅志』,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원, 제주: 제이에스 디자인, 2016, 148쪽.)

제주 갈옷은 제주 여성들의 바지런함의 상징이다. 전통 농업이 주요 산업이던 시절, 제주 어머니들은 집안일에 발일에 틈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씨가 여름에 갈 즈음인 뜨거운 여름에 제주 어머니들은 갈옷 물들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야 무더위를 이길 수 있었다. 즉, 제주 갈옷은 여름나기 옷이었고, 감물들이는 여성들의 정성과 바지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여름철 여성들의 주요 행사가운데 하나였다.

뜨거운 여름날 아침, 집집마다 갈옷을 만들었던 풍경을 연상하면 한 폭의 그림이다.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감을 따고, 감을 찢고, 감물을 들이고, 널고 말리고 발색하고, 그렇게 긴 과정을 거쳐 갈옷이 완성된다. 갈옷의 제작 과정은 여름철 제주만의 색다른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즘은 옷 대신에 커다란 옷감에 물을 들인 후 옷을 만들어 입는다. 옷도 노동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외출복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 갈옷은 제주 여성들의 정성과 수고로움, 그리고 피약별이 조화를 이룰 때라야 만들어진다. 제주 갈옷은 화산섬 제주와 제주토종감, 그리고 여성들의 노력과 정성이 어우러진 기다림의 미학이다. 옷이나 천에 감물을 들이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문화다. 제주의 독특한 무형유산으로, 미래 세대에 전승할 만한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 자원이다.

1. 제주 갈옷의 종류와 쓰임새

1) 갈옷의 정의와 명칭

‘갈옷’은 옷에 감(물)을 들이거나 감물을 들인 천으로 만든 옷을 말한다. ‘갈옷’은 ‘감옷’ 또는 ‘감든옷’이라고 한다.⁴ 이번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제보자들이 ‘갈옷’이라는 명칭과 함께 ‘감옷’ 또는 ‘감든옷’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갈옷’보다는 ‘감옷’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⁵ ‘감든옷’은 제주시 서쪽 지역인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감든옷’과 함께 ‘감든중의’, ‘감든적삼’처럼 옷 이름에서도 ‘감든옷’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감(물)을 들인 옷’의 의미로 ‘감든옷’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등거리가 인제 조끼주게. 이거는 여름 때에 집이 오라근에 그거 감옷 벗어뒤근에 밥 먹을 때. 었은 집이 었어, 그거. 미시거 천이 었기 때문에 옷을 맨들 것이 었거든. 이 감든옷은 문딱 미녕이어난.(등거리가 인제 조끼지. 이거는 여름 때에 집에 와서 그거 감옷 벗어두고 밥 먹을 때. 었는 집엔 었어, 그거. 무엇 천이 없기 때문에 옷을 만들 것이 없거든. 이 감든옷은 몽땅 무명이었어.)⁶

• 이 감옷이렌 헛 거는 빨기도 좋고 입기도 간편하고 더럽지도 않고, 더러우면 그날 빨아서도 또 입을 수도 있고. 이게 다목적으로 아주 좋은 거요.(이 감옷이라고 한 거는 빨기도 좋고 입기도 간편하고 더럽지도 않고, 더러우면 그날 빨아서도 또 입을 수도 있고. 이게 다목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⁷

• 어린 때 친정에선 막 잘살아 부난 갈옷이 뿔산디 모르고 이디 촌에 오란 일허명 살젠 허난 갈옷을 입어사 뚝도 안 부평 수락허고⁸ 경헌다게.(어린 때 친정에선 아주 잘살아 버리니 갈옷이 뿔인지 모르고 여기 촌에 와서 일하며 살려고 하니 갈옷을 입어야 뚝도 안 붙어서 ‘사락하고’ 그래.)⁹

‘갈옷’이 ‘감을 들인 옷’ 명칭의 대명사가 된 것은 관련 연구와 매체 등에서 ‘감옷’이나 ‘감든옷’보다는 ‘갈옷’을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갈옷’과 함께 ‘감옷’과 ‘감든옷’의 명칭도 함께 써야 할 것이다. ‘갈

4 제주에서는 감물을 들인 옷을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서 ‘갈옷’, ‘감든옷’, ‘감옷’이라고 하였다. 글의 전개를 위하여 ‘갈옷’으로 쓰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감든옷’과 ‘감옷’도 병행해 쓰고 있다.

5 제보자들은 ‘감을 들인 옷’은 ‘갈옷’보다는 ‘감옷’을 더 자연스럽게 썼다. 조사자가 ‘갈옷’이라고 물어선 지 ‘갈옷’이라고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감옷’이라고 하였다. ‘감옷’이라고 쓰는 것을 재확인하면 제보자들은 이내 “갈옷엔도 허고 감옷이엔도 헛다.”며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6 양태월(여, 1934년생) 구술 자료 (2023. 2. 17.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자택).

7 김유현(남, 1940년생) 구술 자료 (2023. 1. 11.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자택).

8 ‘수락허고’는 ‘사락하고’라고 쓸 수 있는데, ‘옷이 풀한 것처럼 감촉이 뽀뽀해서 거친 느낌이 있고’라는 뜻으로 쓰였다.

9 김갑생(여, 1923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남원읍 신흥2리 자택).

옷/감옷/감든옷'이란 명칭은 모두 감을 으깨거나 감을 짠 감물로 염색한 옷이기 때문이다.

'갈옷/감옷/감든옷'의 재료는 모두 '감[栲]'이다. 이 감을 이용하여 제주 사람들은 제주 특유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 여기에서 '갈옷'은 '갈+옷', '감옷'은 '감+옷', '감든옷'은 '감들다+옷'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다. '감들다'는 다시 '감들+ㄴ+다' 구성의 어휘다. '갈옷, 감옷, 감든옷'은 모두 감을 이용해서 염색한 옷이기에 감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갈'과 '감'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과 '감'은 '갈옷'의 재료인 '감'을 이용한 염료 '감물'의 의미로 쓰였다. 이는 감을 으깨어서 옷이나 천에 염색을 하는 행위나 모습을 일컬을 때 '갈들이다, 감들이다, 감물들이다'라고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갈옷'의 '갈'이나 '감옷'의 '감'은 '감물'의 다른 이름인 썸이다. '갈'이 '털 익은 감에서 나오는 짧은 즙'의 의미인 '감물'의 의미로 쓰인 것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의 구술과 남원읍 태흥2리 양기화의 구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감물을 들이는 일을 '갈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갈'이 옷에 스며드는 것을 '갈물'이라고 하는 데서 유추가 가능하다.

• 갈들이 일 때 깨끗이 빨아 뒀 들어야주. 경 몸에 입어난 몸심도 들고 그디 구둑도 부르고 한 걸 그디 갈들이영 뒀느냐? 깨끗이 빨아 뒀 갈들이사 갈물도 그 옷에 깨끗이 들영 밧도 곱닥허게 밧주.(갈들이 일 때 깨끗이 빨아 두고 들어야지. 그렇게 몸에 입었던 '몸심'도 들고 거기 먼지도 붙고 한 걸 거기 갈들이사 되느냐? 깨끗이 빨아 두고 갈들이야 갈물도 그 옷에 깨끗이 들어서 바래기도 곱게 밧지.)¹⁰

• 여자가 입는 거주. 굴중의. 갈중의는 그거 갈들이인 거난 갈중의주게.(여자가 입는 거지. 굴중의. 갈중의는 그거 갈들이인 거니까 갈중의지.)¹¹

• 감물들이여 밧주. 우리 친정에 큰아버지네 감나무칩이엔 행 큰 나무가 잇어서. 소문 나났어. 감남칩 행. 경 험에 난 어린 때니까 어머니 아버지네가 거 감 강 땅은에 감들이는 거 밧어.(감물들이여 밧지. 우리 친정에 큰아버지네 감나무집이라고 해서 큰 나무가 있었어. 소문 나났어. 감나무집 해서. 그렇게 해서 난 어린 때니까 어머니 아버지네가 거 감 가서 따서 감들이는 거 밧어.)¹²

• 감물 짙은에 그 기지에다가 감맥이면 그냥 색이 안 나는 거. 그걸 이제 펜펜 혼 디다가 그걸 날편허게 다 널어. 널영 그거를 몰르면 또시 그 옷을 가져강 물을 적셔. 물 잇인 디 강 물을 텨박텨박텨박 적셔다가 또 영 널영 허면 빨근 빛이 나와.(감물 짜서 그 천에다가 감맥이면 그냥 색이 안 나는 거. 그걸 이제 편평한 데다가 그걸 편평하게 다 널어. 널어서 그거를 마르면 또 그 옷을 가져가서 물을 적셔. 물 잇는 데 가서 물을 텨박텨박텨박 적셔다가 또 이렇게 널고 하면 빨간 빛이 나

10 김갑생(남원읍 신흥1리) 구술 자료.

11 양기화(여, 1938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자택).

12 강경순(여, 1938년생) 구술 자료 (2023. 1. 13.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자택).

와.)¹³

‘갈물’이 옷에 잘 들기 위해서는 옷을 깨끗이 뺀 후에 ‘갈’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갈물’이 잘 스며들어 바래면 옷 색깔이 곱다고 한다. 앞의 북촌리 구술에서 보듯이, ‘감들이’는 것을 ‘감뻤이다’라고도 한다. ‘감뻤이다’는 ‘감떡이다’는 의미로, 옷에 풀을 먹이는 것과 같이 인식한 결과이다. ‘갈’과 ‘감’이 감물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갈옷의 색을 ‘감색’, ‘갈색’이라고 표현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물 적정 널곡 널곡 허든 이렇게 감물이 뉘어, 감색이. 영 허영이 바짝허게 잘 헤영. 여기 구끄러지민이 갈색이 안 나와.(물 적셔서 널고 널고 하면 이렇게 감물이 되어, 감색이. 이렇게 해서 뽀뽀하게 잘 해서. 여기 구부러지면 갈색이 안 나와.)¹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갈: 털 익은 감에서 나는 뽀은 즙. 갈물, 감물. 시삽(柿澗)
- 감: 털 익은 감에서 나는 뽀은 즙. 감물. 시삽(柿澗)
- 감물: 털 익은 감에서 나는 뽀은 즙. 염료나 방부제로 쓴다.≡시삽.(《표준국어대사전》)
- 갈물¹⁵: 떡갈나무 껍질에서 얻는 검붉은 물감.(《표준국어대사전》)

여기에서 ‘감’은 감물의 의미로, 감물의 재료인 열매인 ‘감(柿)’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다.

2) 갈옷의 종류

(1) 구술 채록 속의 갈옷

이번 연구를 위해 우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 지역을 중산간마을과 해안마을로 나눠 27개 마을 42명의 제보자에게 갈옷 관련 문화를 조사하였다. 갈옷 문화를 구술해준 제보자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다. 제보자는 한 마을당 1~4명으로 모두 42명이다. 제보자는 90대 7명, 80대 26명, 70대 8명, 60대 1명이다. 성별로는 여자 40명, 남자 2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한 20대 이후에 갈옷을 입었다고 하니,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구술 속의 갈옷은 1940~1960년대 전후 시기의 갈옷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구술자들이 전통 사회에서 입었던 ‘갈옷’은 어떤 종류의 옷일까? 그리고 갈옷은 언제 입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갈옷’은 밭이나 들, 바다

13 백여옥(여, 1942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노인회관).

14 김정평(여, 1933년생) 구술 자료 (2023. 2. 16.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자택).

15 여기에서 ‘갈물’은 떡갈나무에서 얻은 염료다. 집필자는 2006년 한림읍 월령리에서 ‘갈’을 조사한 적이 있다. 제보자는 이때 ‘갈물’을 이용하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그물을 염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의 ‘갈물’은 떡갈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염료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떡갈나무 뿌리를 끓인 물에 면실을 넣어 끓이면 면실이 뽀뽀해서 그물을 짜면 질겨서 좋다고 하였다.

에서 일하며 입는 '일복'이었다. 이들이 갈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는 밭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성년이 되었을 때이거나 결혼 이후다. 어렸을 때 갈옷을 입은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편은 아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갈옷을 입는 장소와 옷의 모양이나 형태도 바뀌고 있다.

갈옷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여, 1923년생)의 구술 사례를 소개한다.



〈사진 15〉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 구술채록 장면

〈표 7〉 김갑생의 구술사례

제주어	<p>갈옷 입곡말곡. 갈옷만 입어근에 밭디 강 일허멍 살앗주. 갈옷 해여근에 막 입영 노동도 허곡 허민 놈도 나 입은 거 방 허여 줌센 허민 놈의 옷도 해여 주고 경허멍 살기 켈 험저게. 어린 때 친정에선 막 잘살아 부난 갈옷이 뿔산디 모르고 이디¹⁶ 오란에 촌에 오란 일허멍 살켄 허난. 갈옷을 입어사 땀도 안 부평 소락하고¹⁷ 경헌다게. 경헨 그자 갈옷 입영. 놈도 다 갈옷 입연. 남자덜은 갈적삼, 갈정뱅이 입곡 여자도 갈적삼, 갈몸빼 입곡 경헨 헛주. 갈중의엔 현 옷이 또 폰 식으로 멩그는 것가 있어. 갈중의가 있어, 여자 거. 갈몸빼도 여자 거. 갈정뱅이 남자 거.</p> <p>옛날엔이 우이 치메 걸쳐야 어디 영 나갈 때 입어, 갈중의게. 갈들이기 전에 굴중의. 감들여 부난에 같이 입힌 거주. 경 안허민 그자 중의. 난 이거 굴중의라고 막 익숙히 골아진 거주. 감물 안 들이민 기자 갈적삼이엔 안 해근에 적삼이고. 감만 아니 들인 건 그자 정뱅이. 감들여 부난 갈정뱅이. 감물들인 옷 갈정뱅이 갈적삼벵긴 엇다게.</p> <p>기자 흰옷 해영 제서 때에 절헨 때 허는 건 정뱅이적삼. 저슬에는 바지저고리. 홋 거, 안 안 부짚 건 정뱅이. 여름엔 정뱅이 적삼. 겨울엔 바지. 바지는 안 놔고. 안광 겹데기 사이에 솜 허썰 놔야. 요즘은 이 빠찌가 있고 하간 거 잊주마는 옛날엔 아무것도 엇영이 맨 우터레 옷을 입을 거난에 안이고 겹데기 두 사이에 솜을 허썰 놔 바질 헨다게. 경허민 허썰 몸이 돛돛허주. 경허난 솜바지, 솜저고리. 몸빼, 결혼헨 그 고리에 난 거라. 그나 결혼헨 때 그 수리에 몸빼 난 거라. 그 전인 중의라고 허여, 중의. 이거 치메 소꿉에 입는 거 아냐? 감물들여난 거 확실허 여우내 오랑 살멍 감물을 전문으로 들이곡 허영 놈도 주곡. 남원읍 신흥이린디 시방은 이거 여우내. 여우내 옛날에 막 촌 아냐, 촌구석 아냐.</p> <p>감물은 들인 건 얼어. 저 딱딱해근에 천에 고망이 나고 이진 여름에 입는 거난. 감물은 사락사락허게 들이는 거난. 겨난 겨울엔 복삭해살 겨난 겨울옷은 감옷이 엇고 갈옷은 여름에. 여름에 땀날 때 영허고 입으면 실그랑허주. 경허민 땀도 썰어지곡 밭디 강 일허고 허는 것가 갈옷이주. 요즘 닳지 안허영 옷이 엇인 따문에 봄이나 가을엔 그자 허썰 돛은 땀 갈옷도 입주마는 저 봄가을엔 잘 안 입고 허여튼 대충은 여름에. 갈옷 입으면이 갈옷이 사락사락헤 부난 몸에 부뜨지 안허난 막 시원헨 좋나게.</p>
표준어	<p>갈옷 입고말고. 갈옷만 입어서 밭에 가서 일하며 살았지. 갈옷 해서 자주 입어서 노동도 하고 하면 남도 나 입은 거 봐서 해 달라고 하면 남의 옷도 해 주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하지. 어릴 때 친정에선 아주 잘살아 버리니 갈옷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 와서 촌에 와서 일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갈옷을 입어야 땀도 안 붙어서 '소락하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그자 갈옷 입어서. 남도 다 갈옷 입었어. 남자들은 갈적삼, 갈잠방이 입고 여자도 갈적삼, 갈몸빼 입고 그렇게 해서 했지. 갈중의라고 한옷이 또 다른 식으로 만드는 것이 있어. 갈중의가 있어, 여자 거. 갈몸빼도 여자 거. 갈잠방이 남자 거.</p> <p>옛날엔 이 위에 치마 걸쳐야 어디 이렇게 나갈 때 입어, 갈중의. 갈들이기 전에 '굴중의'. 감들여 버리니까 같이 입힌 거지. 그렇게 얹으면 그자 중의. 난 이거 '굴중의'라고 아주 익숙히 말해진 거지. 감물 안 들이면 그자 중의고 그자 갈적삼이라고 안 해서 적삼이고. 감만</p>

16 '이디'는 제보자의 시택 마을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를 말한다.
 17 '소락하고'는 촉감이 뽀뽀해 시원한 감촉이 있다는 의미다.

표준어	<p>아니 들인 건 그저 잠방이. 갈들여 버리니까 갈잠방이. 감물들인 옷 갈잠방이 갈적삼밖에 없어.</p> <p>그저 흰옷 해서 제사 때에 절할 때 하는 건 잠방이적삼. 겨울에는 바지저고리. 홑 거, 안 안 붙인 건 잠방이. 여름엔 잠방이 적삼. 겨울엔 바지. 바지는 안 놓던데. 안과 겹데기 사이에 솜 조금 놔야. 요즘은 이 내의가 있고 온갖 거 있지만 옛날엔 아무것도 없어서 맨 위로 옷을 입을 거니까 안과 겹데기 두 사이에 솜을 조금 놔서 바질 해. 그러면 조금 몸이 따뜻하지. 그러니까 솜바지, 솜저고리. '몸뻐' 결혼할 때¹⁸ 그쯤에 난 거야. 그나 결혼할 때 그쯤에 '몸뻐' 난 거야. 그 전엔 중의라고 해, 중의. 이거 치마 속에 입는 거 아냐? 감물들었던 거 확실히 '여우내' 와서 살면서 감물을 전문으로 들고 해서 남도 주고. 남원읍 신흥이리 인데 시방은 이거 '여우내'. '여우내' 옛날에 아주 촌 아냐, 촌구석 아냐.</p> <p>감물은 들인 건 추워. 저 딱딱해서 천에 구멍이 나고 이건 여름에 입는 거니까. 감물은 사락사락하게 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겨울엔 꼭삭해야 할 거니까 겨울옷은 '감옷'이 없고 '감옷'은 여름에. 여름에 땀날 때 이렇게 하고 입으면 '실그랑하지'. 그러면 땀도 닦아지고 발에 가서 일하고 하는 것이 '감옷'이지. 요즘 같지 안해서 옷이 없는 때문에 봄이나 가을엔 그저 조금 따뜻한 맨 '감옷'도 입지만 저 봄가을엔 잘 안 입고 하여튼 대충은 여름에. 갈옷 입으면 갈옷이 사락사락해 버리니 몸에 붙지 않으니 아주 시원해서 좋아.</p>
-----	---

〈표 7〉의 구술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주민들이 입었던 갈옷의 종류와 쓰임새, 갈옷의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갑생은 결혼 후에 갈옷을 처음 입었다고 한다.

남원읍 신흥2리에서는 여름철에 밭일 등을 할 때 남자들은 '갈적삼'과 '갈점뻥이'를 입고, 여자들은 '갈적삼'과 '갈몸뻐'를 주로 입었다. '갈몸뻐' 이전에는 '갈중의'를 입었는데, 이때 '갈중의'는 다른 지역의 '갈굴중의'에 해당하는 옷이다.¹⁹

'갈중의'는 원래 치마 안에 입는 속옷인데, 감물을 들여서 일복으로 입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외출할 때 '갈중의' 위에 치마를 걸치고 나갔다고 한다. 외출하거나 집 안에 제사 등이 있을 때는 갈옷 대신에 여름에는 중의적삼, 겨울에는 바지저고리를 입었다. 갈옷은 주로 여름철에 일복으로 입었는데 땀이 붙지 않고 '사락사락'해서 여름철에 일복으로 주로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갈옷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서 '감옷', '감든옷'이라고 하는 것을 67쪽의 '1. 1) 갈옷의 정의와 명칭'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별 옷의 명칭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윗옷은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 아래옷은 '갈중의/감중의/감든중의, 갈정뻥이/갈점뻥이/감정뻥이, 갈굴중의/감굴중의/감든굴중의'처럼 나타난다.

'갈옷'이 제주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갈적삼'이나 '갈중의'도 제주도 전역에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감든적삼', '감든중의'는 '감든옷'이 조사된 제주시 애월읍과 한경면에서, '갈점뻥이'와 '감정뻥이'는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구술 채록을 통해 조사한 갈옷 종류를 윗옷과 아래옷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18 제보자는 스물세 살 때인 '대동아전쟁' 즉, 태평양전쟁 시기에 결혼했다고 하였다.

19 다른 지역에서는 남자들의 여름 할바지를 '중의'라고 하고, 감물을 들이면 '감중의, 감든중의, 갈중의'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 지역에서는 '갈중의'라는 명칭 대신에 '갈점뻥이, 갈정뻥이'라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가) 윗옷

(가) 갈적삼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다.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적삼에 감물을 들여 만들었다. 입던 베적삼에 감물을 들여 시원하게 입기도 하였다. ‘적삼’은 예부터 전해오는 전통 의복 가운데 하나인, 윗도리로 입는 여름 홑옷을 말한다. ‘적삼’은 원래 저고리 모양으로 만드는데, 제보자들은 목 부위가 마고자 형태인 옷도 적삼이라고 하였다. 제보자나 지역에 따라서 ‘감적삼, 감든적삼, 갈독지, 갈등지게’처럼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제주시 화북2동은 ‘갈적삼’, 애월읍 금성리에서는 ‘감든적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1리에서는 ‘갈적삼’과 함께 ‘갈등지게²⁰’가 조사되었다. 구좌읍 월정리에서는 ‘감적삼’, 조천읍 북촌리에서는 ‘갈적삼’과 ‘갈독지’, 조천읍 와산리에서는 ‘갈적삼’과 ‘갈독지’가 같은 의미로 조사되었다.

• 우이계, 갈적삼계. 갈뭇뻐. 아이고, 거 밧디 매날 꺾어 아정 가난에게. 뭇뻐 이추룩 광목이나 미녕이나 행 만들앙들 저 감들영 입업주.(위에, 갈적삼. 갈뭇뻐. 아이고, 거 밧에 매일 끌고 갖고 가니까. 뭇뻐 이처럼 광목이나 무명이나 해서 만들어서들 저 감들여서 입고 있지.)²¹

• 우에 거는 감든적삼. 여자 건 여자대로 그자 감든적삼. 남자도 옷 입게 뉘민 감든적삼 경혜어나신디, 이거도 할망덜 감든굴중의.(위에 거는 감든적삼. 여자 건 여자대로 그저 감든적삼. 남자도 옷 입게 되면 감든적삼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할머니들 감든굴중의.)²²

• 우에 거 갈등지게 해낫주게. 아고 나 저 옷 두라게, 저 갈등지게 경 해나난. 그냥 나 이 할망 골아난 거 들구 골아점저게. 갈적삼 갈적삼허는디 갈등지게. 저 할망덜 만든 건 갈적삼 영 헤여근영에 흥꼬 길게 허영 영 벼짜하게 부뜨지 안형 그자 옛날 저고리추룩 그런 식으로 할망덜은 만들어근영에 해낫주게.(위에 거 갈등지게 했었지. 아고 나 저 옷 다오, 저 갈등지게 그렇게 했었어. 그냥 나 이 할머니 말했던 거 마구 말해지네. 갈적삼 갈적삼하는데 갈등지게. 저 할머니들 만든 건 갈적삼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해서 이렇게 뽕뽕하게 붙지 않고 그저 옛날 저고리처럼 그런 식으로 할머니들은 만들어서 했었지.)²³

• 적삼은 만들어나도 나 감적삼은 안 입어 봤어. 감뭇뻐는 이제도 입주만은. 적삼은 안 입어, 요새. 감뭇뻐 그런 건 만들앙 입고. 이제 저 복²⁴들 주면은 그걸로도 입고 경허주.(적삼은 만들었어도 나 감적삼은 안 입어 봤어. 감뭇뻐는 이제도 입지만. 적삼은 안 입어, 요새. 감뭇뻐 그런 건 만들어서 입고. 이제 저 복들 주면은 그걸로도 입고 그러지.)²⁵

20 ‘등지게’는 등거리에 해당하는 방언이다. 그런데 제보자는 적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1 백순성(여, 1934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제주시 화북2동 자택).

22 이화자(여, 1940년생) 구술 자료 (2023. 1. 13.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자택).

23 고순자(여, 1944년생) 구술 자료 (2023. 1. 4.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1리 자택).

24 여기에서 ‘복’은 상복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상이 나면 가까운 여자 친족들에게는 복으로 ‘무명뭇뻐’를 준다. 예전에는 복치마와 ‘복수건’을 주었었다. 복으로 준 광목 ‘뭇뻐’에 감물을 들여서 일복 따위로 입는 경우가 많다.

25 현봉래(여, 1939년생) 구술 자료 (2023. 2. 6.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자택).

- 26 백여옥(여, 1942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노인회관).
- 27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 28 여기에서 '이건'은 '깃없이 목둘레를 둥그렇게 만든 옷'을 가리키며 한 말이다.
- 29 양순자(여, 1942년생) 구술 자료 (2023. 1. 6.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사무소), 장태선(여, 1939년생) 구술 자료(2023. 1. 6. 명월리사무소).
- 30 <사진 1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갈옷'. 다른 명칭으로 '갈등지게'(남자 상의류)라고 소개하고 있다.

• 남자들이 갈중의 입영 펼락한 거 입고 행 갈중의 저 하르방 보라 갈중의 멋지게 입었져. 또 우리는 몸뻘. 우테 입는 건 갈독지.(남자들이 갈중의 입어서 펼락한 거 입고 해서 갈중의 저 할아버지 보라 갈중의 멋지게 입었다. 또 우리는 몸뻘. 위에 입는 건 갈독지.)²⁶

'갈적삼'은 대정읍 일과1리의 구술 "갈등지게, 할망덜 만든 건 갈적삼 영 헤여근 영에 흥깁 길게 허영 영 버짝허게 부뜨지 안형 그자 옛날 저고리추룩 그런 식으로 할망덜은 만들어근영에 해낫주게.(갈등지게, 할머니들 만든 건 갈적삼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해서 이렇게 뻗뻗하게 붙지 않고 그저 옛날 저고리처럼 그런 식으로 할머니들은 만들어서 했었지)²⁷"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갈적삼'을 저고리처럼 만들었는데 저고리보다 조금 길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마고자 형식으로 목 부위를 둥그렇게 만들고 있어 적삼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서는 "옛날엔 적삼에 깃 다 있어. 이건²⁸ 적삼이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등지게라, 등지게. 옛날 말로는 등지게. 그 갈적삼은 깃이 잇엇주게. 남자나 여자나 깃이 잇고.(예전엔 적삼에 깃 다 있어. 이건 적삼이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등거리야, 등거리. 옛날 말로는 등지게. 그 갈적삼은 깃이 잇엇지. 남자나 여자나 깃이 잇고.)²⁹"라는 구술자료를 채록하였는데, 명월리에서는 옷의 모양에 따라서 적삼과 등지게를 구분해 부르고 있었다. 즉 깃의 유무에 따라 깃이 있는 것은 적삼, 깃이 없는 것은 '등지게'³⁰라고 한 것이다.



<사진 16> 적삼(해녀박물관 소장)



<사진 17> 등지게(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옷감이 변변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속옷도 쉽게 입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적삼을 입고 피약별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등허리가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았다. 갈적삼만 입고 피약별에서 일을 했던 제주 여성들의 노동의 흔적인 셈이다.

• 난 하도 똥똥하고 커 부난 갈적삼이 쫄르게 입어 노난 이 등허리가 시커멍. 앓이면은 늘 허리 나. 막 짧으게 해 노난. 이디 이제도 시커멍허영 어디 목욕탕 가민 부끄로와.(난 하도 똥똥하고 커 버리니 갈적삼을 짧게 입어 놓으니 이 등허리

가 시커메. 앉으면 늘 허리가 나. 아주 짧게 해 놓으니까. 여기 이제도 시커메서 어디 목욕탕 가면 부끄러워.)³¹

• 그냥 적삼은 짧게 입는 거카 부덴. 이제 생각으론 아이고 이거 등 타니깐 길게 만들어야지 생각후는디 그때 당시엔 그냥 갈적삼은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고 몸빼는 길게 만드는 거로구나 행 그냥. 밧디 강 검질메젠 허민 여기 햇빛 막 등허리 타근에 시커멍. 어디 강 옷 벗이븐 등만 새카망.(그냥 적삼은 짧게 입는 걸 까 봐서. 이제 생각으론 아이고 이거 등 타니깐 길게 만들어야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엔 그냥 갈적삼은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고 몸빼는 길게 만드는 거로구나 해서 그냥. 밧에 가서 김매려 하면 여기 햇빛 막 등허리 타서 시커메. 어디 가서 옷 벗으면 등만 시커메.)³²

• 감적삼도 이거 허쫄 질게 쫘 만들앗주게. 옛날엔 난닝구털 안 입어근에 허민 요기 등 막 나근에 이디 할망들 올로 요레는 타 비어. 난닝구가 엇어난.(감적삼도 이거 조금 길게 쫘 만들었지. 옛날엔 러닝들 안 입어서 하면 요기 등 마구 나서 여기 할머니들 올로 요리론 타 버려. 러닝이 없었어.)³³

복식학자 고부자는 적삼이 짧아 윗도리와 아랫도리 사이에 까맣게 타서 허리에 생긴 띠를 ‘준동띠’라고 하였다. ‘준동띠’는 “속옷 없이 길이가 짧은 갈적삼만 입고 일하기 때문에 드러난 허리 부분만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린 자국”³⁴을 말한다. 제보자들에 있어서 ‘준동띠’는 열심히 일한 대가이지만 부끄러움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허리를 가리기 위하여 적삼 안에 속용 대응으로 ‘어깨말이’를 만들어 입었고, 적삼의 길이도 차차 길어지게 된 것이다.

(나) 감저고리

‘감저고리’는 저고리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달리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서 ‘갈저고리’라고도 하였다. 저고리는 한복의 하나로, 윗도리의 하나다. 적삼이 훑옷인데 비하여 저고리는 겹옷이다.

- 감저고리, 감적삼 경 곱읍니다.(감저고리, 감적삼 그렇게 말합니다.)³⁵
- 갈저고리 이추룩 만들어. 없는 사름은 겨울에도 입지.(갈저고리 이처럼 만들어. 없는 사름은 겨울에도 입지.)³⁶

한림읍 수원리에서는 ‘감저고리’, 표선면 하천리에서는 ‘갈저고리’가 조사되었다. ‘갈옷’은 주로 여름철에 입는데, 없는 사람들은 저고리에 감물을 들여서 겨울에도 입었다고 한다.

31 유애자(여, 1941년생) 구술 자료 (2023. 2. 1.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리 송죽경로당).
 32 허금자(여, 1957년생) 구술 자료 (2023. 2. 1.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리 송죽경로당).
 33 현봉래(여, 1939년생) 구술 자료 (2023. 2. 6.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자택).
 34 고부자,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문화재청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제주 갈옷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학연구소, 8쪽.
 35 김희춘(여, 1934년생) 구술 자료 (2023. 1. 10.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자택).
 36 강경순(여, 1938년생) 구술 자료 (2023. 1. 13. 표선면 하천리 자택).

(다) 갈쫄개

‘갈쫄개’는 감물을 들인 조끼다. ‘조끼’를 제보자들은 ‘쫄개, 쫄끼, 쫄끼’라고 하였다. 조끼는 옷을 입은 위에 덧입는 옷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복으로 입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입었다.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 입기도 하였지만 삼베를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제주시 화북2동, 서귀포시 법환리에서는 ‘갈쫄개’,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선 ‘감든쫄개’,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는 ‘감쫄끼’와 ‘갈쫄끼’가 조사되었다.

• 쫄개 남자털이나 입주. 등거리엔 허주만, 남자털 갈쫄개 입은 사람도 있주게. 베에들 감들영 상그랑허게.(조끼 남자털이나 입지. 등거리라고 하지만, 남자들 갈쫄끼 입은 사람도 있지. 베에 감들여서 상그랑허게.)³⁷

• 감든중의. 감든적삼. 감든쫄개. 그 하르방털이난 담배도 낱 텅기는 거. 그냥 어지렁씨렁헌 거. 그냥 소매 찢른 걸로 이 쫄개 7추룩 허진 안헤도 이런 거 소매 찢른 걸로 헤여근에 베나 미녕으로나 쫄끼 허영 감들영 입영 텅겨.(감든중의. 감든적삼. 감든쫄개. 그 할아버지들이니 담배도 낱서 다니는 거. 그냥 허드레 거. 그냥 소매 짧은 걸로 이 조끼처럼 하지는 았아도 이런 거 소매 짧은 걸로 해서 베나 무명으로나 조끼 해서 감들여서 입고 다녀.)³⁸

• 감쫄끼 7뜬 거양. 판직홀 땀 이거 입습니다. 노랑헌 때. 기영 후꿈 헤가든 밧디 입영 가고. 그냥 여름에 우에 영 걸청들 텅기고. 그거 갈쫄끼.(감쫄끼같은 거요, 깨끗할 땀 이거 입습니다. 노랄 때. 그래서 조금 헤가면 밧에 입고 가고. 그냥 여름에 위에 이렇게 걸쳐서들 다니고. 그거 갈쫄끼.)³⁹

• 남주들토 이신 사람은 혼 몇 개 갈쫄개 행 입곡. 요즘은 누구나 막 이런 쫄개 입어도 그땀 아무나 그런 조끼도 못 입었어.(남자들도 있는 사람은 한 몇 개 갈쫄개 해서 입고. 요즘은 누구나 막 이런 조끼 입어도 그땀 아무나 그런 조끼도 못 입었어.)⁴⁰

조끼는 위의 구슬에서처럼 “베에들 감들여서 상그랑허게(화북2동)” 입거나, “담배도 낱 텅기”기 위해서 주머니를 달아 입기도 하였다. 주로 남성들이 입었다. ‘갈쫄개’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 ‘조끼, 쫄끼’는 ‘몸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며 옷 이름의 하나로 굳어진 경우다.

(라) 갈등거리

‘갈등거리’는 감물을 들인 등거리다. ‘등거리’는 등에 걸쳐 입는 홑옷의 하나다. 보통 깃과 소매 없이 삼베 따위로 간단하게 만들어 입는 여름옷이다. 삼베로 만든

37 백순성(여, 1934년생) 구술 자료 (2023. 1. 19. 제주시 화북2동 자택).
38 이화자(여, 1940년생) 구술 자료 (2023. 1. 13.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자택).
39 김희춘(여, 1934년생) 구술 자료 (2023. 1. 10.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자택).
40 현옥열(여, 1944년생) 구술 자료 (2023. 1. 14. 서귀포시 법환동 자택).

등거리에 감물을 들이면 ‘베갈등거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갈등거리’는 등거리에 감물을 들인 옷인 셈이다. ‘등거리’는 소매 없이 조끼 비슷하게 만들지만 맨살 위에 입는 점이 다르다. 주로 ‘미녕(무명)’이나 삼베 따위로 만들어 입는데, 감물을 들여서 시원하게 입기도 하였다. ‘베등거리’는 베로 만든 등거리인 셈이다.

• 이거 등거리계. 갈등거리. 근데 이것도 막 입었거든. 여름에는 소매가 없지만, 여자는 갈적삼이엔 헛주게. 이거 저기 베갈등거리, 남자덜은 등거리엔 허고 적삼이라고 그랬어. 베등거리라고도 허주마는.(이거 등거리. 갈등거리. 근데 이것도 자주 입었거든. 여름에는 소매가 없지만, 여자는 갈적삼이라고 했지. 이거 저기 베갈등거리, 남자들은 등거리라고 하고 적삼이라고 그랬어. 베등거리라고도 하지만.)⁴¹

• 등거리가 인제 조끼주게. 이거는 여름 때에 집이 오라근에 그거 감옷 벗어뒤 근에 밥 먹을 때. 엇은 집이 엇어, 그거.(등거리가 이제 조끼지. 이거는 여름 때에 집에 와서 그거 감옷 벗어두고 밥 먹을 때. 엇은 집엔 엇어, 그거.)⁴²

• 옛날에 베가 서나서. 베로 이제 저 난닝구 대신 쥬끼 만들앙 입으면 이 몸이 사라해. 땀이 안 부뜨고. 그거 우티다가 갈독지 입는 거라.(예전에 베가 있었어. 베로 이제 저 러닝 대신 조끼 만들어서 입으면 이 몸이 사라해. 땀이 안 붙고. 그거 위에다가 갈독지 입는 거야.)⁴³

• 옛날 할망들 일로 영 헤영이, 영 헤영 가심만 막아근에 감들영 쪼끼. 아무것도 안 입영 그냥.(옛날 할머니들 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슴만 막아서 감들여서 쪼끼.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⁴⁴

• 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는데. 땀바데여 이거. 더울 땐 이거 입어. 이런 거 감들영 입어근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뉘쥬.(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는데. 땀받이야 이거. 더울 땐 이거 입어. 이런 거 감들여서 입어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쥬.)⁴⁵

주석 41)의 이화자 구술 “여름에는 소매가 없지만, 여자는 갈적삼이엔 헛주게”에서 보면 ‘등거리’는 제보자나 지역에 따라서는 ‘갈적삼’과 비슷한 옷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84쪽 ‘주석 23) 갈적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1리에서는 갈적삼과 비슷한 개념으로 ‘갈등지계’가 나오는데, 이 ‘갈등지계’가 ‘갈등거리’가 같은 개념으로 쓰인 게 아닌가 한다.

또한 ‘등거리’는 “난닝구 대신 쥬끼 만들앙 입으면 이 몸이 사라해. 그거 우티다가 갈독지 입는 거라.”, “가심만 막아근에 감들영 쪼끼. 아무것도 안 입영 그냥”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때 “쥬끼, 쪼끼”도 앞의 소매 없는 ‘갈등거리’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41 이화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42 양태월(한경면 용수리) 구술 자료.
 43 백여옥(조천면 북촌리) 구술 자료.
 44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45 김유현(대정읍 감산리) 구술 자료.

제보자에 따라서는 ‘등거리’를 ‘어깨말이’, ‘뽕바데’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깨말이’는 어깨끈을 달아 만든 속옷이며, ‘뽕바데’는 땀을 받아 내려고 걸옷 안에 입는 옷인 ‘땀받이’를 말한다. ‘어깨말이’와 ‘뽕바데’는 여름철에 무명이나 광복, 베 따위로 만든 후에 감물을 들여 간편하게 입는 경우가 많았다.

• 옛날도 쫓끼계, 저 베에 들영 입어나수다. 뽕바데 혼 건 대로 짜져근에 혼 거계. 족대나 왕대 겹죽으로 짜진 옷 입어나수다, 하르방들. 영 들리지계 소굽에. 쫓끼기치 생겨. 왕대 겹죽으로 짜진 거, 얇게 흥여. 멧쟁이 하르방덜. 짓기라 뽕바데.(옛날도 조끼, 저 베에 들어서 입었었습니다. 땀받이 한 건 대로 짜져서 한 거. 이대나 왕대 겹대로 짜진 옷 입었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이렇게 들리게 속에. 조끼같이 생겨. 왕대 겹질로 짜진 거, 얇게 해. 멧쟁이 할아버지들. 짓보고 땀받이.)⁴⁶

‘뽕바데’는 무명이나 베와 같은 옷감이 아니라 대오리를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한림읍 수원리 김희춘의 구술 “예전에 할아버지들은 ‘족대(이대)’나 왕대 겹대의 대오리를 이용하여 조끼처럼 짜서 옷 안에 입기도 하였다.”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남자는 저 와이셔츠 식으로 만들안 입어라. 저 우리 할망은 손지 보난 맨들안 줘라. 예리 엇이 그냥 영 헤영 허는 거 잇지 아녀나게? 적삼은 적삼 식이라이. 그런 거 허연 허고.(남자는 저 와이셔츠 식으로 만들어서 입더라. 저 우리 할머니 손지 보니까 만들어서 주더라. 칼라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잇지 않는가? 적삼은 적삼 식이야. 그런 거를 해서 하고.)⁴⁷

옷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1960년대 후반부터는 입다가 현 와이셔츠나 티셔츠에도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하였다. 옷 형태도 적삼 형태에서 와이셔츠 형식으로 바뀌며 일복 모습도 바뀌어 갔다.

나) 아래옷

(가) 갈중의

‘갈중의’는 ‘중의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지역에 따라서 ‘감중의’, ‘감든중의’라고 하는데 감물을 들인 대표 갈옷이라고 할 수 있다. ‘중의’는 예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가운데 하나인 남자의 여름 홰바지를 말한다. 주로 ‘미녕(무명)’이나 광목을 이용하여 만든다. 애월읍 금성리에서는 ‘감든중의’, 서귀포시 천지동에서는 ‘감중의’, 한경면 낙천리와 구좌읍 덕천리에서는 ‘갈중의’라고 하였다. 아래 구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중의’는 남자들이 밭일을 하는 등 일할 때 입었던 일복이었다.

46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47 고순자(대정읍 일과리) 구술 자료.

• 영장 밧디 가는 하르방덜은 감든중의 입영 가주기. 그땐 영 혁덜토 날르곡 테역덜토 헤영 날르곡 일힐 거난.(장지에 가는 할아버지들은 감든중의 입고 가지. 그때는 이렇게 흠도 나르고 잔디도 해서 나르고 일할 거니깐.)⁴⁸

• 남저들 갈중의 입어. 여자들 거는 갈몸뻘. 옛날 어르신덜은 이디 영 해근에게 이거 저 무시거 정강다리 매는 거 그것보고 하영 갈중의엔 허주게. 허리 해근에게 저 고무 아니 낳 그냥 허리띠 무끄게.(남저들 갈중의 입어. 여자들 거는 갈몸뻘. 옛날 어르신들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저 뭐 정강이 매는 거 그것보고 많이 갈중의라고 했지. 허리 해서 저 고무 안 놓고 그냥 허리띠 묶게.)⁴⁹

• 감웃은 일힐 때만 입는 거난이, 감중의. 저 중의 멘들곡 남저들 입는 건 허릴 요만이 허게 행 투로 부진다.(감웃은 일할 때만 입는 거니까, 감중의. 저 중의 만 들고 남저들 입는 건 허리를 요만큼 하게 해서 따로 붙인다.)⁵⁰

(나) 갈굴중의

‘갈중의’가 남자들의 갈옷의 대명사라면 여자들의 갈옷의 대표는 ‘갈굴중의’가 아닌가 한다. ‘갈굴중의’는 ‘굴중의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굴중의’는 제주에서 여성들이 입는 전통한복의 하나로, 허리에 주름을 잡고 바지통을 넓게 해서 만든 속옷이다. 보통 밑을 터서 만드는데 치마 안에 속곳 겸 속바지로 입는 옷이다. 일복이 변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속옷인 ‘굴중의’ 밑을 꿰메어 감물을 들어서 일복으로 입기도 하였다. ‘갈굴중의’는 지역에 따라서 ‘갈중의’ 또는 ‘감든굴중의’라고도 하였다. 애월읍 금성리에서는 ‘감든굴중의’가 조사되었고, 남원읍 신흥2리와 태흥2리에서는 ‘갈중의’라고 하였다.

• 우에 거는 감든적삼. 여자 건 여자대로 그자 감든적삼, 남자도 옷 입게 뉘민 감든적삼 경헤어나신디, 이것도 할망덜 감든굴중의.(위에 거는 감든적삼. 여자 건 여자대로 그저 감든적삼, 남자도 옷 입게 되면 감든적삼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할머니들 감든굴중의.)⁵¹

• 어머니 굴중의 입었어. 갈들인 갈굴중의. 갈굴중의는 이디 다리 널른 거. 그거 갈굴중의난에 이렇게 영 즐라매는 거. 우엔 갈적삼. 치메 어디 무똥에 메낭이라고 해서 요만은 헌 걸치는 거 그디 걸쳤당 갈중의 적삼 입영 일허당 동네 무신일이 이시민 확 누류왕 입으멍 돌으멍 간다.(어머니 굴중의 입었어. 갈들인 갈굴중의. 갈굴중의는 여기 다리 너른 거. 그거 갈굴중의니까 이렇게 이렇게 즐라매는 거. 위엔 갈적삼. 치마 어디 문 앞에 ‘메낭’이라고 해서 요만큼 한 걸치는 거 거기 걸쳤다가 갈중의 적삼 입고 일하다가 동네 무슨 일이 있으면 확 내려서 입으며 달리며 간다.)⁵²

48 이화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49 이정숙(여, 1939년생) 구술 자료 (2022. 12. 29.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자택).
 50 임중은(여, 1933년생) 구술자료 (2022. 12. 30. 서귀포시 천지동 자택).
 51 이화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52 김갑생(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 굴중의나 갈중의나 7튼 건디 여자가 입는 거주. 갈중의는 그거 갈들인 거난 갈중의주게. (남자가 입는 건?) 점벙이. 점벙이엔 허는 것도이 그것도 점벙이도 이 그것도 몰르는 것도 다른 거추룩 몰르지 안허여. 따로 몰르는 거라, 남자7추룩 허는 거.(굴중의나 갈중의나 같은 건데 여자가 입는 거지. 갈중의는 그거 갈들인 거니까 갈중의지. (남자가 입는 건?) 점벙이. 점벙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점벙이도 그것도 마르는 것도 다른 것처럼 마르지 않아. 따로 마르는 거야, 남자처럼 하는 거.)⁵³

• 굴중의에 감들영은에 다님 영 치고 해근에게 따로 영 헤영 다리에 영 영 줍 앙 무끄고. 끈 다리에 무껴근영에. 저 몸빼 남 시작하난 몸빼만 입었지.(굴중의에 감들여서 대님 이렇게 치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다리에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묶고. 끈 다리에 묶어서. 저 몸빼 나기 시작하니까 몸빼만 입었지.)⁵⁴

‘굴중의’에 감물을 들인 것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와 태흥2리에서는 ‘갈중의’라고도 하였다. 반면에 남자들이 입는 바지를 ‘정벙이’라고 하여 감물을 들인 ‘갈정벙이’는 89쪽 ‘(가)갈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갈중의’는 다른 지역의 ‘갈굴중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8〉 밭일하는 제주 여성(1910년대)

남원읍 신흥2리의 김갑생의 구술 “갈굴중의는 이디 다리 널른 거. 그거 갈굴중의난에 이렇게 영 졸라매는 거. 우엔 갈적삼.”이란 구술 내용에서 보면, 〈사진 18〉⁵⁵처럼 ‘갈굴중의’와 ‘갈적삼’을 입고 일을 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굴중의’는 가랑이의 폭이 넓어서 중대님을 ‘졸라매야’ 일을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집 밖에 나갈 때는 ‘굴중의’ 위에 치마를 걸쳐 입었다고 한다.

• 굴중의에는 감 안 들여, 굴중의는 속에 입은 게 굴중의주. 위에 입은 것이 감옷. 감몸빼. 경헌디 하르방덜 입는 건 감중의. 굴중의 할무니덜 이제 그 저 땀고? 이제 우리 7트민 속바자마 대신 굴중의. 우에가 또 몸빼 입어야 돼어.(굴중의에는 감 안 들여, 굴중의는 속에 입은 게 굴중의지. 위에 입은 것이 감옷. 감몸빼. 그런데 할아버지들 입는 건 감중의. 굴중의 할머니들 이제 그 저 땀고? 이제 우리 같으면 속바지 대신 굴중의. 위에 또 몸빼 입어야 되어.)⁵⁶

반면에 구좌읍 월정리 현봉래는 ‘굴중의’에는 감물을 들이지 않고 속곳처럼만 입었다고 하였다. 현봉래는 예전엔 할머니들이 일을 할 때 ‘굴중의’ 위에 몸빼를 입었다고 구술하여 다른 제보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굴중의’가 원래는 속옷이었음을 입증하는 예인 셈이다.

53 양기화(여, 1938년생) 구술자료 (2023. 1. 9.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자택).

54 오계중(여, 1927년생) 구술자료 (2023. 1. 16.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노인복지회관).

55 고부자,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68쪽, 재인용.

56 현봉래(여, 1939년생) 구술자료 (2023. 2. 6.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자택).

(다) 갈점벙이

‘갈점벙이’는 ‘점벙이’에 갈물을 들인 옷이다. ‘점벙이’는 잠방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그러나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빌리면, ‘잠방이’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표준국어대사전》)로, 제주에서의 ‘점벙이’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음의 “남자들은 그저 갈점벙이만 여름에 입영만 살았주”라는 구술 자료를 통해 ‘갈점벙이’는 국어사전의 의미인 짧은 바지라기보다는 89쪽 ‘(가)갈중의’와 같은 ‘중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벙이’는 지역에 따라서 ‘정벙이’라고도 하였다.

• 옛날엔이 여름엔 갈옷벙기 엇엇주게. 남자들은 그저 갈점벙이만 여름에 입영 살았주. 여자덜은 갈적삼허곡 갈몸빼 입고.(예전엔 여름엔 갈옷밖에 없었지. 남자들은 그저 갈점벙이만 여름에 입어서 살았지. 여자들은 갈적삼하고 갈몸빼 입고.)⁵⁷

• 감물들인 옷 갈정벙이 갈적삼벙긴 엇다게. 기자 흰옷 해영 제사 때에 절할 때 허는 건 정벙이적삼. 저슬에는 바지저고리. 홰 거 안 안 부짚 건 정벙이. 여름엔 정벙이적삼. 겨울엔 바지. 바지는 안광 겹데기 사이에 솜 허썰 놔야.(감물들인 옷 갈점벙이 갈적삼밖에 없어. 그저 흰옷 해서 제사 때에 절할 때 하는 건 잠방이적삼. 겨울에는 바지저고리. 홰 거 안 안 붙인 건 잠방이. 여름엔 잠방이적삼. 겨울엔 바지. 바지는 안과 겹데기 사이에 솜 조금 놔야.)⁵⁸

‘갈점벙이’는 서귀포시 법환동과 표선면 가시리, ‘갈정벙이’는 남원읍 신흥2리에서 조사되었는데, 남자들이 여름에 적삼과 함께 입었던 옷이다. 평상시와 제사 때에는 ‘정벙이적삼’을 입어도 감물들인 옷이 아니라 흰옷으로 입었다. 즉 “감물들인 옷 갈정벙이 갈적삼”은 일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 갈몸빼

‘갈몸빼’는 감물을 들인 ‘몸빼’를 말한다. 달리 ‘감몸빼’라고도 한다. ‘몸빼’는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다. 이 ‘몸빼’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들여온 일바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어려워지자 1938년 4월 1일 공포한 국가총동원법과 비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1939) 등을 통해 허리와 발목 부분을 고무줄로 처리한 부인 표준복 몸빼(もんぺ)를 입으라고 강요하고, 화려한 화장과 파마를 못하게 했다.⁵⁹ 몸빼가 들어오면서 일할 때 감물을 들여서 입었던 ‘굴중의’가 점차 사라지고 제보자들의 세대에는 부모 세대와 달리 일복으로 ‘몸빼’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갈몸빼’는 남원읍 신흥2리, 구좌읍 덕천리 등에서 조사되었고, ‘감몸빼’는 대정읍 일과1리와 구좌읍 덕천리, 조천읍 북촌리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 저 감몸빼는 시집간 후제사 감들영 우리 입어세. 감옷. 감몸빼는 시집간 후

57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58 김갑생(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59 김영조,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인물과 사상, 2013(2011), 150쪽.

제사덜 만들언 밧디 멩기젠 허민 거 입엇잖아. 그냥 하얀 걸로 입으면 버물영이. 감들 다 잇이난 감들여근에 입엇네.(저 감뭉뻘는 시집간 후에야 감들여서 우리 입 었어. 감뭉. 감뭉뻘는 시집간 후에야들 만들어서 밧에 다니려고 하면 거 입엇잖아. 그냥 하얀 걸로 입으면 더러워서. 감들 다 있으니까 감들여서 입엇네.)⁶⁰

• 남자도 갈적삼, 갈정뱅이 입꼭 여자도 갈적삼, 갈뭉뻘 입꼭 경 행 헛주. 중의 엔 흰 옷이 또 푼 식으로 멩그는 것가 잇어. 갈중의가 잇어. 이런 디 흥뭉 널르게 헛 건 갈중의고 이거 갈뭉뻘 알 쫘아진 거. 뭉뻘 나 결혼할 때 그 수리에 난 거 라.(남자도 갈적삼, 갈잠방이 입고 여자도 갈적삼, 갈뭉뻘 입고 그렇게 해서 헛지. 중의라고 한 옷이 또 다른 식으로 만드는 것이 잇어. 갈중의가 잇어. 이런 데 조금 너르게 한 건 갈중의고 이거 갈뭉뻘, 아래 쫘아진 거. 뭉뻘 나 결혼할 때 그 즘음에 난 거야.)⁶¹

• 옛날엔 굴중의에 감들영 입언. 그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는 뭉뻘란 거 없어. 우리 옥은 후가 저 뭉뻘가 나왔주. 감들인 굴중의도 입고 감 안 들인 굴중의도 그냥 광목으로 멩글양 다림 쳐근에 입어. 밧디 갈 때도 그 굴중의 입영 가났주 게. 치마 우이 입영.(옛날엔 굴중의에 감들여서 입엇어. 그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는 뭉뻘란 거 없어. 우리 큰 후에 저 뭉뻘가 나왔지. 감들인 굴중의도 입고 감 안 들 인 굴중의도 그냥 광목으로 만들어서 대뭉 쳐서 입어. 밧에 갈 때도 그 굴중의 입고 갔엇지. 치마 위에 입어서.)⁶²

• 옛날엔 저 우리 두릴 때 보면 할망들 보든 굴중의 잇잖아. 굴중의 영 허민 막 으라 폭 해 불민 이것가 영 영 영 영 행 다님 쳐. 경허민 풍탕하게 입어근에 망알 망알망알 걸으며 헤신디 그것가 그때 사라졌어. 그루후제 뭉뻘.(옛날엔 저 우리 어릴 때 보면 할머니들 보면 굴중의 잇잖아. 굴중의 이렇게 하면 아주 여러 폭 해 버리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뭉 쳐. 그러면 풍성하게 입어 서 망알망알망알 걸으며 했는데 그것이 그때 사라졌다. 그 이후에 뭉뻘.)⁶³

• 감뭉뻘 이제는 고무 돌앗주만 옛날에는 할머니덜 굴중의 7치 고무 안 헛어. 친 행 영 무경 그런 식으로 헛에 감들여근에. 하여튼 우리 어머니네는 계속 영 보면은 빨아근에 담에 걸쳐 잇는 거 보면은 감뭉이라.(감뭉뻘 이제는 고무 달았 지만 옛날에는 할머니들 굴중의처럼 고무 안 헛어. 끈 해서 묶어서 그런 식으로 해 서 감들여서. 하여튼 우리 어머니네는 계속 이렇게 보면 빨아서 담에 걸쳐 잇는 거 보면 감뭉이야.)⁶⁴

60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61 김갑생(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62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63 강경순(표선면 하천리) 구술 자료.
 64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뭉뻘’가 들어오자 여성들이 일복으로 감뭉을 들여 입엇던 ‘갈굴중의’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사실은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의 “뭉뻘 나 결혼할 그 수리에 난 거 라. 그 전인 중의”라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제보자 김갑생은 1923년생으로 스물셋

에 결혼했으니 1945년 이전에 제주에 ‘몸빼’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대정읍 일과1리 이춘희(1932년생)의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는 몸빼란 거 없어. 우리 옥은 후가 저 몸빼가 나왔주.”와 표선면 하천리 강경순(1938년생)의 “우리 두릴 때 보면 할망들 보든 굴중의 잇잖아. 굴중의 영 허민 막 으라 폭 헤 불민 이것가 영영영영 행다님 쳐. 경 허민 풍탕허게 입어근에 망알망알망알 걸으멍 헤신디 그것가 그때 사라졌어.”라는 구술 자료 속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서 ‘망알망알망알 걸으멍’은 폭이 넓은 ‘갈굴중의’를 입고 걷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몸빼’를 만드는 방법도 다르다. 처음 ‘몸빼’가 나올 때는 ‘굴중의’처럼 허리끈을 달아서 만들었지만 고무가 등장하면서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서 만들었다. 월정리 현봉래의 “감몸빼 이제는 고무 둘앗주만 옛날에는 할머니덜 굴중의 7치 고무 안 헛어. 친 행 영 무경 그런 식으로 헨에 감들여근에.” 라는 구술 자료를 보면, ‘몸빼’ 만드는 방식이 요즘과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갈굴중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일바지인 ‘갈몸빼’가 차지하고 있다. 그 이후 ‘몸빼’는 오늘날까지도 일복이나 평상복으로 성인 여자들에 의해 많이 입게 되면서 ‘갈몸빼’도 계속 만들어 입고 있다.

여자들은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갈몸빼’를 많이 입는다. 요즘도 일상생활 속에서 ‘갈몸빼’를 입은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주 고유의 장례 풍습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거 감든중의, 몸빼. 어디 영장난 디서 하얀 몸빼 주면 감들영 밧디 텡길 때 입으믄 좋아.(그거 감든중의, 몸빼. 어디 영장난 데서 하얀 몸빼 주면 감들여서 밧에 다닐 때 입으면 좋아.)⁶⁵

• 혼 몇 년 전이 사름 죽으면 광목몸빼 줘낫거든. 그 광목몸빼에 감옷 들여근에 이젠 입어. 그거 좋양은에 밧디 텡기는 사름 그거 입어.(한 몇 년 전에 사름 죽으면 광목몸빼 줘었거든. 그 광목몸빼에 감옷 들여서 이젠 입어. 그거 좋아서 밧에 다니는 사름 그거 입어.)⁶⁶

• 장 나민이 하얀 몸빼 광목몸빼 막 테와침 입나게, 이제도. 나 세 개나 메왕 이디 잇져. 올히 감들일 거.(장 나면 하얀 몸빼 광목몸빼 막 나뉘줘서 입어, 이제도. 나 세 개나 모여서 여기 있다. 올해 감들일 거.)⁶⁷

• 어디서 친족이 돌아가민이 몸빼로 저 복옷을 줘. 경허민 그거 행 왕, 뒤 항상 입을 것도 아니고 이거 감뻬연 일힐 때 입젠 감뻬인 거 이거.(어디서 친족이 돌아가면 몸빼로 저 복옷을 줘. 그러면 그거 해서 와서, 뒤 항상 입을 것도 아니고 이거 감뻬여서 일할 때 입으려고 감뻬인 거 이거.)⁶⁸

제주에서는 상이 났을 때 상주 쪽에서 가까운 친족들에게 ‘광목몸빼’를 복옷으로 나눠주는 풍습이 있다.⁶⁹ 제주 사람들은 이때 받은 ‘광목몸빼’를 장례식 때 입었다

65 이화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66 양태월(한경면 용수리) 구술 자료.
 67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68 이정숙(여, 1939년생) 구술자료 (2022. 12. 29. 제주시 조천읍 덕천리 자택).
 69 예전에는 복치마라고 해서 여자 친족에게 광목치마나 베치마를 주었다. 또한 복수건으로 광목수건과 베수건을 주기도 하였다. 지금은 광목치마 대신에 ‘광목몸빼’를 복옷으로 주고 있다.

가 나중에 빨아서 감물을 들여 일복 등으로 활용하곤 한다. 애월읍 금성리 이화자의 구술, 한경면 용수리 양태월의 구술, 서귀포시 법환동 현옥열의 구술, 조천읍 덕천리 이정숙의 구술 속에서 요즘도 복옷을 이용하여 감물을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갈뽀뽀’는 외출복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 우리 뽀뽀만 입영 큰일뻘 안 가났어. 치메 걸쳐야. 나 시절엔 장에 가나 무시거 뽀뽀만 입영 안 가난. 우터레 치메 걸쳐 가나신디 요즘은 치메 시나 엇이나 뽀뽀보다 더 빠삭헌 쓰봉이 더 유행뻘어 놓난.(우리 뽀뽀만 입어서 큰일 난 데 안 갔었어. 치마 걸쳐야. 나 시절엔 장에 가나 무엇 뽀뽀만 입어서 안 갔었어. 위로 치마 걸쳐서 갔었는데 요즘은 치마 있으나 없으나 뽀뽀보다 더 달라붙은 바지가 더 유행뻘어 놓으니.)⁷⁰

제보자들 세대에서는 동네에 잔치나 장례 등 큰일이 있거나 외출할 때는 ‘굴중의’와 마찬가지로 ‘뽀뽀’만 입고는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반드시 위로 치마를 걸쳐서 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뽀뽀’를 일상복처럼 입기도 하고 있으니 옷에 대한 인식과 옷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마) 갈치마

치마에 감물을 들여 입는 일은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갈치마’를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갈치마’는 ‘감치마, 감치메’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술 자료에서처럼 “옛날에 할망넌 치메에 안 들었다”고 하였다. 서귀포시 천지동 임중은의 “갈옷은 치메나 아무거라도 옷이 쌍놈덜만 입는 옷이랴. 천히게 보느네.”라는 인식을 반영한 탓인지 ‘갈치마’는 흔하게 물들이는 옷이 아니었다. 설령 치마에 감물을 들여도 “어디 텅길 땀 안 입”었다. 치마에 감물을 들여 입는 경우는 ‘버뽀(더러움)’이 타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입었다.

• 아이고, 우리 할망은 치마에도 감 헤여근영에 저 버뽀 타지 안히게 허연 입어라. 그냥 어디 텅길 땀 안 입고. 경헨에 그자 뽀뽀에 허어나민 버뽀 거 잇이면은 그냥 그 감 헤난 때 그것에 강 또 감 몇 개만 굿다 낱 벗앙 허든 또 들여진다게. 경허영 입어난 거 난 알아져.(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치마에도 감 해서 저 더러움 타지 않게 해서 입더라. 그냥 어디 다닐 때는 안 입고. 그렇게 해서 그자 뽀뽀에 해나면 더러운 거 있으면 그냥 그 감 했던 때 그것에 가서 또 감 몇 개만 가져다 낱서 빨아서 하면 또 들여져. 그렇게 해서 입었던 거 난 알아져.)⁷¹

• 우리 그냥 참 어렸을 때부터 그 감물덜은 헨에 입어세게. 그때는이 치마도 만들언 줘났어. 감물 헤여근영에 이런 저 광목 자치덜 잇이면 그런 거 헤여근영에 버뽀지 아녀곡. 그건 후뽀 감물 들이면 곤다게. 호교에 안 입어. 막 어렸을 땀나 그거 허연 치메 헨 우리 어머니가 주난 입어났어.(우리 그냥 참 어렸을 때부

70 김갑생(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71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터 그 감물들은 해서 입었어. 그때는 치마도 만들어서 줬었어. 감물 해서 이런 저 광목 자치들 있으면 그런 거 해서 더럽지 않고. 그건 조금 감물 들이면 고와. 학교에 안 입어. 아주 어렸을 땐 나 그거 해서 치마 해서 우리 어머니가 주니까 입었어.)⁷²

대정읍 일과1리 고순자는 할머니가 치마에 감 들여서 입었다고 구술하였다. 그는 또 어렸을 때 광목 자치로 어머니가 만들어 준 감물들인 치마를 입었는데 학교 갈 때는 안 입었다고 하였다. ‘갈치마’를 입었다는 대정읍 일과1리 고순자와 달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일과1리 이춘희는 “옛날에 할망네 치메에 안 들연.”이라고 하였다. 이는 ‘갈치메’가 고순자의 구술처럼 개인적 취향에 따라 치마에 감물을 들였고, 이 옷은 외출할 때는 입지 않았기에 일과1리 이춘희나 서귀포시 천지동 임중은, 표선면 가시리 안정생, 조천읍 북촌리 이승찬 등은 “치마에는 감물을 안 들인다.”고 구술한 게 아닌가 싶다. 서귀포시 임중은은 갈옷을 ‘천한’ 옷으로 봐서 부잣집 어른은 논일을 할 때도 흰 중의를 입고 갔었다고도 구술하였다.

• 옛날에 할망네 치메엔 안 들연. 중간에덜은 그 젊은 사람덜 갈치메 헨덜 입엇젠덜 막 골으는디 난 안 봐반.(옛날에 할머니넌 치마엔 안 들였어. 중간에들은 그 젊은 사람들 갈치마 해서들 입었다고 막 말하는데 난 안 봐봤어.)⁷³

• 갈치메는 안 입영 텅긴다. 갈옷은 치메나 아무거라도 옷이 쌍놈덜만 입는 옷 이랴. 천하게 보느네, 갈옷 입영 텅기는 사름은. 이제난 대통령이라도 갈옷 입영 텅겨주, 큰일나. 상열리 소낭집이엔 허민 막 부제난에 그 어른 논일 허레 갈 때도 흰중의 입영 가메.(갈치마는 안 입고 다닌다. 갈옷은 치마나 아무거라도 옷이 쌍놈들만 입는 옷이었어. 천하게 봐, 갈옷 입고 다니는 사름은. 이제니까 대통령이라도 갈옷 입고 다니고 있지, 큰일 나. ‘상열리’ 소낭집이라고 하면 아주 부자니까 그 어른 논일 하러 갈 때도 흰중의 입고 가.)⁷⁴

• 치메는 갈들임이랑마랑 그자 베치메에 허연 그거. 베치메 미녕치메 허여근 에게 거 흰 차.(치마는 갈물들이기는커녕 그자 베치마에 해서 그거. 베치마 무명치마 해서 거 흰 차.)⁷⁵

• 딴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감치메 입어 본 사람 그거는 안 봐반, 요즘 따라는 가끔 젊은 애들이 패션으로 감치마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든 어른은 그게 감치마를 입은 거는 저는 못 봤다고 보는데요.(딴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감치메 입어 본 사람 그거는 안 봐봤어, 요즘 따라는 가끔 젊은 애들이 패션으로 감치마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든 어른은 그게 감치마를 입은 거는 저는 못 봤다고 보는데요.)⁷⁶

72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73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74 임중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료.
75 안정생(표선면 가시리) 구술 자료.
76 이승찬(남, 1945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북촌리노인회관).

77 여기에서 '갈옷' 종류 명칭은 제보자들이 제시해 준 대로 작성한 것이다. '감적삼'이라고 하면 '감적삼'이라고 표기하고, '적삼에 감물 들었'이라고 했을 때는 '(갈)적삼'처럼 표기하였다. 기타 부분은 감물을 들여 입은 옷 가운데 감(갈)이 들어가지 않은 옷 종류를 제시하였다.

제보자의 세대와는 달리 요즘 세대는 '갈옷'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갈치마'도 만들어 입고 있다. 일과1리 이춘희의 “중간에덜은 그 젊은 사람덜 갈치메 헨덜 입엇젠덜 막 곁으는디 난 안 봐반.”과 북촌리 이승찬의 “요즘 따라는 가끔 젊은 애들이 패션으로 감치마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보자들이 인식하는 '갈옷'은 여름에 입는 노동복이다. 윗옷으로는 '갈적삼'과 '갈등거리'가 있고, 아래옷으로는 '갈중의, 갈굴중의, 갈점벵이'와 '갈몸빼'가 대표적이다. '갈치메'를 입는 경우는 드물었다. '갈옷'은 또 외출복으로 입거나 제사 등에 의례복으로 입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술 채록을 통해 확인된 제주의 '갈옷' 종류를 마을별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⁷⁷


<표 8> 조사 마을별 갈옷 종류

연번	조사 지점	갈옷 명칭	갈옷 종류	기타	
1	제주시	삼도2동	갈옷/감옷	(갈)몸빼, (갈)뜨개	조개
2		화북2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 중의(남), 갈굴중의, 갈몸빼, 갈조개	
3		삼양2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벵이,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뜨개
4	애월읍	광령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5		금성리	갈옷/감옷	감든적삼, 갈적삼, 감든중의, 감든굴중의, 갈중의, 갈몸빼, 감든뜨개, 갈등거리, 베갈등거리	
6	한림읍	명월리	/감든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등거리
7		수원리	갈옷/감옷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8	한경면	용수리	갈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쥐개
9		낙천리	감옷/감든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뜨개, 주른중의
10	대정읍	일과1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굴중의, 갈치마, 감(갈)몸빼, 갈치마, 갈등지개, (갈)뜨개	
11		신평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와이셔츠
12	안덕면	사계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갈조개	
13		감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똥바데
14	서귀포시	법환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벵이, 갈몸빼	반바지
15		천지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벵이, (갈)굴중의	똥바데
16	남원읍	신흥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갈굴중의), 갈점벵이, 갈몸빼	쥐개
17		태흥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벵이, 갈몸빼	
18	표선면	가시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벵이, 갈뜨개	
19		하천리	갈옷	갈적삼, (갈)굴중의, 갈몸빼	
20	성산읍	고성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어깨말이
21		오소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22		난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벵이, 갈몸빼	
23	구좌읍	신산리	갈옷/감옷	감적삼, 갈점벵이, (갈)굴중의, 감중의, 감몸빼, 갈쓰봉, 감속곳, 감팬티	
24		덕천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감몸빼	조끼
25	조천읍	월정리	갈옷/감옷	감적삼, 감중의, 감몸빼, 감속곳	
26		와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독지, 갈중의	
27		북촌리	갈옷	갈적삼, 갈독지,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감몸빼	

(2) 박물관 소장 갈옷

이번 연구를 위해 우리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제주도내 소재 17개 박물관 중 8개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갈옷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갈옷 등 9개 박물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갈옷을 가장 많이 소장한 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모두 44점이 박물관 e뮤지엄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제주도 내 박물관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제주해녀박물관이 각각 18점의 갈옷을 소장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박물관 16점, 제주교육박물관 22점, 국립제주박물관 10점 등 모두 75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갈옷은 남녀 중의 적삼과 바지, '몸빼', 단속곳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팬티와 조끼를 소장한 박물관도 있었다. 다음은 제주도내 소재 박물관별 소장 갈옷 사진과 유물 점수다.

〈표 9〉 제주도내 박물관별 소장 유물 대표 사진 및 점수

순번	장소	유물 대표 사진	내용
1	국립제주박물관		갈옷 10점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갈옷 18점
3	제주대학교박물관		갈옷 16점
4	제주해녀박물관		갈옷 18점 폴레 1점

순번	장소	유물 대표 사진	내용
5	제주항일기념관		갈옷 6점
6	제주교육박물관		갈옷 11점
7	제주감귤박물관		갈옷 4점
8	본태박물관		갈옷 2점
9	제주4·3평화기념관		갈옷 1점

3) 갈옷의 용도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언제 입었으며, 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 갈옷’은 땀이 몸에 배지 않고 시원하여 여름철 옷으로 적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갈옷’은 제주 풍토에 맞고, 제주 여성들에 의해 면면이 전승해 온 전통성과 제주 특유의 색감과 기능성 등에서 제주 문화를 상징하는 옷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 사람들이 여름철에 입는 노동복으로 출발한 갈옷이 지금은 외출복이나 제주 문화를 대변하는 옷으로, 자연친화적인 옷으로 인정받으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⁷⁸

• 애긴 때 갈옷을 행 주나? 그자 흰 옷이여 검은 옷이여 허멍 입져다근에 욱양 일헐 때 웨어가사. 우리사 혼 열땃 솔 허난 입어져주. 경허지만은 그때는 일허는 사람 웨로는 갈옷을 안 입엇주게. 갈옷은 이제는 멋으로털 입엉들 텅겨도, 그거 허끔 부족헌 사람만 입는 옷이라 허여근에 아니 입엇어, 옛날엔. 이제털은 그치 룩 멋진 사람들만 그거 입엉 텅겨. 옛날엔이 허쉴 저 천헌 사람들만 갈옷을 입엇젠 허여근에, 양반털은 우리 욱은 후제도 갈옷 막 입으면 욱허꼭 입지 아녜어. 할망덜토 그 부제침이 잘사는 사람들은.(아긴 때 갈옷을 해서 주나? 그저 흰 옷이다 검은 옷이다 하면서 입히다가 커서 일할 때 되어가야. 우리야 한 열땃 살 하니까 입어져지. 그렇지만 그때는 일하는 사람 외로는 갈옷을 안 입엇지. 갈옷은 이제는 멋으로들 입고들 다녀도, 그거 조금 부족헌 사람만 입는 옷이라 해서 아니 입엇어, 옛날엔. 이제들은 것처럼 멋진 사람들만 그거 입고 다녀. 예전엔 조금 저 천한 사람들만 갈옷을 입엇다고 해서, 양반털은 우리 큰 후에도 갈옷 막 입으면 욱하고 입지 않았어. 할머니들도 그 부жат집에 잘사는 사람들은.)⁷⁹

위의 구술처럼 제주 사람들은 처음에는 갈옷을 일복이며 천한 옷으로 여겼으나 점차 상황이 바뀌며 ‘이제들은 멋진 사람들만 그거 입엉 텅겨.’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즉 제주 갈옷이 ‘일복’에서 ‘멋진 옷’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1) 갈옷은 일복이다.

갈옷은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땀이 차지 않고 시원해서 여름철에 노동복으로 제격이다. 무명옷이나 광목옷에 감물을 들이면 풀을 한 것처럼 감촉이 ‘사락사락’하여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아 일할 때 편하다는 것이다. 또한 감물이 코팅되어 있어서 더러움이 덜 타고, 보리까끄라기가 붙지 않고, 모기 등에도 물리지 않아 여름철 발일 등을 할 때 좋다고 한다. 요즘도 발일을 할 때는 갈옷을 많이 입는다.

• 갈옷은 이제 보리 수확할 때 여름 조팃디 그때는 계속 입엇주. 계난 유월, 칠월, 팔월 더운 때. 겨울엔 아니 입어.(갈옷은 이제 보리 수확할 때 여름 조밭에 그

78 2023년 8월 현재, 제주도내에는 갈옷 보존 및 전승, 상품화 등을 위한 업체가 73군데에 이른다. 또한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매년 여름 갈옷의 우수성을 천착하는 천연염색과 관련한 체험과 축제도 열고 있다.
79 임중은(여, 1933년생) 구술 자료(2022. 12. 30. 서귀포시 천지동 자택).

때는 계속 입었지. 그러니까 유월, 칠월, 팔월 더운 때. 겨울엔 아니 입어.)⁸⁰

• 옛날에 보리 헐 때 저 틀로 이렇게 훑아냈거든. 그때 이 갈옷이 최고고. 또 고구마 팔 때 고구마줄 논 때 이것도 최고야. 이걸 여름에 땀이 안 부떠. 밧디 강 검질멜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시원헝 땀을 안 부떠.(예전에 보리 할 때 저 틀로 이렇게 훑았었거든. 그때 이 갈옷이 최고고. 또 고구마 팔 때 고구마줄기 놓을 때 이것도 최고야. 이걸 여름에 땀이 안 붙어. 밧에 가서 김멜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시원해서 땀이 안 붙어.)⁸¹

• 감옷 쉼 보레 갈 때, 밧디 갈 땐 그런 거 입엉 가근에 사락헝게 해 가지고. 작업복이라도 감옷을 입으면 좋지.(감옷 소 보러 갈 때, 밧에 갈 땐 그런 거 입고 가서 사락헝게 해 가지고. 작업복이라도 감옷을 입으면 좋지.)⁸²

• 감들영 허는 거는 순 노동. 옛날에 무물팓 허젠 허면 저 드르에 이제 무물, 산디 그런 거 많이 허난 이제 그런 디 버뭍 안 타곡이 씨원허렌. 이제 모기도 잘 안 타고 헝 이거 감들인 거고, 저 검질멜 때 주팓디 검질메젠 허면 땀이 막 나가든. 땀 나면은 이제 땀 등어리에 부뜨지 말렌. 경허난 그거 일복이지.(감들여서 하는 거는 순 노동. 옛날에 메밀밭 하려고 하면 저 들에 이제 메밀, 밧벼 그런 거 많이 하니깐 이제 그런 데 더러움 안 타고 시원하라고. 이제 모기도 잘 안 타고 해서 이거 감들인 거고, 저 김멜 때 조밭에 김매려고 하면 땀이 많이 나가든. 땀 나면은 이제 땀 등에 붙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깐 그거 일복이지.)⁸³

‘갈옷’은 뜨거운 여름철에 보리를 수확하거나 조밭의 ‘검질’을 맬 때, 고구마 줄기를 심을 때, 목장에 소를 보러 다닐 때 등에 입었던 일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옷’은 큰일 때나 외출복, 제사를 지내는 의례복 등 특별한 용도로 입는 것을 경계하였다.

• 우리 시아버지 허는 말, 그건 천헝 옷이라. 무슨 제삿날에 갈옷 입엉 왓서? 경헝 말을 나 딱 들었어. 아멩해도 갈옷은 천헝 옷, 일할 때만 입는 옷으로. 어른덜 예쁘게 헝 와도 갈옷은 갈옷이라.(우리 시아버지 하는 말, 그건 천한 옷이야. 무슨 제삿날에 갈옷 입고 오나? 그런 말을 내 딱 들었어. 아무래도 갈옷은 천한 옷, 일할 때만 입는 옷으로. 어른들 예쁘게 하고 와도 갈옷은 갈옷이야.)⁸⁴

• 노동을 할라고 허믄 갈중의 입었어. 노동복이지 외출복은 아니라 이겁니다. 요즘은 패손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 외출복을 하는데, 그 당시는 말 그대로 갈중의. 이 노동복이에요, 노동복. 그 당시에는 제 보는 남자의 경우에는 갈중의 입으면은 주변에서 욕을 해. 어디 그 일허는 작업복을 입엉 와서 제를 보고 있나.(노동을 하려고 하면 갈중의 입었어. 노동복이지 외출복은 아니다 이겁니다.

80 강전향(여, 1943년생) 구술 자료 (2023. 1. 19. 삼양2동경로당).

81 강정자(여, 1942년생) 구술 자료 (2023. 2. 12. 제주시 삼도2동 자택).

82 백여옥(여, 1942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북촌리노인회관).

83 현봉래(여, 1939년생) 구술 자료 (2023. 2. 6. 월정리 자택).

84 박복선(여, 1946년생) 구술 자료 (2023. 1. 13. 애월읍 광령2리 자택).

요즘은 패션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 외출복을 하는데, 그 당시는 말 그대로 갈중의. 이 노동복이에요, 노동복. 그 당시에는 제(祭) 보는 남자의 경우에는 갈중의 입으면 주변에서 욕을 해. 어디 그 일하는 작업복을 입고 와서 제를 보고 있나.)⁸⁵

• 우리 어머니네 삼촌 시절엔 이 갈옷은 입으면 이제 제사침이도 안 가고양, 노동복이엔 해근에. 우리 메누리가 그 공회당에서 그 투표할 때 그냥 요새 신식 저 갈몸빼 입언에 투표 강 해오난 우리 어머니가 투표하는 큰 어른 뽑는 디 갈중의 입언 가왓젠 경헌 말을 들엇어게. 옛날 어른덜은이 갈중의 입영 함부로 이 제사침이도 안 가고 경사난 디도 안 가곡. 옛날은이 오로지 밧디.(우리 어머니네 삼촌 시절엔 이 갈옷은 입으면 이제 제삿집에도 안 가고요, 노동복이라고 해서. 우리 며느리가 그 공회당에서 그 투표할 때 그냥 요새 신식 저 갈몸빼 입고서 투표 가서 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투표하는 큰 어른 뽑는 데 갈중의 입고 다녀왔다고 그런 말을 들엇어. 옛날 어른들은 갈중의 입고 함부로 이 제삿집에도 안 가고 경사난 데도 안 가고. 옛날은 오로지 밧에.)⁸⁶

즉, 위의 구술 자료에서 보듯이, ‘갈옷’은 일할 때 입는 노동복이기에 제삿집에서 입거나 외출복으로 입으면 흠이 되었다. 옛 어른들은 갈옷을 입고 제삿집에 나타나거나 투표하러 갈 때 갈옷을 입으면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2) ‘일복’에서 ‘일상복’, ‘외출복’, ‘무대복’ 등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갈옷’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 입고 있다. 옷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일복으로 주로 입던 갈옷이 현대 복식에 맞게 재창조되면서 ‘갈옷’도 일상복부터 무대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 감들영 오래지 안헨 때가 색깔이 막 곱지. 그 물색 고운 때엔 거 입영은에게 외출도 가기도 호고, 한 몇 번 뽀 시작호든 외출 못 가. 색깔이 굿어. 외출할 때 입을 거랑 밧디 입을 거 따로. 외출할 때 입을 건 밧디 갈 때 아시로왕 입지도 못 해.(감들여서 오래지 않을 때가 색깔이 아주 곱지. 그 물색 고운 때엔 거 입어서 외출도 가기도 하고, 한 몇 번 빨기 시작하면 외출 못 가. 색깔이 굿어. 외출할 때 입을 거랑 밧에 입을 거 따로. 외출할 때 입을 건 밧에 갈 때 아까워서 입지도 못 해.)⁸⁷

• 땅에서만 입는 옷. 이젠 춤 감물들인 거 알아줘근에 신사기치 입어. 으 대통령도 입고 이제사. 아이고 삼베에 감물들인 거 얼마나 이쁘나? 취고지.(땅에서만 입는 옷. 이젠 춤 감물들인 거 알아줘서 신사같이 입어. 으 대통령도 입고, 이제야. 아이고 삼베에 감물들인 거 얼마나 이쁘나? 취고지.)⁸⁸

85 이승찬(조천읍 북촌리) 구술 자료.
 86 강병숙·강전향(제주시 삼양2동) 구술 자료.
 87 안정생(표선면 가시리) 구술 자료.
 88 양태월(한경면 용수리) 구술 자료.

• 여름에 웨방 갈 때도 중간엔 막 갈옷덜 행 막 입어났어. 이제도 감옷 입는 사람덜은 입으메. 이제도 입는 사람은 입는다 나 그때 마흔 넘은 땀 거라. 웨방 갈 때도 그 곱다하게 맨글아근에. 절간에 가는 사람덜도이 입영 가고. 우인 안 입고 아래만 입언. 몸빼만 입고 우인 또 다른 거 입고. 장에 간 때도 입고 어디 먹으레 갈 때도 입고. 켄디 이제는 잘 안 입엄신게.(여름에 외방 갈 때도 중간엔 아주 갈 옷들 해서 자주 입었었어. 이제도 감옷 입는 사람들은 입어. 이제도 입는 사람은 입는다 나 그때 마흔 넘은 땀 거야. 외방 갈 때도 그 곱다랄게 만들어서. 절간에 가는 사람들도 입고 가고. 위에 안 입고 아래만 입어서. 몸빼만 입고 우인 또 다른 거 입고. 장에 간 때도 입고 어디 먹으러 갈 때도 입고. 그런데 이제는 잘 안 입고 있네.)⁸⁹

• 옛날엔 옷이 엇이난에 이제보담 더 많았주. 갈적삼도 행 입곡, 갈몸빼도 행 입곡, 또 요즘도이 막 저 귀헌 걸로이 사치로이 더 요샌 감옷 빌언 허고 잇어, 감물들이고 잇어. 요새 사람덜은 그 감물들연 저디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옛날엔 옷이 없으니까 이제보담 더 많았지. 갈적삼도 해서 입고, 갈몸빼도 해서 입고, 또 요즘도 아주 저 귀한 걸로 사치로 더 요샌 감옷 빌려서 하고 잇어, 감물들이고 잇어. 요새 사람들은 그 감물들여서 저기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잖아.)⁹⁰

• 갈몸빼 혼 스물댓부터 입어난 거 님은디. 어릴 때는 안 입어난. 어른덜 입는 것만 알주. 어른덜은 다 감들연 입어, 할머니덜. 아이 때는 안 입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허곡 뭐 저 무신 저 드레스처럼 영헛 치마로 헤영 만들안 입는 거 텔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옷 안 입어봤어. 일헛 땀 이걸로 입언.(갈몸빼 한 스물다섯부터 입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안 입었었지. 어른들 입는 것만 알지. 어른들은 다 감들여서 있었어, 할머니들. 아이 때는 안 입어. 요새 아이들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하고 뭐 저 무슨 저 드레스처럼 이렇게 해서 치마로 해서 만들어서 입는 거 텔레비전에 봐도 옛날에는 우린 감옷 안 입어봤어. 일할 때는 이것으로 입었어.)⁹¹

“땅에만 입는 옷”이었던 ‘갈옷’을 요새는 외출복으로도 많이 입는다. “감물들인 거 알아취근에 신사7치 입어.(감물들인 것 알아취서 신사같이 입어.)”, “요새들은 모양으로 입엄지마는.(요새들은 모양으로 입고 있지만.)”, “여름에 웨방 갈 때도 중간엔 막 갈옷덜 행 막 입어났어.(여름에 외방 갈 때도 중간엔 아주 갈옷들 해서 잘 입었었어.)”, “요즘도이 막 저 귀헌 걸로이 사치로이 더 요샌 감옷 빌언 허고 잇어.(요즘도 아주 저 귀한 걸로 사치로 더 요샌 감옷 빌려서 하고 잇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허곡 뭐 저 무신 저 드레스처럼 영헛 치마로 헤영 만들안 입는 거 텔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옷 안 입어봤어.(요새 아이들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하고 뭐 저 무슨 저 드레스처럼 이렇게 해서 치마로 해서 만들어서 입는 거 텔레비전에 봐도 옛날엔 우린 감옷 안 입어봤어.)”

89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90 현옥렬(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91 이정숙(구좌읍 덕천리) 구술 자료.

이와 같이 기능과 모양,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갈옷'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갈옷'도 재질과 모양, 기법, 디자인 등을 달리하며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 표선면 가시리 안정생은 밭에 다닐 때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을 구분해서 입는다고 하였다. 옷은 때와 장소, 기능, 입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유행을 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보자들도 여전히 '갈옷'을 일복으로 선호하고 있지만 디자인과 모양 등을 현대화하여 일상복이나 외출복 등으로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탐라문화제 등 민속예술제가 열리거나 제주를 표현해야 하는 무대에서는 갈옷을 무대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다. 갈옷이 제주 사람, 제주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이다.



〈사진 19〉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사진



〈사진 20〉 귀리걸보리농사일소리 공연 사진

4) 갈옷의 효능과 효용성

갈옷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시대와 세대가 바뀌면서 갈옷이 다양하게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갈옷을 입으면 땀이 몸에 붙지 않는다. 땀이 몸에 붙지 않으니 옷도 살갗에 달라붙지 않고 땀띠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 땀띠 안 나고, 땀 안 부트꼭 허니까 노동복으로 처음에는 탄생헌디 이젠 막 멋쟁이들이 입으면 멋지게 보ୟ주마는 원래는 노동복이에요.(땀띠 안 나고, 땀 안 붙고 허니까 노동복으로 처음에는 탄생했는데 이젠 아주 멋쟁이들이 입으면 멋지게 보이고 있지만 원래는 노동복이에요.)⁹²

• 갈옷 입으면 이 땀이 안 부트거든. 몸에 부트질 아녀. 경허니까이 저이 농촌 옛 사름은 여름에 갈옷을 입어야.(갈옷 입으면 이 땀이 안 붙거든. 몸에 붙질 않

92 강전향(제주시 삼양2동) 구술 자료.

아. 그러니 저 농촌 사람은 여름에 갈옷을 입어야.)⁹³

• 지금 남저나 여저나 입다근에 티샤스 거 하얀 거 이상헌 거 잇잖아. 그런 거 허믄 능그랑허주게. 게민 감물들이민이 것이 스락헿 여름에 땀 안 부떠근에 이. 여름에 웨 감옷을 주로 입느냐 허민 땀이 안 부떠 가지고 스락헿에 그 감옷을 입는 거.(지금 남저나 여저나 입다가 티셔츠 거 하얀 거 이상헌 거 잇잖아. 그런 거 하면 늘어지지. 그러면 감물들이면 것이 사락해서 여름에 땀 안 붙어서. 여름에 왜 감옷을 주로 입느냐 하면 땀이 안 붙어 가지고 ‘사락해서’ 그 감옷을 입는 거.)⁹⁴

• 여름에 땀나민 피잘피잘 다른 건 모랑헤 부난 몸에 부텨 허주만 갈옷은 스락 허난 몸에 부뜨지 아녀고.(여름에 땀나면 피잘피잘 다른 건 ‘모랑헤’ 버리니 몸에 붙어서 하지만 갈옷은 ‘사락하니’ 몸에 붙지 않고.)⁹⁵

(2) 갈옷을 입으면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다

감물을 들이면 물을 들이지 않을 때보다 통기성이 더 좋다고 한다. “여름엔 갈옷을 입으면 막 건드럽주.(여름엔 갈옷을 입으면 아주 시원하지.)”, “갈옷은 땀 안 부땡 솔강허영 좋주기.(갈옷은 땀 안 붙어서 ‘솔강’해서 좋지.)”, “갈옷은 몸에 부트지 안허고 입을수록 산도록헤.(갈옷은 몸에 붙지 않고 입을수록 시원해.)”라는 구술자료에서 확인된다. 땀이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으니 ‘건드럽다’, ‘산도록하다’, ‘솔강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표현들은 모두 ‘시원하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여름철에 발일 할 때 감물들인 옷을 선호하는 이유다.

• 여름엔 갈옷 입으면 막 건드럽주게. 일 안헿 땀 뭉 안 입으난 몰르주마는 일헿 땀 감옷은 땀 나도 솔에 안 부터. 솔에 안 부트기 때문에 일헿 땀 갈옷이 막 좋아.(여름엔 갈옷 입으면 아주 시원하지. 일 안 할 땀 뭉 안 입으니 모르지만 일헿 땀 감옷은 땀 나도 살에 안 붙어. 살에 안 붙기 때문에 일할 땀 갈옷이 아주 좋아.)⁹⁶

93 김정평(여, 1933년생) 구술 자료 (2023. 2. 17.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자택).

94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95 김갑생(여, 1923년생) 구술자료 (2023. 1. 19.).

96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97 ‘솔강하다’는 ‘스락하다’와 마찬가지로 옷감이 뽀뽀하고 거친 느낌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98 이화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99 ‘산도록하다’는 시원하면서도 서늘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100 이순재(대정읍 신평리) 구술 자료.

• 갈옷은 땀 안 부땡 솔강허영⁹⁷ 좋주기. 그디 솔강허고 그냥 시원허고 땀땡기도 잘 안 나고.(갈옷은 땀 안 붙어서 ‘솔강해서’ 좋지. 거기 ‘솔강하고’ 그냥 시원하고 땀땡기도 잘 안 나고.)⁹⁸

• 우알로 감옷을 안 입으면 여름에 일을 못헤. 땀 옷들은 몸에 부텨 안 뉘. 갈 옷은 몸에 부트지 안허고 입을수록 산도록헤⁹⁹.(위아래로 감옷을 안 입으면 여름에 일을 못헤. 다른 옷들은 몸에 붙어서 안 돼. 갈옷은 몸에 붙지 않고 입을수록 ‘산도록해’.)¹⁰⁰

(3) 감물을 들이면 옷감이 질겨진다.

옷에 감물을 들이면 코팅 효과가 있어서 감물이 옷감을 보호해 질겨지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감들여진 것 질기곡 감 아니 들인 건 여러주께.(감들여진 것 질기고 감 아니 들인 건 여러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보자들은 감물을 들이면 옷감이 질겨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갈옷이 더러워 빨랫방망이로 두들겨 빨아도 감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 그 감들여진 건 질기곡 감 아니 들인 건 여러주께, 풀 아녀곡 행 입는 거난 에. 그 감은 죽도 풀 아녀근에 그자 허민 감옷은 세탁기 들영 빨아 불민 풀 저 분 다. 거면 뉘 수 시민 손으로 빨곡, 비누 맥이지 말앙이. 계민 막 뚝내 삭삭 나민 그냥 오랑 마께로 다닥다닥 물에도 강 두드리멍 옛날 식으로이. 경행 빨민 질기 곡, 곱곡, 감물이 그대로 잇고.(그 감들여진 건 질기고 감 아니 들인 건 여러지, 풀 안 해서 입는 거니까. 그 감은 풀 안해서 그저 하면 감옷은 세탁기 들여서 빨아 버 리면 풀 저 버린다. 그러니까 뉘 수 있으면 손으로 빨고, 비누 먹이지 말고. 그러면 아주 뚝내 삭삭 나면 그냥 와서 방망이로 다닥다닥 물에도 가서 두들기며 옛날 식 으로. 그렇게 해서 빨면 질기고, 곱고, 감물이 그대로 잇고.)¹⁰¹

‘갈옷’ 외에도 바구니나 장판, 그물 따위에 감물을 먹이는 이유도 감물을 들이면 본래보다 더욱 질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구술은 장판에 감물을 먹이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보자는 감물을 먹인 장판은 “뻗뻗하고 오래 가더라.”고 구술하였다.

• 옛날에는 흙땅인데 장판 영 허면은 종이로 부르잖아. 경허면 그거를 감뻗이 면은 뻗뻗해지거든. 그른 그걸 질기라고 싹싹싹 막 영 썰멍 맥여 가. 계민 그 장 판이 막 오래 가더라고.(옛날에는 흙땅인데 장판 이렇게 하면 종이로 부르잖아. 그 러면 그거를 감먹이면 뻗뻗해지거든. 그러면 그걸 질기라고 싹싹싹 아주 이렇게 쓸 면서 먹여 가. 그러면 그 장판이 아주 오래 가더라고.)¹⁰²

(4) ‘갈옷’은 흙이나 먼지가 잘 붙지 않아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다.

흰옷을 입고 밭일을 하면 금방 더러워지지만 갈색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더러움이 타는 줄 모를 수 있다. 실제로 ‘갈옷’은 ‘감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흙이나 먼지 등이 잘 달라붙지 않고, 가시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름철 보리 수확할 때와 가을에 벌초할 때 갈옷을 입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러움’을 제보자들은 ‘버뚱’ 또는 ‘더뚱’이라고 표현하였다. ‘버뚱다’는 ‘더럽다’는 의미의 제주방언이다.

• 옛날 할머니부터 그 갈옷을 입으면 그 갈옷 그거이 질기고. 옷에 흑도 잘 안 부뜨곡. 몸에 뚝도 안 부뜨곡. 경허난 거 갈옷을 들영.(옛날 할머니부터 그 갈옷

101 임종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료.

102 백여옥(조천읍 북촌리) 구술 자료.

을 입으면 그 갈옷 그거 질기고. 옷에 흠도 잘 안 붙고. 몸에 땀도 안 붙고. 그러니
거 갈옷을 들여서.)¹⁰³

• 갈옷 입으면 벼뭍도 덜 타고, 시원하고. 원칙으론 시원해. 빨래하기도 좋
고.(갈옷 입으면 더러움도 덜 타고, 시원하고, 원칙으론 시원해. 빨래하기도 좋
고.)¹⁰⁴

• 감물들이민이 흠뻑 더럽혀도 이시네 더러운 것이 안 나와. 요추룩 감물들이
민 스락해정이 땀 안 부떠. 감물들이민 이시네? 스락해근에 일힐 때 무진장 좋
거든. 이 갈옷은 이틀 입어도 안 벼물어.(감물들이면 조금 더럽혀도 있잖니 더러
운 것이 안 나와. 요처럼 감물들이민 ‘사락해져서’ 땀 안 붙어. 감물들이면 있잖니?
‘사락해서’ 일힐 때 무진장 좋거든. 이 갈옷은 이틀 입어도 안 더러워.)¹⁰⁵

• 밧디서 일힐 때 지금도 감뭍뻐 입으면 더름 안 타고, 또 땀 안 부뜨고, 모기
잘 안 타고 스락허난.(밭에서 일할 때 지금도 감뭍뻐 입으면 더러움 안 타고, 또 땀
안 붙고, 모기 잘 안 타고 ‘사락하니까’.)¹⁰⁶

(5) 갈옷은 빗물에 강하다.

무명옷과 달리 ‘갈옷’을 입으면 빗물이 몸에 감가지 않아 비올 때 많이 입었다. 비
내릴 때 나일론이나 광목 옷을 입으면 몸에 감겨 불편하였다.

• 주로 갈옷이 그냥 장마에도 스락허게 입곡. 그때는 장에서 이추룩 오천 원짜
리 푸는 게 하나도 엇엇주게. 계난 주로 갈옷 멘들앙 장마에도 그거 입으면 몸이
스락해근에, 칙칙허지 안해. 계난 계속 만들어 입엇지.(주로 갈옷이 그냥 장마에
도 ‘사락허게’ 입고. 그때는 장에서 이처럼 오천 원짜리 파는 게 하나도 없엇지. 그
러니까 주로 갈옷 만들어서 장마에도 그거 입으면 몸이 ‘사락해서’, 칙칙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입엇지.)¹⁰⁷

• 우리 저 비 온 날, 비 올 때 아무 거 옛날에 엇인 때, 그 저 감옷 입엄 착행 가
달로 이디 오게 해근에 영 행 씨근에 비 오는 날 어디 갈 때 경 행 어디 텅겨낫
주. 옛날엔 우산도 엇곡, 아무것도 엇어 놓난.(우리 저 비 온 날, 비 올 때 아무 거
옛날에 없을 때, 그 저 감옷 입어서 착해서 다리로 여기 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씨
서 비 오는 날 어디 갈 때 그렇게 해서 어디 다녔엇지. 옛날엔 우산도 없고, 아무것
도 없어 놓으니.)¹⁰⁸

103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104 이순재(대정읍 신평리) 구술 자료.
105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
료.
106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107 이순재(대정읍 신평리) 구술 자료.
108 임중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
료.

위의 구술 자료 “갈옷이 그냥 장마에도 스락허게 입곡.(갈옷이 그냥 장마에도 ‘사
락’허게 입고.)”과 “비 올 때 감옷 입엄 착행 가달로 이디 오게 해근에 영 행 씨근
에.(비 올 때 감옷 입고 착해서 다리로 여기 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씨서.)” 등을 통

해 장마에 ‘갈옷’을 입거나 비가 내릴 때 ‘갈옷’을 ‘비옷’처럼 사용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조선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윤봉조(尹鳳朝, 1680~1761)의 시문집 『포암집(圃巖集)』(卷之三)에 실린 「도중잡영(島中雜詠)」의 열 번째(其十) 시 대목에 있는 “凌雨柿染衣 冒雪皮爲帽(능우시염의 모설피위모)”¹⁰⁹가 장마 때 갈옷을 입었던 사실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다. 제주사람들은 ‘능우시염의’, 즉 세차게 쏟아지는 비에 ‘감들인 옷’을 입고(凌雨柿染衣), ‘모설피위모’, 세찬 눈에는 가죽 모자를 썼다(冒雪皮爲帽). 이를 통해 옷과 우비가 변변하지 않은 시절에는 감물들어 뻗뻗해진 갈옷이 비옷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옷이었던 셈이다.

(6) ‘갈옷’은 다림질이 필요 없다.

‘갈옷’은 빨아서 말릴 때 손질을 하면 별도로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갈옷 다리미질 아냐다. 영영영 해근에 툭툭툭툭 두드려근에이, 곱게 나오주.(갈옷 다리미질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툭툭툭툭 두드려서, 곱게 나오지.)¹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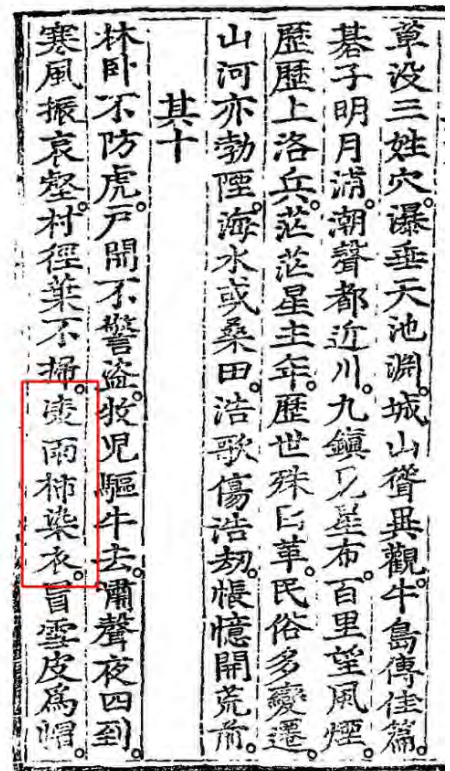
- 갈옷은 그냥 탁탁탁탁 털엉만 행 바짝한 양 들어가면 수그러져. 처음은 바짝해도 나중에라 가면 수그러정. 바지락한¹¹¹ 게 좋지. 너무 바짝하면 굵고, 굵어정.(갈옷은 그냥 탁탁탁탁 떨어서만 해서 뽀뽀한 대로 들어가면 수그러져. 처음은 뽀뽀해도 나중에 가면 수그러져서. ‘바지락한’ 게 좋지. 너무 뽀뽀하면 굵고, 굵어져서.)¹¹²

- 감옷 그냥 그자 빨아근에 탈탈탈 물 털어근에 그냥 입어.(감옷 그냥 그자 빨아서 탈탈탈 물 떨어져 그냥 입어.)¹¹³

위의 구술 자료에서 보듯이 갈옷은 반 후에 “영영영 해근에 툭툭툭툭 두드리”¹¹⁴거나 “탁탁탁탁 털어서” 널면 바짝 마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퍼서 널면 말라서도 편평해 다림질이 필요 없다. 게다가 ‘갈옷’은 노동복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다려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옷에 따라서 다리미로 곱게 다려 입을 경우도 있다.

(7) 모기 등 해충에 강하다.

감물을 들이면 옷감이 뽀뽀하여 몸에 달라붙지 않아 모기 등 해충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에 아이들이 입는 평상복이나 속옷에도 감물을 들여 입혔다. 갈옷을 입힘으로써 아이들을 향한



〈사진 21〉 윤봉조의 시문집 『포암집(圃巖集)』(卷之三) 중, ‘凌雨柿染衣’

109 윤봉조는 1728년 제주에 유배되고 이듬해 육지로 이송되었다. 「島中雜詠」은 이때 느낀 점을 11수의 시로 쓴 것이다. 이 한시를 ‘장맛비 올 때는 감으로 옷에 물들이고, 추운 겨울에는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네’(허복구·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문화와 감물 염색』, 세오와 이재, 2013, 42쪽, 번역: 허연구 박사) 또는 ‘장맛비 올 때는 옷에 감물들이고, 추운 겨울에는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네’(심규호 외, 『제주 한시 300수』, 제주학연구센터, 2022, 134쪽)로 번역하고 있으나 갈옷의 특성으로 보아 장맛비에 감물을 들이는 것은 무리여서 ‘장맛비에 갈옷을 입고’처럼 번역하는 게 온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감물을 들이는 시기가 장맛비가 오는 시기가 아닐 뿐더러 감물을 들여 비를 맞으면 감이 썩어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보자들의 구술에서처럼 필자는 ‘시염의’를 ‘감으로 옷에 물들이다’가 아니라 ‘감들인 옷’, 즉 갈옷으로 번역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모기의 공격을 미리 차단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 여름에 뺏다서 일할 때 감뭉뺏 입으면 더러움 안 타고. 땀 안 부르고 모기 잘 안 타고 스락허난. 학교 텅길 때서부터 감뭉뺏 입어실 거라. 그 집이 오면은 시원하게시리. 감뭉뺏 입으면 모기도 잘 안 탄덴 해영 할망덜. 우리 어머니네 소중의에 감들영.(여름에 밭에서 일할 때 감뭉뺏 입으면 더러움 안 타고. 땀 안 붙고 모기 잘 안 타고 사락하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감뭉뺏 입었을 거야. 그 집에 오면 시원하게끔. 감뭉뺏 입으면 모기도 잘 안 탄다고 해서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네 소중의에 감들여서.)¹¹⁵

월정리 현봉래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녀오면 집에서 갈뭉뺏으로 갈아 입었다고 하였다. 어머니께서 “여름에 모기 타지 말고, 시원하게 입으라고 소중의에 감 들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는 또 “밭에서 일할 때 감뭉뺏 입으면 더러움도 타지 않고 땀도 안 붙고 모기도 잘 타지 않는다.”며 갈뭉뺏의 효능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8) 갈뭉뺏은 효용성을 높여준다.

감뭉뺏은 입던 옷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무명이나 광목 등 면직물이나 삼베로 지은 옷은 입다 보면 투색하는 등 외출복으로 입을 수 없다. 입던 옷에 감뭉뺏을 들이면 ‘갈뭉뺏’을 재탄생하여 여름철에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다. 요즘도 ‘갈적삼’ 대신에 입던 와이셔츠나 남방셔츠, 티셔츠 등에 감뭉뺏을 들여 입을 사람들이 있다. 서귀포시 법환리 현옥열은 “입던 거 남방 이상한 것 있으면 감뭉뺏이면 ‘사락해서’ 자주 해서 입는다.”며 여름이 되면 아들 옷이랑 본인 옷을 물들일 계획임을 밝혔다. 안덕면 감산리 김유현은 “입던 점퍼에 감뭉뺏을 들여 일복으로 입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입단 거 남방 이상한 거 이시민 감뭉뺏이민 스락헝 막 헝 입어. 올해도 이제 여름 나민 아들 옷이영 나 옷이영 하영 감들일 거주. 거 입단이 들랑헌 거 이상한 티셔츠도이 이시민 감뭉뺏이민 색깔 막 이쁘고 입을 때 막 좋아.(입던 거 남방 이상한 거 있으면 감뭉뺏이면 ‘사락해서’ 자주 해서 입어. 올해도 이제 여름 되면 아들 옷이랑 내 옷이랑 많이 감들일 거지. 거 입다가 늘어진 거 이상한 티셔츠도 있으면 감뭉뺏이면 색깔 아주 예쁘고 입을 때 아주 좋아.)¹¹⁶

110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111 ‘바지락헌’은 알맞은 정도로 뺏뺏하다는 의미다.

112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113 양태월(한경면 용수리) 구술 자료.

114 ‘영영영 해근에 툇툇툇툇 두드려근 에’는 ‘널 때 갈뭉뺏을 잘 개어서 손으로 툇툇툇툇 두들기다’는 의미다.

115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116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117 김유현(안덕면 감산리) 구술 자료.

• 이 잠바가 헐떨어져 가니까 일복으로 입을라고 금년에 감들인 거지. 이게 시원하고 땀이 안 차고. 중간에는 뭐 입던 와이셔츠 7튼 거 떨어져 가는 거 이렇게 들어서 입고.(이 점퍼가 헐어 가니까 일복으로 입으려고 금년에 감들인 거지. 이게 시원하고 땀이 안 차고. 중간에는 뭐 입던 와이셔츠 같은 거 떨어져 가는 거 이렇게 들어서 입고.)¹¹⁷

감뭉뺏을 들였던 옷도 풀이 죽으면 다시 감뭉뺏을 들여 입을 등 재사용이 가능하였다.

처음 감물을 들일 때보다 색깔이 곱지 않은 단점은 있지만 갈옷의 용도가 노동복인 만큼 입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입었던 옷에도 감들영은에 입으면은 풀이 죽지 안 허냐? 입어가민 자꾸 빨아 가고 무시거 허민, 또 그거 흥끔 미치민 버지락허잖아. 그추룩 행 입는 사름은 입었어.(입었던 옷에도 감들여서 입으면 풀이 죽지 않느냐? 입어가면 자꾸 빨아 가고 무엇 하면, 또 그거 조금 문히면 뽀뽀하잖아. 그처럼 해서 입는 사름은 입었어.)¹¹⁸

- 입어난 옷은 들여지는데 감들영 입어난 건 안 고와. 처음에 한 번 들였단 옷은 막 헐어가민 또 살릴라고 들이긴 허영 입영.(입었던 옷은 들여지는데 감들여서 입었던 건 안 고와. 처음에 한 번 들였던 옷은 아주 헐어가면 또 살리려고 들이긴 해서 입고서.)¹¹⁹



〈사진 22〉 제보자 김유현이 입던 옷에 감물을 들인 옷

(9) ‘갈옷’은 헐어서 옷으로 못 입게 되어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다.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갈옷’이 헐면 아이를 눕히는 ‘아기구덕(요람)’ 깔개로 활용하였고, 기저귀가 없을 때는 기저귀 대용으로 헐 ‘갈옷’을 이용하였다.

- 그 기저귀가 그땐 엇으난에 저 구덕에 보릿낭 깔아난 다음에 이제 이 갈옷 헐 걸로 해 가지고 그레 영 뇌근에 이제 한 번 오줌 싼 건 내 불고. 똥 싸민 흥끔 영 막 굿이민 버리고 경허영 막 그 감옷을 엇으민 안 뉘 거주기게.(그 기저귀가 그땐 없으니까 저 바구니에 보릿대 깔아난 다음에 이제 이 갈옷 헐 걸로 해 가지고 그리로 이렇게 뇌서 이제 한 번 오줌 싼 건 내 버리고. 똥 싸면 조금 이렇게 아주 굿 으면 버리고 그래서 아주 그 감옷은 없으면 안 될 거지.)¹²⁰

- 아기를 막 이디 오줌 싸카부덴 헐 옷으로 샅바. 이제는 샅바가 있어 가지고 그땐 샅바가 없어. 갈중의 헐 걸로도 우리는 그렇게 행 키웠어. 아기는 하영 나난 그렇게 행 키웠어.(아기를 아주 여기 오줌 싼까봐 헐 옷으로 샅바. 이제는 샅바가 있어 가지고 그땐 샅바가 없어. 갈중의 헐 걸로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키웠어. 아기는 많이 낳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웠어.)¹²¹

- 옛날 이시네? 갈옷 헐면 그걸 버려근에 또 따른 옷 주워 입곡. 헐 거 던져 불지 안해서 걸로 걸레도 허고. 그걸로 문 방 다끄곡, 발 다끄곡 걸로이 문 경헐어.(옛날 있잖니? 갈옷 헐면 그걸 잘라서 또 따른 옷 기워서 입고. 헐 거 던져 버리

118 강경순(표선면 하천리) 구술 자료.
 119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120 박복선(애월읍 광령리) 구술 자료.
 121 백여옥(조천읍 북촌리) 구술 자료.



〈사진 23〉 갈천 부른구덕(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지 않고 걸로 걸레도 하고. 그걸로 몽땅 방 닦고, 발 닦고 걸로 몽땅 그랬어.)¹²²

입다가 헨 옷 가운데 쓸 만한 부분은 오려두었다가 ‘구덕(바구니)’을 바르는 용도로 썼고, 명석이나 ‘꺾방석(맷방석)’ 헨 데를 기울 때도 썼다. 또 갈옷을 가늘게 잘라서 바를 꼬는 데도 활용하였다. 갈옷이 쓸모가 없을 때는 걸레로도 활용하였다. 이는 옷가지 등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근검절약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편과 지혜를 엿보게 하는 산물들인 셈이다.

• 부른구덕¹²³은 거 갈적삼이나 갈정뱅이나 입어근에 막 또꼬망도 터진 거 입을 나위 엇인 거. 곳인 디로 돌라근에 풀 맥여근에 구덕에라도 볼랑 쓰젠. 옛날엔 천도 엇이난 경혜근에 갈주력으로 그 구덕을 볼르난에 거 데껴 부는 셈으로 구덕 볼르는 거주. (‘부른구덕’은 거 갈적삼이나 갈잠방이나 입어서 막 꿈무니도 터진 거 입을 나위 없는 거. 온전한 데로 돌라서 풀 먹여서 바구니에라도 발라서 쓰려고. 옛날엔 천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갈주력’으로 그 바구니를 바르니까 거 던져 버리는 셈으로 바구니 바르는 거지.)¹²⁴

• 누게 말재간이라도 갈옷 헐어가민 고망 이만이 끈영은에 주영 입고 주영 입고 하나수게게. 곳인 딜로 영 돌랑은에 미싱에다 쥐박든가 손으로 줍던가, 나도 경 행 입어수다게. 데껴 볼기 아까우난 명석 헨 디 이거 데영에 준 건 나 봐수다. 명석 헨 디 일로 줍곡 일로 줍곡. 꺾방석도 잇지양? 꺾방석 동글랑흔 그런 거 헨 걸 일로 대곡 일로 대곡 이거 벅직한 거난. 경 주어나수다. (누구 말재간이 어도 갈옷 헐어가면 구멍 이만큼 잘라서 기워 입고 기워 입고 했었습니다. 온전한 데로 이렇게 돌라서 재봉틀에 박든지 손으로 기우든지, 나도 그렇게 해서 입었습니다. 던져 버리기 아까우니까 명석 헨 데 이거 대서 기운 건 나 봤습니다. 명석 헨 데 일로 기우고 일로 기우고. 맷방석도 잇지요? 맷방석 동그란 그런 거 헨 걸 일로 대고 일로 대고 이거 벅직한 거니까. 그렇게 기웠었습니다.)¹²⁵

122 현옥렬(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123 ‘부른구덕’은 천이나 종이 따위를 발라 만든 바구니다. 보통 대오리로 걸은 바구니가 헐어가면 천 따위를 발라서 쌀이나 가루 등을 담을 때 사용하였다. 지역에 따라서 ‘풀부른구덕’이라고도 한다.

124 김갑생(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125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5) 갈옷의 느낌과 표현

‘갈옷’의 특성과 효용성은 갈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과 감촉의 다양한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감물을 들인 갈옷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바드락허다’, ‘바지락허다’, ‘버지락허다’, ‘뻗뻗허다’, ‘뿌작허다’ 등을 쓰고, 옷을 입었을 때의 시원한 느낌은 ‘건드럽다’, ‘건더럽다’, ‘산도룩허다’, ‘시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갈옷을 입었을 때 살갓에 닿는 느낌을 표현할 때는 ‘사락허다’, ‘살그랑허다’, ‘소락허다’,

‘솔그랑허다’, ‘솔강허다’, ‘솔쿠랑허다’, ‘왕시렁허다’처럼 표현하고 있어 어휘에 따라 옷의 감촉과 느낌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표 10〉 감물을 들었을 때의 옷 상태 표현

연번	표현	구술 내용	지역
1	바드락허다	시렁목엔 들이난 그땀 바드락헿 곰곡 건드럽곡 잘도 좋안게이.	천지동
2	바지락허다	감옷 닥닥 털엉만 헿 바짝헌 양 입어가민 수그러져. 처음은바짝헤도 나중예라 가민 수그러정. 바지락헌 게 좋지. 너무 바짝허면 굿고게. 굿어정.	낙천리
3	바짝허다	감옷 닥닥 털엉만 헿 바짝헌 양 입어가민 수그러져.	낙천리
4	버지락허다	감옷 헿어지민게 그거 감이나 시민 들영 입곡. 버지락허여.	용수리
5	부삭허다	물 빠지민 또시 감들일 땀 그 감주생이 물 후쓸 낱 벗아근에 들이민 부삭헿 좋아.	일과1리
6	빠작허다	감물들이민 빠작허지. 감옷 경허면은 모기도 잘 안 타고 몸에도 달라붙도 안 허고, 감옷이 씨원허니깐이.	월정리
7	뵤뵤허다	감들이민 뵤뵤허주게. 물 적지명 물류와 가민.	화북2동
		아마 우리 어머니네 모기를 많이 타난 모기 허지 말렌 그 감옷을 입은 거 같아. 뵤뵤허지, 땀 안 부뜨고 사락헌 게 좋주.	월정리
8	빠작허다	감들이면은 좀 빠작허주게. 경허민 솔드레 안 부뜨니깐 이 감옷을 입기 시작헤 가지고.	오조리

〈표 11〉 ‘갈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나 감촉 표현

연번	표현	구술 내용	지역
1	건더럽다	어렸을 때도 감옷 입은 사름이 하곡게. 감 들영. 여름 나민 건더럽게시리 입는 거난.	신산리
2	건드럽다	여름엔 갈옷 입으민 막 건드럽주게.	일과1리
		일허레 가젠 허민 갈옷 입으민 막 건드럽주게.	일과1리
		시렁목엔 들이난 그땀 바드락헿 곰곡 건드럽곡 잘도 좋안게이.	천지동
		일허레 가젠 허민 갈옷 입으민 막 건드럽주게. 막 건드러와. 건드러운 맛으로 입는 거.	난산리
3	산도록허다	갈옷은 몸에 부뜨지 안허고 입을수록 산도록헤, 여름에도 완전 좋아.	신평리
		갈옷 입으민 산도록허여. 땀 아니 부뜨난게. 갈옷 입으민 시원헤.	수원리
4	사락사락사락	감옷은 노동일을 태우니까게 사락사락사락.	화북2동
5	사락사락허다	감옷은 막 사락사락허주게. 땀 안 부뜨.	삼양2동
		갈옷 입으민이 갈옷이 사락사락헤 부난 몸에 부뜨지 안허난 막 시원헿 좋나게.	신흥2리
6	사락허다	(갈몸뻘) 막 사락허여근에 살 부뜨지 아녀니깐 그것만 입어.	용수리
		삼베에 감들이민 더 사락허게시리 좋고, 감 안 들어도 그 삼베는 그거 바드락허주게. 거른 기자 또 헤영 입고. 미녕보담 더 사락헤영 좋아.	가시리
		아마 우리 어머니네 모기를 많이 타난 모기 허지 말렌 그 감옷을 입은 거 같아. 뵤뵤허지, 땀 안 부뜨고 사락헌 게 좋주.	월정리
7	살그랑허다	저뵤디 땀길 때 입으은, 뵤디 땀길 땀 안 부뵤명 살그랑헿 좋주기게.	금성리
8	솔각솔각허다	새 갈옷 입을 때 그것만 입으민 솔각솔각헿 고려운 거 굿어진 거 뵤이주.	천지동

연번	표현	구술 내용	지역
9	소락지다	갈옷은 입으면 소락져	와산리
10	소락허다	땀 부트지 말양 소락허게 입젠.	삼양2동
		갈옷 맨들양 장마에도 그거 입으면 몸이 소락해근에, 칙칙하지 안해. 게난 계속 만들어 입었지.	신평리
		여름에 왜 갈옷을 주로 입느냐 허민 땀이 안 부떠 가지고 소락헨에 그 갈옷을 입는 거.	법환리
		일허명 살젠 허난 갈옷을 입어서 땀도 안 부떠 소락허고 경헌다게.	신흥2리
		어떤 사름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면 입고 일헨 땀 그거 버뭇 안 타주게. 게곡 소락허고 덤지 안하고. 몸에 잘 부뜨지 안헨 막 시원해여.	덕천리
땀 나면은 이제 땀 등어리에 부뜨지 말렌. 감 소락허니까. 감물 들이면은 입어 봐. 좀 소락허지 안허냐?	월정리		
11	솔그락허다	감물들이민 솔그락허다 이거라. 솔그락허영 땀 안 부떠. 게민 일헨 때 입곡.	법환리
12	솔그랑허다	갈옷 땀 안 베어근에 솔그랑헤영 좋주게.	사계리
		갈옷을 왜 일헨 때만 그거 입나면은 것이 땀이 잘 안 부떠게. 솔그랑허여.	용수리
13	솔쿠랑허다	감물 들영은 그것이 솔쿠랑헨. 감이 후살 풀이 뽀뽀헨 세는 생이라.	금성리
14	왕시렁허다	스나이덜 몰르민 솔강허게 입곡 허주. 저 갈중의 뽀스 안 입영 입으면 다 굵어 분덴 허고 경헤난 왕시렁허지. 걸어도 와장와장와장.	금성리

〈표 10〉, 〈표 11〉에 나타나듯이 갈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나 감촉 등의 다양한 표현들은 표준어로는 일대일로 대역할 수 없는, 독특한 제주방언이다. 이들 방언 표현들은 제보자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언어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갈옷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갈옷을 입고 걸을 때 나는 소리인 ‘와장와장와장’을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특히 이런 색다른 표현들은 제주 갈옷을 만들고 입었던 제주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무형의 자산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6) 착용 환경

(1) 착용 공간

앞에서도 살폈듯이 ‘갈옷’은 주로 밭일, 목장일 등 일터에서 주로 일복으로 입었다.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고 옷 문화가 바뀌면서 갈옷을 입는 공간도 ‘일터’가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할 때, 또는 외출복하거나 무대복으로 활용되며 착용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2) 첫 착용 시기

제주에서 ‘갈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는 언제일까?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700년대이기에, 이 이전부터 갈옷은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갈

옷'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옷이다. 화산섬 제주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제주 특유의 옷으로, 누대에 걸쳐 전승되고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보자들이 처음 '갈옷'을 입었던 시기는 언제일까? 제주시 화북2동 백순성의 "아이들사 무신 갈옷을 입어게?(아이들이야 무슨 갈옷을 입어?)"와 대정읍 일과1리 이춘희의 "갈옷은 하여튼 아인 땀 안 입고 결혼헨 오란에 혼 서른 넘어사 입어져실 거라.(갈옷은 하여튼 아인 땀 안 입고 결혼해서 와서 한 서른 넘어야 입을 을 거야.)"는 구술 속에서, 갈옷은 어렸을 때는 거의 입지 않고 밭일을 할 나이나 살림하면서 일복으로 자연스럽게 입었음을 알 수 있다.

- 아이들사 무신 갈옷을 입어게. 어려와도 광목옷이나 미녕이나들 그냥 것들.(아이들이야 무슨 갈옷을 입어. 어려워도 광목옷이나 무명이나 그냥 것들.)¹²⁶

- 갈옷은 하여튼 아인 땀 안 입고 결혼헨 오란에 혼 서른 넘어사 입어져실 거라. 서른 넘어사.젠디 우리 어린 때도 어머니넌 아버지넌 갈옷 행 입엇주. 일헐 때 갈옷을 행 입으니까. 농서지는 사람은 감덜 다 들엇어.(갈옷은 하여튼 아인 땀 안 입고 결혼해서 와서 한 서른 넘어야 입어졌을 거야. 서른 넘어야. 그런데 우리 어린 때도 어머니넌 아버지넌 갈옷 해서 입엇지. 일할 때 갈옷을 해서 입으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감들 다 들엇어.)¹²⁷

- 갈옷은 시집오난 일후젠 후난 갈옷은 입엇지. 스물네 살에 이디 완 일허젠 후난 갈옷덜 행 씨어명덜 주언게. 씨어명 입으렌 후난 입으명 밧디 텡길 땀 입는 거로구나 헨 입엇주게.(갈옷은 시집오니까 일하려고 하니까 갈옷은 입엇지. 스물네 살에 여기 와서 일하려고 하니 갈옷들 해서 시어머니들 주던데. 시어머니 입으라고 하니 입으며 밧에 다닐 때 입는 거로구나 해서 입엇지.)¹²⁸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어렸을 때도 '갈옷'을 입었다고 구술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집안 형편이나 개인적 취향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저 갈중의 7튼 건 그냥 일헐 때만 입어. 애기옷도 출려진 사람 물들여근에 뽀나지 못하게. 뽀나민 그 두드레기 낭은에 못 헨헨 경헨 입엿 텡겏주게. 이제도 뽀 방법으로 입지. 여름 때에.(저 갈중의 같은 건 그냥 일할 때만 입어. 애기옷도 차려진 사람 물들여서 뽀나지 못하게. 뽀나면 그 두드레기 나서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입고 다녔지. 이제도 뽀 방법으로 입히지. 여름 때에.)¹²⁹

- 우리 그냥 춤 어렸을 때부터 그 감물덜은 헨에 입어세게. 그때는이 치마도 만들엿 줬나어. 감물 헤여근엿에 이런 저 광목 자치덜 잇이면 그런 거 헤여근엿에 버물지 아녀곡. 그건 후뽀 감물 들이면 곤다게, 빨강허영이. 경헨에 그거 입

126 백순성(제주시 화북2동) 구술 자료.
 127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128 유애자(대정읍 사계리) 구술 자료.
 129 양태월(한경면 용수리) 구술 자료.

어났저마는.(우리 그냥 참 어렸을 때부터 그 감물들은 해서 입었어. 그때는 치마도 만들어서 썼었어. 감물 해서 이런 저 광목 자치들 있으면 그런 거 해서 더럽지 않고. 그건 조금 감물들이면 고와, 빨개서. 그렇게 해서 그거 입었었다만.)¹³⁰

• 학교 텅길 때서부터 감옷을 입어실 거라. 아이덜인디 그 집이 오면은 시원히 계시리 옛날엔 내의 뒷이 옛이난 이제 막 감옷 입으면 모기도 잘 안 탄덴 혜영 할망덜 우리 어머니네 감들영. 학교 갈 때 입진 아녀고.(학교 다닐 때부터 감옷을 입었을 거야. 아이들인디 그 집에 오면 시원하게끔 옛날엔 내의 뒷이 없으니까 이제 막 감옷 입으면 모기도 잘 안 탄다고 해서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네 감들여서. 학교 갈 때 입진 않고.)¹³¹

그러나 대정읍 일과¹리 고순자는 어렸을 때도 갈옷을 입었는데 치마에도 감물을 들여서 입었다고 구술하였다. 이는 집안 형편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감물들인 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가 다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다. 용수리 양태월은 “두드레기 나지 못하게” 비법으로 여름 때에 감물을 들인 옷을 입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대정읍 사계리 유애자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광목 사다가 ‘갈몸뻘’을 만들어 입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갈옷은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밖에 다닐 때는 입지 않았다고 한다.

• 난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광목 사다근에양 갈몸뻘 멩글안. 우에 건 안하고 영 후영 갈몸뻘 멩글안에 입지곡 후연 돌양간 녹디 타민, 간식 시간 뒷민 상점에 강 간식 사오렌 후민 여자 친구들 봐근에 쫄린덴 그거 벗어동 다른 거 입영 강 간식 사오고 경 후명 혜연 혜수다게.(난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광목 사다가 갈몸뻘 만들어서. 위에 건 안하고 이렇게 해서 갈몸뻘 만들어서 입히고 해서 데려가서 녹두 타면, 간식 시간 되면 상점에 가서 간식 사오라고 하면 여자 친구들 봐서 놀린다고 그거 벗어두고 다른 거 입고 가서 간식 사오고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¹³²

그럼에도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갈옷’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한 시기는, 밭일 등 일할 나이가 되는 성년 때이거나 결혼한 이후다. ‘갈옷’이 일복이었기 때문이다.

(3) 착용 계절

주지하다시피, ‘갈옷’은 주로 여름에 입는 옷이다. 감물을 들일 수 있는 ‘뽕감’이 나오는 시기가 여름이고, 물을 들일 수 있는 옷감도 얇아야 하니 여름철이 제격이다. 게다가 ‘갈옷’의 재료인 감이 찬 성질을 갖고 있어 여름철 옷감에 적합하다.

130 고순자(대정읍 일과¹리) 구술 자료.

131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132 유애자(대정읍 사계리) 구술 자료.

• 옛날에 보리 헐 때 이 갈옷이 꿰고고. 또 고구마 팔 때, 고구마줄 논 때 이것도 꿰고야. 밭디 강 검질멜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시원행 땀을 안 부떠.(예전에 보

리 할 때 이 갈옷이 최고고. 또 고구마 팔 때, 고구마줄기 놓을 때 이것도 최고야. 밭에 가서 김매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시원해서 땀이 안 붙어.)¹³³

• 여름엔 갈옷 입으면 막 건드럽주게. 일 안할 땐 뭐 안 입으난 몰르주만은 일할 땐 감옷은 땀 나도 술에 안 부터. 술에 안 부르기 때문에 일할 땐 갈옷이 막 좋아. 여름에도 입주만은 가을에도 일할 땐 입엇주게. 겨울에는 안 입언.(여름엔 갈옷 입으면 아주 시원해. 일 안할 땐 뭐 안 입으니 모르지만 일할 땐 감옷은 땀이 나도 살에 안 붙어. 살에 안 붙기 때문에 일할 땐 갈옷이 아주 좋아. 여름에도 입지만 가을에도 일할 땐 입엇지. 겨울에는 안 입엇어.)¹³⁴

• 감물을 들인 건 얼어. 천에 고망이 나고 이건 여름에 입는 거난.(감물을 들인 건 추워. 천에 구멍이 나고 이건 여름에 입는 거니까.)¹³⁵

• 갈옷은 일하는 사람은 여름, 저슬 엇이 입나. 그건 일하는 농부와니들은 소게바지 우트레 끼웁 입언 허고. 그 옷 그냥 허민 버물어 불곡게. 중의만 입으면 얼곡, 경허여.(갈옷은 일하는 사람은 여름, 겨울 없이 입는다. 그건 일하는 농부한들은. 솜바지 위로 끼워서 입고 하고. 그 옷 그냥 하면 더러워 버리고. 중의만 입으면 춥고, 그래.)¹³⁶

제주시 삼도2동 강청자의 구술 주석 133)에서 알 수 있듯이, '갈옷'은 여름철에 '보리 헐 때, 고구마 줄기 놓을 때, 김매 때' 입으면 좋은 옷이다. 제보자들이 젊었을 때는 옷이 그다지 흔하지 않을 때여서 밭일을 할 때는 여름과 봄가을은 물론 겨울에도 '갈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귀포시 천지동 임중은의 "갈옷은 여름 저슬 엇이 입나. 일하는 농부와니들은 소게바지 우트레 끼웁 입언 허고.(갈옷은 여름 겨울 없이 입는다. 일하는 농부들은 솜바지 위로 끼워서 입고 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밭일을 하는 농부들은 갈옷을 사계절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의 "감물을 들인 건 얼어.(감물을 들인 건 추워.)"처럼, '감즙'이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여름철 일복에 감물을 들이면 몸에 땀이 차지 않고 시원하다. 그러기에 '갈옷'은 여름에 입는 일종의 기능성 옷인 셈이다.

(4) 착용 대상

가) 여자)남자, 어른)아이

'갈옷'은 남녀 구분 없이 일복으로 많이 입었음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그렇다고 하면 갈옷은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있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밭일을 많이 하고 흙 위에서 앉아서 일을 오래하는 여성들이 더 많이 입었다. 지금도 여성들은 일복으로 '갈뭇뻬'를 많이 만들어 입는다. 다음의 구술 자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 133 강청자(제주시 삼도2동) 구술 자료.
- 134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 135 김갑생(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 136 임중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료.

• 갈옷 여자덜이 하영 입엇주, 남자덜은 별반 안 입엇저게. 남자덜도 입는 사람은 입어도 안 입는 사람은 안 입어.(갈옷 여자덜이 많이 입엇지, 남자들은 별반 안 입엇어. 남자들도 입는 사람은 입어도 안 입는 사람은 안 입어.)¹³⁷

• 갈몸빼 혼 스물댓부터 입어난 거 닳은디. 어릴 때는 안 입어난. 어른덜 입은 것만 알주. 어른덜은 다 감들연 입어. 할머니덜. 아이 때는 안 입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멧쟁이도 치마도 허곡 뒤 저 무신 드레스처럼 영헨 치마로 헤영 만들안 입는 거 텔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옷 안 입어봤어.(갈몸빼 한 스물다섯부터 입엇던 거 같은데. 어릴 때는 안 입엇엇어. 어른들 입은 것만 알지. 어른들은 다 감들여서 입어. 할머니들. 아이 때는 안 입어. 요새 아이들은 그 멧쟁이도 치마도 허곡 뒤 저 무신 드레스처럼 이렇게 해서 치마로 해서 만들어서 입는 거 텔레비전에는 봐도 예전엔 우린 감옷 안 입어봤어.)¹³⁸

• 나가 어릴 때게 저 시흥리서 많이 입엇주. 커낭은 이제도 감몸빼는 입주만은 남저 어른은 농서도 안 지고 그냥 텅기는 사람이라부난 감옷을 잘 안 입엇주. 여저 입는 것이 감몸빼난 여자가 많이 입는 거 닳아.(내가 어릴 때 저 시흥리서 많이 입엇지. 커서는 이제도 감몸빼는 입지만 남자 어른은 농사도 안 지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어서 감옷을 잘 안 입엇지. 여자 입는 것이 감몸빼니까 여자가 많이 입는 거 같아.)¹³⁹

한편 제주의 장례 풍속 중에 상주들이 여성 친족들에게 복으로 나눠주는 ‘광목몸빼’를 장례 후에 감물을 들여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여자들이 ‘갈몸빼’를 많이 만들어 입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른과 아이를 비교했을 때는 구좌읍 덕천리



〈사진 24〉 갈몸빼 입고 일하는 여성들(1960년대 흥정표 촬영) 국립제주대학교, 『만농 흥정표선생 사진집 제주사람들의 삶』, 일원피앤씨, 2002, 수록.

137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138 이정숙(구좌읍 덕천리) 구술 자료.

139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이정숙의 “어릴 때는 안 입어남. 어른덜 입은 것만 알주. 어른덜은 다 감들연 입어.”에서 보듯이 ‘갈옷’은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많이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중산간 마을)해안 마을

‘갈옷’ 착용은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에서도 차이가 난다. 중산간 마을은 해안에서 바라볼 때 ‘웃드르’에 해당한다. ‘웃드르’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한라산 쪽에 있는 마을이나 지경을 일컫는 말이다. 제주에서는 중산간 마을을 ‘웃드르’, 해안 쪽의 마을을 ‘알드르’라고 한다.

‘웃드르’는 해안 마을보다 감나무를 많이 심었다. 또한 ‘웃드르’는 해안 마을보다 밭일이나 목장일 등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갈옷’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제주에서는 노동할 때 입을 ‘갈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웃드르’나 해안마을 할 것 없이 울안이 넓은 집은 감나무를 거의 심었다. 요즘도 울타리 안에 감나무가 심어 있는 집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예로부터 집안에 감나무를 심었던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집에 감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감을 빌려서라도 여름이면 ‘갈옷’을 만들었다. 또한 이웃에서 감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이 많은 ‘웃드르’에 가서 감을 사다가 감물을 들여 일복을 만들어 입었다. 다음의 구술 자료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 저 웃드리레 그레가 감이 많이 나고. 감낭도 많고게. 웃드리가. 이디도 웃동네광 알동네 차이 잇는다.(저 ‘웃드르’에 그리가 감이 많이 나고. 감나무도 많고. 웃드르가. 여기도 웃동네랑 아랫동네 차이 잇는데.)¹⁴⁰

• 어디 나갈 때엔 쏘곶에 몸빼 입곡 치마를 이렇게 입어이. 이렇게 입엉 이 앞이 이레 무경 경허연 텡건게. 고산은 경 안 헤신디. 아메도 웃드르라. 이디 하영 입지. 여자가 더 하영 입었지.(어디 나갈 때는 속에 몸빼 입고 치마를 이렇게 입어. 이렇게 입고 이 앞에 이레 묶어서 그렇게 해서 다니던데. 고산은 그렇게 안 했는데. 아마도 ‘웃드르’야. 여기 많이 입지. 여자가 더 많이 입었지.)¹⁴¹

• 감물 들이는 건 혼장 웃었지. 그뻐 웃영 못 입었지. 감물들이는 건 이제도 그거 입어. 우리 어무니 친정 한원리¹⁴² 동네가 옛날엔 웃드르라. 그디만 가문 감이고 뵈이고 막 들여. 이딘 어류와.(감물 들이는 건 한정 없었지. 그뻐 없어서 못 입었지. 감물들이는 건 이제도 그거 입어. 우리 어머니 친정 한원리 동네가 예전에 ‘웃드르’야. 거기만 가면 감이고 뵈이고 막 들여. 여긴 어려워.)¹⁴³

• 우리 웃드르라부난 계난 감옷만 입엉 살았어. 신산이에서는이 감옷을 그때는 우리 결혼혈 고리에, 그 삼십 세??지 많이 안 헛어. 거기는 아메도 개춘¹⁴⁴이라고. 고성은 양춘¹⁴⁵이주. 거난 조금 웃드르 식으로 허난 수산¹⁴⁶이나 감옷을 많이 입는디 신산 이짜드레 그 감옷을 막 심허게 입진 안헛어.(우리 ‘웃드르’여

140 양수자(여, 1942년생) 구술 자료 (2023. 1. 30.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자택).

141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142 ‘한원리’는 제주시 한경면의 한 마을 이름이다.

143 양태월(한경면 용수리) 구술 자료.
144 ‘개춘’은 ‘개촌’, 즉 해안마을의 의미로 쓴 것이다.

145 ‘양춘’은 ‘양촌’ 즉 양반들이 사는 마을로, 중산간 마을의 의미로 쓴 것이다.

146 ‘수산’은 성산을 수산리로, 중산간 마을 가운데 하나다.

서 그러니 감옷만 입고 살았어. 신산리에서는 감옷을 그때는 우리 결혼할 즈음에, 그 삼십 세까지 많이 안 했어. 거기는 아마도 해안마을이라고. 고성은 ‘양반마을’이지. 그러니까 조금 ‘웃드르’ 식으로 하니까 수산이나 감옷을 많이 입는데 신산 이쪽으로 그 감옷을 아주 심하게 입진 않았어.)¹⁴⁷

• 나 어릴 때 나 수산리라부난 입어봤져. 웃드르하고 해변하고 입은 그 의상 차이가 좀 잇었주게. 그땐 이런 해변인 예를 들면은 원피스 같은 거 막 입었주마는 웃드르 사람덜은이 옛날 옷을 늦게까지 입었어. 우리 웃드르라부난 감옷만 입영 살았어.(나 어릴 때 나 수산리여서 입어봤지. ‘웃드르’하고 해변하고 입은 그 의상 차이가 좀 있었지. 그땐 이런 해변엔 예를 들면 원피스 같은 거 막 입었지만 ‘웃드르’ 사람들은 옛날 옷을 늦게까지 입었어. 우리 ‘웃드르’여서 감옷만 입고 살았어.)¹⁴⁸

애월읍 금성리 이수자는 한 마을 안에서도 감의 유무는 “웃동네랑 알동네 차이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해안마을은 해풍 등의 영향으로 감나무 식생이 좋지 않아 감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 ‘웃드르’ 쪽에서가 감나무를 많이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해안 마을에 살다가 중산간 마을로 시집을 가거나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시집간 제보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성리 이수자의 구술은 한 마을 안에서도 바다 쪽과 산 쪽이 감나무 환경이 다른 경우이고, 나머지 구술들은 생활 터전이 해안 마을에서 중산간 마을로,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바뀐 제보자들의 구술이다.¹⁴⁹ 이들의 구술을 통해 중산간 마을이 해안 마을에서보다 ‘갈옷’을 더 많이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아래웃)윗옷

제보자들에 따르면 남자는 ‘갈중의’나 ‘갈정병이’, 여자는 ‘갈굴중의’와 ‘갈몸빼’를 주로 만들어 입었다. 제보자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몸빼’보다는 ‘굴중의’에 물을 들여 입었다. 윗옷으로는 적삼이나 입던 셔츠 등에 감물을 들여서 입기도 하였다. 옷감의 소재는 주로 ‘미녕’이나 광목이었다. 일복이 아닌 경우에는 ‘베’나 ‘모시’, 소창 등에 물을 들인 후에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감옷’은 윗옷보다 아래옷에 더 많이 물들여 입었다.

147 이복자(여, 1946년생) 구술 자료 (2023. 1. 10. 고성리 노인회관).

148 강대춘(여, 1945년생) 구술 자료 (2023. 1. 10. 고성리 노인회관).

149 제보자들의 구술 속에 나오는 지역 중 애월읍 금성리, 한경면 고산리, 한경면 용수리, 성산읍 신산리, 성산읍 고성리는 해안마을이고, 한경면 낙천리, 성산읍 수산리는 중산간 마을이다.

7) 갈옷의 세탁과 관리

‘갈옷’은 습기에 약하고 잘 찌는 성질이 있다. 특히 ‘갈옷’은 여름철에 주로 입기 때문에 쉽게 땀이 났 수 있고 눅눅할 수 있어 곰팡이가 나기 쉽다. ‘갈옷’을 바로 빨지 않고 놔두거나 세제 등의 원인으로 거뭇게 변한다. 그러기 때문에 ‘갈옷’은 감물을 들일 때도 유의해야 하지만 감물을 들인 후에도 세탁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

야 한다. 대정읍 일과¹리 이춘희의 다음 구술 자료는 ‘갈옷’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그 갈옷은게 그 일복으로 나온 거난 일헤 나민이 막 고왓당이라도 뚫나나민 거멍헤 불어. 계난 그냥 일허지 안허영 그냥 고양 입는 딴 곱는다, 일 강 하루 이틀 헤 나민 뚫나곡 헤 나민 뿔민 더 거멍헤 분다. 저 감옷 입어근에 비 맞아근에 어디 후설 싯당 자게 안 뿔앙 내 불민 것도 거멍헤 불고. 계난 감옷은 그냥 비 안 맞앙 그냥 고양 입는 거민 그 색이 7만 잇주만은 일헤낭 뚫나고 경 뿔아 가민 곱지 안헌다게.(그 갈옷은 그 일복으로 나온 거니까 일헤 나면 아주 고왔다가도 뚫나나면 거메 버려.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고이 입는 데는 고운데, 일 가서 하루 이틀 해나면 뚫나고 해나면 뿔면 더 거메 버려. 저 감옷 입어서 비 맞아서 어디 조금 있다가 재우 안 빨아서 내 버리면 것도 거메 버리고. 그러니까 감옷은 그냥 비 안 맞고 그냥 고이 입는 거면 그 색이 가만히 있지만 일 한 후에 뚫나고 그렇게 빨아 가면 곱지 않아.)¹⁵⁰

갈옷은 처음에는 고왔다가도 일하며 뚫난 후에 바로 빨지 않고 놔두면 거메 버리는 속성이 있다. 그리고 입다 보면 거메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갈옷’은 일복이기 때문에 비누가 흔하지 않을 때는 내창(넋가)에 가서 많은 물에 ‘알탕알탕’ 행구거나 ‘마께(빨랫방망이)’로 팡팡 두들겨서 뽀 후에 말려 입는 경우도 많았다.

• 마께로 탁탁 두드렁은에 그냥 비누칠도 안 헤여. 비누 경 서서게? 무슨 양젯물 비누여 별경헌 것덜 나오곡 거세기난 그냥 마께로 탁탁 큰이물¹⁵¹에 강은에 물 찰찰 허는 디 영 영 헤왕 잘강잘강허당 마께로 팡팡 두드렁 헤와당은에 그냥 또 웃디 탁탁 걸쳤당 몰르민 솔강허게 입곡 허주.(방망이로 탁탁 두들겨서 그냥 비누칠도 안 하고. 비누 그렇게 있었어? 무슨 양젯물 비누다 별건 것들 나오고 거세기니까 그냥 방망이로 탁탁 큰이물에 가서 물 철철 하는 데 이렇게 이렇게 행구서 잘강잘강하다가 방망이로 팡팡 두들겨서 행구다가 그냥 또 위에 탁탁 걸쳤다가 마르면 ‘솔강허게’ 입고 하지.)¹⁵²

그러나 더러운 땀자국을 빼기 위해서는 묘안이 있어야 한다. 그 묘안으로 옛 사람들은 ‘오줌’과 ‘쌀뜨물’을 선택하였다. 다음은 제주시 삼도2동 강청자의 구술 자료다.

• 갈옷 비누로 빨앙은 안 뉘어. 그냥 옛날엔 그 솔튼물로 이렇게 담가서, 또 옛날은 막 못사난 오줌으로 빨았어. 우리가 짠 오줌으로 요걸 빨았어. 워냐면은 색을 안 변하게. 이거 그냥 (물예) 담갔다가 비누로 빨아서 이렇게 뻗 난 디 널면 새카맣헤 불어. 이게 그렇게 까다론 옷이야. 처음 헤근에 감물 헤연 발렐 때는

150 이춘희(대정읍 일과¹리) 구술 자료.
151 ‘큰이물’은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152 이수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벧디 널어야 돼어.(갈옷 비누로 빨아서는 안 돼. 그냥 옛날에는 그 쌀뜨물로 이렇게 담가서, 또 옛날은 아주 못사니까 오줌으로 빨았어. 우리가 싼 오줌으로 요것을 빨았어. 왜냐면 색을 안 변하게. 이거 그냥 (물에) 담갔다가 비누로 빨아서 이렇게 별 난 데 널면 시커메 버려.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옷이야. 처음 해서 감물 해서 바랄 때는 별에 널어야 돼.)¹⁵³

위 구술 내용을 보면, 갈옷은 비누로 빨면 안 된다고 하였다. 비누로 빨 후에 햇볕에 널면 거메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갈옷’을 쌀뜨물이나 오줌으로 빨고 그늘에 말렸다고 한다. 쌀뜨물과 오줌으로 빠는 것은 옷의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쌀뜨물을 이용하여 ‘갈옷’을 빨 수 있음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김정평의 구술 내용이 뒷받침해 준다.

• 옛날 사름은 비누가 셋어? 뿔이 셋어게? 그냥 물에 영영 헤완, 뽕만 헤완. 기냥 구둑만 허고 뽕만 헤왓지. 게난 이거 버물지도 아녀고, 감은. 다른 건 비누칠도 헤야 뉜는디 경 아녀난 감옷을 많이 입어. 아무 것도 엇어. 우리 옛날은 머리 곱젠 허민 그 보리밥 할 때 보리 우이 그 물 잇잖아이? 그거 허민 그땀 거 밥 다 뉜 가민 그 밥튼물이라고 그땀 거 거렁 머리 곱고.(옛날 사람은 비누가 있었어? 뿔이 있었어? 그냥 물에 이렇게 이렇게 행귀서, 뽕만 행겼어. 그냥 먼지만 하고 뽕만 행겼지. 그러니까 이거 더럽지도 않고, 감은. 다른 건 비누칠도 헤야 되는데 그렇게 얹으니까 감옷을 많이 입어. 아무 것도 없어. 우리 옛날은 머리 감으려고 하면 그 보리밥 할 때, 보리 위에 그 물 잇잖아? 그거 하면 거기 거 밥 다 되어 가면 그 밥물이라고 거기 거 떠서 머리 감고.)¹⁵⁴

김정평은 비누가 없을 때는 갈옷을 물에 뽕만 행귀서 입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머리를 감을 때는 보리밥 할 때 나오는 ‘밥튼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밥튼물’은 밥을 지을 때 생기는 밥물이다. 이로 보아 쌀뜨물이나 밥물의 녹말 성분이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입다 오래된 누런 옷을 쌀뜨물에 담가두면 하얗게 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생활의 지혜다. 2023년 7월 27일 인터넷 신문 『안양광역신문』의 유화영 칼럼 「비누 한 조각과 손 세이플러씨」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내용인즉, 오줌과 쌀뜨물을 비누처럼 사용했다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비누의 유래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오줌으로 세탁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오줌에는 암모니아와 가성소다의 성분이 있어 세제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옷감을 세탁할 때는 콩가루나 녹두가루 또는 쌀겨, 쌀뜨물, 보릿가루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¹⁵⁵

이처럼 이 칼럼도 강청자의 구술에서처럼 비누가 없었을 때는 옷을 빨 때 오줌이

153 강청자(제주시 삼도2동) 구술 자료.

154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155 유화영, 「비누 한 조각과 손 세이플러씨」, 『안양광역신문』(anyang-news.net), 2023. 7. 27.

나 싹뜨물을 이용했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갈옷’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탁을 할 때 세제 사용도 유의해야 한다. 즉 일반 빨랫비누나 ‘슈퍼타이’, ‘스파크’ 등 알카리성 세제를 사용하면 옷이 거메지기 때문에 ‘울삼푸’ 같은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¹⁵⁶

• 처음에 감들여근에 영 아래여 가민 별경헤 불어. 경행 세제 낱 세탁기에 돌려 불민 거멍헤 불어. 세제 때문에 거멍헤지는 거. 경헌디 그놈의 세제가 나쁘긴 나빠. 그 곱게 입는 사람들은 그 세제로 안 빨앙 그냥 저 울삼푸 같은 걸로 빨주게. 옛날엔 그냥 저 비누로만 뿌나 손으로만 영. 겨고 감옷은 막 그 하얀색이나 무슨 색이 아니난 손으로만 주물러 빨아도, 땀만 시쳐도 입었어.(처음에 감들여서 이렇게 아래여 가면 벌게 버려. 그렇게 해서 세제 놔서 세탁기에 돌려 버리면 거메 버려. 세제 때문에 거메지는 거. 그런데 그놈의 세제가 나쁘긴 나빠. 그 곱게 입는 사람들은 그 세제로 안 빨고 그냥 저 울삼푸 같은 걸로 빨지. 옛날엔 그냥 저 비누로만 뿌나 손으로만 이렇게. 그러고 감옷은 아주 그 하얀색이나 무슨 색이 아니니까 손으로만 주물러 빨아도, 땀만 씻어도 입었어.)¹⁵⁷

• 감옷은 흥꿈 이 저 뒹고, 스파크엔 막 헤여 불면 자게 벗어. 나 헤여 보난 안 뉘크라라. 물에 헤여근에 비누 헤영 살살 그자 비누로. 세탁기에 헤 불민 허영허여 분다.(감옷은 조금 이 저 무엇이니, 스파크엔 막 해 버리면 재우 벗어. 나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물에 해서 비누 해서 살살 그저 비누로. 세탁기에 해 버리면 허예 버린다.)¹⁵⁸

• 이거 감옷은 비누 멕이민 거멍헤 분다. 아멩헤도 그냥 빨아사. 그냥 빨민 테가 안 진다 허는디.(이거 감옷은 비누 멕이면 거메 버린다. 아무래도 그냥 빨아야. 그냥 빨면 때가 안 진다고 하는데.)¹⁵⁹

• 감옷 처음에 빨기 전에 처음엔 곱게 입어야 뉘어. 경 때 정 세제 낱 빨앙 입으민 안 뉘어. 곱게 입엇당 멧 번 빨아낱 흥꿈 풀 죽은 다음에 탄 거영 놔도 허주. 그냥 그것만 허영 손빨래로 헤사 뉘어.(감옷 처음에 빨기 전에 처음엔 곱게 입어야 되어. 그렇게 때 저서 세제 놔서 빨고 입으면 안 되어. 곱게 입었다가 멧 번 빨고 나서 조금 풀 죽은 다음에 탄 거랑 놔도 하지. 그냥 그것만 해서 손빨래로 해야 되어.)¹⁶⁰

• 이제라도 세탁기에 돌리민 안 뉘고 저 빨랫비누거리 쪼끔 낱 동가 뒹당 영행 기냥 널주. 부비거나 뉘 허지 안허는 거난. 그거 부비민 안뉘요. 이견 동가 뒹당은 기냥 흥흔 싹 때 빠져. 경 기냥 막 흥들영 물채 널어야 뉘.(이제라도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고 저 빨래비누 쪼끔 놔서 담가 뉘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널지. 비비거나 뉘 하지 않는 거니까. 그거 비비면 안 돼요. 이견 담가 뉘다가는 그냥 하

156 여기에서 ‘슈퍼타이’, ‘스파크’, ‘울세제’ 등은 모두 상품명이다.
 157 이순자(대정읍 신평리) 구술 자료.
 158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159 임종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료.
 160 이정숙(구좌읍 덕천리) 구술 자료.

- 161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162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163 변수진, 「감즙 염색물의 특성과 염색성」, 『예술논집』 7,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2006, 7~8쪽.

면 싹 때 빠져. 그렇게 그냥 막 흔들어서 물차 넣어야 되어.)¹⁶¹

• 저 비누 해도 괜찮은디 세탁기에는 돌리지 말아야 돼어. 수퍼타이로는 빨지 말아야 돼어. 우리도 이제도 경해. 좀 땀난 디 막 더럽게 입어나민 어의에 시켜 멩허여. 색깔이 변허여.(저 비누 해도 괜찮은데 세탁기에는 돌리지 말아야 되어. 수퍼타이로는 빨지 말아야 되어. 우리도 이제도 그래. 좀 땀난 데 아주 더럽게 입어나면 어의에 시커메. 색깔이 변해.)¹⁶²

또 ‘갈옷’을 처음 빨 때 세탁기에 놔서 돌려 버리면 갈옷의 색깔이 거메지고 감물 들인 색도 빨리 벗겨진다고 한다. 빨 때도 세탁기보다는 손빨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비누로 빨 때도 가볍게 빠는 게 좋다. 갈옷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염색 후 초기 2~3회의 세탁 시에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세탁만 해야 하는 것도 변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뚜렷하게 규명된 것은 감즙 속의 탄닌 성분이 알칼리와 결합할 때 심한 변퇴색을 나타내”¹⁶³기 때문이다. 또한 갈옷을 빨 때는 비비거나 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갈옷’ 가운데 곱게 입는 옷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빠는 게 좋다. 감물을 들인 옷이기 때문에 다른 옷과 함께 세탁하지 말고, 널 때는 짜지 말고 물차 너는 게 좋다고 한다.

2. 감물들이기

농업이 주였던 시절, 제주에서는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 곳곳을 다니다 보면, 지금도 감나무가 심어 있는 집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이들 감나무는 과수용으로 심은 경우도 있지만 감물을 들이기 위해 예전부터 심었던 토종감나무인 경우도 많다. 특히 농사일이 끊이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는 요즘도 감물을 들인 갈옷을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매해 '갈옷'을 물들여 입었다고 한다. 감나무가 없는 해안마을의 경우는 인근 중산간 마을에서 감을 사다 감물을 들이거나 꽃자왈 등에 자생하는 감을 따다가 감물을 들여 입었다. 제주시 삼양2동 제보자 강병숙과 강전향은 인근 중산간 마을인 제주시 봉개동이나 월평동 '무드내', 조천읍 신촌리 '동수동'에 부탁해서 감을 사다가 감물을 들였다. 서귀포시 법환동 현옥열은 집에 감나무가 없어서 4:3 소개로 사라진 중산간 마을인 영남마을에 있는 감을 따다가 감물을 들이고 있다.

'갈옷'은 옷에 감물을 들이면 완성된다. 옷감에 감물을 들인 후 '갈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무명이나 광목 따위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여 입었



〈사진 25〉 마을에 있는 감나무(한림읍 명월리)

다. 이런 일을 제보자들은 ‘감들이다’, ‘감뻬이다’, ‘감물들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감들이다’와 ‘감뻬이다’의 ‘감’은 ‘감물들이다’의 ‘감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감을 뺏아서 으깬 즙’이라는 뜻이다.¹⁶⁴

앞의 79쪽의 ‘1) 갈옷의 정의와 명칭’에서도 살폈듯이 제주에서 ‘감’을 들인 옷은 지역에 따라서 ‘갈옷’, ‘감옷’, ‘감든옷’이라고 하였다. 옷의 종류에 따라 ‘갈옷’의 명칭도 달라진다. 가령 중의에 감물을 들이면 ‘갈옷’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갈중의’, ‘감옷’이라고 하는 데서는 ‘감중의’, ‘감든옷’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감든중의’라고 하였다.

‘갈옷’은 주로 무명이나 광목, 베 따위로 만든 옷에 감을 으깬 즙을 들여서 만든다. 1950대 이전부터 감물을 들이는 일이 일상이었던 제보자들은 ‘2) 갈옷의 종류’에서 소개한 윗옷으로 ‘갈적삼’과 ‘갈등거리’, ‘갈꼬끼’를 만들어 입었고, 아래옷으로 감물을 들여 ‘갈중의/갈점벙이’와 ‘갈굴중의’, ‘갈몸뻬’를 만들었다. ‘감물들이는’ 일은 제주 여성들에 의해 여름철에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제주의 독특한 무형유산이다. 이는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미래에 갈고 닦아야 할 유산이다.

‘갈옷’은 감물을 들일 옷가지와 염료인 감과 감물 들일 때 사용하는 도구만 있으면 가능하다. 옷가지에 ‘감물들이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감물을 들이는 사람의 노력과 정성의 크기에 따라 ‘갈옷’의 품질도 달라진다. 감물들이는 날은 제한적이다. 뜨거운 별이 내리쬐는 청명한 날에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다. 날씨가 좋아야 감물을 들고 바로 감물을 말릴 수 있다. 감물을 말린 후에는 며칠에 걸쳐 물을 적시고 말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불그스레한 고운 빛깔의 ‘갈옷’을 얻을 수 있다. 제보자들의 구술 내용을 토대로 감물들이는 시기, 감양, 물들이기, 바래기, 손질하기 등 갈옷이 완성될 때까지의 감물들이기 과정을 살펴보자.

1) 감물들이는 시기

옷가지에 감물을 들이는 적절한 시기는 한여름이다. 제보자들은 감물들이기에 적당한 시기는 칠월칠석(음력 7월 7일)이나 백중(음력 7월 15일) 경이라고 한다. 양력으로는 8월 15일 광복절 전후를 꼽았다. 그러나 중산간이나 해안이나, 남쪽 지역이나, 북쪽 지역이나에 따라서 감물을 들이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보통은 음력 유월 말에서 칠월 한 달을 감물들이는 시기로 여기고 있다. 구좌읍 덕천리 이정순은 “메밀 갈 때”에 감물을 들인다고 하였다. 메밀은 여름농사다.

이 시기는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쨍하니 맑아서 감물들이기에 적당하다. 감물 재료인 감도 물들이기에 알맞게 자라 감즙을 많이 품고 있다. 감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감씨가 너무 여리지도 쇠지도 않을 때의 감이어야 한다. 뺏았을 때 감씨 초록색 부분이 벗겨지고 하얀 속살을 보여줄 때의 감이 물들이기에 적당한 감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가 감물이 많고, 옷에 물을 들여도 감색이 곱게 나온다는 것이다.

164 여기에서는 ‘감물들이다’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들이다’와 ‘감뻬이다’도 사용하였다.

• 저 칠월더레 저 백중 처서 사이에 그때 해사 딱 맞는 거. 경हे근에 허민 잘 맞인 거는 씨가 무랑무랑허든 겁죽이 벗겨지곡. 너무 어랑진 건 씨 혼디 벗어나져 불곡. 두루 힌 건 피카피카 튀멍 나오랑 딱딱허곡.(저 칠월에 저 백중 처서 사이에 그때 해야 딱 맞는 거. 그렇게 해서 하면 잘 맞은 거는 씨가 말랑말랑하면 껍질이 벗겨지고. 너무 여린 건 씨 함께 뺏아져 버리고. 덜 한 건 피카피카 튀면서 나와서 딱딱하고.)¹⁶⁵

• 감은 칠월달에. 그건 저 허끔 늦어 불민 색깔이 감이 벗어진덴 허곡, 너미 이르민 또 곱게 안 난덴 허영 또 시길 모물 갈 때 백중 그 안팎으로 헤여근에게 혼엇이 저 오래지 아니 힌 때.(감은 칠월달에. 그건 저 조금 늦어 버리면 색깔이 감이 벗겨진다고 하고, 너무 이르면 또 곱게 안 난덴 해서. 또 시길 메밀 갈 때 백중 그 안팎으로 해서 한없이 저 오래지 아니 한 때.)¹⁶⁶

• 광복절 이 소리에 들이는 거라. 이 소리에 감이 저 연헉 때 들이민 깨끗허고 허쉴 세영 들이민 거멍헤여, 버짜하고. 연헉 때 들이민 허쉴 훌랑훌랑허고¹⁶⁷ 색깔도 곱고. 그 철에만 따랑 허민 웨어. 계난 이 소리에 안 들이민 저 풀이 잘 안 사. 이거 세여근에 들이면은 감이 거멍허고 버짜헤여.(광복절 이 즈음에 들이는 거야. 이 즈음에 감이 저 연한 때 들이민 깨끗허고 조금 쇠서 들이민 거메, 뽕뽕하고. 연할 때 들이민 조금 훌랑훌랑하고 색깔도 곱고. 그 철에만 따라서 하면 되어. 그러니까 이 즈음에 안 들이민 저 풀이 잘 안 사. 이거 쇠어서 들이민 감이 거멍고 뽕뽕해.)¹⁶⁸

• 감물들이는 시기는 음력으로 칠월달에. 칠월 혼 보름 웨 가면 감들연게. 겨난 그땐 막 밧덧일 허멍 바쁘니까. 허쉴 바쁘지 않은 사람은 제 기수 그냥 들이고 바빠 못 들인 사람은 칠월 그물영 막 들이고. 것도 혼이 없어.(감물들이는 시기는 음력으로 칠월달에. 칠월 한 보름 되어 가면 감들이던데. 그러니까 그땐 아주 밧덧일 하면 바쁘니까. 조금 바쁘지 않은 사람은 제 기수 그냥 들이고 바빠서 못 들인 사람은 칠월 그물어서 막 들이고. 것도 한이 없어.)¹⁶⁹

제보자들은 기한 전에 들이민 색이 연하고, 기한을 넘겨서 감물을 들이민 감이 쇠서 감물이 쉬이 거메지고, 감물도 잘 벗겨진다고 하였다. 또한 풀이 잘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재료 준비

감물을 들이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재료로는 옷가지, 감, 도구 등이 있다. 옷가지, 감, 도구 순으로 감물들이는 재료를 살펴보자.

165 임종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료.

166 이정숙(구좌읍 덕천리) 구술 자료.

167 '훌랑훌랑하다'는 '뽕뽕하다'와는 다르게 조금 부드럽다는 뜻으로 쓰인 것 같다.

168 양기희(남원읍 태흥2리) 구술 자료.

169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1) 옷가지 준비

감물을 들일 때는 보통 무명옷이나 광목옷에 주로 들였다. 베나 모시로 만든 갈중의 적삼에도 감물을 들여서 입었다. 그러나 모시나 베에 들인 ‘갈옷’은 일복보다는 평상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은 전통 한복 형태가 아니라 현대 의복에 맞게 ‘갈옷’을 만들어 외출복 등으로 입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물들이는 옷감도 인조견이나 실크로까지 소재가 확장되고 있다. 감물을 들인 옷감은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아 옷 만들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제보자들이 일복으로 ‘갈옷’을 만들어 입을 때는 대개 옷을 만든 후에 감물을 들였다고 하였다.

남자는 중의와 적삼, 여자는 굴중의와 적삼에 물을 들였다. 해방 이후에 일바지인 ‘몸빼’가 나오면서 ‘굴중의’ 대신에 ‘몸빼’에 물을 들였다. 제보자들은 주로 광목옷에 감물을 들였다. 때에 따라서는 옷감에 먼저 물을 들인 후에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윗옷으로는 입다 헨 하얀 면 소재의 와이셔츠나 티셔츠, 남방셔츠 등에도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한다.

• 우리 헨 때 헨 건 광목. 다른 것도 들이주마는 그때 보삐린¹⁷⁰이엔 헨 것이 나와났어. 그런 기지도 나오란 그런 것에도 사당 들이는 사름은 들이고. 민직민직헨 게 헤영헨 게 고우메. 보삐린에 감들이민 막 고와. 것도 버짱은 허는디 것이 부드러와. 한두 번만 입으면 건 노실노실헨 게 좋아. 베에도 들이긴 들연. 베 적삼인가 무신 아래 쭈른 건가 무신거 들였는디 안 웨크란게, 버짱허영. 베에도 감들여근에 몸빼 멘글양 입는 사름은 입어.(우리 할 때 한 건 광목. 다른 것도 들이지만 그때 포플린이라고 한 것이 나왔었어. 그런 천도 나와서 그런 것에도 사다가 들이는 사름은 들이고. 민직민직한 게 허연 게 고와. 포플린에 감들이면 아주 고와. 것도 벗벗은 하는데 것이 부드러워. 한두 번만 입으면 건 노실노실한 게 좋아. 베에도 들이긴 들였어. 베적삼인가 무슨 아래 째은 건가 무엇 들였는데 안 되겠던데, 벗벗해서. 베에도 감들여서 몸빼 만들어서 입는 사름은 입어.)¹⁷¹

• 베 7튼 걸로 허영 몸빼 만들앙 거 빨강게 감 들이면은 거 몇 번은 좋주게. 베에 물들인 것이 입으면이 먼지가 빨리 몸에 흡수돼 붙어. 구멍이 넓으니까. 고 급스럽게 입어야 돼. 일허는 거 광목에 물들인 게 최고.(베 같은 걸로 해서 몸빼 만들어서 거 빨강게 감들이면 거 몇 번은 좋지. 베에 물들인 것이 입으면 먼지가 빨리 몸에 흡수되어 버려. 구멍이 넓으니까. 고급스럽게 입어야 되어. 일하는 거 광목에 물들인 게 최고.)¹⁷²

• 감들이는 거 미녕 다른 천 웨주게. 광목도 웨고. 나일론은 잘 아이 들어. 삼베도 잘 들어. 그런 것들은 빨아서 해야 웨어. 회사서 나온 때 쪼금 저 풀허영 허잖아. 풀기 없어야 웨어.(감들이는 거 무명 다른 천 되지. 광목도 되고. 나일론은 잘 아니 들어. 삼베도 잘 들어. 그런 것들은 빨아서 해야 웨어. 회사서 나온 때 쪼금 저 풀해서 하잖아. 풀기 없어야 웨어.)¹⁷³

170 ‘보삐린’은 ‘명주실, 털실, 무명실 따위를 쓰고 씨실과 날실을 한 올씩 엮바꾸어 짠 천의 한 가지’인 ‘포플린(poplin)’을 제보자가 발음한 것이다.

171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172 이순자(대정읍 신평리) 구술 자료.

173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옷을 새로 짓거나 옷감에 감물을 들일 때는 미리 깨끗이 빨아서 옷감의 풀기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감물을 들여도 폼이나 길이가 많이 줄지 않는다. 감물을 들이면 옷이 줄어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갈옷’으로 입을 옷은 평소에 입는 옷보다 폼이나 길이를 더 넉넉하게 해서 만드는 게 좋다. 옷의 풀기를 ‘짓’이라고 하였다. ‘짓’은 ‘옷감의 풀기’를 말한다. 잿물에 삶지 않은 광목을 ‘깃광목’이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깃광목’으로 옷을 만들 때는 빨아서 풀기를 없앤 다음에 옷을 만들어야 하지 그대로 만들면 옷이 줄어든다.

174 이춘희(대정읍 일과리) 구술 자료.
175 이수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 감들이기 전에 옷 빨아근에 비누 먹여근에 혼불 싹 궤와 붙어사. 솥양 빨아 뒤근에. 짓 부벼근에 그건 빼 베사 감물 잘 든덴 허멍. 계난 광목으로 멩근 것도 다 마찬가지로. 솥아근에 깨끗하게 빨양 물려근에 감들이주.(감들이기 전에 옷 빨아서 비누 먹여서 한차례 싹 끓어 버려야. 삶아서 빨아 두고, 짓 비벼서 그건 빼 버려야 감물 잘 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광목으로 만든 것도 다 마찬가지. 삶아서 깨끗하게 빨고 말려서 감들이지.)¹⁷⁴

• 물들이젠 허든 풀기가 있으면 안 뉘고, 풀물을 다 깨끗이. 새 거라도 다 빨아서 말려 있어야 뉘. 경허든 이제 그다음에 감을 씻어서 옷에다가 문대기도 하고 뉘 짜기도 하고.(물들이려고 하면 풀기가 있으면 안 되고, 풀물을 다 깨끗이. 새 거라도 다 빨아서 말려 있어야 되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감을 빨아서 옷에다가 문대기도 하고 뉘 짜기도 하고.)¹⁷⁵

(2) 감과 감즙 내는 도구 준비

개) 감

감나무는 과실나무의 하나로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국의 중부 이남, 일본열도,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사전적 설명에 따르면, 감나무의 열매는 ‘감’이라고 하여 그냥 먹거나 꽃감을 만들고 감나무는 가구 재료로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감나무로 도구나 가구 따위를 만들었다는 사례는 전승되지 않는다.



〈사진 26〉 제주 토종감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토종 감나무 종류를 나무로 분별하지 않았고, 오직 감나무 열매인 감으로 분별하였다. 그러니 제주도 토종 감나무와 감은 열매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최근에 이르러 제주도에도 제주도 이외 육지부에서 전래한 여러 가지 감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제주도 토종 감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제주도에서 토종감은 고욤나무를 제외하고 크게 4개 종류가 전승되었다.¹⁷⁶ 고욤나무는 감나무 과의 낙엽 교목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고욤나무를 ‘주밤감낭’, 그 열매를 ‘주밤감’이라고 하였는데, 제주도에서 ‘주밤감낭’이나 ‘주밤감’을 이용하는 사례는 전승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글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였던 네 가지 감만 들여다보고자 한다. 제주도 토종감은 ‘풋감’, ‘감’, ‘쉐빨감’, ‘구레감’이다.

① 풋감

‘풋감’은 제주도 토종감 중에서 열매가 가장 작은 감이다. 송기남(1962년생, 남) 씨에 따르면, 송 씨의 고향 서귀포시 중문동 ‘못동네’ 17개 가구 중에 ‘풋감낭’은 한 그루가 있었다. 그리고 ‘풋감낭’은 제주도 토종 감나무 중에서 3% 정도 차지하였을 정도로 보기 드물다고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풋감’을 전통적으로 감물들이기와 ‘익은감’을 얻는 재료로 삼았다. ‘풋감’의 ‘풋’은 팔[小豆]에서 온 말이다.¹⁷⁷ 팔처럼 감 열매 방울이 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도 사람 대부분은 제주도 토종감을 ‘풋감’으로 오해하는 수가 많다.

• 저 풋감이란 거 있어. 존존헌 거이. 그거 들이는 거주만은 아무 감도 뒀어. 익은 감은 안 뒀지게. 옛날에는 풋감낭이 많이 잇었어. 지금은 그 홍실감이여 무시거 옛날엔 거 홍실감이 그렇게 없었어. 우리 친정에도 그 구레감이엔 헌 거 잇잖아? 그 구레감낭 그거 땅 물들여도 뒀. 물들이는 건 관계엇드라고.(저 ‘풋감’이라는 것이 있어. 자잘한 거. 그거 들이는 것이지만 아무 감이라도 돼. 익은 감은 안 되지. 옛날에는 ‘풋감’나무가 많이 있었어. 지금은 그 홍시다 무엇. 옛날에는 그거 홍시가 그렇게 없었어. 우리 친정에도 그 ‘구레감’이라고 하는 것 잇잖아? 그 ‘구레감’나무 그거 따서 물들여도 돼. 물들이는 건 관계없더라고.)¹⁷⁸

• 풋감 퉁글랑하고 크도 안허주. 요만씩 헌 것이 풋감. 이런 단감 이런 거는 안 뒀. 단감 잇고 또 구레감 잇고, 경허주. 구레감은 좀 커. 단감도 크고. 단감은 또 그렇게 나오도 안 허주. 물들이지 못허주마는 또 이 풋감은 씹으면 못 씹어. 떨어. 아주 아주 쪼락져. 씹어 보면 아주 쪼락져. 그거는 크도 아녀고. 이렇게 풋구치 쪼. 쪼주룩쪼주룩 생겼거든, 영 감이. 쪼 퉁글렁허면서도 영 쪼작하게. 또 구레감은 납작하게. 풋감으로만 들여봤지, 구레감 그런 거는 안 들여봤어.(‘풋감’ 동그랑고 크지도 않지. 요만씩 한 것이 ‘풋감’. 이런 단감 이런 것은 안 돼. 단감 잇고 또 ‘구레감’ 잇고, 그렇지. ‘구레감’은 좀 커. 단감도 크고. 단감은 또 그렇게 나

176 고광민, “제주도 토종 감은 어디에”, 『제주의소리』, 2022. 12. 21.

177 고광민, 앞의 신문.

178 강형자(제주시 삼도2동) 구술 자료.

오지도 않지. 물들이지 못 하지만 또 이 ‘뽕감’은 씹으면 못 씹어. 떨어. 아주 아주 떨어. 씹어 보면 아주 떨어. 그거는 크지도 않고. 이렇게 팔같이 썸. 보족보족 생겼거든, 이렇게 감이. 썸 동그라면서도 이렇게 보족하게. 또 ‘구레감’은 납작하게. ‘뽕감’으로만 들여봤지. ‘구레감’ 그런 거는 안 들여봤어.)¹⁷⁹

② 감

‘감’은 제주도 토종감 중에서 열매는 보통 크기의 감이다. 송기남에 따르면, ‘감낭’은 제주도 토종 감나무 중에서 9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¹⁸⁰ 그리고 제주도 토종 ‘감’의 모양은 7~8가지 정도로, 그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주도 사람들은 ‘감’을 전통적으로 갈옷을 만들 감물, ‘익은감’, ‘건감’을 만드는 재료로 삼았다.

• 물들이는 감을 감이엔 곱얏주. 감물들여살 거. 저 거시기 감이 옷에 들이는 거 따로 있고. 또 그 흥실감은 못 들입네께. 풀이 죽영. 이제 생차 먹는 감은 못 뉘어. 그 옷에 들이는 건 쪼락진감. 기영만 곱야. 쪼락진감.(물들이는 감을 감이라고 말했지. 감물들여야 할 거. 저 거시기 감이 옷에 들이는 것 따로 있고. 또 그 흥시는 못 들입니다. 풀이 죽어서. 이제 생차 먹는 감은 못 해. 그 옷에 들이는 건 뚫은감. 그렇게만 말해. 뚫은감.)¹⁸¹

• 그냥 우리 조선감, 이디 감께. 저 감 ㅁ만씩 현 건 뽕감이엔 현 것도 있어. 그것도 들이고. 그 이제 먹는 감은 들이면은 감물이 었어. 감물이 저 쪼랍지 아녀는 때문에 안 들여져. 무조건 허고 감은 뚫어사. 뽕감허고 그냥 뽕감 아니라도 잇저께. 구레감도 들이는 거.(그냥 우리 조선감, 여기 감. 저 감 요만씩 한 것이 ‘뽕감’이라고 한 것도 있어. 그것도 들이고. 그 이제 먹는 감은 들이면 감물이 없어. 감물이 저 뚫지 않기 때문에 안 들여져. 무조건하고 감은 뚫어야. ‘뽕감’하고 그냥 뽕감 아니라도 있어. ‘구레감’도 들이는 거.)¹⁸²

③ 쉼불감

‘쉐불감’은 제주도 토종감 중에서 가장 끝이 뾰족하고 길쭉하게 생긴 감이다. 제주시 건입동 고봉만(1931년, 남) 씨에 따르면 ‘쉐불감’은 ‘쉐불감’이고, ‘쉐불감’이 열리는 감나무를 ‘쉐불감낭’이라고 한다. 송기남에 따르면, ‘쉐불감낭’은 제주도 토종 감나무 중에서 5% 정도 차지할 정도로¹⁸³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쉐불감’으로 갈옷을 만들 감물, ‘익은감’, ‘건감’을 만드는 재료로 삼았다.

• 뽕감 있고 구레감 있고 쉼불감 있고. 감물 들여지는 게 뽕감이 이신디 구레감허고 저 쉼불감도 뉘. 단감이 좀 약허여. 구레감이 단감 닳아.(‘뽕감’ 있고 ‘구레감’도 있고 ‘쉐불감’도 있고. 감물 들여지는 게 ‘뽕감’이 있는데 ‘구레감’하고 저 ‘쉐불감’도 뉘. 단감이 좀 약해. ‘구레감’이 단감 닳아.)¹⁸⁴

179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180 고광민, 앞의 신문.
181 강대옥(성산읍 신산리) 구술 자료.
182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183 고광민, 앞의 신문.
184 박복선(애월읍 광령리) 구술 자료.

④ ㄱ레감

‘ㄱ레감’은 제주도 토종감 중에서 그 모양이 가장 둥글넓적하게 생긴 감이다. 그래서 ‘ㄱ레감’은 ‘ㄱ레’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ㄱ레’는 멧돌이라는 말이다. ‘ㄱ레감’이 열리는 감나무를 ‘ㄱ레감낭’이라고 한다. 송기남에 따르면, ‘ㄱ레감낭’은 제주도 토종 감나무 중에서 2% 정도 차지할 정도로¹⁸⁵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ㄱ레감’으로 갈옷을 만들 감물, ‘익은감’, ‘진감’을 만드는 재료로 삼았다.

• ㄱ레감이 풀이 더 좋아. 풋감은 안 들면. ‘거 풋감이라라.’ 경 헤여. 사람들이 보면. ‘강 보난 풋감이란게.’ 풋감으로도 들이는데 더 세게 허고 싶으면 ㄱ레감이 좋다 이 말이주지. 거 잇으면 풋감허고 ㄱ레감 그거밖에 엇어난. 쉼불감이엔 허는 건 우리도이 군대 갔다온 후에 큰 거 보고 쉼불감이엔 허던데. 쉼불감이엔 현 건 이제 대봉감이 쉼불감이죠. 그건 감물이 안돼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먹는 감들은 감물이 안 드는 감입니다. 그냥 풋감도 감. ㄱ레감도 감. 그다음엔 ‘아. ㄱ레감이라.’ 허주만, ‘감물들이주.’ ‘감 타레 가자.’ 이렇게 감은 일제히 감으로만 허는데 가문 ‘아이고. ㄱ레감이라라.’ ‘풋감이라라.’ 이렇게 허지. 감이라고만 허지.(‘ㄱ레감’이 풀이 더 좋아. ‘풋감’은 안 들어. ‘그거’ ‘풋감’이더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면 ‘가서 보니깐’ ‘풋감’이던데. ‘풋감’으로도 들이는데 더 세게 하고 싶으면 ‘ㄱ레감’이 좋다 이 말이지. 그거 있으면 ‘풋감’하고 ‘ㄱ레감’ 그거밖에 없었어. ‘쉼불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군대 다녀온 후에 큰거 보고 ‘쉼불감’이라고 하던데 ‘쉼불감’이라고 한 건 이제 대봉감이 ‘쉼불감’이죠. 그건 감물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먹는 감들은 감물이 안 드는 감입니다. 그냥 ‘풋감’도 감. ‘ㄱ레감’도 감. 그다음에는 ‘아, ‘ㄱ레감’이라.’ 하지만, ‘감물들이지.’ ‘감 타러 가자.’ 이렇게 감은 일제히 감으로만 하는데 가면 ‘아이고. ‘ㄱ레감’이더라.’ “‘풋감’이더라.’ 이렇게 하지. 감이라고만 하지.)¹⁸⁶

• 토종감 풋감. 감이 줄줄한 거. ㄱ레감이라는 거는 단감형으로 납작하면서 요렇게 네 군데로 줄이 나고 그거는 ㄱ레감이라 했어. 이렇게 납작하게 ㄱ레처럼 생겼다 해서.(토종감 ‘풋감’. 감이 자잘한 거. ‘ㄱ레감’이라는 것은 단감형으로 납작하면서 요렇게 네 군데로 줄이 나고 그거는 ‘ㄱ레감’이라고 했어. 이렇게 납작하게 멧돌처럼 생겼다고 해서.)¹⁸⁷

나) 감유무

앞에서도 밝혔지만, 제주에서는 대부분 집집마다 감나무를 심었다. 감나무를 심어야 여름철에 갈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안이 넉넉하지 않아 감나무를 심지 않은 사람도 여름철 일복으로 갈옷을 만들어 입었다. 중산간 마을은 집집마다 거의 감나무를 심었지만 해안마을에서는 감나무가 없는 집이 많았다. 그러기 때문에 감이 없을 때는 이웃에서 얻어오거나 아니면 감이 있는 중산간 마을에 가서 감을 사와야 갈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

185 고광민, 앞의 신문.

186 김유선(안덕면 감산리) 구술 자료.

187 이수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해안마을인 조천읍 북촌리 백여선은 감나무도 부잣집에만 있었다고 하였다. 감나무가 없는 집은 돈을 주고 감을 사거나 친한 사람들은 그냥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대정읍 일과1리 고순자도 비슷한 구술을 하였다. 성산읍 신산리 강대옥은 어렸을 때 신산에는 감나무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아졌다고 하였다. 감물을 들일 때는 이웃한 중산간 마을인 난산리와 삼달리에 가서 감을 사다가 갈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였다. 한경면 용수리 양태월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제주도를 뱅 둘러 해안 마을에는 감이 없는 집도 꽤 있었던 것 같다.

• 감남도 부잣집에만 있지. 가난한 집은 감낭 없어. 감낭 잇인 집은 어느 정도 잘사는 집이라야 감낭 잇영 허면, 그 감 강 돈 주고 사와. 또 친후당 보면 혼 뉘 두라게 그 저 감옷뻬이켤 주는 이도 잇주만은 돈 주고 사와 해여.(감나무도 부잣집에만 있지. 가난한 집은 감나무 없어. 감나무 잇는 집은 어느 정도 잘사는 집이어야 감나무 있어서 하면, 그 감 가서 돈 주고 사와. 또 친하다 보면 한 되 달라 그 저 감옷 먹이겠다고 주는 이도 잇지만 돈 주고 사와야 해.)¹⁸⁸

• 감낭 잇어났저. 이제도 신 사름들이 싯저게. 우리 집이 엇다. 요기 흥끄만한 거 싯단에 나 끈어 불연. 물들이젠 허민 놈이 거 그때덜은이 흥끔씩 흥 뉘씩 어디 강 옷에 들이젠 허민 사당도 헛어. 그 감 신 집이 강 풀렌 허면 어떤 사름은 그자 돈 열메 받앙 주고 경 안허민 그냥 타당 허렌 헨다게.(감나무 있었었지. 이제도 잇는 사름들이 잇어. 우리 집은 엇다. 여기 조그마한 거 잇다가 나 끊어 버렸어. 물들이려고 하면 남이 거 그때들은 조금씩 한 되씩 어디 가서 옷에 들이려고 하면 사다가도 헛어. 그 감 잇는 집에 가서 팔라고 하면 어떤 사름은 그저 돈 얼마 받아서 주고 그럴지 않으면 그냥 타다가 하라고 한다.)¹⁸⁹

• 이젠 보민 감이 대충 잇어도 옛날엔 엇어났주. 삼달리도 강 사곡, 난산이도 강 사오곡. 요새는 신산이도 감낭 재배 많이 해신 폭. 옛날에 우리 클 때 감낭 베랑 엇어나수다.(이젠 보면 감이 대충 잇어도 옛날엔 없었었지. 삼달리도 가서 사고, 난산리도 가서 사오고. 요새는 신산리도 감나무 재배 많이 하는 폭. 옛날에 우리 클 때 감나무가 별로 없었었습니다.)¹⁹⁰

• 우리 옛날은이 해변 옷드리 허거든. 옷드린 그 감이 하나까 늘 그거 감 탕 옷에 들영 밧디 일허거든. 이 해변가엔 그 감낭이 읍어. 그뻬 그 감 역불 옷드리에 강 사다근에, 그거.(우리 옛날은 해변 ‘옷드르’ 허거든. ‘옷드르’는 그 감이 많으니 까 늘 그거 감 따서 옷에 들여서 밧에 일허거든. 이 해변가엔 그 감나무가 없어. 그뻬 그 감 부러 ‘옷드르’에 가서 사다가, 그거.)¹⁹¹

지금은 감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사왔지만 예전에는 물물교환을 하기도 하였다. 감이 없는 집은 보리와 감을 바꾸기도 하고, 자리돔과 감을 맞교환하기도 하였다.

188 백여선(조천읍 북촌리) 구술 자료.
189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190 강대선(여, 1937년생) 구술 자료 (2023. 1. 10. 성산읍 신산리 경로당).
191 양태월(한경면 용수리) 구술 자료.

• 감든중의. 몸빼로 주면 이제 그거 허영 감 들영 허영. 저 감 한 뉘에 보리 한 뉘 그 뉘 헤엿주만 우린 이디 이 우녁집이 삼촌이 시난 혼 뉘씩 줘. 짙은에 저 밧 디 텅길 때 입으른 뚝 안 부땡 살그랑행 좋주기계.(감든중의. 몸빼로 주면 이제 그 거 해서 감들여서 해서. 저 감 한 뉘에 보리 한 뉘 그 무엇 했지만 우린 여기 이 뉘 집에 삼촌이 있으니까 한 뉘씩 줘. 줘서 저 밧에 다닐 때 입으면 땀 안 붙어서 '살그랑해서' 좋지.)¹⁹²

• 보리 한 뉘면은 자리도 한 뉘. 감 한 뉘면은 보리 한 뉘. 다 바짜, 물물교환.(보리 한 뉘면 자리돔도 한 뉘. 감 한 뉘면 보리 한 뉘. 다 바짜, 물물교환.)¹⁹³

애월읍 금성리는 감이 흔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감이 있는 사람과 물물교환을 하였다고 한다. 금성리 이화자는 뉘집에 감나무가 큰 개 두 개 있었는데, 어머니 네 시절엔 감이 없으면 '보리 한 뉘면 감 한 뉘'와 맞교환하였다고 한다. 평소에 바닷고기 등 먹을거리를 나눠주고 공짜로 감을 얻어다 쓰기도 하였다. 금성리 이수자도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 해안마을에서 자리돔를 떠서 '웃드르' 마을에 팔러 가면 '자리 한 뉘와 보리 한 뉘'를 바퀴오는데 감도 마찬가지로라는 것이다.

• 그땠 집집마다 셋지. 감들이는 따믄. 어떤 사름덜 감들이젠들 사레 오는 사름도 싣고. 또 감 엇어근에 빌레 가민 주는 사름도 잇곡, 돈 받는 사름도 잇곡. 사름에 따라. 우리도 요디 잇어나신디 우린 기냥 우리대로 허고.(그땠 집집마다 있었지. 감들이는 때면. 어떤 사름들 감들이려고 사러 오는 사름도 있고. 또 감 없어서 빌러 가면 주는 사름도 있고, 돈 받는 사름도 있고. 사름에 따라. 우리도 여기 있었었는데 우린 그냥 우리대로 하고.)¹⁹⁴

반대로 중산간 마을에 사는 김정평은 집집마다 감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감은 제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서 제주의 다양한 갈옷 문화를 양산해 내었다.

다) 도구

감을 뺨을 때는 보통 '도고리'나 '방엿혹'이나 '돌혹'에서 '덩드렁마께'나 '방앗귀'를 이용하였다. '도고리'는 통나무를 둥그렇게 파서 만든 그릇이다. 예전에는 '도고리'에서 감을 뺨고, 그 자리에서 옷에 감물을 들일 수 있어 좋다. 대야가 나온 이후에는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철 성분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된 대야는 감물을 들이면 거메질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감을 뺨을 때는 '덩드렁마께'를 이용한다. '덩드렁마께'는 둥그렇게 만든 방망이다. '방엿혹'에서 뺨을 때는 '방엿귀'를 이용하여 뺨는다. 요즘은 감물을 짜는 기계가 나와 있어 돈을 주고 감물을 짜다가 사용하거나 파는 감물을 사다가 물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감물은 튀면 갈변하기 때문에 옷이나 천에 감물을 들일 때는 갈옷

192 이화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193 이수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194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을 입거나 허드레옷을 입고 하였다. 감을 뺏을 때는 멍석을 펴서 하기도 하였다.

• 옛날은 큰 마깨 이만한 거 해영 낭도고리 해영 벗곡. 그 방엿혹계. 스뭇 이만한 너븐 거 허연 주룩 돌은 거영 팡팡 도구리에서 찍어근에. 옛날 저 하르방덜 산디집 돌망텡이 우이서 두드령 멍석도 스끼 꼬양 좃곡. 무시저 허난 그런 마깨 가 감 뺏는 거 잇주게. 텡드령마깨 경행 도구리에서 벗앙 잘근잘근. 막 부슬라지 민 기냥 그르후젠 하영 행 닥닥 벗주. 온감 엇이게 벗아져사 물이 나올 거난에 게.”(옛날은 큰 방망이 이만한 거 해서 함지박 해서 뺏고. 그 방아확. 사뭇 이만큼 넓은 거 해서 자루 돌은 거랑 팡팡 함지박에서 찢어서. 옛날 저 할아버지들 발벗짚 ‘돌망텡이’¹⁹⁵ 위에서 두들겨서 멍석도 새끼 꼬아서 견고. 무엇 하니까 그런 방망이가 감 뺏는 거 있지. ‘텡드령마깨’ 그렇게 해서 함지박에서 뺏아서 잘근잘근. 막 부서지면 그냥 그 이후엔 많이 해서 닥닥 뺏지. 온감¹⁹⁶ 없게 뺏아져야 물이 나올 거니까.)¹⁹⁷

• 감 뺏일 때 어릴 땐이 방에혹 썼어. 돌방에혹 요만이 헛 거 잇엇저. 경허민 두어 사발 벗아근에 다라에 놔뵤 허곡, 옛날엔이 이추룩 좋은 다라가 엇엇주게. 텡드령마깨이 이만이 헛 거 잇어. 저 돌도고리, 돌도 벙이 좃는 거 잇지? 걸로 떡도 뭇이곡.(감 뺏을 때 어릴 땐 방아확 썼어. 돌방아 확 요만큼 한 거 잇엇지. 그러면 두어 사발 뺏아서 대야에 놔두고 하고, 옛날엔 이처럼 좋은 대야가 없엇지. ‘텡드령마깨’ 이만큼 한 거 잇어. 저 ‘돌도고리’, 돌도 방아 찢는 거 잇지? 그걸로 떡가루도 찢고.)¹⁹⁸



〈사진 27〉 낭도고리와 텡드령마깨(애월읍 금성리)

제주도에서 ‘도고리’라는 함지는 ‘꺄렛도고리’, ‘떡도고리(남도고리)’, ‘밥도고리’가 전승되었다. ‘꺄렛도고리’는 맷돌을 그 안에 놓고 맷돌질을 할 때, 곡식이나 가루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큰 함지라는 말이다. ‘떡도고리’는 떡가루를 익반죽할 때 쓰는 함지라는 말이다. 그리고 ‘밥도고리’는 큰일 때나 식구가 모여 앉아 식사할 때 밥을 퍼두는 함지라는 말이다. 감물 염색을 위하여 풋감을 뺏는 ‘도고리’는 일반적으로 ‘떡도고리’를 사용하는 수가 많았다. ‘떡도고리’는 ‘꺄렛도고리’보다는 작고, ‘밥도고리’보다는 큰 것이다. ‘떡도고리’는 무명천으로 만든 노동복 한 벌을 염색하기 위한 풋감을 뺏고 염색하기 적당하기 때문이다.



〈사진 28〉 돌확과 텡드령마깨(표선면 성읍리)

‘텡드령마깨’는 일반적으로 짚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다. 그리고 ‘텡드령마깨’는 옷에 감물을 들이려고 ‘떡도고리’ 따위에서 풋감을 뺏을 때도 쓰였다.¹⁹⁹

195 여기서 ‘돌망텡이’는 짚을 잘게 두들길 때 사용하는 돌인 ‘텡드령(텡드령)’을 말하는 것 같다.
196 ‘온감’은 통째로 된 감을 말한다.
197 백순성(제주시 화북2동) 구술 자료.
198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199 고광민, 『제주도구』, 한그루, 2023, 379~380쪽 참조.

새마을운동(1970년) 이후,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도구에서 ‘도고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 자리를 비닐 따위로 만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그릇이 일반화되었다. 그 그릇을 ‘다라’라고 하였다. ‘다라’는 대야의 뜻을 지닌 ‘たらい’(타라이)에서 온 말이다. 비닐 그릇인 ‘다라’에 풋감을 넣고 ‘덩드렁마께’로 빵으면 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었으니, 풋감을 빵는 그릇은 ‘돌혹’에서, 그리고 무명천 옷에 감물을 염색하는 일은 ‘다라’에서 분리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돌혹’은 돌로 만든 방아의 확이다. ‘돌혹’은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 속에 그것을 박아 놓고 쓰는 것도 있고, ‘돌혹’ 그대로 쓰는 것도 있다.²⁰⁰

(3) 감물들이기 과정

가) 날씨

감물들이는 계절은 햇살이 뜨거운 한여름이다. 감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빨리 썩기 때문에 쨍하니 별이 좋은 날이어야 한다. 그래야 하루에 감을 따고, 빵고, 물들이고, 널어 말리기까지 초벌 일은 마칠 수 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아 감들인 옷을 그날에 말리지 못하면, 자칫하면 곰팡이가 거뭇거뭇 들 수 있다. 그래서 날이 좋은 날을 택해서 하는 것이다. 말린 갈옷은 며칠에 걸쳐 물을 적시면서 널고 말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불그스름한 갈옷이 완성되는 것이다. 감물을 들이거나 감물 바래기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날씨인 셈이다.

• 그 갈옷 들일 때도 동천 보고 서천 보명 갈을 들인다고. 계민 동천을 봐근에 그날 해 불꽃 헛당 확 어둑어 불민 갈옷 이디 잇어도 오늘 갈 못 들인다. 서천 보명 동천 보명 갈을 들여사 파쌍 몰르고 그날 저물앙 벵 발르민 벌경허고 헐 거 아니냐? 물론 건 집이서도 영 집안에도 베 메영 걸청 몰룸만 허민 뉘주만은 이 갈옷은 그 같이 어떡헌 색깔산디 썩어 버. 그 벵에 아니 몰라 불민 거물거물거물 푸리똥 7튼 거. 경허난에 톱 이 갈옷 들일 땐 서천 동천을 봐야.(그 갈옷 들일 때도 동천 보고 서천 보면서 갈을 들인다고. 그러면 동천을 봐서 그날 해 불꽃 헛다가 확 어두워 버리면 갈옷 여기 잇어도 오늘 갈 못 들인다. 서천 보면서 동천 보면서 갈을 들여야 파쌍 마르고 그날 저물어서 별 바르면 벌경고 할 거 아니냐? 마른 건 집이서도 이렇게 집안에도 바 매서 걸쳐서 말리기만 하면 되지만 이 갈옷은 그 같이 어떡헌 색깔인지 썩어 버려. 그 벵에 아니 말려 버리면 거물거물거물 푸리똥 같은 거. 그러니까 꼭 이 갈옷 들일 땐 서천 동천을 봐야.)²⁰¹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은 “동천 보고 서천 보면서 갈을 들인다”고 하였다. 감물을 들일 때는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의 해를 보면서 날이 좋을 때에 들여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쨍하니 날이 좋은 날을 택해서 감물을 들인다.

200 위의 책, 118쪽 참조.

201 김갑생 구술(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 이거 날 좋은 날에 해야 그날 와썩 뒤집으멍 몰려 붙어야주. 경 안후른 이것 이 썩 무려 붙른 색깔이 안 고와. 감도 금방 타 가지고 그날 들어 붙어야지. 경 아녀른 무려 붙엇덴 해.(이거 날 좋은 날에 해야 그날 와썩 뒤집으며 말려 버려야 지. 그렇게 얹으면 이것이 썩 물어 버리면 색깔이 안 고와. 감도 금방 따 가지고 그 날 들어 버려야지. 그렇게 얹으면 물어 버렸다고 해.)²⁰²

202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203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 감물들일 땐 날씨가 좋아야주. 이제는 날씨 굿으면 냉장고에 다 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날 보멍 들어야주. 바람 그런 거는 뭐 하등 관계가 없는데 날이 좋아야. 탁 털어서 말롭고. 제등에 해야지 경 안허민 안 뉘. 장마철에 감물 들이는 사람이 엇주게.(감물들일 땐 날씨가 좋아야지. 이제는 날씨 굿으면 냉장고 에 다 놔.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날 보면서 들어야지. 바람 그런 거는 뭐 하 등 관계가 없는데 날이 좋아야. 탁 털어서 말리고. 제등에 해야지 그렇게 얹으면 안 되어. 장마철에 감물들이는 사람이 없지.)²⁰³

감물들이고 바로 햇볕에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감물을 들일 때는 “동천 보고 서천 보고” 하는 것이다. 날이 좋지 않아 ‘무려’ 버리면 갈옷 의 색깔이 곱지 않다. 그러기에 감물들이는 날에 물들이고, 말리기까지 마무리 지 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29〉 감물들이서 말리는 모습(한경면 낙천리)

나) 감 준비

(가) 감 따기, 혹은 사오기

감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감부터 준비해야 한다. 집에 감이 있으면 아침 일찍 따면 되지만 감이 없을 때는 감을 사오거나 이웃에서 빌려와야 하였다. 감물을 들일 때는 당일 물 들이고 초벌은 말려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시작해야 한다. 감을 딴 후에 오래 두면 변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따고 손질하고 빵아서 옷에 감물을 들이고 말리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 아침이덜 타당덜 막 아침이덜 헨다게. 미릿 타당 놔두민 무린덴 허여. 경허난 그날 톡 타 와서. 그거 타당 놔두면 변헌덴 허여. 그냥 해다근에 허명 뵈어야 주. 경허영 들여.(아침에 따다가 막 아침에들 한다. 미리 따다가 놔두면 문다고 해. 그러니까 그날 꼭 따 와야. 그거 따다가 놔두면 변한다고 해. 그냥 해다가 하면서 빵아야지. 그렇게 해서 들여.)²⁰⁴

(나) 감 상태

감물을 들이기에 적합한 감은 감씨가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쇠지도 않을 때이다. 감은 제주 토종감이다. 지역이나 형편에 따라서 감물들이는 감 종류도 달랐음은 128쪽 ‘가) 감’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 감들이젠 허민 감이 너무 세어 불민 감옷이 곱지 안허고. 감씨가 그냥 니빨로 씹어 먹게 된 때가 제 기수. 경헌 때 들어야 감옷도 좋고. 뵈어가민 감씨가 헤영케 나오주게. 게민 그 연헌 때는 감들여 나민 그 씨도 막 좃어먹어났주게. 그물어 가민 흥썰 세여근에 저 감씨도 잘 못 좃어먹어. 흥썰 푸리롱허게 나와.(감들이려고 하면 감이 너무 쇠어 버리면 감옷이 곱지 않고. 감씨가 그냥 이빨로 씹어 먹게 된 때가 제 기수. 그런 때 들여야 감옷도 좋고. 빵아 가면 감씨가 허영케 나오지. 그러면 그 연헌 때는 감들여 나민 그 씨도 막 주워 먹었었지. 그물어 가면 조금 쇠어서 저 감씨도 잘 못 주워 먹어. 조금 ‘푸리롱허게’ 나와.)²⁰⁵

• 음력 칠월 씨 앓을 때. 씨 늙으면 안 뵈어. 우리가 감물들이당 씨를 먹주게. 막 부드러와. 맛도 좋고. 씨가 갈색으로 뵈기 전에 칠월달에. 너미 늙으면 감물즙이 안 나와. 칠월달 나사 감이 옥아. 그 물들이는 물이 나와, 뿤은 물이. 겻도 시기가 있고 절기가 있지.(음력 칠월 씨 앓을 때. 씨 늙으면 안 뵈어. 우리가 감물들이다가 씨를 먹지. 아주 부드러워. 맛도 좋고. 씨가 갈색으로 되기 전에 칠월달에. 너미 늙으면 감물즙이 안 나와. 칠월달 되여야 감이 커. 그 물들이는 물이 나와, 뿤은 물이. 그것도 시기가 있고 절기가 있지.)²⁰⁶

204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205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206 이순자(대정읍 신평리) 구술 자료.

제보자들은 감물들이기에 적당한 감 상태를 감씨 모습을 보고 판단하였다. 감씨

가 굳어버리면 감물도 적고 감물을 들여도 색이 곱지 않다고 하였다. 감을 빵을 때 나오는 감씨가 '무랑무랑(말랑말랑)'할 때가 감물이 많아 물들이기 좋은 상태라는 것이다. 감씨가 연할 때 감물을 들인 건 색이 곱고 감물이 잘 빠지지 않지만 씨가 딱딱하게 굳어버릴 때 들인 건 처음엔 색깔이 고왔어도 나중에 색이 벗겨진다는 것이다. 색깔도 거메지고 촉감도 너무 뻣뻣하다는 것이다.

• 그 무랑무랑 씨 현 때 들인 것은 저 막 입영 늪어 가도 벗어지지 안하고, 그 감씨가 빠딱행 먹지도 못할 거 꺾들락현 때 현 건 곱닥헛당도 입어 가민 부수럭 허게 벗어진다. 연현 때 들인 건 안 벗어져.(그 말랄말랑 씨 할 때 들인 것은 저 막 입고 늪어 가도 벗겨지지 않고, 그 감씨가 딱딱해서 먹지도 못할 거 '꺾들락할' 때 한 건 고왔다가도 입어 가면 부스럭하게 벗겨진다. 연할 때 들인 건 안 벗겨져.)²⁰⁷

• 음력으로 유월 그물어 갈 때 해야만 좋다. 칠월 중순. 경헨에 칠월 보름날이 저 백중 아니팡양? 계난 백중에 그거 헤노렌 헤수다게, 갈웃을. 백중에 물맞으레 간 헤난디, 그때 뉘가든 너무 세어 불영 안 좋아. 뉘 수 잇으믄 음력으로 유월 그물영 해야만 좋다. 너무 늦게 하면은 이것이 시커멓헤 버린다. 어릴 때 하면은 율후여서 발갈게 예쁘다. 또 늦영 하면은 이것이 팔아. 뻣뻣하다. 색깔도 예쁘지 않고. 계난 뉘 수 잇으믄은 연후 때 해야 율후고 예쁘다. 그 뜻입니다.(음력으로 유월 저물어 갈 때 해야 좋다. 칠월 중순. 그래서 칠월 보름날이 저 백중 아납니까? 그러니까 백중에 그거 하노라고 했습니다, 갈웃을. 백중에 물맞으러 가고 했는데, 그때 되어 가면 너무 쇠어 버려서 안 좋아. 뉘 수 잇으면 음력으로 유월 저물어서 해야만 좋다. 너무 늦게 하면은 이것이 시커메 버린다. 어릴 때 하면 연해서 발갈게 예쁘다. 또 늦어서 하면은 이것이 파삭해. 뻣뻣하다. 색깔도 예쁘지 않고. 그러니 뉘 수 잇으면 연할 때 해야 율지고 예쁘다, 그 뜻입니다.)²⁰⁸

• 늦게 감물 벗으민 감이 물이 안 나오거든. 계난 음력 유월 보름에서 칠월 이제 초순까지는 해야주. 씨가 막 으물앙 씨가 뉘랑뉘랑헤연에이. 우리 먹기 좋게 말랑말랑. 너무 뻣뻣허민 물이 안 나와. 경허든게 물을 쪼금 서터서.(늦게 감물 빵으면 감이 물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음력 유월 보름에서 칠월 이제 초순까지는 해야지. 씨가 막 여물어서 씨가 말랑말랑해서. 우리 먹기 좋게 말랑말랑. 너무 뻣뻣하면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물을 쪼금 섞어서.)²⁰⁹

음력으로 유월 그믐부터 칠월 중순 백중까지의 시기다. 이때라야 감의 껍은 즙이 많이 나오는데, 이 즙의 탄닌 성분이 갈웃의 색깔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은 제보자들의 삶의 경험에서 습득한 것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이기도 하다.

감의 주된 성분인 탄닌은 여러 가지의 폴리페놀화합물이 증합된 고분자물질의 총

207 김갑생(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208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209 강청자(제주시 삼도2동) 구술 자료.

칭으로 화학구조는 명확히 분류되지 않으며 본래 무색이지만 산화되면 갈색을 띤다. 감의 탄닌은 플라보놀의 유도체가 모인 축합형 탄닌으로 미숙과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성숙됨에 따라 산화되어 안토시아닌이나 안토크산틴으로 변해 쓴맛이나 떼은맛은 사라진다. 탄닌의 함량은 6~7월에 최대치를 나타내다가 7~8월에는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²¹⁰

- 감은 따당 놔두면이 그 물이 잘 안 돼어. 이제 감이 흥끔 변질됐다고. 그날 따당 그날 벗앙 혼 게 좋고, 따다가 놔두면은 그것이 잘 안 뉘뉘 헤영.(감은 따다가 놔두면 그 물이 잘 안 되어. 이제 감이 조금 변질되었다고. 그날 따다가 그날 뵘아서 한 게 좋고, 따다가 놔두면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²¹¹

- 이제야 그 뭐 믹서기로 갈아근에 냉장고에 낫당도 들고 막 경혜. 옛날 할망이야 경헛어? 게난 옛날 할망은 경허면은 감 무려 분다, 무려 분다 헤여. 무려 불민 감웃이 힘이 엇어.(이제야 그 뭐 믹서기로 갈아서 냉장고에 낫다가도 들고 막 그래. 옛날 할머니야 그렸어?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는 그러면 감 물어 버리다, 물어 버린다 해. 물어 버리면 갈웃이 힘이 없어.)²¹²

감은 딴 후에 오래 두면 변해 버린다. 뜨거운 여름에는 감이 빨리 썩는 속성이 있어서 감물을 들일 때는 물들이기 바로 직전에 따서 바로 뵘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감물을 미리 짜서 냉장을 하거나 냉동해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감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보자들은 감이 변하는 것을 ‘감 무리다’²¹³라고 하였다. 물은 감으로 물들이면 갈웃이 힘이 없다. 달리 말하면 물은 감으로 물들이면 갈웃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 감양

갈웃의 색감은 감의 양이 결정한다. 옷의 질감도 감의 양에 따라서 뵘뵘함의 정도가 다르다. 감 양이 많으면 색깔이 진하고, 적으면 색깔이 옅다. 따라서 옷에 감물을 들일 때는 취향에 따라서 감 양을 조절해서 쓰면 된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감물을 들일 때에 ‘되’를 이용하여 감 양을 계측하여 사용하였다. ‘되’를 지역에 따라서 ‘관뉘’, ‘뉘박’ 등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예전에 ‘중의’나 ‘적삼’에 물들이는 때는 얼마만큼의 감을 사용하였을까?

- 그 옛날엔 기준이 있어. 갈중의 하나민 뉘싱 한 뉘. 우이웃 하나민 쪼금 족게. 경 헨 그걸 다 짐작허여. 다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바지 하나면 혼 뉘, 뉘박으로 하나, 또 위엿 건 쪼금 족게. 경 허영 경 벗아근에 그것에 맞게 딱딱, 버리는 게 엇주기게. 우린 그런 거는 아니 헤뵘.(그 옛날엔 기준이 있어. 갈중의 하나면 되 한 되. 뉘웃 하나면 쪼금 적게.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짐작해. 다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바지 하나면 한 되, 되로 하나, 또 위에 건 쪼금

210 변수진, 앞의 논문, 4쪽.

211 백여옥(조천읍 북촌리) 구술 자료.

212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213 ‘무리다’는 더위나 습기로 떠서 상하다는 의미다. 표준어 ‘물다’에 대응하는 방언이다. 생선이 상한 것을 두고도 ‘무리다’라고 한다.

적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뺏아서 그것에 맞게 딱딱, 버리는 게 없지. 우린 그런 거는 아니 해봤어.)²¹⁴

• 할망 굴중의하고 적삼은 허민 두 뉘 허썰 못허게 헤근에 벗아근에 들여실 거라. 경 행 들이고 남저웃은 혼 뉘썩 들여실 거고. 남저웃은 크니까. 감이 죽으면 허썰 연허고 하민 질으고. 게난 질어사 좋아. 너무 연허민 오래 안 가.(할머니 굴중의하고 적삼은 하면 두 되 조금 못허게 해서 뺏아서 들였을 거야. 그렇게 해서 들이고 남저웃은 한 되썩 들였을 거고. 남저웃은 크니까. 감이 적으면 조금 연하고 많으면 질고. 그러니까 질어야 좋아. 너무 연하면 오래 안 가.)²¹⁵

• 저 우리 몸뻐 하나에이 한 뉘 들어. 뉘박으로 하나. 경 허여근에 그자 뉘박으로 하나 저 소박 말고 그냥 영 헤영 노민이 경허민 곱게 들여진뉘 한다.(저 우리 몸뻐 하나에 한 되 들어. 되로 하나. 그렇게 해서 그저 되로 하나 저 가득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놓으면 그러면 곱게 들여진다고 한다.)²¹⁶

옛 사람들은 옷 하나에 감 한 되 정도를 뺏아서 물을 들였다. 개인에 따라 감의 양도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남저웃인 중의 적삼에 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두 되는 감이 필요하였다. 여자 옷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준비하면 되었다. 한림읍 명월리 장태선은 예전에는 갈중의 하나면 감 한 되, 적삼은 갈중의보다 조금 적게 감을 뺏아서 들이면 된다고 하였다. 대정읍 일과1리 이춘희와 고순자, 애월읍 금성리 이수자 등도 비슷하게 구술해 주었다. 감 한 되면 갈옷이 곱게 된다는 것이다.

• 옷 하나에 감 혼 뉘. 그런데 옛날은 물을 안 서꺾어. 근데 지금은 갈면서 물을 서꺾어.(옷 하나에 감 한 되. 그런데 옛날은 물을 안 섞었어. 근데 지금은 갈면서 물을 섞어.)²¹⁷

제보자 이수자는 예전에는 감을 뺏을 때 물을 섞지 않았는데 요즘은 물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라) 감 손질

감을 준비하면 우선 감꼭지를 깨끗하게 다듬는다. 사람에 따라서는 감꼭지를 따지 않은 채 사용하기도 한다. 감꼭지에도 감물이 들어있기에 그마저도 아끼려는 심사다.

• 꼭지 거 뜯지 안허여. 그 영 더꺼진 거 안 뺏겨. 그거 셔사 저 감 뉘 어떻헌뉘 허명 할망덜 못허게 허메. 경허영 막 뺏을 때 그것에도 다 들게 허여근에 허는 거잖아.(꼭지 거 뜯지 않아. 그 이렇게 덮어진 거 안 뺏겨. 그거 있어야 저 감 뉘 어떻헌 한다고 하면서 할머니들 못허게 해. 그렇게 해서 막 뺏을 때 그것에도 다 들

214 장태선(한림읍 명월리) 구술 자료.
215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216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217 이수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사진 30〉 감꼭지 오려내는 모습 1(남원읍 위미리)



〈사진 31〉 감꼭지 오려내는 모습 2(남원읍 위미리)

게 해서 하는 거잖아.)²¹⁸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감꼭지를 손가락으로 깨끗이 도려낸 후에 쓰기도 한다. 감물들이기 시연을 도와준 남원읍 위미리 오복인(1940년생, 여)은 갈옷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꼭지를 다 도려내야 한다고 하였다.

3) 감물들이기의 실제

옷가지에 감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옷, 감)-감뺑기-물들이기-감물짜기-감찌꺼기 털기-넝기-손보기-말리기-바래기(물 적셔 넝기-말리기 과정 반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감물을 들인 후에도 ‘물 적셔 넝고 말리는’ 바래는 과정을 3~5 회쯤은 더 실시해야 한다. 불그스레한 제주 향토 색깔인 감빛이 나는 갈옷을 얻기 위해서는 감물을 들이는 제주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 제주 갈옷은 제주 환경을 잘 활용한 제주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1) 재료와 도구 준비

- 재료: 풀기를 뺀 옷가지, 깨끗하게 다듬어 놓은 감.
- 도구: 낭도고리, 텅드렁마께. ‘낭도고리’가 없을 때는 ‘돌혹’을 이용하기도 한다. 요즘은 ‘고무대야’를 사용기도 한다. ‘텅드렁마께’ 대신에 ‘방앗공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분쇄기에 빵아다가 감물만 짜서 사용하기도 하고, 찌꺼기를 걸러낸 감물을 사다 쓰기도 한다.

(2) 감 뺑기

감을 뺑을 때는 ‘낭도고리(함지박)’나 ‘돌혹(돌확)’을 이용하였다. 깨끗하게 다듬어 놓은 제주 토종감을 조금씩 넣으면서 ‘낭도고리’에서 ‘텅드렁마께’를 이용하여

218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뺑는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돌훅(돌확)’에서 ‘방엿귀(방앗공이)’를 이용하여 뺑기도 한다. 감 뺑는 것을 제주에서는 ‘감 뺑다’라고 한다. 요즘은 분쇄기를 이용해 감을 뺑기도 하고, 짜서 파는 감물을 사다 쓰기도 한다.

219 백여옥(조천읍 북촌리) 구술 자료.

• 옛날에는 낭도고리에다가 감을 하나씩 놓명 방엿간 후는 거 마께로 독독독독 뺑아야 뺑어. 막 많이 놓면 안 뺑어. 하나씩 낭 툽툽툽툽 뺑앙 그 물이 나오잖아. 뺑이면 이제 물 후끔 낭 주물주물헿게 그 물을 얇은 모기장이나 뺑 그든 것에 해영은에 물을 막 짜. 물 막 짜 낭 이제 그것더레 옷 당꿍 혼단 말이주게.(옛날에는 함지박에다가 감을 하나씩 놓으면서 방앗간 하는 거 방망이로 독독독독 뺑아야 뺑어. 아주 많이 놓으면 안 뺑어. 하나씩 놔서 툽툽툽툽 뺑아서 그 물이 나오잖아. 뺑으면 이제 물 조금 놔서 주물럭주물럭해서 그 물을 얇은 모기장이나 뺑 같은 것에 해서 물을 막 짜. 물 막 짜 놔서 이제 그것에 옷 담가서 한단 말이지.)²¹⁹



〈사진 32〉 돌확에서 감 뺑기(한경면 낙천리)



〈사진 33〉 낭도고리에서 감 뺑기(남원읍 위미리)

요즘도 돌확을 이용하여 감을 뺑는 사람들이 많다. 감을 뺑을 때는 하나씩 넣으면서 뺑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많이 넣어 뺑으면 골고루 뺑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이 사방으로 튕 수 있다.

〈감씨〉

먹을거리가 변변치 않았던 시절, 여름철 갈옷을 만들기 위하여 감을 뺑을 때면 아이들이 몰려든다. 감 뺑을 때 나오는 하얀 감씨가 맛난 간식거리였기 때문이다. 속살이 하얀 감씨는 보들보들하면서도 쫄깃쫄깃해서 맛이 있다. 감은 뺑지만 씨를 덮었던 초록빛이 벗겨진 하얀 감씨는 쫄득쫄득하면서도 단맛이 있어 아이들의 간식거리였다. 다음 구술 자료는 제보자들이 들려준 감씨에 얽힌 추억의 풍경이다.

• 감씨 감 퍼령할 때 그 물들이는 시기에만. 후끔 늦은 건 뺑앙 보민 씨가 딱딱해여. 물랑물랑허듯 험 때 물들여야 잘 든덴 허곡. 옛날엔 감 뺑앙 영 짜나민 그 감씨가 보들보들 쫄긋쫄긋헿 맛 좋아. 게민 감들여난 거 짜난 거 씨 좃어 먹으레

- 220 이정숙(구좌읍 덕천리) 구술 자료.
- 221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 222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 223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아이덜 막 와. 간식이 엇이난게.(감씨 감 퍼럴 때 그 물들이는 시기에만. 조금 늦은 건 빵아서 보면 씨가 딱딱해. 말랑말랑하듯 할 때 물들여야 잘 든다고 하고. 옛날엔 감 빵아서 이렇게 짜나면 그 감씨가 보들보들 쫄깃쫄깃해서 맛 좋아. 그러면 감들었던 거 짜난 거 씨 주워 먹으러 아이들 많이 와. 간식이 없으니까.)²²⁰

• 감들이민 그 감씨가 나와이. 이렇게 뻥어나민 그걸. 먹을 것이 하나토 엇이니까 거 하얀 거. 거 씨알을 좇어 먹어, 우리가. 어무니가 영 영 감들여 낱 닥닥 털면은 씨가 파란 거 뱃겨지면은 씨가 그 속엿 거는 하양허여이. 하양허니까 그 걸 좇어 먹어. 요새 아이들은 줘도 안 먹어.(감들이면 그 감씨가 나와. 이렇게 먹여나면 그걸. 먹을 것이 하나토 없으니까 거 하얀 거. 거 씨알을 주워 먹어, 우리가.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감들여 놔서 닥닥 털면 씨가 파란 거 뱃겨지면 씨가 그 속엿 거는 하애. 하야니까 그걸 주워 먹어. 요새 아이들은 줘도 안 먹어.)²²¹

• 그 감들여 가민이 아고 옛날털은 경 혜세계. 우리덜 막 감들염젠 허민 그 집이 가근엿에 그거 좇어 먹어. 하양헌 게 몽울몽울헌 게 막 맛 좋아. 감씨는 안 쪼라와. 몽울몽울 맛 좋아.(그 감들여 가면 아고 옛날들은 그렇게 했어. 우리들 막 감들인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그거 주워 먹어. 하얀 게 몽울몽울한 게 아주 맛 좋아. 감씨는 안 뺏어. 몽울몽울 맛 좋아.)²²²



〈사진 34〉 감을 빵은 후 골라낸 감씨(한림읍 명월리)

• 감씨 거 다 좇엉 먹어시네, 배고팡덜. 하나도 안 버령. 게민이 동네 감물들염텐 허민 동네 아기덜 다 그거 좇어 먹으레 와서네. 막 좇아덜 왓어. 보들보들 맛 좋텐 허명.(감씨 거 다 주워 먹었어, 배고파서들. 하나도 안 버려서. 그러면 동네 감물들인다고 하면 동네 아이들 다 그거 주워 먹으러 왓어. 막 찾아서들 왓어. 보들보들 맛 좋다고 하면서.)²²³

감물들이는 시기를 놓치면 감이 쉴 수 있다. 감씨가 여릴 때는 감물이 많이 나오지만 감씨가 익어서 쇠면 물기가 적기 때문에 감 빵은 것에 물을 조금 섞어서 사용한다.

〈짐칫감〉

아이들의 간식거리 가운데 하나는 ‘짐칫감’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물우린감’, ‘우린감’이라고도 한다. ‘짐칫감’은 침감의 제주어이다. 침감은 감을 소금물에 우려서 뚫은 맛을 없앤 것을 말한다. 제주에서도 감이 노랗게 익어갈 때 뚫은 맛을 없애기 위해 감을 항아리에 넣고 따뜻한 소금물을 부어 뚜껑을 닫아 우린다. 그냥 따뜻한 물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것을 대여섯 차례 반복하면 뚫은 맛은 없어지고 단맛만 남아 가을철에 간식으로 먹었다. 제보자 일과리 고순자는 가을운동

회 때 감을 우린 ‘짐칫감’을 팔러 가기도 했다.

• 만약에 그 감이 풀에 들당 남으면은 옛날엔 간식이 엇잖아. 그게 그 감이 조금 노리롱해 가민, 그 감 망데기에 놔 가지고 물 뜨끈뜨끈해 가지고 소금 조금 낚 거 기다가 집어넣어. 뚜껑 딱 닫아. 나는 그 간식이 그게 제일 맛있어. 그게 하루 한 번이나 한 이틀에 한 번씩 다섯여섯 번 같으면, 그 뽕은맛이 하나도 없어. 그거 우리가 간식이라. 김칫감이라고 해. 장에 강 또 파는 집도 있어.(만약에 그 감이 풀에 들이다가 남으면 옛날엔 간식이 없잖아. 그게 그 감이 조금 노르스름해 가면, 그 감 ‘망데기’에 놓아 가지고 물 뜨끈뜨끈하게 가지고 소금 조금 낚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뚜껑 딱 닫아. 나는 그 간식이 그게 제일 맛있어. 그게 하루 한 번이나 한 이틀에 한 번씩 대여섯 번 같면, 그 뽕은 맛이 하나도 없어. 그거 우리가 간식이야. ‘김칫감’이라고 해. 장에 가서 또 파는 집도 있어.)²²⁴



〈사진 35〉 향아리에 담근 짐칫감

• 감냥은 풋감도 잇꼭 큰 감도 잇고. 물은 풋감으로, 못 쓸 거 준 감으로 들이주. 훤은 건 애꿍들게, 김칫감도 행 먹꼭게. 우렁 먹는 거. 물 따듯하게 헤영 소금물 타근에 향아리에. 망데기나 헤영 우이 더젓당 또 뒷날 또 뒷날은 톨라동 또 그추록 행 낚. 경행 영 먹어방 쪼라운 거 다 웨영 시민 먹는 거주. 경허민 막 잘 우려져.(감나무는 ‘풋감’도 잇고 큰 감도 잇고. 물은 ‘풋감’으로, 못 쓸 거 자잘한 감으로 들이지. 굵은 건 아껴서들, ‘김칫감’도 해서 먹고. 우려서 먹는 거. 물 따듯하게 해서 소금물 타서 향아리에. ‘망데기’나 해서 위에 덮었다가 또 뒷날 또 뒷날은 따라두고 또 그처럼 해서 놓고.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고 뽕은 거 다 돼 있으면 먹는 거지. 그러면 아주 잘 우려져.)²²⁵

• 감 따다근에 저 물 꿰와근에 거 동가. 소금물 낚 동구민 그것가 후꿈 우려나 웨어. 경 행도 먹어나서. 울렁은에. 기자 더운물에 동굴 때도 잇고 언물에 동구민 안 웨. 경 행은에 단지 잇잖아. 그레 행 뚜껑 딱 더경 놔두민 웨.(감 따다가 저 물 끓여서 거 담가. 소금물 넣어서 담그면 그것이 조금 우려나 버려. 그렇게 해서도 먹었었어. 우려서. 그저 더운물에 담글 때도 잇고 찬물에 담그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단지 잇잖아. 그리로 해서 뚜껑 딱 덮고 놔두면 돼.)²²⁶

• 옛날에서 경 헛주만은 이제사 그런 거 올리명 먹엄시냐? 향아리에 헛주게. 물 데왕 하는 거주게. 소금도 후꿈 농곡, 물도 너무 바짝 데와 불른 감이 익어 불영 아이 웨곡. 두루 웨민 쪼락정 아이 웨곡. 다 맞추게 헤사. 감부터 담아낚 물랑 비우곡게. 오 일 동안 경 행 그 감물 영 비왕 베레보라. 물 허영 혼다. 그 쪼락진 물 나와.(옛날이야 그렇게 했지만 이제야 그런 거 우리면서 먹고 있니? 향아리에

224 양순자(한림읍 명월리) 구술 자료.

225 백순성(제주시 화북동) 구술 자료.

226 강경순(표선면 하천리) 구술 자료.

- 227 임종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료.
- 228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했지. 물 데워서 하는 거지. 소금도 조금 넣고, 물도 너무 바싹 데워 버리면 감이 익어 버려서 안 되고. 덜 되면 뚱어서 안 되고. 다 맞춰서 해야. 감부터 담가놔서 물은 붓고. 오 일 동안 그렇게 해서 그 감물 이렇게 부어서 봐봐. 물 허영다. 그 뚱은 물 나와.)²²⁷

• 옛날은 감 장사덜도 해나세. 운동 때 그 옛날엔 나도 감 우련에 플레도 텅겨 낫저게. 저 무릉리 국민학교 때 운동 할 때 감이, 요만허면은 그거 따. 저 향아리에 물 꺾와근영에이 소금 약간 넣고 허영 물 꺾왕 그거 담양 놔두면 이제 매날매 날 그추룩 허영 물 골앗당 또 비와 텅 또 낼 허곡 혼 삼 일 허영 물 골멍 행 놔뒀당이. 저 혼 땃새만 허민 뉘 거라, 그거. 경허여근에 먹어보면 안 떠러와. 경헨 그거 허연 플레 가면 막 사, 아이덜. 퍼렁힌 거, 쪼라운 거. 경허민 그뻘 안 쪼라와. 그 저 소금물에 허여근영에 그 향아리에 담양 우린 거. 경허민 그거 맛 존다게. 그냥 감. 그레감 말고 우리 그냥 들이는 감. 그레감은 가다오다 잇나게. 그 옛날은 그냥 감이엔 해놔주.(옛날은 감 장사들도 했었어. 운동회 때 그 옛날엔 나도 감 우려서 팔러도 다녔었지. 저 무릉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감이, 요만하면 그거 따. 저 향아리에 물 끓여서 소금 약간 넣고 해서 물 끓여서 그거 담가 놔두면 이제 맨날맨날 그처럼 해서 물 갈았다가 또 비워 두고 또 내일 하고 한 삼 일 해서 물 갈면서 해서 놔뒀다가. 저 한 땃새만 하면 될 거야, 그거. 그래서 먹어보면 안 뚱어. 그래서 그거 해서 팔러 가면 마구 사, 아이들. 파란 거, 뚱은 거. 그러면 그뻘 안 뚱어. 그 저 소금물에 해서 그 향아리에 담가서 우린 거. 그러면 그거 맛 좋아. 그냥 감. '그레감' 말고 우리 그냥 들이는 감. '그레감'은 오가다 있어. 그 옛날은 그냥 감이라고 했었지.)²²⁸

감 뚱은 맛을 제보자들은 '쪼랍다', '쪼락지다', '떠럽다'라고 하였다.

(3) 감물들이기

감물들이기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감을 으갠 후에 으갠 감을 직접 옷에 짜서 주무르며 들이는 방법이 있고, 감 으갠 것을 베 보자기 등에 짜서 옷에 주무르며 물을 들이기도 한다. 또한 감을 뺀 후에 '삼베자루' 등에서 감즙을 짜낸 후에 그 물에 옷가지를 넣어서 들이는 방법도 있다. '삼베자루' 대신에 요즘은 양파를 넣었던 망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북촌리 백여옥은 모기장을 활용하여 감물을 짜서 들였었다고 하였다.



〈사진 36〉 옷감 뒤집기(한림읍 명월리)

• 감이 복작 벗아가면 물이 나와. 물이 나오면 이제 그 도고리 안에서 옷을 뉘싸근에 감 놓곡 헤영 그냥 막 주물라. 누뉘쌉 허른 지저분허게 안 뉘. 뉘싸근에 잘 주물르면

은 골라루 골라루 가면은 탁 털어근에 이젠 널어야주. 거 소금도 짜금 놓주. 옛날에 방제로 경 노는 거. 우리 어머니네 보면 서화장²²⁹에 강 물 사당 헐 때도 소금을 방제로 조끔 놔.(감이 복작 뽕아가면 물이 나와. 물이 나오면 이제 그 함지박 안에서 옷을 뒤집어서 감 놓고 해서 그냥 막 주물러. 뒤집어서 하면 지저분하게 안 돼. 뒤집어서 잘 주무르면 골고루 골고루 가면은 탁 떨어져서 이젠 널어야지. 거 소금도 조끔 놓지. 옛날에 방제로 그렇게 놓는 거. 우리 어머니네 보면 서화장에 가서 물 사다가 할 때도 소금을 방제로 조끔 놔.)²³⁰

- 229 '서화장'은 구좌읍 세화리에서 서는 오일장을 말한다.
- 230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 231 강일선(여, 1945년생) 구술 자료 (2023. 1. 11. 안덕면 감산리 자택).
- 232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 나 헐 때는 고무 다라가 나오니까. 고무 다라에 감 타다 놔근에 잘 벗어지면 은 다라이에 물을 짐작해근에 삼분지 일 정도 놔근에 골로루 젖어근에 그걸 무슨 찰릴 담으나, 뒷에 담아근에 꼭 저 주시를 짜. 짜민 그 깨끗한 감물이 나오면 은 그땐 옷을 가져다가 영 뒤집어근에 다 골로루 적저. 잘 적저근에 빨래하듯이 주물락하면 잘 폐왕 널었다근에 몰류민, 저 깨끗한 수돗물로 가근에 영 적졌다 따시 넣고 따시 몰류면 따시 적저당 또 넣고 경 허영 옷이 발강하게 곱주게.(나 할 때는 고무 대야가 나오니까. 고무 대야에 감 따다 놔서 잘 뽕아지면 대야에 물을 짐작해서 삼분의 일 정도 놔서 골고루 저어서 그걸 무슨 자루에 담으나, 뒷에 담아서 꼭 저 찌꺼기를 짜. 짜면 그 깨끗한 감물이 나오면 그땐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다 골고루 적저. 잘 적저근에 빨래하듯이 주물락하면 잘 펴서 널었다가 말리면, 저 깨끗한 수돗물로 가서 이렇게 적셨다가 다시 넣고 다시 말리면 다시 적셔다가 또 넣고 그렇게 해서 옷이 발갈게 곱지.)²³¹



〈사진 37〉 뽕은 감 자루에 넣기(남원읍 위미리)



〈사진 38〉 감물 짜기(남원읍 위미리)

• 감 문탁 벗어냥 이렇게 옷 폐와냥 감 낱 벵벵 오그령 드러 주물러가민 그 옷이 감으로 다 젖어이. 그 물이 그 옷에 다 들어.(감 몽땅 뽕아놔서 이렇게 옷 펴놔서 감 놔서 벵벵 오그려서 마구 주물러가면 그 옷이 감으로 다 젖어. 그 물이 그 옷에 다 들어.)²³²

감물을 들일 때는 으깬 감을 직접 옷에 먹이면서 들인다. 이때 옷은 뒤집어서 해



〈사진 39〉 옷에 뺀 감 넣고 주무르기 1(한경면 낙천리)



〈사진 40〉 옷에 뺀 감 넣고 주무르기 2(한경면 낙천리)

야 한다. 옷을 뒤집어서 감 으깬 것을 넣고 뱅뱅 말아서 주물러 주면 감물이 옷에 잘 든다. 감물이 옷가지 등에 잘 스며들게 손으로 주물러주물러 문대는 것을 ‘놀리다’라고 한다. 으깬 감으로 직접 물을 들일 때는 다음의 성산읍 오조리 현춘홍의 구술처럼 마른 광목 따위를 물에 한번 담가서 짠 다음에 들이면 쉽게 감물이 스며든다고 한다.

- 감 빠져 농곡 헐 때는 말린 광목을 일단 물 한번 담가서 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허는 거라. 감물이 쉽게 침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가 들이는 거.(감 뺀 옷에 물을 들일 때는 마른 광목을 일단 물 한번 담가서 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감물이 쉽게 침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가 들이는 거.)²³³

물을 다 들인 후에는 감물을 짜낸 후에 감 찌꺼기가 붙지 않게 깨끗이 떼어내야 한다. 감 찌꺼기가 붙은 부분은 감물이 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옷가지나 옷감에 뺀 감을 직접 먹이면서 들이지 않고 감물을 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적으로 감물을 짜서 파는 경우도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여름철에 갈옷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233 현춘홍(남, 1935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성산읍 동남포목).



〈사진 41〉 감주시 털기 1(한림읍 명월리)



〈사진 42〉 감주시 털기 2(한경면 낙천리)

감물을 들일 때는 예전에는 나무 그릇인 ‘함지박’을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고무 대야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야를 주로 사용한다. 돌확에 감을 빻으면 빻은 감을 함지박으로 옮겨와서 물을 들였다.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에서 물을 들이면 옷이 거메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의 구술을 보면, 월정리 현봉래는 감을 빻을 때 ‘방제’로 소금을 조금 넣는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 적부터 했던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제보자들은 감물을 들일 때 소금을 넣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 감은 어린 때에는 물 아이 놔도 돼고. 그 감이 세영 굳어 가면은 물이 엇어. 저 흥끔 세영 바빠근에 못 헤영 흥끔 감이 흥끔 굶다 싶으면 저 물 놔야 돼여. 물이 없으니까.(감은 어린 때에는 물 아니 놔도 되고. 그 감이 쇠서 굳어 가면은 물이 없어. 저 조금 쇠어서 바빠서 못 해서 조금 감이 조금 굶다 싶으면 저 물 놔야 되어. 물이 없으니까.)²³⁴

- 감 초벌 빻을 땐 기냥 짜 낡 두벌 빻을 때 너미 짜 부니까 그 몰르니까 물 쪼끔 놔사 이제 짤 것이 나올 거난 그거 짱 서끄는 거라. 연히게 들이젠 허민 또 흥끔 빻으멍 물 놔근에게 또 짜. 흥 세 불??지는 짤 거라. 너미 세게 허민 버짜행.(초벌 빻을 땐 그냥 짜 놔두고 두벌 빻을 때 물 쪼끔 놓고 너미 짜 버리니까 그 마르니까 물 쪼끔 놔야 이제 짤 것이 나올 거니까 그거 짜서 섞는 거야. 그렇게 조금 연히게 들이려고 하면 또 조금 빻으면서 물 놔서 또 짜. 한 세벌까지는 짤 거야. 너미 세게 하면 뽕뽕해서.)²³⁵

감물의 농도는 갈옷의 색깔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 첨가 여부는 감물들이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을 섞으면 연해지고, 물을 섞지 않으면 감색이 짙어진다. 제보자들은 예전에는 감물들일 때 물을 잘 섞지 않았다고 구술하였다.

- 감물을 너미 많이 들이면 더 뽕뽕하고 감물을 흥쩍 적게 들이민 흥쩍 연히고. 감물을 지박지박 너미 하영 들여 불민 저 옷이 막 뽕뽕해 불어. 일할 때 입는 사람은 또 뽕뽕하게 들여사. 경혜사 밧디 가근에 일해 가민 것이 수 그러져 불주게. 어린 때라도 알아져. 너미 뽕뽕하게 들여 놓민 스못 이디가 왕상히고. 아이고, 이추룩헌 거 어떻 입엄수젠 막 해낫주게. 너미 약히게 들영 혈렁혈렁허민 오래 안 강 제기 끈어져 불어. 게난 진히게 들여야 일할 때 흥쩍 오래 입주게.(감물을 너미 많이 들이면 더 뽕뽕하고 감물을 조금 적게 들이면 조금 연하고, 감물을 지박지박 너미 많이 들여 버리면 저 옷이 아주 뽕뽕해 버려. 일할 때 입는 사람은 또 뽕뽕하게 들여야. 그래야 밧에 가서 일해 가면 것이 스 그러져 버리지. 어린 때여도 알아져. 너미 뽕뽕하게 들여 놓으면 사뭇 여기가 앙상하고, 아이고, 이처럼한 거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라고 막 했었지. 너미 약히게 들여서 혈렁혈렁하면 오래 안 가서 재우 끊어져 버려. 그러니 진히게 들여야 일할

234 김정평(한경면 낙천리) 구술 자료.
235 이정숙(구좌읍 덕천리) 구술 자료.

때 조금 오래 입지.)²³⁶

색깔도 색깔이지만, 감물을 많이 들이면 갈옷이 뻣뻣하고 조금 적게 들이면 옷감이 부드럽다고 한다. 그러나 일복인 갈옷은 뻣뻣하고 진하게 들여야 오래 입을 수 있다. 처음 입을 때는 옷이 뻣뻣하고 풀기가 세어 뻣뻣하지만 몇 번 입다 보면 풀기가 수그러지면서 입기에 좋다고 하였다.

(4) 짜기, 널기, 말리기

옷가지에 감물이 잘 들면 옷가지의 감물을 짜고 찌꺼기를 잘 털어낸 후에는 물들일 때와는 반대로 걸감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뒤집어서 말려야 한다. 그래야 감 찌꺼기가 걸감에 묻지 않아 옷에 감빛으로 골고루 물든다.

감물들인 옷가지는 풀밭이나 잔디밭, 논, 명석, 지직(거적), 초가지붕 위 등 편평한 곳에서 널었다. 마당에 보릿대나 조짚을 깔아서 널기도 하고, 빨랫줄을 이용하여 널기도 한다. 빨랫줄에 널면 골고루 빨강게 바래지 않아 햇볕이 잘 드는 편평한 곳에 너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해안 마을에서는 바닷가 바위 위에 너는 경우도 있었다. 돌담 위에 걸쳐서 말리는 사람도 있다. 이는 감물을 들이는 사람들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널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 감들인 다음에 탁탁 털어 벵드레 널어. 델리레 널든지, 베 행 빨랫줄에 널든지, 저 거시기 왕대 해다근에 왕대에 꿰어 널든지. 적삼도 이추록 영 꿰어 물류게시리 헤사주.(감들인 다음에 탁탁 떨어져 벌에 널어. 대에 널든지, 바 해서 빨랫줄에 널든지, 저 거시기 왕대 해다가 왕대에 꿰어 널든지. 적삼도 이처럼 이렇게 꿰어서 마르게끔 해야지.)²³⁷

• 할머니들은 거 작대기렌 행은에 팔 영 끼와. 양쪽 풀 영 끼와. 손과 손 팔 사이를 짝. 바지도 다리 사이 행은에 짝 이렇게 벌어지게. 경 해야 햇빛이 골고루. 햇빛 안 맞으면 얼룩얼룩행 안 돼지. 지금은 잔디밭에 가서 이렇게 편히 널고 후

236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237 고순덕(여, 1938년생) 구술 자료 (2023. 1. 9. 성산읍 난산리 자택).



〈사진 43〉 대에 감물들인 중의를 끼우는 모습(남원읍 위미리)



〈사진 44〉 대에 감물들인 적삼을 끼워서 말리는 모습(남원읍 위미리)

주만은 그땐 그게 없으니까 작대기로.(할머니들은 거 작대기라고 해서 팔 이렇게 끼워. 양쪽 팔 이렇게 끼워. 손과 손 팔 사이를 짝. 바지도 다리 사이 해서 짝 이렇게 벌어지게. 그렇게 해야 햇볕이 골고루. 햇볕 안 맞으면 얼룩얼룩해서 안 되지. 지금은 잔디밭에 가서 이렇게 편히 널고 하지만 그땐 그게 없으니까 작대기로.)²³⁸

• 널 데 잇이민 바지에도이 가달 하나에 영 헤근에 대 쫄락 질어근에 귀언에 널어났어. 가달 한 쪽에만 우터레 영 행.(널 데 없으면 바지에도 다리 하나에 이렇게 해서 대 ‘쫄락’ 길어서 끼워서 널었어. 다리 한 쪽에만 위로 이렇게 해서.)²³⁹

조천읍 북촌리 이승찬은 조짚으로 만든 지직(거적)에 널기도 하였다. 지직에 널면 물이 빨리 빠져 빨리 마른다고 하였다. 갈중의나 적삼을 말릴 때는 대나무 등에 끼워서 널기도 하였다. 바지를 널 때는 위쪽으로 대를 길게 꿰어서 나무 따위에 걸쳐 널면 실밥이나 옷감이 겹쳐진 곳에도 감물이 잘 든다. 옷이 쉽게 구부러지는 소매 안에는 덧잎 등을 담아 볼록하게 해서 말리기도 하였다.

• 감옷은 그날 들이는 날은 막 잘 몰류아 불어사 허여게. 경허난 그때덜은 수 못 이런 옷소매 7튼 디는 뒤 담아근엔에 영 불락불락하게 허영. 어떤 때는 잘 안 몰르카 부텐 그 소매레 대이파리 헤다근엔에이 영 찢러근엔에 널민 그것이 다 과짝허게 잘 몰르주게. 경헌디 그거 아무나 경 아년다. 막 콦콦허게 허는 사람.(갈옷은 그날 들이는 날은 아주 잘 말려 버려야 해. 그러니까 그때들은 사뭇 이런 옷소매 같은 데는 뒤 담아서 이렇게 불락불락하게 해서. 어떤 때는 잘 안 마를까 봐 그 소매에 덧잎 해다가 이렇게 찢러서 널면 그것이 다 곧게 잘 마르지. 그런데 그거 아무나 그렇게 앓는다. 아주 꼼꼼하게 하는 사람.)²⁴⁰

• 감들인 거 널 땐 수답줄 걸던지 경 아녀민 풀 잇는 디 강은에 이슬지렌 영 행

238 허금자(여, 1957년생) 유애자(여, 1941년생), 천세선 구술 자료 (2023. 2. 1. 사계리 사계송죽경로 당).

239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240 위의 자료.



〈사진 45〉 명석에 널기(표선면 성읍리)



〈사진 46〉 빨래줄에 널기(한경면 낙천리)

놔두면 곱게시리 허고. 다시 그건 그 시간에 안 널민 것도 무려 벼. 썩어 비어, 옷이. 영 굵이진 디도 옷이 그냥 영 폐왕 굵이진 디 이시민 이것이 껌어 빌어.(감 들인 거 널 땀 빨랫줄 걸든지 그렇게 얹으면 풀 있는 데 가서 이슬지라고 이렇게 해서 놔두면 곱게끔 하고. 다시 그건 그 시간에 안 널면 것도 물 어 버려. 썩어 버려, 옷이. 이렇게 겹쳐진 데도 없게 그냥 이렇게 펴서 겹쳐진 데 있으면 이것이 거메 버려.)²⁴¹

감물을 들이면 감물을 들인 당일에 초벌은 잘 말려야 한다. 바로 말리지 못하면 곱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별 좋은 날을 택해 감물을 들이는 것이다. 또 물을 들인 후에 제때 널지 못하면 감이 물어 버리고, 말려도 감빛이 제대로 나지 않고 색이 검게 변한다. 이처럼 갈옷은 날씨와 정성과 시간 삼박자가 조화를 이룰 때 제대로 탄생하는 것이다.

(5) 손보다

감물들인 옷을 널 때는 옷감이 겹치거나 구겨진 데 없이 잘 펴야 한다. 옷감의 울을 바르게 해야 옷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감물이 골고루 든다. 또한 감물을 들인 옷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좌우와 위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울을 곧게 잘 펴야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일을 ‘손보다’라고 한다. ‘손볼’ 때는 마주 서서 옷을 당기거나 잘 개어서 손으로 독독 두들기거나 발로 퐁퐁 밟으면서 옷감을 올바르게 펴준다.

갈옷이 곱게 완성될 때까지는 날씨가 좋아야 하지만 날씨 못지않게 손보는 정성 또한 중요하다. 손보는 일은 감물을 들인 후에 널기 전부터 물을 적셔 말리기 과정을 반복하는 바래기 과정 사이사이에 한다. 손본다는 것은 감물을 들인 옷감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구김살이 없게 반듯하니 곱게 만드는 일이다. 즉 옷가지를 잘 펴서 손으로 펴거나 두드리거나 밟는 행위를 통해 울을 바르게 하여 옷 형태와 색깔을 곱게 하는 것이다.

• 감 털어난 다음에 잘 개어 놔 가지고 울을 조금 발류와. 손으로이 이런 마께 로라도 발류와근에 널어. 널어근에 부들부들 몰르민 그것이 줄아드난 또 허뽀 손봐근에 영 너는 거. 널어난 다음에도 손보난에 괜찮은 것 닻아도 이젠 이것이 말르명 허뽀 영 줄어드니까 허뽀 영 펴 주면 더 좋아. 촉촉하게시리. 초벌 말을 때에 허뽀 더 손봐 주면 울이 딱 발를 거 아니라. 겨든 그다음부편 이제 물 영 적 정 널곡 널곡만 허민 쉼 거.(감 털어낸 다음에 잘 개어 놔 가지고 울을 조금 바꾸어. 손으로 이런 방망이로라도 바꾸어서 널어. 널어서 부들부들 마르면 그것이 줄어드니까 또 조금 손봐서 이렇게 너는 거. 널어난 다음에도 손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도 이젠 이것이 마르면서 조금 줄어드니까 조금 이렇게 펴 주면 더 좋아. 촉촉하게끔. 초벌 마를 때에 조금 더 손봐 주면 울이 딱 바를 거 아닌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 이렇게 적셔서 널고 널고만 하면 될 거.)²⁴²

241 양태월(한경면 용수리) 구술 자료.
242 박복선(애월읍 광령2리) 구술 자료.

손을 볼 때는 옷가지에 감물을 들인 후가 가장 중요하다. 초벌 감물을 들인 옷가지가 거의 말라갈 즈음 시들시들한 상태에서 손을 잘 보면, 물을 적셔 말리고 물을 적셔 말리고 하는 바래기 과정에서는 힘들이지 않아도 옷이 곱게 펴진다.

• 감물들이민 처음엔 그거 막 시들시들 몰라가민 마주 앓앙 막 징긋징긋 땡겨. 줄어드는 따문. 줄어들믄 꼬골꼬골꼬골허믄 보기 실른 따문에 바짝 폐와지렌 막 서로 땡겨. 땡겨 낱 그거 몰르민 이제 따시 그거 막 땡겨 놔근에 또 물 적져근에 또 발로 막 꾀꾀꾀꾀 불르고 그거 폐와지게. 오그라지민 보기 실른덴 허멍. 비니 루에 싸근에.(감물들이면 처음엔 그거 아주 시들시들 말라가면 마주 앓아서 막 징긋긋 당겨. 줄어드는 따문에. 줄어들면 꼬골꼬골꼬골하면 보기 싫은 따문에 바짝 펴지라고 막 서로 당겨. 당겨 놓고 그거 마르면 이제 다시 그거 막 당겨 놔서 또 물 적셔서 또 발로 막 ‘꾀꾀꾀꾀’ 밟고 그거 펴지게. 오그라지면 보기 싫다고 하면서. 비닐에 싸서.)²⁴³

• 영을 헛든 정을 헛든 개어근에 막 밟아. 헛 옷 낱은에 밟아야 바르게 펴지지 안후꽈? 경 흥영은에 널어 낱은에 시들시들헛다 흥민 또 들영은에 개영 밟아근에 또 바짝 말리워.(이렇게를 헛든 저렇게를 헛든 개어서 막 밟아. 헛옷 놔서 밟아야 바르게 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널어 놔서 시들시들헛다 하면 또 들어서 개어서 밟아서 또 바짝 말려.)²⁴⁴

• 바짝 마르기 직전에 또시 개어근에 한 번 더 밟아 줘. 옷이 고르게. 그냥 내 버리면 쭈글쭈글허여 불주게. 한 삼일쯤 말린 다음 매일 아침마다 물 적셔 가지고 또 널고 물 적셔 널민 바래여. 색깔 나도록 거 곱닥허게 색깔 나가. 헛 일주일. 게믄 거 감물도 빠지면서 색깔이 빨강게 고르게 돼.(바짝 마르기 직전에 다시 개어서 한 번 더 밟아 줘. 옷이 고르게. 그냥 내버리면 쭈글쭈글해 버리지. 한 삼일쯤 말린 다음 매일 아침마다 물 적셔 가지고 또 널고 물 적셔 널면 바래여. 색깔 나도록 거 곱게 색깔 나가. 한 일주일. 그러면 거 감물도 빠

243 강대선(성산읍 신산리) 구술 자료.
244 천세선(안덕면 사계리) 구술 자료.



〈사진 47〉 손보기 1(표선면 성음마을)



〈사진 48〉 손보기 2(남원읍 위미리)

지면서 색깔이 빨갱게 고르게 돼.)²⁴⁵

성산을 신산리 강대선은 감물을 들인 후에 널어서 시들시들 말라가면 들여 와서 사람이 마주 앉아 '징긱징긱' 당긴 후에 널어 말린다. 그후에 다시 마주 편 후에 물을 적셔서 다시 발로 '꼰꼰꼰꼰' 밟아서 옷을 펴서 말리기를 반복하였다. 이런 과정을 '손보다'라고 한 것이다. 안덕면 사계리 천세선과 허금자도 비슷하게 증언했다. 물들이고 바래는 과정에서 옷이 마르기 전에 옷을 잘 개어 비닐이나 현옷으로 감싼 후에 발로 밟으면서 구겨진 데 없이 잘 펴야 옷이 고른다는 것이다.

• 감도 들영 널민 몰르민 내부는 게 아니고. 흥썰 영 시들시들허민 몰르민 개여근에 불라. 저 무신 옷 더꺼근에 조근조근조근 불랑 문짝허게 불라근에 널어사. 그냥 널어 불민 고글락헤 불어. 손을 봐. 옷에 풀 해근에 손보듯이 손뽕 널어사 경 안허민 과들락허게 몰라 불어.(감도 들어서 널면 마르면 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마르면 개어서 밟아. 저 무슨 옷 덮어서 차근차근차근 밟아서 밋밋하게 밟아서 널어야. 그냥 널어 버리면 구부러져 버려. 손을 봐. 옷에 풀 해서 손보듯이 손봐서 널어야. 그렇게 얹으면 '과들락하게' 말라 버려.)²⁴⁶

갈옷을 손보는 것도 삼베 따위에 풀을 한 후에 손보듯이 손봐서 널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널었을 때는 옷이 줄거나 너무 뻗뻗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바래다

갈옷의 관건은 색을 어떻게 바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갈옷 색감은 감물의 농도에 따라 다르다. 갈옷 바래기는 감물을 들인 후에 말린 이후부터 시작된다. 감물들이 옷이 잘 마르면 깨끗한 물을 적셔서 널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한다. 물을 적시고 말리고, 적시고 말리고 하다 보면 감빛이 곱고 '상그랑현' 갈옷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두고 '바래다'라고 한다. 물을 적셔서 널 때는 물을 바르게 펼 수 있게 손을 잘 봐야 한다. 바래는 과정은 적게는 3~4일, 많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면 좋다. 옷이 바래가면 옷감도 뻗뻗해진다.

• 반덴 말은 그것이 별경허게. 그 옷이 별경헤 가면은 버작허여.(바래다는 말은 그것이 별경게. 그 옷이 별게 가면 뻗뻗해.)²⁴⁷

바래기 위해 물을 적서 널 때는 초벌 널 때와 다른 방향으로 별을 쬐게 하고, 다시 물을 적셔서 널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별을 쬐게 한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널다 보면 감색이 옷 전체에 고루 퍼지게 된다. 물을 적신 후 널 때는 처음 물들이고 때와 달리 물을 짜지 않고 그냥 탁탁 떨어서 널면 된다. 제보자들은 밤에 이슬을 맞으면 감물이 잘 바래고 곱게 든다고 하였다.

245 허금자·유애자·천세선(안덕면 사계리) 구술 자료.

246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247 고순자(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 감 벗아근에 몸빼 영 개어놔근에 이레 영 허꺼근에 허민 영영 감아근에 이추 록 막 물을 놀려. 막 놀려근에 물기가 막 나오민 그거 털어근에 널영 밤이슬 맞 추곡, 낮인 물 주곡 경허멍 발렘네께. 날이 좋으면은 혼 일주일, 혼 열흘77정 발 레곡. 날 굿이민 또 발레기가 막 힘들고. 비 온 때는 집안에 널곡, 몰르민 개영 낮당 뜨시 벳 나민 물 적저근에 널영. 밤인 날 좋암직허민 7만이 내 불영 밤이 슬 맞이민 더 잘 바난애.(감 뺏아서 몸빼 이렇게 개어놔서 이레 이렇게 섞어서 하 면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처럼 막 물을 놀려. 막 놀려서 물기가 막 나오면 그거 떨어져 널고 밤이슬 맞히고, 낮엔 물 주고 그렇게 하면서 바래요. 날이 좋으면 한 일주일, 한 열흘까지 바래고. 날 굿으면 또 바래기가 아주 힘들고. 비 온 때는 집안 에 널고. 마르면 개어서 뉘다가 다시 벌 나면 물 적셔서 널고. 밤엔 날 좋암직하면 가만히 내 버려서 밤이슬 맞으면 더 잘 바니까.)²⁴⁸

• 널면 거자 혼 일주일 넘어 발래야 될 건데. 금방 바래는 것이 아니지. 물 적지멍 널멍 밤이 이슬에도 널영 내 불고. 뉘쌌닥 ㄴ뉘쌌닥 허멍 자꾸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물 적정 또 널고. 물 적정 널곡 해 가면 자동으로 빨가져, 것 이.(널면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바래야 될 건데. 금방 바래는 것이 아니지. 물 적시 면서 널고 밤에 이슬에도 널어서 내 버리고. 뉘집었다 다시 뉘집었다 하면서 자꾸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물 적셔서 또 널고. 물 적셔서 널곡 해 가면 자동으로 빨개져, 것이.)²⁴⁹

• 물 적실 때 안 짍니다. 이거 짜면 풀 죽어 불언게. 게난 영 귀양하게 해 낱 기 냥 물 잘잘한 채 넣어 불어야 한다. 영 뉘집으곡 일로 널곡 일로 널곡 물 왈락 또 혼 다음 하루 세 번 해야주. 날 좋은 날만. 경 안후영 감들영 비 왕 후민 이것이 변해 불영 안 뉘곡.(물 적실 때 안 짍니다. 이거 짜면 풀 죽어 버리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이 해 놔서 그냥 물 잘잘한 채 넣어 버려야 한다. 이렇게 뉘집고 일로 널 고 일로 널고 물 왈락 또 한 다음 하루 세 번 해야지. 날 좋은 날만. 그렇게 안 해서 감들여서 비 와서 하면 이것이 변해 버려서 안 되고.)²⁵⁰

- 248 강대선(성산읍 신산리) 구술 자료.
- 249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 250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사진 49〉 물 적시기 1(한경면 낙천리)



〈사진 50〉 물 적시기 2(한경면 낙천리)

대정읍 일과1리 이춘희는 갈옷을 바래게 하기 위해서는 마른 다음에 바로 물을 적셔 너는 것보다 감물을 들여 처음 말린 후, 삼 일에서 오 일 정도 있다가 하는 게 좋다고 한다. 그래야 갈옷의 풀기가 죽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적실 때 짜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감들인 옷에 물을 적셔 말리는 것은 감색으로 빨리 바래게 하기 위함이다.

- 그냥 널어근에 혼 이틀, 혼 사흘, 혼 오 일쯤 그냥 몰령 오 일쯤 몰려근에 날 막 종양 차랑차랑 그땐 벋날 때난 물 확확 적정 그냥 널민 재게 바라. 물 안 적저도 발주만은 물 적정 널민 재게 바라. 으라 번 헨게. 미리 물 적저 불민 그 감옷이 죽어. 죽기 때문에 삼스일 싯당 헤사. 제기 물 적저 불민 풀 죽어 불영 안 된다게.(그냥 널어서 한 이틀, 한 사흘, 한 오 일쯤 그냥 말려서 오 일쯤 말려서 날 아주 좋아서 차랑차랑 그땐 별날 때니까 물 확확 적셔서 그냥 널면 재우 바래. 물 안 적저도 발지만 물 적셔서 널면 재우 바래. 여러 번 하던데. 미리 물 적저 버리면 그 감옷이 죽어. 죽기 때문에 삼사일 있다가 해야. 재우 물 적저 버리면 풀 죽어 버려서 안 된다.)²⁵¹

- 감물 짬은에 그 기지에다가 감맥이면 그냥 색이 안 나는 거. 그걸 이제 편편 혼 디다가 날편하게 다 널영 그거를 몰르면 또시 그 옷을 가져강 물을 적저. 물 잇인 디 강 물을 덤박덤박덤박 적저다가 또 영 널영 하면 빨근 빛이 나와.(감물 짜서 그 천에다가 감맥이면 그냥 색이 안 나는 거. 그걸 이제 편편한 데다가 편편하게 다 널어서 그거를 마르면 다시 그 옷을 가져가서 물을 적저. 물 있는 데 가서 물을 덤박덤박덤박 적저다가 또 이렇게 널어서 하면 빨간 빛이 나와.)²⁵²

바렐 때는 빨랫줄에 너는 것보다 바닥에 편평하게 펴서 너는 게 발색이 더 잘 된다. 즉, 잔디밭이나 명석 따위를 깔아서 너는 게 햇별을 잘 받아서 색이 골고루 든다는 것이다. 색을 바래게 할 때는 앞뒤를 번갈아가면서 햇별을 쬐어야 한다.

- 줄에 널 것보단 풀왓디 이시면은 폐왕 널민 더 잘 발주게. 빨랫줄에 널면 그것이 골고루 발질 아녀주게.(줄에 널 것보단 풀밭이 있으면 펴서 널면 더 잘 발지. 빨랫줄에 널면 그것이 골고루 발질 않지.)²⁵³

- 감들영 허른 처음에 이런 풀밭이나 놀 눈 더레도 이렇게 널고. 그때는 명석이 많으난 명석에 널엇주게. 그냥 땅바닥에나 널면 흑도 부뜨고 굿이난. 경허고 세멘이나 돌 우이 널민 그 감이 익어 불영 곱지도 안허고 이 자국이 막 나. 경허여 부난에 명석에 손 잘 방 영 뒤집영 널영 후를 몰려난 다음날부편 물 적저근에 또 널고 또 널고 허연.(감들여서 하면 이런 풀밭이나 가리 가린 데에도 이렇게 널고. 그때는 명석이 많으니까 명석에 널었지. 그냥 땅바닥에나 널면 흑도 붙고 굿이니까. 그러고 시멘트나 돌 위에 널면 그 감이 익어 버려서 곱지도 않고 이 자국이

251 이춘희(대정읍 일과1리) 구술 자료.
 252 백여옥(조천읍 북촌리) 구술 자료.
 253 백순성(제주시 화북2동) 구술 자료.



〈사진 51〉 바래기 1(한림읍 명월리)



〈사진 52〉 바래기 2(한경면 낙천리)



〈사진 53〉 바래기 3(제주학연구센터)

많이 나. 그래 버리니 멩석에 손 잘 봐서 이렇게 뒤집어서 널고 하루 말려난 다음날 부터는 물 적셔서 또 널고 또 널고 했어.)²⁵⁴

제보자에 따라서는 시멘트나 돌담 위에 널면 감이 익어버려서 색이 곱지 않다고 한다.

• 감들이는 거는 여름에 들어근에 뱃 바짝 나는 디 강 널곡. 우리 바당에 강 그 바닷물 솟아나른 그디 강 헤왕은에 그 빌레에 널곡 헤나신디.(감들이는 거는 여름에 들어서 별 바짝 나는 데 가서 널고. 우리 바다에 가서 그 바닷물 솟아나면 거기 가서 행귀서 그 너력바위에 널고 했었는데.)²⁵⁵

• 처음에는 감물을 들이른 허영잡아. 하루 적성 혼 번씩 두 번 무르른 그게 점 점점점 빨가져. 이 옛날에는 저 앞에 바닷가 앞에 다 자갈밭이었거든. 그러면은

254 박복선(애월읍 광령리) 구술 자료.










255 이화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그 깻물에 빨래터에 와서 거를 깻물 든물에 적셔서 널고 적셔서 널고 그랬지. 햇빛 받으면은 벌그름하면서. 깻것이도 강 널고 산담 위에 펜펜헌 디도 널고.(처음에는 감물을 들이면 허영잖아. 하루 적셔서 한 번씩 두 번 마르면 그게 점점점점 빨개져. 이 옛날에는 저 앞에 바닷가 앞에 다 자갈밭이었거든. 그러면은 그 깻물에 빨래터에 와서 거를 깻물 단물에 적셔서 널고 적셔서 널고 그랬지. 햇빛 받으면 벌그름하면서. 바닷가에도 가서 널고 산담 위에 편평한 데도 널고.)²⁵⁶

그러나 바닷가 마을인 애월읍 금성리 이화자와 이수자는 바렐 때는 단물이 나는 바닷가에 가서 물을 적셔서 널고 말리기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바닷가에서 널 때는 바닷가 ‘빌레’ 즉 너럭바위를 이용하였다. 산담 위에서도 말렸다.

이상과 같이 갈옷 하나를 만들려면 날씨와 시기, 정성과 노력이 어우러져야 완성된다. 옷가지에 감물을 들이는 과정을 사진 자료와 구술자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사진을 통해 본 감물들이는 과정

순서	사진		
감 따기			
감 손질			
옷 준비			

순서	사진		
감 뺑기			
뺑은 감 놀리기			
감물 내기			
			
감물들이기			
짜기			
털기			

순서	사진		
손보기			
널기			
말리기			
물 적시기			
바래기			
갈옷 ²⁵⁷			

정리하면 감물들이는 과정은, 옷가지와 감 등 재료 준비를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감을 뺀 물들이는 과정 과정이 정성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감물들이기는 ‘감 뺀기-물들이기-감짜꺼기 떨어내기-말리기’ 과정을 거친다. 말리기 과정에서는 옷을 펴는 손보기 과정이 진행된다. 마른 후에는 바래기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바래기는 감물들이 옷가지가 마르면 물을 적셔 말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바래기는 원하는 색깔이 날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하는데 마르기 전 촉촉한 상태에서 손보기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갈옷은 제주에서 자생하는 감을 이용하여 뜨거운 여름날 별을 이용하여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기다림으로 빚어낸 제주의 독특한 무형유산이다.

257 사진 속의 갈옷 자료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성과품이다.

〈표 13〉 구술로 살펴본 감물들이는 과정-성산을 신산리 강대선 사례

<p>제주어</p>	<p>물들이기 전에 그 광목을 풀을 죽여사 감물을 잘 드는 거난 그거 막 빨아근에 그 풀기 엇이 널영 몰류와근에 들이는 거. 따시 그 풀기 엇이 별명 젓인 때도 막 짜도근에 들이곡 경해났수다. 젓인 차 허는 건 좀 췌게 허젠 허면은 그 꼭지영 털 다듬곡. 그 꼭지 영 동그랑헌 디 허민 그거를 그대로 낱 허곡. 따시 풀 췌게 그 물리왕 하면은 그 거를 단딱 우린 다듬아근에 해났수다마는. 몰르쿠다. 푼 사람들은 어떻게 헤신지. 물이 흐췌 췌염직허면은 물을 흐췌 많이 놓곡. 또 풀이 요거 놉근에 좀 죽을 거라 허면은 물을 흐췌 죽영 놓곡 그추룩 허명.</p> <p>막 놀려근에 해근에 그거 탁탁 막 털어근에, 그 감주시 옷에 안 붙게시리 막 털어근에 허곡. 몰롭다근에 손봐 놉근에 뺑기곡. 그 주시가 시민 또 막 털어근에. 손보는 건 이녀 낱으로도 허곡, 또 그자 사름 이시른 서로 돌리가 맞아근에 뺑기명 허곡 경해났어.</p> <p>비만 안 오면 밤에 널어사 잘 발지. 저 바는 건 이슬 맞곡, 벵 맞곡 허면은 감옷은 빨강게 잘 바는 거. 비 왓직하면 걷곡. 널 뺑 이런 풀밭디도 널곡 경 아녀민 요런 디 마당에 베 메여근에 그디로 영 널곡 허여. 담줄에도 널영 몰롭곡. 뭐 잇어나수가게? 담줄 잇인 덴 또 줄 메영도 허곡. 마당에 줄 허면은 널어근에 밤이 내불곡 경해났수다. 마당에 널영 이슬지면은 뒷날 벵 나면은 그것가 저 빨강게 발아갑니께. 경허민 감옷이 고읍는 거.</p>
<p>표준어</p>	<p>물들이기 전에 그 광목을 풀을 죽여사 감물이 잘 드는 거니까 그거 막 빨아서 그 풀기 없이 널어서 말려서 들이는 거. 따시 그 풀기 없이 빨면서 젓인 때도 막 짜두고 들이고 그랬었습니다. 젓인 채 하는 건 좀 췌게 하려고 하면 그 꼭지랑 털 다듬고. 그 꼭지 이렇게 동그란데 하면 그거를 그대로 놔서 하고. 다시 풀 췌게 그 말려서 하면 그거를 모두 우린 다듬어서 했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이 조금 췌 듯하면은 물을 조금 많이 놓고, 또 풀이 요거 놔서 좀 죽을 거라 하면 물을 조금 적게 놓고 것처럼 하면서. 막 놀려서 그거 탁탁 막 털어서, 그 감짜꺼기 옷에 안 붙게끔 막 털어서 하고. 말리다가 손봐 놔서 당기고. 그 짜꺼기가 있으면 또 막 털어서. 손보는 건 자기대로도 하고, 또 그저 사람 있으면 서로 돌리가 앉아서 당기고 그렇게 했어.</p> <p>비만 안 오면 밤에 널어야 잘 발지. 저 바는 건 이슬 맞고, 벵 맞고 하면은 감옷은 빨강게 잘 바는 거. 비 왓직하면 걷고. 널 뺑 이런 풀밭에도 널고 그렇지 않으면 요런 데 마당에 바 매어서 거기로 이렇게 널고 해. 돌담에도 널어서 말리고. 뭐 있었었습니까? 돌담 없는 덴 또 줄 매어서도 하고. 마당에 줄 하면 널어서 밤에 내버리고 그랬었습니다. 마당에 널고 이슬지면 뒷날 벵 나면은 그것이 저 빨강게 바래갑니다. 그러면 감옷이 고운 거.</p>

3. 제주 갈옷 관련 주변문화

제주도 사람들은 감물을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홑옷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만들어 입었음은 물론, 여러 가지 생활 도구에 감물을 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낡은 갈옷을 재활용하여 여러 생활재로 만들어진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도구의 감물 염색, 그리고 낡은 갈옷의 재사용 및 재활용 사례, 갈옷 관련 구비전승과 공동체문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들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의복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한 일본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의복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파생문화를 전승해온 차별화되는 특성을²⁵⁸ 보여준다는 점이다. 감에 들어 있는 탄닌 성분에 의해 생기는 감물의 결착성에 의한 내구성, 방오성, 방부성 등의 기능성을 어망, 가구, 어선, 건축 등의 생활용품이나 생활공간에 한정해서 이용하는 일본과 달리 제주에서 감물들이기가 옷을 중심으로 특화된 것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화산회토 기반의 척박한 농토에서의 생업환경을 비롯하여 사면이 바다인 지역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 갈옷의 전통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파생문화와 함께 제주인의 여러 추억이 함께 담겨 있다. 토종감을 활용하는 전승 지식이 발달하여 ‘짐칫감(김칫감)’ 만들기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앞장에서 기술했듯이 갈옷 재료인 감을 돌훅(돌확)에 빵아 감물을 만들 때 나오는 ‘감씨’를 감물들이기 현장에서 주워 먹었던 추억을 증언하는 제보자도 많다. 결국 매년 세시풍속처럼 전승되어온 감물들이는 현장은 노동의 장이기도 했지만 온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하는 작은 잔치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문화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1) 생활 도구의 감물 염색

(1) 낚시줄과 그물의 감물 염색

제주도 사람들은 전통적인 손줄낚시의 갈치 낚시줄을 보통 ‘갈치술’이라고 한다. ‘갈치술’은 갈치를 낚을 때 쓰는 낚시줄이라는 말이다. 갈치는 깊은 바다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긴 줄이 필요했고, 갈치의 이빨이 날카로우며 낚시줄이 끊어지기 쉬웠기에 튼튼하고 질긴 낚시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갈치 낚시줄에 감물을 들었다.

‘갈치술’은 39가닥의 실을 꼬아 만들었다. 보통 ‘갈치술’의 굵기는 3mm, 길이는 200m 정도였다. 이 길이는 보통 130발로 가늠하였다. 이렇게 ‘갈치술’을 길게 만들었던 까닭은 ‘갈치술’로 옥돔도 낚을 수 있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²⁵⁹ 또한 갈치술을 더욱 튼튼하고 질기게 만들기 위해 감물을 들였다. 이때 20일 정도 썩힌 돼지의 피나 소의 피로도 염색하였다. ‘갈치술’에 감물과 돼지나 소의 피를 염색하는 일을 ‘멕인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는 ‘갈치술’을 기둥 양쪽에 걸고 바짝 당겨놓고 말렸다. 이런 모양을 하고 말리는 일을 ‘정췌운다’고 하였다. 감물과 돼지나 소의 피를 염색한 ‘갈치술’을 솔에 담고 열을 가하여 짜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꼴로 ‘갈치술’에 감물을 염색하였다.²⁶⁰



〈사진 54〉 갈치술(갈치낚시줄)–『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제주바당』,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22.

다음으로 방어 낚시줄은 갈치술보다 조금 가늘게 솜이나 삼으로 뽑은 실 여러 겹을 꼬아 만든 줄에 감물을 먹여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돼지나 소의 피를 먹였다.²⁶¹ 방어 낚시줄도 1년에 한 번꼴로 감물을 먹였다. 또한 재방어(잿방어, ‘가다리’)를 낚는 낚시줄은 갈치술보다 더 굵게 삼베로 만든 실 여러 겹을 엮어 만들었다. 그 길이는 100발 정도였다. 처음에는 감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썩은 돼지 피를 먹였다. 그리고 ‘가다리’ 낚시줄을 솔에서 삶았다. 그래야 ‘가다리’ 낚시줄에 먹인 감물과 돼지 피가 벗겨지지 않았다.²⁶²

감물들이는 전승 지식은 낚시줄뿐만 아니라 그물에도 사용되었다.

• 그물 허는 사람은 옛날엔 감물도 들여놔주게. 옛날엔 물레 잇이난에, 물레가 사젠 해도 것도 돈 아니가게. 쥬에 그물 허는 사람들, 이 고기 허는 사람들. 거 하얀 거 허민 고기 안 든덴 허멍. 감물은 좀 어둡잖아. 쟁 감물 들여놔어, 그 물에도.(그물 하는 사람은 옛날엔 감물도 들었었지. 옛날엔 물감 없으니까, 물감이 사려고 해도 것도 모두 돈 아니냐. 그래서 그물 하는 사람들, 이 고기 하는 사람들. 거 하얀 거 하면 고기 안 든다고 하면서. 감물은 좀 어둡잖아. 그래서 감물 들었었어, 그물에도.)²⁶³

• 옛날엔 저 우리 촌에 살민 우리 서넉 집이 감낭이 막 하. 하민 그 해각 사람들 자리 거리는 그물. 그 자릿그물에 혼 해에 혼 번 감을 들여사 헌덴. 경 아녀민 보그락헤여 불어근에게 그 촌물에 드리청 경 드러 허는 거난에. 자릿그물. 경허민 그것에 감을 혼 해에 혼 번 들이젠 허민 그 혼 크게 허젠 허민 혼 서너 집 어울영 허는 거민, 막 돌아와근에 혼 사람이 감 멧 말씩 사오렌 허민 옷드레로 올라왕 스못 아유 감 잇인디 우리 집이 폼서, 폼서 허민. 오란 사기로 허여 불엇어 허민. 아이고, 계문 어떻게 허민. 아무 디 강 봐 허민. 따시 그 집이 돌아강, 경 허곡. 경 해당 감을 하영 사당 그 하루에 그거 받젠 허민 동네, 난드르 사람들 돈

259 박인주(남, 1920년생, 구좌읍 동복리) 제보 자료(고광민 조사, 1982. 5. 22.).

260 고광민, 앞의 책, 334~336쪽 참조.

261 이창욱(남, 1921년생, 대포동), 원승국(남, 1921년생, 대포동) 구술 자료(고광민 조사, 1992).

262 라양욱(남, 1943년생, 마라도) 구술 자료(고광민 조사, 1997. 6. 19.).

263 현옥열(서귀포시 법환동) 구술 자료.

모다정 뽕텐 허멍 막 웃어났저. 경 제기 헤사 사들 허거나게, 그걸 문 들이젠 허 민.(옛날엔 저 우리 촌에 살면 우리 서쪽 집에 감나무가 아주 많아. 많으면 그 해각 사람들 자리돔 뜨는 그물. 그 ‘자릿그물’에 한 해에 한 번 감을 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얇으면 보각해 버려서 그 짠물에 들이뜨려서 그렇게 들이 하는 거니까. ‘자릿그물’. 그러면 그것에 감을 한 해에 한 번 들이려고 하면 그 한 크게 하려고 하면 한 서너 집 어울려서 하는 거면, 마구 데려와서 한 사람이 감 몇 말씩 사오라고 하면 ‘웃드레’로 올라와서 사뭇 아유 감 없는데 우리 집에 파십시오, 파십시오 하면. 와서 사기로 해 붙었어 하면.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 하면. 아무 데 가서 봐 하면. 다시 그 집에 데려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다가 감을 많이 사다가 그 하루에 그 거 받으려고 하면 동네, 대평 사람들 모두 모아져서 반다고 하면서 마구 웃었었지. 그렇게 재우 해야 ‘사들’ 하거나, 그걸 모두 들이려고 하면.)²⁶⁴

감물염색을 통해 그물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색깔도 물고기들이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어두운 색이 나오게 된다는 전승 지식이 전하고 있다. 또한 제주 주민들이 즐겨 먹는 자리돔 그물에도 사용되었고, 서너 집이 어울려 함께 자리 뜨는 그물에 감물을 들였다고 한다.



〈사진 55〉 담배쌈지(가로 24.0cm, 세로 30.0cm) 안덕면 감산리 민속 자료실 소장

(2) 담배쌈지의 감물 염색

‘담배쌈지’는 살담배(칼 따위로 썬 담배)나 잎담배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다. 닥종이로 바느질하여 만들고 꿇감에서 우려낸 감물을 들였다. 담배쌈지 안에 담뱃잎을 썰어 담고 세 겹으로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²⁶⁵ 감물을 들인 담배쌈지는 질기고 튼튼해서 담뱃잎을 말려 썬 ‘살담배’, 종이에 만 ‘골연’ 등을 담고 다니는 데 사용되었다.

2) 갈옷의 재활용

제주도의 전통 감물들이기는 천과 옷뿐만 아니라 그물, 장판, 창호지, 고리짜, 구덕, 채롱, 이불갈개, 애기구덕 갈개 등 폭넓게 활용되었다. 고리짜는 버드나무의 가지나 대오리 등을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으로 옷을 넣어 두는 데 많이 사용된 공예품이다. 제주도에서는 이 고리짜에 먼지가 적게 타고 수명 연장을 위해서 감물을 칠했다. 구덕과 종이를 붙인 채롱 또한 수명 연장 및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물을 들이거나 칠해서 이용하는 문화가 전승되었다. 따라서 갈옷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갈옷과 감물염색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폭넓게 주목하며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64 임종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료.

265 고광민, 앞의 책, 154쪽 참조.

(1) 화성

‘화성’은 억새꽃을 둥그렇게 묶어 불씨를 유지하는 도구인데,²⁶⁶ ‘미우쟁이’라고도 불리는 억새 줄기에 갈옷 현 천으로 노를 꼬아 만들었다. 음력 8월에 이것을 많이 만들어두었다가 산이나 밭으로 나갈 때마다 불씨를 붙이고 들고 갔다. ‘화성’ 한 발 정도 길이면 하루 동안 불씨를 보관할 수 있다.



〈사진 56〉 화성(길이 88.0cm, 지름 3.2cm)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 266 고순표(남, 1915년생, 구좌읍 상도리) 구술 자료(고광민 조사, 2006. 9. 10.).
- 267 오임규(남, 1939년생, 안덕면 감산리) 구술 자료(고광민 조사).
- 268 고광민, 앞의 책, 56~57쪽 참조.
- 269 변봉찬(남, 1922년생, 애월읍 상가리) 구술 자료(고광민 조사).
- 270 고광민, 앞의 책, 112쪽 참조.

(2) 초신

헐린 갈옷 천으로 ‘초신’의 ‘앞깍’을 덧엮기도 하였는데,²⁶⁷ 초신은 여러 가지 풀로 만든 짚신을 말한다. ‘앞깍’은 짚신 앞쪽으로 운두를 이루는 날날의 신을이다. 제주도 이외 육지부 사람들은 ‘앞깍’을 ‘총’이라고 한다. ‘앞깍’은 좌우 두 개씩 네 개다. ‘앞깍’에는 헐린 갈옷 천을 짚에 물리며 꼬아 만드는 수가 많았다.²⁶⁸ ‘앞깍’에 헐린 갈옷 천 따위를 짚에 물리며 꼬아 만들어야 더욱 부드럽게 되어 발가락의 촉감이 좋았다.



〈사진 57〉 초신

(3) 7렛방석

‘7렛방석’은 ‘7레’(땃돌)를 쓸 때 밑에 까는 둥그렇게 만든 방석이다. 먼저 발벼 짚보다 질긴 벼짚으로 끈 줄을 날줄 삼고, 벼짚, 형짚, 헐린 갈옷 천으로 씨줄을 삼았다. 날줄은 겹어나갈수록 늘어나는데, 모두 288줄로 구성되었다.²⁶⁹ 그리고 둥그렇게 겹어나가다가 ‘7레’에는 알곡을 장만하는 동안 알곡과 쌀이 ‘7렛방석’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10cm 정도 높이로 전을 세웠다.²⁷⁰



〈사진 58〉 7렛방석(지름 126.0cm)

(4) 장판

제주도에서는 집안 바닥에 까는 종이 장판에도 감물을 들였다. 감물을 들이면 뽀뽀해지면서 튼튼하고 질긴 성질로 변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옛날은 장판을 들이잖아. 장판에다가 뽀이면은 장판도 문드럽고, 장판엔 뽀그린 거 봐났어. 옛날에는 흙판인데 장판 영 허면은 종지로 부르잖아. 경허면 감뽀이면은 뽀뽀해지거든. 그걸 질기라고 짹짹 막 영 썰멍 뽀여 가. 게문 그 장판이 막 오래 가더라고.(옛날은 장판을 들이잖아. 장판에다가 뽀이면 장판도

매끄럽고, 장판에 문지른 거 봤었어. 옛날에는 흙땅인데 장판 이렇게 하면 종이로 바르잖아. 그러면 감 먹이면 뽀뽀해지거든. 그러면 그걸 질겨지라고 싹싹 마구 이렇게 쓸면서 먹여 가. 그러면 그 장판이 아주 오래 가더라고.)²⁷¹

• 우리 어머니는 못살아노난 감 우넉집이 신 거 타당 그냥 장판에 덩드렁마께 헤영 작작작작. 아, 솔쿠랑은 헤여. 누워도 그냥 그 거세기허영은에. 장판이 처음에 불그스름햇당 거멍헤.(우리 어머니는 못살아서 감 윗집에 있는 거 따다가 그냥 장판에 ‘덩드렁마께’ 해서 작작작작. 아, ‘솔쿠랑은’ 해. 누워도 그냥 그 거시기 해서. 장판이 처음에 불그스름햇다가 거메.)²⁷²

• 방바닥에 그때는이 유기름이나 감, 감물. 유기름이나 감 벗어난 거, 옷에 들 여난 거 해근에 그때는 뭐지? 저 밀가루 푸대, 이 장판을 밀가루 푸대로 이제 발라 낡, 물들여 허는 것이 아니라 그거 틀어근에 발라 놓 다음에 이젠 이거 해근에 벗어난 거 해근에 그 물을 막 댕얏어. 그민 빨갈게 들어. 방바닥에.(방바닥에 그때는 들기름이나 감, 감물. 들기름이나 감 뵙얏던 거, 옷에 들얏던 거 해서 그때는 뭐지? 저 밀가루 부대, 이 장판을 밀가루 부대로 이제 발라 놓고, 물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뜯어서 발라 놓은 다음에 이젠 이거 해서 뵙얏던 거 해서 그 물을 마구 먹얏어. 그러면 빨갈게 들어. 방바닥에.)²⁷³

장판에 감물을 사용하는 것은 갈옷 감물들이는 방식과는 달리 먼저 종이를 바닥에 바른 다음에 감물을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즉 방바닥에 칠을 해서 튼튼하고 오래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감물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 271 백여옥(조천읍 북촌리) 구술 자료.
- 272 이화자(애월읍 금성리) 구술 자료.
- 273 박복선(애월읍 광령리) 구술 자료.
- 274 위의 구술 자료.

(5) 감부른구덕, 감부른푸는체

제주도에서는 구덕이나 푸는체에도 감물을 들이거나 현 갈옷을 붙여서 더욱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59〉 감부른구덕(조수리박물관 소장)

• 천에 감물들여난 다음에 구덕에 포시 저 풀물. 게난 부른구덕 만들 때 감물 이제 건 뽀뽀한 천 말고 흥끔 얇은 천으로 헤 가지고 감물들얏잖아. 경허민 이제 풀물 뵙얏어근에, 풀물을 세게 뵙얏어. 부른구덕 할 때는 경헤여근에 영 허든 짝허게 풀물에 감물에 영 허든 잘도 좋주게.(천에 감물들인 다음에 바구니에 다시 저 풀물. 그러니까 ‘부른구덕’ 만들 때 감물 이제 건 뽀뽀한 천 말고 조금 얇은 천으로 헤 가지고 감물들얏잖아. 그러면 이제 풀물 먹여서, 풀물을 세게 먹어야 돼. ‘부른구덕’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짝허게 풀물에 감물에 이렇게 하면 아주 좋지.)²⁷⁴

• 부른구덕은 거 갈적삼이나 갈정뱅이나 입어근에 막 또꼬망도 터진 거 입을 나위 엇인 거. 곳인 디로 돌라근에 풀 맥여근에 구덕에라도 불랑 쓰젠. 옛날엔 천도 엇이난 경혜근에 갈주력으로 그 구덕을 불르난에 거 데껴 부는 셈으로 구덕 불르는 거주.('부른구덕'은 거 '갈적삼'이나 '갈잠방이'나 입고서 마구 꿈무니도 터진 거 입을 나위 없는 거. 온전한 데로 도려서 풀 먹여서 바구니에라도 발라서 쓰려고. 옛날엔 천도 없으니까 그래서 '갈주력'으로 그 바구니를 바르니까 거 던져 버리는 모양으로 바구니 바르는 거지.)²⁷⁵

• 바구니 이제 현 바구니덜 이제 구덕덜 그거 다 뒤어 가면 이젠 풀 썬어근에 그 감옷덜 그런 거 찢어진 것덜 헤여근에 맥영 부른구덕 불르는 거주게. 경허난 감부른구덕도 뒤고. 또 푸는체 이렇게 푸는 거. 옛날은 푸는체에도. 그 신랑덜 바지덜 이제 다 터져 가면 그거 낫다근에 니귀반쪽 부러근에 풀 썬어근에 그 구덕에 다 허곡 푸는체에도 다 불르곡. 것이 감푸는체 7치. 감옷으로 치정 그거 불라 부난 현 거주. 우리 옛날에 부른구덕으로 살앗주게. 쓸도 허민 부른구덕, 방앗간에 가도 부른구덕. 다 방앗간에도 저 보리쌀이여 좁쌀이여 질젠 허민 부른구덕으로 올리고 허명 살앗주. 계난 거 다 집이서 불른 거주게. 옷덜 다 터진 것덜 헤근에 낫다근에.(바구니 이제 현 바구니들 이제 바구니들 그거 다 뒤 가면 이젠 풀 썬서 그 '감옷'들 그런 거 찢어진 것들 해서 먹여서 '부른구덕' 바르는 거지. 그러니까 '감부른구덕'도 되고. 또 키 이렇게 까부르는 거. 옛날은 키에도. 그 신랑들 바지들 이제 다 터져 가면 그거 낫다가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풀 썬서 그 바구니에 다 하고 키에도 다 바르고. 것이 '감푸는체' 처럼. '감옷'으로 찢어서 그거 발라 버리니까 현 거지. 우리 옛날에 '부른구덕'으로 살앗지. 쌀도 하면 '부른구덕', 방앗간에 가도 '부른구덕'. 다 방앗간에도 저 보리쌀이다 좁쌀이다 찢으려고 하면 '부른구덕'으로 올리고 하면서 살앗지. 그러니까 거 다 집에서 바른 거지. 옷들 다 해진 것들 해서 낫다가.)²⁷⁶

구덕이나 채롱, 푸는체 등에 감물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테두리 부분에 많이 하였는데, 테두리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현 갈옷 천으로 붙이거나 기존에 붙어 있는 천이나 종이 위에 감물을 들여서 보완하였다. 또는 테두리 부분이나 여타 다른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선 작업으로 현 갈옷 천을 붙이거나 감물을 들인 것이다.

(6) 바 만들기와 이불갈개에 감물 들이기

제주에서는 현 갈옷을 잘라내어 꼬아서 여러 용도의 바(끈)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짚보다 훨씬 튼튼하여 사용하기 좋았다고 한다. 또한 짚과 함께 꼬아서 만들면 더욱 튼튼하고 질긴 바가 만들어졌다.

• 옛날에는 그 갈옷 혈민 복복 부러근에 베 꼬와났저. 옛날엔 짚베 엇이민, 어

275 김갑생(남원읍 신흥2리) 구술 자료.
276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류민이 옛날에 논 엇인 사름들은 짬덜이 어렵주게. 경허민 그거 부러근에 짬에 서경 베 꼬와근에 허민 질기주게, 아멩해도 짬보다는.(옛날에는 그 갈옷 할면 박 박 찢어서 바 꼬았었어. 옛날엔 짬바 없으면, 어려우면 옛날에 논 없는 사름들은 짬들이 어렵지. 그러면 그거 찢어서 짬에 섞어서 바 꼬아서 하면 질기지, 아무래도 짬보다는.)²⁷⁷

또한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들여서 이불갈개로 쓰거나 애기구덕 바닥에 깔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 이것이 미녕이라. 나 이거 감들연에 깔앙 넓주게, 여름에. 겨울에 이거 못 깔아 놓네다. 차가와. 감들여 부난.(이것이 무명이야. 나 이거 감들여서 깔고 놓고 있지, 여름에. 겨울에 이거 못 깔고 놓는다. 차가워. 감물들여 버리니까.)²⁷⁸

- 베치마 그거 해근에 이디 여름에 틀엉 저 나도 미승 잇으니까 그거 해영 이디 깔앙 녹는 거, 소락하게. 베에 감 맥영. 이불에는 안 허고 까는 거에만. 물론 영 허당 보민 더끄기도 허주게.(베치마 그거 해서 여기 여름에 뜯어서 저 나도 재봉틀 잇으니까 그거 해서 여기 깔고 놓는 거, ‘소락하게’. 베에 감물 먹여서. 이불에는 안 하고 까는 거에만. 물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덮기도 하지.)²⁷⁹

- 상복 허단에 나쁜 베덜 이신 거 감물들연에 여름에 깔아 놓고, 더퍼 넓주게. 경 해난 나중에 별아가난 거멍헤가난 데껴 붙언.(상복 하다가 나쁜 베들 있는 거 감물들여서 여름에 깔아 놓고, 덮고 누웠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빨아 가니 거메 가니까 던져 버렸어.)²⁸⁰

- 나 우리 손지 베 해근에 감들연에 저 뭇고? 아래 꺾는 거. 지성귀 꺾치 영 꺾는 거. 구덕에 거 헤짚주. 여름에. 거 애기구덕에 까는 거. 그거 감들여근에.(나 우리 손자 베 해서 감들여서 저 무엇이니? 아래 까는 거. 기저귀 같이 이렇게 까는 거. 요람에 거 해짚지. 여름에. 거 요람에 까는 거. 그거 감들여서.)²⁸¹

- 겨울에 차가왕 못 입어예. 여름밖에. 이거 나 꺾는 것도양, 막 차가웁니다. 여름에벳기 못 깔아 놓는다. 밤엔 차가운 건 꺾라. 차가우난 여름에만 갈옷 입영 뎡겨나수게.(겨울에 차가워서 못 입어요. 여름에밖에. 이거 나 까는 것도요, 아주 차갑습니다. 여름에밖에 못 깔고 놓는다. 밤엔 차가운 것인지. 차가우니까 여름에만 갈옷 입고 다녔었습니다.)²⁸²

277 임중은(서귀포시 천지동) 구술 자료.
 278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279 이정숙(구좌읍 덕천리) 구술 자료.
 280 이순자(대정읍 신평리) 구술 자료.
 281 현봉래(구좌읍 월정리) 구술 자료.
 282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위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무명이나 베에 감물염색을 한 천은 베나 감물의 찬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애기구덕’이나 ‘요람’에 까는 천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불로 사용할 때는 주로 갈개로 이용하였다. 이

(7) 현재진행형인 감물 들이기 응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종 생활도구나 생활재에 흰 갈옷이나 감물들이기 전승 지식을 활용하는 전통이 제주에서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감물들이기 전승 지식의 응용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 무형문화재 ‘정동별립’ 송월순 전승교육사는 20여 년 동안 과수원에서 사용해온 정동별립 모자가 농약에 의해 허영게 바래게 되자, 옷에 감물 들이고 남은 감물을 활용하여 정동별립에 감물을 발랐다. 이렇게 감물을 들이고 나니 마치 새것처럼 쓸 수 있게 되었다²⁸³는 것이다.



〈사진 60〉 감물들이 정동별립(송월순 전승교육사 소장)

위 정동별립의 사례와 같이 제주도 사람들은 갈옷과 감물들이기 전승 지식을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 응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갈옷문화를 21세기 현재에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3) 갈옷 관련 구비전승과 공동체문화

제주도 사람들은 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갈옷과 관련하여 다양한 명칭과 쓰임새에 따른 풍부한 언어전승을 이루어왔다. 또한 일화, 전설, 민요 등 구비전승 자료가 일부 전하고 있으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문화로서 갈옷문화를 전승해왔음이 확인된다.

(1) 갈옷과 관련한 구비전승

제주 갈옷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몇몇 이야기와 민요, 향언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갈옷 덕분에 목숨을 구한 이야기, 오뉘힘내기 전설, 갈굼중이의 속옷 전통에서 노동복으로의 변신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영조(英祖) 39년(1763) 안덕면 창천리 사람 강위빙(姜渭聘)이 한양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을 때 입고 갔던 갈옷 덕으로 특별히 사면(赦免)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沈來復이라는 사람이 英祖 39年(1763) 李麟佐亂에 연유되어 大靜面 柑山里에 유배왔다. 그는 마을 사람 姜翊周(姜別將, 座首)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沈이 그해 8월에 서울로 압송되는데 이때 姜渭聘도 연유된 혐의로 同行하게 된다. 姜渭聘이 太僕寺에서 裸體로 심문 받게 되었는데 判官이 그가 입은 갈옷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묻자 ‘이것은 濟州 農夫의 옷인데 밭일을 하는 날 갑자기 王命이 내렸으므로 벗을 겨를이 없이 그냥 왔다’고 했다. 그 事情을 들은 判官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임금께 여쭙어 赦免받았다.²⁸⁴

제주 사람 강위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주의 정체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갈옷이 목숨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제주인의 갈옷에 대한 자부심과 육지부에서의 갈옷에 대한 호기심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이다.

다음으로는 ‘오누이힘내기 전설’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서귀포시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전설이다.

그때에 씨름 하는 제주 성내(城內)로 가 각리(各里)선 간. 씨름 흥영. 상급(상급)을 미녕(무명) 두 필인가 준명 영 하니(준다고 이렇게 하니), 씨름 이긴 사름 안티(에게). 씨름을 가민 고대각이 늘 평생 이겨. 그런 힘을 당할 자가 없어. 뭐 아무라도 가민(상대하면) 흥 번 잡아 두르민, 고대각이 이겨 버려. 늘 상급을 받는다. 지 누이가 생각하길, 저놈이 기십을(기개를) 좀 죽이지 아니하민 나중에 남의 밭질이나 맞일까브덴(맞을까봐), 역블(일부러) 기십을 좀 죽이꼭 흥젠, 흥 번은 씨름을 흥덴 하니, 고대각 누이가 남자 이복을(남장을) 하고. 남자치룩(남자처럼) 헤영 씨름을 흥다 하니 씨름 흥는디 갔주. 씨름판이 고대각이 거름 독판을 몰아오는다. 그때 고대각 누이가 간가(가서는) 씨름을 흥는디, 오누 씨름인즉, 하지 오라방 고대각 누이가 그만 잡아늑져 부리난. 상급을 고대각 누이가 타버리고, 고대각은 날 이길 사름이 없는디. 나를 이길 자가 누군고. 고대각이 집에 완,

“오늘은 어땜 되여시니?”

“독판을 몰아오는다 어떤 사름이 나산 날 이겨 버립디다.”

이젠, 그 상급 탄 것 내노왕(내놓아서),

“이거 가져가서 갈중이(갈옷)나 헤영 입으라. 너 나중에 남의 밭질이나 맞을까봐 너영 씨름 흥 건 나여.”

“경이나 흥주. 날 이길 자가 없는디.”

고대각 누이 배인 때는 쇠 열 두 마리를 잡아먹었고, 고대각은 아홉 마리를 먹어시난 누이가 심이 켜였주.²⁸⁵

284 고병오·박용후 공편, 『元대정읍지』, 박문출판사, 1968, 122쪽(고부자,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4, 40쪽에서 재인용).

285 김택호 구술 “흥리 고대각”,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3, 383~384쪽.

위 이야기는 <홍리 고대각> 전설인데, 남동생보다 힘이 센 누이가 동생이 자기 힘만 믿고 실수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씨름판에 나가 동생을 이긴다는 내용이다. 이때 상금으로 받은 무명을 동생에게 주며 ‘갈중이나 해서 입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무명으로 갈옷을 만들어 입는 문화가 보편화되었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제주의 <보리타작소리> 민요에 등장하는 갈옷 관련 사설이다.

저 바당에 / 어야도 하야
 고기는 / 어야 흥아
 쫄지 놀련(놀리면서) / 어야 흥아
 흥아 망아 / 어야 흥아
 놀건마는 / 어야 흥아

우리 농부 / 어야 흥아
 유월 영천(염천) / 어야도 흥아
 요 피 땀 흘리멍 / 어야도 흥아
 요 보리가 / 어야 흥아
 다 적진다 / 어야 흥아
 용길 내고 / 어야도 흥아
 때려 보자 / 어야 흥아
 어야 흥아 / 어야 흥아
 어야흥 / 어야도 하야

우리 농군 / 어야도 하야
 피 땀 흘리멍 / 어야 흥아
 애 터지게 / 어야 흥아
 하당 봐도 / 어야 흥아
 갈중의 증뱅이²⁸⁶ / 어야 흥아
 벳을 시간 / 어야흥아
 없이 퍼들언²⁸⁷ / 어야도 흥아
 주알 모르게 / 어야도 흥아
 요농사여 / 어야도 흥아
 어야흥 / 어야도 하야
 가련하다 / 어야도 하야²⁸⁸

위 <보리타작소리>에 등장하는 ‘갈중의와 증뱅이’는 제주의 고된 노동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피땀 흘리며 애가 타게 일해도 노동복으로서 갈중의를 벗을 시간 없이 밤낮으로 고생하는 가련한 형편을 노래하였다.

286 감물을 들인 증의와 잠방이.

287 ‘퍼들다’는 정신없이 마구 달려들어 일을 해내다는 뜻이다.

288 김영순(여, 67세, 대정읍 하모2리), <보리타작소리>(1989. 5. 24. 채록), 『한국민요대전』 ([https://urisori.co.kr/urisori-origin/doku.php?id=jj:namjeju:namjeju-0506&s\[\]=%EA%B0%88%EC%A4%91%EC%9D%98](https://urisori.co.kr/urisori-origin/doku.php?id=jj:namjeju:namjeju-0506&s[]=%EA%B0%88%EC%A4%91%EC%9D%98)).

제주 갈옷과 관련해서 노동복으로서 성격이 드러나는 향언이 전하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犬] 날, 돛[帆] 날 갈증이 벗일 날 엿이 놓드단 보난 저승질이 얹이러라!”²⁸⁹

위의 말은 ‘매일 같이 갈옷을 벗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 보니 벌써 죽을 날이 되었다’는 뜻이다. 앞서 제시한 민요의 사실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주도 민들에게 ‘노동’과 ‘고생’이라는 이미지가 갈옷에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갈옷은 제주도민들의 고된 노동과 함께 해왔고, 특히 여성의 경우, 속옷으로 여겨지던 굴중의를 노동복으로서 갈굴중의로 탄생시키는 등 제주만의 고유한 갈옷 문화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2) 갈옷 관련 공동체문화

감물들이기 과정은 일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장소 또한 대부분 집안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집단 중심의 공동체문화가 나타난다. 또한 감물들이기와 관련된 공동체적 관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원료가 되는 감에 대한 채집이나 구입, 이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하여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독특한 공동체적 관행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 (감물 들일 때) 혼자 허고 동네 사름들도 완 그치 허연. 그찌덜 허영 남으면 옷덜 더 갖당덜 들이렌 허영덜 들이고 수눌어 가명덜 같이 허메. 같이 해. 앞집 이도 같이 허고.((감물들이기 때) 혼자 하고 동네 사름들도 와서 같이 했어. 같이들 해서 남으면 옷들 더 갖다가들 들이라고 해서들 들이고 품앗이하 가면서들 같이 해. 앞집에도 같이 하고.)²⁹⁰

• 어린 때들은 영 메여 앓아근에 동네 사름들도 들일 사름 시른 그치 앓앙 허 곡 경 안 허면은 그자 이녁만씩 허고 경 해났수다. 한 동넛 사름들 들이젠 허민 영 그치 수눌명 들이젠 허면 한 서너, 네 사름? 경행 해나수다.(어릴 때들은 이렇게 모여 앓아서 동네 사름들도 들일 사람 있으면 같이 앓아서 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자 이녁만씩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동네 사름들 들이려고 하면 이렇게 같이 품앗이하면서 들이려고 하면 한 서너, 네 사람? 그렇게 했었습니다.)²⁹¹

감물들이는 작업은 대부분 공적 장소가 아닌 가정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가정집에서 소집단 규모로 몇 가구 정도가 모여서 행해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갈옷의 원재료인 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구가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물물교환 하여 이 감을 가지고 공동으로 감물들이기를 한 사례도 나타난다.

289 고부자(제주시 노형동) 구술 자료.

290 이순자(대정읍 신평리) 구술 자료.

291 강대선(성산읍 신산리) 구술 자료.

• (감은) 삼달리도 가 사곡, 동네서도 또 시민. 또 이녁 집이 신 사름은 이녁 거 탕 오곡, 경허명 해낫수다게. ((감은) 삼달리도 가서 사고, 동네에서도 또 있으면. 또 이녁 집에 있는 사람은 이녁 거 따서 오고, 그러면서 했었습니다.) (감을 구하는 거는) 사다근에. 7치 사근에게 뒤로 갈라근에들. ((감을 구하는 거는) 사다가. 같이 사서 뒤로 갈라서들.)²⁹²

제주 갈옷과 관련한 공동체 생활 규범도 나타나는데, 주민들이 오가는 공도(公道)에서는 갈굴중이만 입고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검은색이나 흰색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즈미 세이치는 “갈굴중의 바람으로 농사와 기타 노동에 종사할 수는 있으나 길에서는 반드시 이 위에 치마(백 또는 흑)를 입지 않으면 실례가 된다. 그런데 조천면 함덕리에서 동쪽의 해촌 여자들은 이를 안 지키기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로 부터 비난받고 있었다”²⁹³고 기록하였다. 공동체 삶에 있어서 노동복으로는 갈굴중의를 입지만 공식적인 주민들간의 접촉이 예상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위에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규범이 전승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되며 이러한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복으로서 갈옷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갈옷 착용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갈옷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제주인들이 갈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고유의 전통복식으로서 갈옷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제주의 여러 민속보존회 활동이나 각계각층의 축제를 통해서 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갈옷 관련 제조, 판매, 교육, 체험, 전시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제주도에만 73곳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천연염색협회, 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 등 여러 자생 단체도 생겨나며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갈옷의 전승과 관련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나타나는 유의미한 특성은 갈옷이 각 부문의 크고 작은 공동체의 ‘결속’의 매개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주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각 문중이나 가족 단위로 별초를 하게 되는데, 특히 문중의 별초인 ‘도소분’을 할 때에 마치 유니폼처럼 갈옷을 입고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한 제주의 여러 마을에는 민속보존회가 결성되어 전통문화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갈옷이 공식적인 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을 위한 의복에서 공동체의 상징적 결속을 위한 의복으로 그 기능과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92 강대선(성산읍 신산리) 구술 자료.
293 이즈미 세이치, 김종철 옮김, 『제주도』, 여름언덕, 2014, 243쪽. 다른 번역본에서는 “굴중이 모습으로 농사 그 밖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지만 공도(公道)에서는 반드시 이 위에 흰거나 검은 치마를 입지 않으면 결례가 된다. 그러나 조천면 함덕리로부터 동쪽의 해촌 여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즈미 세이치, 홍성목 역, 『제주도』, 제주문화, 2010, 310쪽.

IV.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

1.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 발굴

1)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

무형유산의 역사성은 대상 종목의 형성과 유래에 관한 것으로 조사지표는 ‘전승된 기간’과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이다. 그런데 형성과 유래를 민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예능은 유물이나 문헌 등을 통해 해당 종목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경우가 드물어 주로 구술 증언에 의존한다. 그러나 구술은 개인의 기억 오류와 망각, 사실의 왜곡과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 제주 갈옷의 경우에는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적 문헌 자료와 그 변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 자료가 있고, III장에서 현지 제보자들의 구체적인 구술을 확보하고 있어 그 역사성을 구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조선 시대 제주의 안무어사였던 김상헌이 『남사록』에 적은 제주의 토종감에 대한 기록을 시작으로, 조선 후기(1728-1729년) 제주에 유배되었던 윤봉조의 『포암집』에 실린 ‘도중잡영’ 시를 통해 제주에는 여름에 감물들이기 풍속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특히 제주목사(1765-1766년)로 일했던 윤시동의 『증보탐라지』(1765)에 따르면 감물들이 옷은 검붉은 색상으로 내구성, 방부성, 방오성, 방수성 등이 높은 제주 농부의 옷임이 확인된다.

베잠방이에 푸른 감의 감물을 들이면 그 색이 검붉은데 비록 열흘이나 한 달을 빨지 못해도 땀으로 더러워진 줄을 모르니 농가에서 더욱 즐겨 입는다.¹

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남녀의 전통 복식 중에서 갈옷은 노동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의 노동환경에 최적화된 기능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에 제주를 조사한 겐쇼 에이스케의 『제주생활상태조사』 보고서, 1937년에 제주를 조사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 자료, 1920년부터 1940년대 신문에 실린 제주 방문객들의 기행문을 살펴볼 때, 일제강점기에도 감물들이 옷은 제주도 성인 남녀들이 생업 현장에서 착용하는 노동복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착용자의 성별과 착용 부위에 따라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통칭하는 전통적인 현장 명칭인 ‘감옷’과 함께 ‘갈옷’이란 명칭이 193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 말기에는 갈굴중의 대신 일본에서 들어온 몸빼에 감물을 들인 ‘갈몸빼’가 널리 착용되었다.

1차 산업이 지배적이었던 1950년대까지도 제주에서는 감물들이기가 성행하고 한복과 몸빼에 기본 토대를 둔 갈옷이 착용되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감소와 화학섬유산업의 발전에 따라 제주에서도 나일론 옷이 대중화 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 ‘자급자족의 감물들이기와 갈옷’은 농어촌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자급자족의 감물들이기와 노동복으로서의 갈옷은 새마을운동으로 농촌 현대화가

1 윤시동,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김영길 번역본). 以短褐嘗染青柿水 其色赤黑, 雖旬月不濯 曾不汗汗, 農家尤爲好着.

추진되고, 전통문화가 급격하게 상실된 1970년대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업 방식의 도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제주 갈옷은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한복과 서양복 형태의 상품화된 갈옷으로 등장하여 다양화되는 한편, 감물들이 천을 이용하여 패션 소품과 생활용품까지 제작하게 됨에 따라 감물들이기의 쓰임새가 더욱 확장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상품화된 갈옷은 노동복 용도로 착용되었던 감물들이 옷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성격이 패션상품이자 지역문화상품으로 전환되어 제주 사람은 물론 제주 방문객들의 소비를 통해 현재까지 창의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갈옷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감물들이기가 업체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염색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되었다.

제주의 감물들이기 풍속과 감물들이 옷의 역사는 적어도 300년 넘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성이 구체적인 고문헌과 신문기사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감물들이 옷은 조선 시대 제주의 농경사회와 지역의 풍토와 풍속의 일면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감물들이 옷의 용도와 성격의 변화 및 시대적 변천 양상은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화학섬유산업의 발전, 새마을운동과 농촌의 현대화 정책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측면에서는 제주도 농업방식의 변화, 산업구조와 종사인구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 제주의 근현대 역사와 맞닿아 있다. 특히, 노동복 용도의 제주 갈옷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패션상품과 지역문화상품으로 전환되어 재창조되며 제주 사람은 물론 제주 방문객들에게 시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 역시 높다.

그동안 제주 갈옷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은 제주도의 향토 복식문화로서 주목이 이루어져왔다. 제주 갈옷과 관련한 학술논문이 116편, 학위논문 34편, 제주 갈옷 내용이 포함된 단행본 41권 등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인문사회적 주목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접근도 상당히 이루어져 제주 갈옷의 우수성과 활용성, 지속가능성 등이 입체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갈옷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갈옷의 친환경성 등 여러 응용분야로 학술 연구도 확장되고 있다.

200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10대 문화상징물을 선정했는데,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4.3,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 등이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자연 분야 23개, 역사 분야 23개, 사회 및 생활 분야 28개, 신앙 언어 예술 분야 25개 등 99개의 문화상징도 선정하였다. 당시 10대 문화상징으로 선정된 갈옷에 대해서는 ‘뽕감즙을 들인 전통적인 노동복’, ‘뽕감즙을 들인 노동복으로 제주인의 생활의 지혜가 엿보이는 복식유산’ 등으로² 설명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자료(2008. 3. 20.)

2) 기술성

제주는 섬 한가운데 한라산을 두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섬이다.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에게 농업 활동은 어업과 목축보다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생업 활동이다. 조선시대의 감물들인 옷은 농부의 옷이란 점에서 갈옷은 제주 사람들이 척박한 농토에 적응하여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활문화로 제주의 농경문화와 연계되어 있다. 제주의 토양 대부분은 화산섬이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화산 폭발로 나타난 화산재가 퇴적층을 이루어 형성된 화산회토(火山灰土)로 구성되어 있다. 다공성이 특징인 화산회토는 입자가 가벼워서 모래나 먼지처럼 바람에 쉽게 날릴 뿐만 아니라 수분을 함유하지 못해 점착력이 약하고 건조한 특성으로 척박한 농토의 원인이기도 하다.

제주의 감물들이기가 어망, 가구, 어선, 건축 등의 생활용품이나 생활공간에 감물을 칠하는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주변 나라와 달리 농부들의 옷을 감물들이는 데 특화된 것 또한 제주의 이러한 화산회토가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주 사람들은 감에 들어 있는 탄닌 성분에 의해 생기는 감물의 결착성에 의한 내구성, 방오성, 방부성 등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과 이러한 지식의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농업 활동에서 감물들인 옷을 노동복으로 활용하는 지혜, 곧 전승 지식을 축적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이외 육지부 지역에서 전통적인 노동복은 흰옷, 제주도 지역에서 전통적인 노동복은 갈옷이다. 제주도 이외 육지부 지역에서 흰옷 노동복과 제주도 지역에서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은 과학적인 해석이 요망된다. 그러나 보편적인 탄생 배경은 토양 조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 이외 육지부 지역은 사질토, 제주도 지역은 화산 점질토이다. 사질토는 흰옷에 흙물이 들어가도 쉽게 흙물이 들지 않지만, 화산 점질토는 흰옷에 흙물이 들어가면 쉬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 제주도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갈옷은 화산섬 제주도 풍토에서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의 문화유산인 셈이다.³

특히,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일조량이 높고, 강수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드는 토질 때문에 물이 부족하였다. 부족한 물이라는 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물로 감물 염색하는 방법이 더욱 발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음력 7월 백중 전후로 1~2주 기간 동안 감물들이기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했음도 주목된다.

제주도의 감물들이기는 돌과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감물들이기에서 강조되는 '바래기' 과정은 제주의 이러한 지역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승 지식이라 할 수 있다.

3 고광민,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센터, 2023. 7. 10., 121쪽 참조.

갈옷이 가진 최상의 질은 바래기에서 결정된다. 밤에 노릇(이슬)을 맞으면 최상의 작품이 나온다. 이슬이 내리는 쾌청한 밤에 주로 늘(날가리) 위에 편편하게 널었다. 일손이 귀할 때나, 밭이나 들일을 갈 때도 가지고 가서 잔디나 돌 위에

서 말했다. 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물허벅을 지고 갔다. 바래기는 앞면이 햇볕에 완전히 마르면 뒷면으로 뒤집어 낸다. 이때 앞면과 뒷면이 완전히 마르면 물에 푹 적시면서 바래는데, 앞과 뒤 뒤집기는 마르는 대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 바래는 과정이 더해 갈수록 흰색이 점차 발강게 붉은 벽돌색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날씨가 시간,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쯤 걸린다. 이때 비가 계속 오거나 장마가 끼면 한 해 갈옷 농사를 망치게 되고 만다. 감염의 탄닌성분은 제때에 제대로 바래지 못하면 갈옷 본연의 상큼하고 칼칼한 맛과 빛깔을 잃고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불품없는 태깅이 되어버린다. 내가 직접 만들고, 완성한 갈옷 중에서 마음에 든 것은 매우 드물다.⁴

제주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한 감물들이기 기술은 햇볕과 바람, 이슬 등이 빚어낸 연금술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부적인 여러 전승 지식이 활용되었는데, 감물들이기 전에 옷을 뒤집어서 감물에 치대는 과정, 감물들이 옷을 잘 펴서 고르게 염색되도록 하는 손보기 과정, ‘눌’(가리)이나 지붕, 잔디밭, 돌담 등에 널어 말리는 과정과 물에 적셔 바래기를 반복하는 과정 등이다.

바래기 과정에서 소금기를 머금은 제주의 바람이 매염제로 작용해서 발색과 여러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갈옷은 제주 지역의 덥고 습기가 많은 해양성 기후와 척박하고 물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통기성이 좋고 습기에 강하며, 방부 기능이 있어 땀에 젖은 옷을 그냥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또한 가시 같은 잡물이 붙지도 않으며 잘 헤지지 않는 질긴 성질을 갖고 있다.

제주 갈옷은 그 기술성을 인정받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통기능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전통기능전승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갈옷이 포함되었다. 1차 사업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31개 종목, 2차 사업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28개 종목이 선정되었다. 갈옷만들기는 2차 사업이었다. 갈옷 전반에 대한 현장 실사(實事)에 의해 2001년 감물염기전승자로 이인선(1932년생, 서귀포시 강정동), 계승자로는 오운자와 송연심이 지정되었다.⁵ 이로써 감물염은 염색분야로 전국에서 쪽염과 함께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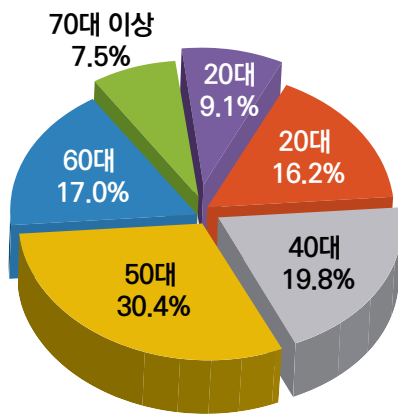
3) 대표성 및 지역성

제주 갈옷에 대한 도민 인식도 확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의 제주도민이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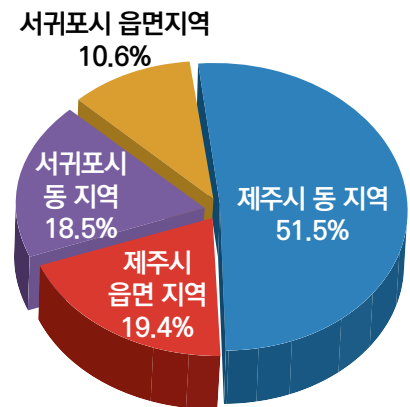
이 설문조사에서는 제주도민 414명, 갈옷 업체 50곳 등 총 464명이 참여하였으

4 고부자,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센터, 2023. 7. 10., 7~8쪽,
5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의 슬기와 기능 이렇게 이어간다』, 2006. 2.
6 고부자, 앞의 글, 12~13쪽 참조.

며, 설문 내용은 '제주 갈옷 관련 인식도'와 '제주 갈옷의 문화재적 가치', '제주 갈옷의 활성화와 대중화 방안' 등에 대한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41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92명(19.8%), '60대' 79명(17.0%), '30대' 75명(16.2%), '20대' 42명(9.1%), '70대 이상' 35명(7.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제주시 동(洞) 지역이 239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 읍면 지역 90명(19.4%), 서귀포시 동(洞) 지역 86명(18.8%), 서귀포시 읍면 지역 49명(10.6%)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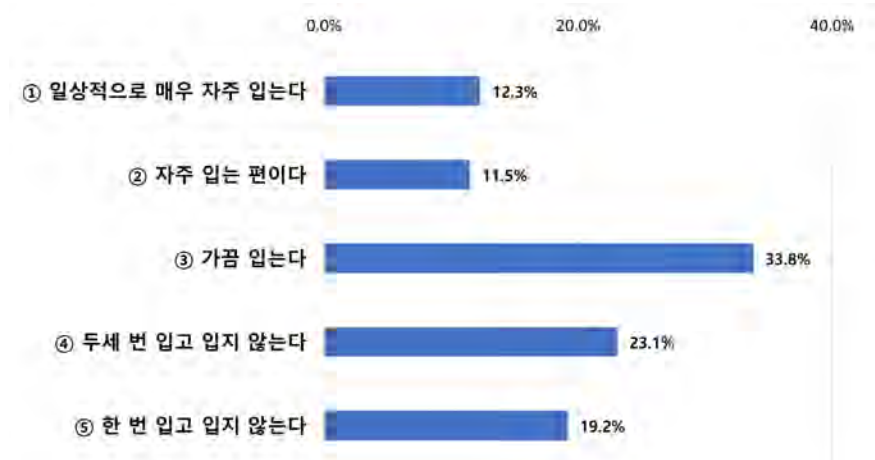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대 분포



〈그림 3〉 거주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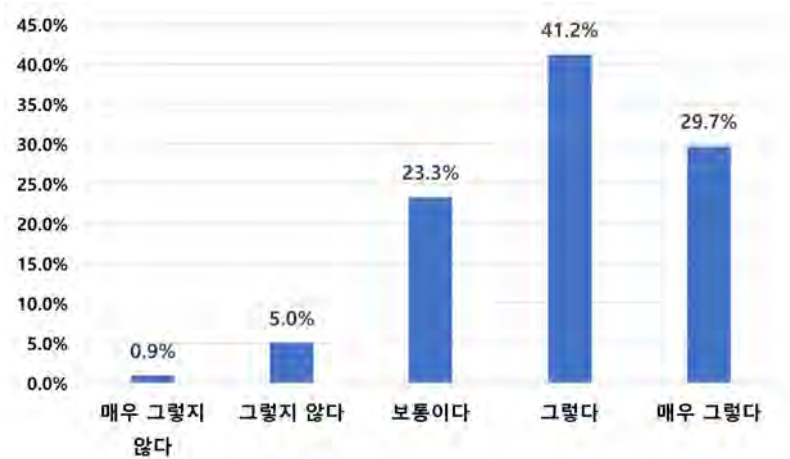
먼저 '제주 갈옷 인식도'와 관련하여, '제주 갈옷을 입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464명 중 260명(56.0%)이 입어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들 260명을 대상으로 '제주 갈옷을 얼마나 자주 입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끔 입는다'가 88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일상적으로 매우 자주 입는다' 32명(12.3%), '자주 입는 편이다' 30명(11.5%) 등 여전히 57.6%의 도민이 가끔씩이라도 제주 갈옷을 입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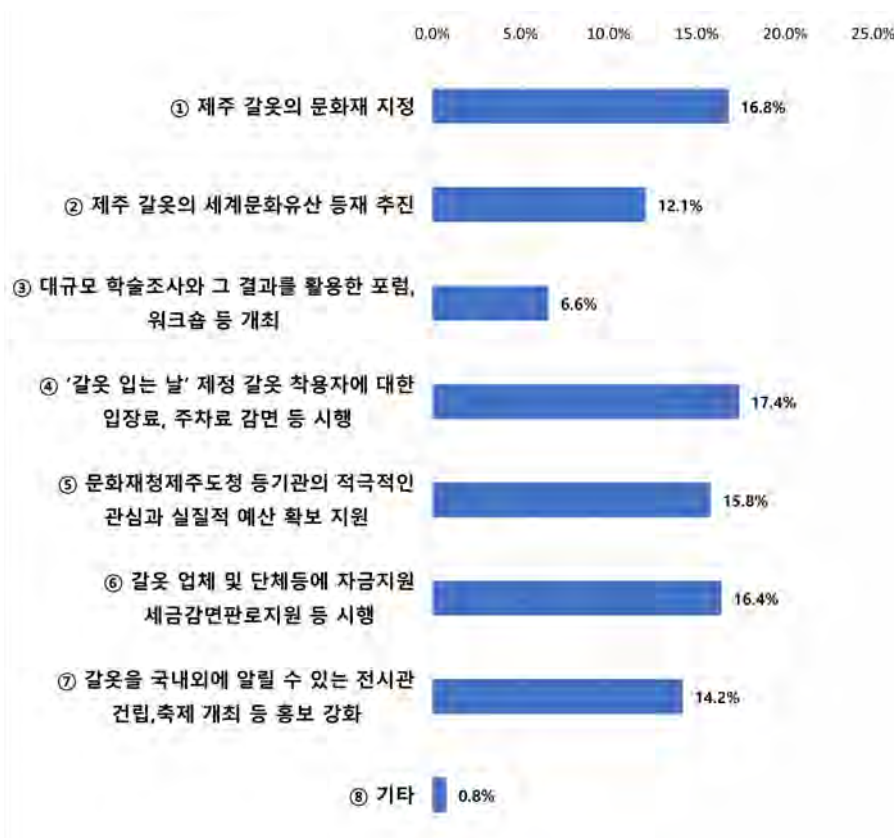
〈그림 4〉 제주 갈옷을 얼마나 자주 입는지 분포

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제주 갈옷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많은 도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19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 138명(29.7%), ‘보통이다’ 108명(23.3%), ‘그렇지 않다’ 23명(5.0%), ‘매우 그렇지 않다’ 4명(0.9%) 순으로 나타났



〈그림 5〉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문화재 지정 필요



〈그림 6〉 제주 갈옷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노력 분포

7 제주 갈옷, 문화재 지정 가치 있다, 「제주신문」, 2023. 6. 21.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_View.html?idno=2203659

‘갈옷’ 무형유산 지정될까...도민 70% 공감, 「제민일보」, 2023. 6. 21.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no=756866>

제주도민 70% “‘제주 갈옷’ 문화재적 가치 높아”, 「제주일보」, 2023. 6. 21.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no=207901>
지속가능한 패션의 전통 ‘제주 갈옷’ 가치 재조명, 「제주매일」, 2023. 6. 21.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no=327452>

“제주 정체성-친환경 생활문화 ‘갈옷’ 무형문화재 지정돼야”, 「제주의소리」, 2023. 6. 21.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no=416247>

제주도민 70% “제주 ‘갈옷’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라일보」, 2023. 6. 21.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87313365743595036>

제주도민 70% “전통의복 갈옷 문화재 지정돼야”, 「연합뉴스」, 2023. 6. 21.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062500056?input=117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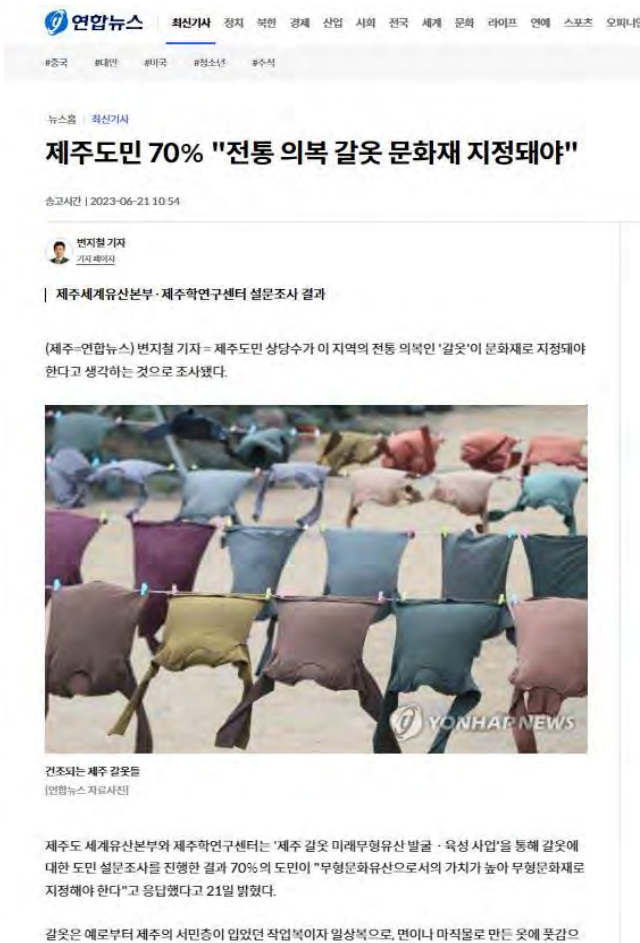
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은 70.9%인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응답은 5.9%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65.0% 더 높게 나타나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갈옷의 전승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복수 응답(반응 빈도 916)에서는, ‘갈옷 입는 날 제정 및 갈옷 착용자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감면 등 시행’이 159명(17.4%)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 갈옷의 문화재 지정’ 154명(16.8%), ‘갈옷 업체 및 단체 등에 자금 지원, 세금 감면, 판로 지원 등 시행’ 150명(16.4%), ‘문화재청, 제주도청 등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예산 확보 지원’ 145명(16.4%), ‘갈옷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전시관 건립, 축제 개최 등 홍보 강화’ 130명(14.2%) 등으로 나타나, 제주도청 및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문화재 지정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 내외 여러 언론에서도 무형문화재 지정 여



〈사진 61〉 연합뉴스 및 한라일보 기사

론을 알리고 확산하는 데 참여했다.⁷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 갈옷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과 생활 속에서 영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을 계기로 제주의 정체성을 오롯이 간직한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제주인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갈옷문화’로 확장된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는 전통으로 회귀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옛 전통 대로 갈옷문화를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전승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사회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성

예전 전통사회에서 제주 여성들은 경조사나 외출 시에 겉에 외출복을 입어도 안에는 갈옷을 입었는데, 이는 외출을 하더라도 바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함이며 노동과 밀접한 제주인의 삶을 잘 보여준다. 또한 공동체적 규범을 갈옷 문화에 적용시켜 갈옷 착용 관습을 만들고 지켜온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1935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 기행문에는 “일할 때에는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 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가도 외출할 경우에는 말숙한 한산세모시를 갈어입고는 머리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선다”⁸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제강점기 전후에는 감물들인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제주 갈옷은 국내에 등장한 생활한복 열풍과 연계되어 ‘우리 옷’을 대표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외래문화의 범람 속에서 반독재 민주주의와 문화 민족주의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당시 생활한복은 한국적인 옷을 대표하는 스타일이었으며, 이때 감물염색 소재로 제작된 생활한복 스타일의 제주 갈옷은 가수 은희가 갈옷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봄데강’ 브랜드의 갈옷을 서울에서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소개되고 홍보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바탕이 공고해지면서 제주 갈옷에 대한 관심과 확산은 더욱 커져갔고 이때쯤부터 갈옷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대거 생겨나게 되었다. 당대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산업적 이해가 만나게 되면서 갈옷을 바탕으로 한 풍부하고 다양한 전통 기반의 옷문화가 창출되었고 산업적으로도 양장 중심의 패션업계에 일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패션계에서의 관심과 고급화 및 신상품 개발 전략이 뒤따르게 되면서 개성 있고 고급스러운 패션으로서 갈옷과 가방, 모자, 스카프, 양말, 인형, 벽지, 장판지, 이불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또한 감물염색에 다른 천연염색 기법을

8 권덕규, 「동아일보」, 1924. 8. 29.

융합하는 혼합염색 등도 활성화되었고, 환경오염, 아토피 피부질환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입성거리로서 제주 갈옷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더욱 증대되었다.

노동복으로서 갈옷의 성격이 계속 이어져 왔고 공동체적 규범으로서 여성의 외출 시에 갈옷 착용을 제한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속옷의 일종인 옷감에 감물을 들인 갈굴중의가 여성의 노동복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노동할 때의 일복으로서 갈옷과 외출복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갈옷 위에 치마 등을 걸쳐 입을 수 있도록 한 점도 공동체적 규범을 지키면서도 일과 일상생활의 전환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전승 지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5) 지속가능성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해당 무형유산의 통시적 공시적 지속성이다. 통시적 지속성은 해당 무형유산의 전통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되어 오면서 해당 공동체에 뿌리내리고 체화되어온 전승력에 의해 앞으로의 연속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공시적 지속성은 해당 공동체 속에서 무형유산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의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적, 친환경적 지속에 대한 전통과 미래 관련 내용이다. 해당 종목이 담지하고 있는 인류보편적인 공동선을 위한 최소한의 탄소 배출 등의 전승 지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H&M, 리바이스 등 유명 브랜드조차 천연염색 제품을 출시하고 홍보 중이다. 대형 패션 업체들이 천연염색 등 친환경 제품을 한정판으로 출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배경에는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은 장기적으로 자연을 손상시키거나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 패션업체들이 ‘지속 가능한’에 민감한 이유는 “섬유패션산업이 ‘지속 가능한’을 위협하는 주범이다”라는 많은 보고서와 무관하지 않다.⁹

제주 갈옷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전통과 역사성, 전승력과 전승 지식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변화해가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3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환경 속에서 가장 탄소중립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방식을 고수해오며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자.

갈옷은 실용, 위생, 경제, 재생, 재활용, 친환경 등 효용 가치가 탁월한 옷이다. 그 중에서도 입던 옷이 낡으면 다시 감물을 물들여서 바래 입었다. 이 옷들이 낡으면 재활용거리로, 또는 살림살이 도구들을 재생시키는 보수용으로, 마지막엔 아궁이 불쏘시개로 끝났다. 갈옷은 마지막까지 천연무공해자원으로 마감되었던 것이다. 제

9 허복구,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센터, 2023.7.10., 97쪽.

주 갈옷은 일 년쯤 입으면 색이 칙칙해지고 촉감이나 강도도 약해지게 되어 그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낡은 갈옷에 다시 감물을 들이면 색이나 강도가 좋아져서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에는 면으로 만든 모든 옷에 감물을 들이게 되었는데, 러닝셔츠와 메리야스 등 속옷부터 운동복, 와이셔츠, 군복 등에 감물을 들여 입게 되었다.¹⁰

이렇게 갈옷의 전통을 이어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확장하여 활용하게 되면서 갈옷과 감물들이기는 제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고유의 생활문화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아버지가 입다가 낡은 갈증이는 재활용거리로 초생아의 몸을 싸는 첫 싸개로 쓰였다. 아기 배꼽 정리를 마치면 갈증이를 바다에 띄우고 아기 머리를 갈증이 가랑이 밑 사이에 놓힌 다음 두 가랑이로 몸을 엮갈려 덮고 싣는다. 다음으로 아기 발 쪽에 있는 허리말기는 아래서 위로 올려 덮고 감싸면 몸과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어깨에 바람도 들지 않는 완벽한 싸개이자 옷이 되었다. 제주에서 초생아의 목욕은 3일 만에 시켰다. 물이 귀하고 산모의 산(産) 처리나 산바라지는 물론이고, 아기만을 돌볼 여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갈색으로 변한 낡은 갈옷은 아기의 연한 살갗에 닿았을 때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이라 잘 맞으며, 목욕을 시키지 않은 채 피와 자궁 안의 오물이 영킨 아기(“핏덩이”이라 했다)를 싸두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초생아 싸개는 물론 특히 남아(男兒)에게 사용되는 물건들은 철저히 남성 것으로만 했다.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자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이라 했다. 특히 갈증이는 생후 첫피복거리이므로 더 각별했다.¹¹

제주에서 갓난아기의 첫 싸개로 아버지의 헌 갈증이를 사용했던 전통은 갈옷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고 부친의 양기가 담겨 있다고 믿으며 초생아의 건강을 기원하는 유감주술적 관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켜켜이 쌓여온 경험치를 바탕으로 헌 갈옷이 초생아의 위생을 지켜주고 감염을 막아주며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속가능한 전승 지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보편적인 문화로 지속되지는 못했던 듯하다. 여러 어른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일반적인 집에서는 하지 않았고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되었다고 한다.

(조사자: 이 갈천으로 물애기 태어나근에 처음 이렇게 싸개로 싸거나 허지는 안해마썸? 막 막 부드럽게 헌?) 아이고, 옛인 사람들은 허주기게. 웬만해 가지고는 사람들은 안 허주게. 이런 것들은 누게 말제간이나 애기들 강알에나 채우고 지성귀로 헤어났어.(조사자: 이 갈천으로 갓난아기 태어나면 처음에 이렇게 싸개로 싸거나 하지는 안 했습니까? 막 막 부드럽게 헌?) 아이고, 없는 사람들은

10 고부자, 앞의 글, 8-9쪽.

11 위의 글, 9쪽.

하지. 웬만해서는 사람들은 안 하지. 이런 것들은 누구 말재간이나 아기들 다리 사이에나 채우고 기저귀로 했었어.).¹²

일제강점기 후반 일본으로부터 몸빼가 유입되어 여성 일복으로 유행하게 되었는데, 제주에서는 몸빼 그대로 착용하는 방식이 아닌 감물을 들인 '갈몸빼'가 여성 일복이자 일상복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입기 시작한 몸빼는 해방과 전쟁으로 삶이 어려웠던 시절, 노동복과 일상복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물을 들여서 갈몸빼로, 입다가 낡은 삼베나 모시옷 특히 적삼이나 고의(袴衣) 치마에도 감물을 들여 입었다."¹³

흰 갈옷은 아기의 첫 싸개뿐만 아니라 아기 포대기, 지성귀(기저귀), 구덕, 채롱, 초신, 담배쌈지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재활용되었고, 더 낡은 것은 끈이나 청소 걸레 등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리고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궁이 불쏘시개로 그 질긴 생명력을 마감했다.

갈옷 → 첫 싸개, 포대기, 지성귀 → 보수, 끈거리 → 청소걸레 → 불쏘시개¹⁴

제주 갈옷은 거의 완벽한 선순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감물 들이기 과정부터 불쏘시개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갈옷은 탄소 중립의 모범을 보여주며 가장 지속가능한 옷이자 생활재로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더욱 눈여겨 볼 부분은 감물들이기가 옷감이나 생활재의 본래 형태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1970년대부터 옷 종류를 가릴 것 없이 흰 옷에 감물을 들여 재활용하는 지혜가 발휘되었다. 적삼이나 갈중의 등 전통 의상은 점차 사라져 갔지만 이를 대체하는 옷감 그대로를 감물들이기의 대상으로 확보한 셈이다. 이러한 갈옷문화 전승의 지속가능성은 현대화된 감물염색 패션화 경향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즉 노동복에 그 뿌리를 두되, 노동복 이외에 다양한 아이템에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면서 생활 속에 녹아들게 된 것이다.

제주 갈옷은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마을공동체의 문화행사, 마을마다의 민속보존회 활동,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등에 유니폼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자신의 개성과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는 철학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의복이 되기도 하며, 전통에 기반한 현대적 예술의 소재 등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천연 염색의 맥락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에코 프린팅 등도 시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승 지역 또한 전국을 망라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보편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즉 제주 갈옷문화는 시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오면서 제주도민의 삶에 밀착한 일상생활의 전승 지식으로 자리잡아온 것이다.

제주 갈옷문화의 미래무형유산적 가치로서 지속가능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제주의 자연환경과 노동조건에 순응하며 전승 지식을 생산해 내었다는 점이다. 백의민족으로 알려진 우리 민족에게 제주의 갈옷은 독특한 색깔과 질감을 시사한다. 제주에서 근현대기에 촬영된 사진을 통해 확인해보면 제주인

12 김희춘(한림읍 수원리) 구술 자료.

13 고부자, 앞의 글, 같은 쪽.

14 위의 글, 같은 쪽.

들은 공식적인 석상에는 흰옷을 입고 참석하였고, 일을 해야 할 때에는 갈옷을 입었음이 확인된다. 즉 화산회토라는 생업환경에 적응하며 최적화된 옷으로서 갈옷을 노동복으로 입었지만, 장을 보러 가거나 관혼상제, 마을회의, 공식 석상 등에 가는 상황에서는 흰옷을 입음으로써 노동환경에 맞춘 특수성과 동시에 한민족으로서 보편성을 함께 영위했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제주 갈옷 및 여러 감물들이기 활용 부분의 제작 과정에서 최소한의 엔트로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의 환경, 즉 화산회토, 물 부족, 강한 일조량, 불안정한 강우량 등의 악조건을 역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옷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염색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거의 없는 제작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풋감을 뿔아 감물을 내어 바로 옷에 치대어 염색하는 방식, 집 주변의 지붕이나 담, 나무, 초지 등에 건조시키면서 밤이슬을 맞혀서 염색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 다양한 종류의 흰 옷을 갈옷이라는 새옷으로 만들어내는 방식 등으로 나타난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재사용’, ‘재활용’ 등의 모범적 전승 지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갈옷이 낡으면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생활재 등으로 재탄생시켜온 것이다.

넷째, 일정한 전승 지식만 확보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친환경 염색으로서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를 손쉽게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조건에 맞게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제주 갈옷의 전형 설정과 전승체계 구축 방향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정책 변천사에서 볼 때,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인정 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이 아닌 지정·인정 당시의 보유 기·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⁵

2016년 3월 시행된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¹⁶ 제주 갈옷은 현대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도민이 각 가정에서 개인 혹은 소모임 단위로 감물을 들여 만든 생활문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승 양상을 볼 때 특정 개인 혹은 업체의 갈옷 만들기와 활용 방법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지정하는 순간 제주 갈옷 전형의 폭과 깊이가 제한되고 다시금 원형규범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민 누구나 만들어 입고 향유하던 갈옷문화의 독점이 이루어지며 사실상 전승의 단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주 갈옷의 전형을 제주 도내 여러 지역 사례들로부터 공통적인 분모를

15 이재필,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文化財』 49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46쪽 참조.

16 위의 논문, 같은 쪽.

정리하고 제주 갈옷의 폭과 깊이를 반영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주 갈옷의 전형은 원재료로부터 설정할 수 있을 듯하다. 제주 토종감을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에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감, 풋감, 쉼뽕감, 7레감’ 등 제주 토종 풋감을 여름 장마가 끝난 뒤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할 때 따서 그대로 돌확에 찼어 감물을 내고 이 감물 그대로 옷감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다.

물론 1970~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편하고 세련되게 감물을 들이기 위해 감을 찼거나 믹서에 갈아낸 뒤, 고운 천자루나 망으로 감 찼거기를 제거한 감물 원액을 생산하고, 여기에 적절한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섞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또한 한정된 기간에 집중되었던 감물들이기를 봄부터 가을까지 할 수 있도록 감물 원액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감물을 들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감물을 시장이나 대량생산업체에서 구입하여 감물을 들이기도 한다.

제주 토종감을 원재료로 삼는 부분을 전형으로 삼되, 감즙을 내는 방식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빵은 감을 직접 옷감에 치대는 방식이 워낙 노동력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부가 작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감물들인 옷감에 붙은 감쭈시(찌거기)를 깨끗하게 털어내는 일은 자연스러운 갈옷 만들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번거롭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주 토종감을 빵아서 고운 천으로 찼거기 없는 깨끗한 상태의 감즙을 만들어내서 감물을 들이는 방법까지 전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 갈옷의 전형 설정은 감물 들이기의 전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산업화, 현대화를 거치며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처온 감물 들이기의 전개 속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제주 갈옷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갈옷 만들기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주 갈옷의 현재적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전승체계를 계승하는 가운데 현대적 계승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 갈옷의 전형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조건과 감물염색에서 중요한 여러 절차 등의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감물 들일 소재는 전통적 복식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이나 생활재 등으로 확장
- ② 제주 토종의 풋감으로 감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전통적인 방법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방법 등 사용(돌확에 빵아 옷에 바로 치대는 방식과 풋감을 찼어 고운 자루나 망에 걸러내는 방식 등)
- ③ 감물들이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가급적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남도고리와 텅드렁마께, 돌혹 등을 권장하되, 전통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풋감을 빵아서 감물을 내는’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현대화된 도구 사용
- ④ 물들일 옷이나 천 등에 찼어낸 감즙을 직접 문혀서 치대거나 고운 자루나 망에 걸러낸 감물을 치대는 방식 사용
- ⑤ 이렇게 감물 들인 옷감을 자연 조건의 햇볕(지붕, 잔디밭, 명석, 나무, 돌담

등)에서 말리기 수행

⑥ 물에 적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건조하는 바래기 작업 수행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갈옷을 제주 갈옷의 무형문화재적 전형으로 삼고 이를 준수하는 갈옷을 무형문화재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공식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3. 제주 갈옷의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및 지정 방식

우리나라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아래와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데, ① 전통적인 공연 및 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 한의약, 농경 및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⑦ 전통적 놀이 및 축제, 기예 및 무예 등이다.

제주 갈옷은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산섬 제주의 척박한 땅을 배경으로 노동 중심의 삶을 살아온 제주인의 생활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생활의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생활재로 활용되었던 점, 갈옷과 관련한 재사용 및 재활용 사례, 다양한 생활규범 및 공동체 의식 반영 등을 고려해볼 때 전통적 생활관습으로서 전반적 문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명칭 역시 갈옷이라는 의상이 아닌 제주 갈옷을 둘러싼 여러 전승 지식, 관습, 규범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갈옷문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주 갈옷문화의 무형문화재 지정 형태는 위에서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공동체종목’ 지정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윷놀이 등이다.

공동체종목은 김치, 씨름과 같이 해당 무형문화재가 보편적 생활관습으로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만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공동체종목으로 지난해 2022년 9월 ‘제주테우문화’가 처음 지정돼 1개 종목이 전승되고 있다.

결국 공동체종목은 제주도민 전체에 의해 전승되는 보편적 생활관습으로, 도민들의 주도적인 전승 활동을 통해 무형문화재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해나가는 방식으로 전승력을 확보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공동체종목 방식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이기에 해당 종목을 공유하는 모든 주민들이 전승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열린 구조로 전승활성화 등의 사업을 공모하면 주민 누구나 지역 내 교육, 답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신청하여 전승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승공동

체 맞춤형 지원 등이 가능해졌고,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 종목을 전승하고 있는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 하였다. 이를 통해 전승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를 보존하면서 전승활성화와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① 제주 갈옷의 전승 지식과 무형유산 가치는 감물들이는 과정과 그 착용 관행 및 지속가능한 다양한 활용에 있으므로 ‘갈옷문화’라는 범주로 확장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② 제주 갈옷문화는 제주도 전역의 대부분 가정과 소규모 공동체에서 전승해 온 무형유산이므로 ‘공동체종목’ 방식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③ 앞에서 설정한 제주 갈옷의 전형에 부합하는 갈옷에 대한 제작, 교육, 체험, 콘텐츠화 등의 활동이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관리 기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누구든지 갈옷문화의 전승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제주 갈옷문화의 전형을 전승해나갈 수 있도록 기획과제 등을 개발해서 전수활동의 범례를 만들어나갈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④ 제주 갈옷문화의 전형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전승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개인, 소모임, 업체, 기관, 단체 등을 다양한 경로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위 ①항목은 공동체종목 지정 방식의 무형문화재는 특정한 기여능보유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의 보편적 문화로서 갈옷과 주변문화에 대한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주 갈옷과 관련한 포괄적 문화로서 ‘갈옷문화’를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원형이 아닌 전형에 대한 전승을 가능케 하면서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종목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②항목은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그 주체와 문화적 특성이 광범위한 제주도민과 문화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을 고려한 지정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종목이 여타 개인(보유자) 지정 종목이나 단체종목 등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제주도 지역에서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전승 주체가 지속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갈옷문화의 동질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③항목은 공동체종목으로서 ‘제주 갈옷문화’를 지정했을 때, 전승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다양한 분야와 기간으로 설정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여러 수준의 전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무형문화재 관리 기관에서 전형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기획과제 등을 공모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도민 누구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전승활동과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④항목은 제주 갈옷문화의 전승 주체를 다양하고 두텁게 설계하고 지원함으로써 저변확대를 꾀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각각의 전승 주체들이 스스로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전승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V. 요약 및 제언

제주 갈옷은 탐라 제주의 토양과 기후 환경 속에서 탄생한 제주인의 지속가능한 전승 지식이다. 이러한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성과 무형유산적 가치는 제주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고문헌에 등장하는 갈옷의 특성,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 중 신문기사와 단행본, 1910년대부터 기록된 사진 자료, 학술연구 논문과 보고서 등이 수집되고 연구되었다.

요약하면 ‘I. 과제 개요’에서는 이 연구조사 사업의 배경, 목적을 비롯하여 사업 일정, 사업성과를 밝혀두고 있다.

‘II.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에서는 300여 년 이상의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갈옷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각 시기별로 갈옷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정한 변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조선시대 『증보탐라지』를 통해 감물을 들인 옷을 농가에서 입었고 그 실용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문헌이나 신문 기행문 등에도 갈옷과 관련한 내용과 기능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 계속 갈옷을 입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노동복 용도의 갈옷은 시대성을 반영하며 변화되었다. 조선 시대부터 여성에게 입혀졌던 갈굴중이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갈몸뻬로 대체되었다. 1950년대에 갈옷의 주류를 이루었던 짧은 길이의 갈적삼은 제주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사회활동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지만 갈몸뻬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까지 여성 갈옷의 명맥을 이어갔다. 한편,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까지 남성이 착용했던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은 1950년대를 지나 1970년대로 가면서 단추와 포켓이 달린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으로 변화되었으며, 조선시대부터 남성에게 착용되었던 갈중이는 1970년대까지 갈적삼과 함께 대표적인 남성 갈옷으로 입혀졌다. 또한, 입어서 낡은 와이셔츠나 체육복, 향토예비군복 등 주로 면(綿) 류로 만든 것들에 감물을 들인 재활용 갈옷이 노동복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1980년대로 오면서 착용이 주춤하던 제주 갈옷은 환경과 향토성에 관한 관심과 실천이 강조되던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로 오면서 사람들의 현대적 생활양식에 맞게 생활한복 형태와 서양복 스타일의 상품화된 갈옷으로서 다시 등장하였다. 이 당시에도 1970년대부터 시작된 낡은 와이셔츠나 체육복 및 향토예비군복과 같은 재활용 갈옷들이 계속 사용되었다. 특히, 친환경과 웰빙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갈옷은 환경지킴이로서 제주의 상징적 상품으로 부각되었다. 이때 천연(자연)염색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단체나 개인 여러 곳에서 강습 또는 체험활동을 통해 각기 취향에 맞는 새로운 갈옷과 문화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갈옷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국가에서도 갈옷의 전승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된다. 2001년 감물염 기능전승자를 지정하기도 했고, 제주문화의 핵심 집약체로 10대 문화상징에 갈옷이 포함되었다. 제주 갈옷은 ‘사회 및 생활유산분야’에서 ‘뜻깊음을 들인 노동복으로 제주인의 생활의 지혜가 엿보이는 복식유산’으로 선정되었다.

‘Ⅲ. 제주 갈옷의 전승 지식’에서는 제주도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갈옷에 담긴 전승 지식을 발굴하고 확인하였다. 첫째, ‘갈옷’의 명칭을 조사하여 제주 ‘갈옷’ 못지않게 ‘감옷’이 널리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에 따라서 ‘갈옷’의 다른 이름으로 ‘감든옷’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제보자들은 ‘갈옷’보다 ‘감옷’ 명칭을 더 많이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주인은 ‘갈’이라는 말보다 ‘감’이라는 제주 토종의 원재료와 염색의 과정을 더욱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주 갈옷의 종류 명칭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남자들이 주로 입는 ‘갈중의’를 남원을 지역에서는 ‘갈점벙이/갈정벙이’라 부르고, 이 지역의 ‘갈중의’는 ‘갈굴중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역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주도민의 갈옷에 대한 생각, 선호하는 이유, 갈옷의 효용성 등 갈옷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갈옷’의 느낌과 촉감에 따른 어휘 등 구술 채록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산도룩허다’, ‘솔그랑허다’, ‘사락사락하다’ 등 다양한 표현은 갈옷 문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제주의 전승 지식이자 무형 자산이다.

넷째, 갈옷의 첫 착용 시기와 성별과 지역에 따른 갈옷 착용 상황과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갈옷의 첫 착용 시점은 발일 등을 할 수 있는 성년기나 결혼 이후가 대부분이었고, 중산간 마을이 해안 마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입었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갈옷을 더 많이 입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섯째, 갈옷을 관리하거나 세탁할 때의 유의점도 살펴보았다. 세제를 사용해서 빨거나 씻으면 검게 변색되는 경향이 있어 제주인들은 세제가 아닌 물과 바람, 햇볕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갈옷 관리법에 대한 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갈옷’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갈옷’도 시대 변천에 따라서 재질과 모양, 기법, 디자인 등을 달리하며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탐라문화제 등 민속예술제가 열리거나 제주를 표현해야 하는 무대에서는 갈옷을 무대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다. 갈옷

이 제주 사람, 제주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 갈옷 관련 주변문화를 살펴본 결과, 제주도 사람들은 갈옷의 감물 들이는 전승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홑옷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만들어 입었음은 물론, 여러 가지 생활 도구에 감물을 들이는 일도 있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낚시줄, 그물, 담배쌈지, 짚신, 맷방석, 장판지, 깔개, 바구니(구덕)에도 감물을 들였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감은 갈옷의 원천재료이기도 했지만 아직 익지 않은 감을 활용한 음식도 만들었다. 물론 육지부에도 감을 장처럼 담가서 먹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지만, 제주도에서는 감물을 들이고 남은 감을 물에 우린 ‘집찐감’(침감)을 만들어 먹었다. ‘우린감’이라고도 하며 몇몇 제보자는 정말 맛있는 간식이었다고 추억하였다.

감즙을 내기 위해 감을 돌확에 넣고 찼으면 감이 으깨지면서 안에 있던 감씨가 나온다. 감을 빵아 보면, 초록색의 감씨가 하얀 색으로 걸쭉질이 벗겨지는데, 이 감씨가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달콤한 맛을 낸다. 감씨를 먹는 즐거움은 감물 들이는 과정에서 파생된 또다른 문화다. 작업을 하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물 들이는 과정을 보고 들으며 습득하게 되는 문화전승체계인 것이다. 또한 감씨의 색과 맛을 통해서 감물 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지를 가늠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나 경험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전승 지식으로서 성격도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갈옷과 관련하여 다양한 명칭과 쓰임새에 따른 구비전승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일화, 전설, 민요 등으로도 전승해 왔다.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문화로서 갈옷문화를 전승해왔음이 확인된다. 갈옷을 입어 죄를 사면 받은 강위빙(姜渭聘) 일화, 〈홍리 고대각〉 전설, 〈보리타작소리〉 민요 등 구비전승이 나타나고, “개날, 돛날, 갈중이 벗인 날 엿이 놓드난 보난 저승질이 앞이러라!”와 같은 향언도 전하고 있다.

감물들이기 과정은 일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장소 또한 대부분 집안 마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집단 중심의 공동체문화가 나타난다. 또한 감물들이기와 관련된 공동체적 관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원료가 되는 감에 대한 채집이나 구입, 이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하여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독특한 공동체적 관행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제주 갈옷과 관련한 공동체 생활 규범도 나타나는데, 주민들이 오가는 공도(公道)에서는 갈굼중이만 입고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검은색이나 흰색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IV.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에서는 제주 갈옷이 담지하고 있는 무형유산 가치에 대해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 ‘기술성’, ‘대표성 및 지역성’, ‘사회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감물들인 옷은 조선시대 제주의 농경사회와 지역의 풍토와 풍속의 일면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감물들인 옷의 용도와 성격의 변화 및 시대적 변천 양상은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화학섬유산업의 발전, 새마을운동과 농촌의 현대화 정책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측면에서는 제주의 농업방식의 변화, 산업구조와 종사인구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 제주의 근현대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특히, 노동복 용도의 제주 갈옷이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패션상품과 지역문화상품으로 전환되어 재창조되며 제주 사람은 물론 제주 방문객들에게 시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무형유산적 가치가 높다.

특히,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일조량이 높고, 강우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드는 토질 때문에 물이 부족하였다. 이에 물 없이도 감물들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발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음력 7월 백중 전후로 1~2주 기간 동안 감물들이기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했음도 주목된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한 감물들이기 방법은 햇볕과 바람, 이슬 등이 빚어낸 연금술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부적인 여러 전승 지식이 활용되었는데, 감물들이기 전에 옷을 뒤집어서 감물에 치대는 과정, 감물들이 옷을 잘 펴서 고르게 염색되도록 하는 손보기 과정, 놀이나 지붕, 잔디밭 등에 널어 바래는 과정과 물에 적셔 바래기를 반복하는 과정 등이다.

갈옷은 실용, 위생, 경제, 재생, 재활용, 친환경 등 효용 가치가 탁월한 옷이다. 그 중에서도 입던 옷이 낡으면 다시 감물을 물들여서 바래 입는 전통이 돋보인다. 이 옷들이 낡으면 재활용거리로, 또는 살림살이 도구들을 재생시키는 보수용으로, 마지막엔 아궁이 불쏘시개로 끝났다. 갈옷은 마지막까지 천연무공해자원으로 마감되었던 것이다. 제주 갈옷은 거의 완벽한 선순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감물들이기 과정부터 불쏘시개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갈옷은 탄소 중립의 모범을 보여주며 가장 지속가능한 옷이자 생활재로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더욱 눈여겨 볼 부분은 감물들이기가 옷감이나 생활재의 본래 형태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1970년대부터 러닝셔츠, 메리야스, 와이셔츠, 운동복, 군복 등 가릴 것 없이 헌 옷에 감물을 들여 재활용하는 지혜가 발휘되었다. 또한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공동체의 문화행사 등에 유니폼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자신의 개성과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는 철학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의복이 되기도 하며, 전통에 기반한 현대적 예술의 소재 등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천연염색의 맥락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에코 프린팅 등도 시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승 지역 또한 전국을 망라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보편문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제주 갈옷 조사연구에서 구축한 현장조사 자료가 대부분 80대 이상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에 일제강점기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에서의 갈옷 전승 양상과 인식, 제주어 정보 등까지 담고 있어 향후 표준어 대역 작업 및 스토리뱅크 사업 등까지 계획해 볼 만하다. 갈옷은 화산회토 제주 땅에서 밭을 일구고 들일을 하는 등 제주 풍토의 노동 환경에 맞게 고안한 발명품이다. 이 발명품은 가정을 일구던 제주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바지런함과 정성이 빚어낸 무형유산이다. 갈옷의 고운 색감과 시원한 질감은 제주 어머니들의 수고로움의 산물이며, 이 산물은 세대를 이으면서 지속되는 미래 자원이자 제주 전통 문화다. 갈옷은 여름철 노동을 할 때에 적합한 기능성 옷이자 감촉이 좋고 시원하여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치유의

옷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복이었던 갈옷은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 갈옷 색깔은 제주를 대표하는 고유한 색으로 인식하고 공감하며 갈옷 문화가 제주 고유의 무형 자산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이제 제주의 갈옷 문화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제주 옷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제주 갈옷 문화는 다양하게 활용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을 대표하는 옷으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제주 갈옷은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하기에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IV장에서 제시한 제주 갈옷의 무형문화재적 전형을 체계화하고 향후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 가치를 보존하면서 전승활성화와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옷문화’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공동체종목’ 방식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제주 갈옷의 전형에 부합하는 갈옷에 대한 제작, 교육, 체험, 콘텐츠화 등의 활동이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관리 기관에서는 공모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누구든지 갈옷문화의 전승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제주 갈옷문화의 전형을 전승해나갈 수 있도록 기획과제 등을 개발해서 전수활동의 범례를 만들어나갈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 갈옷문화의 전형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전승하면서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개인, 소모임, 업체, 기관, 단체 등을 다양한 경로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권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저,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우당도서관, 2002.
- 고광민, 『제주도구』, 한그루, 2022.
- 고병오·박용후 공편, 『元대정읍지』, 박문출판사, 1968.
- 구분호·이규억,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1991.
- 국립제주대학교, 『만농 홍정표선생 사진집-제주사람들의 삶』, (주)일원피앤씨, 2002.
- 김상헌 저, 김희동 역저,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 김상헌 저, 홍기표 역주, 『남사록』, 제주문화원, 2011.
- 김영조,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인물과 사상, 2013(2011).
-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 문화 뿌리학(상)』, 우진출판사, 1997.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 2」, 풍석문화재단, 2016.
- 善生永助 著, 『生活狀態調査(基二)濟州島』, 朝鮮印刷株式會社印刷, 1929.
- 심규호·주기평·최석원·송인주·김규태, 『제주 한시 300수』, 제주학연구센터, 2022.
- 우락기, 『濟州道 大韓地誌』 I, 한국지리연구소, 1965.
- 유중립 저, 『증보산림경제 I』 고농서국역총서 4, 농촌진흥청, 2003.
- 윤봉조, 『포암집(圃巖集)』(卷之三), 1767.
- 윤시동 저, 김영길 역주, 국역 『增補耽羅志』,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원, 제주: 제이 에스디자인, 2016.
- 이규태, 『재미있는 우리의 옷이야기』, 기린원, 1991.
- 이즈미 세이치 지음, 김종철 옮김, 『제주도: 1935~1965』, 서울: 여름언덕, 2014.
-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濟州島 V』, 제주: 경신인쇄사, 2010.
- 이혜선·박지혜·고은숙, 『제주의 감물염색』, 제주사람들, 2009.
- 제주대학교박물관, 『만농 홍정표선생 사진집-제주사람들의 삶』 II, (주)로얄프로세스, 1995.
- 제주도, 『제주 100년』, 현대문화인쇄사, 1996.
- 제주도, 『제주여성문화』 제주도문화자료총서 8, 경신인쇄사, 2001.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자료집』 제주여성사 자료 총서 I,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경신인쇄사, 2007.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경신인쇄사, 2019.
-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1, 도서출판 각,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2, 도서출판 각, 2010.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 I, 일신웁셋인쇄사, 2009.
-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 1, 열화당, 1986.

- 진성기,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9.
- 泉靖一著,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 최한기 저, 『농정회요 II』 고농서국역총서 11, 농촌진흥청, 2006.
-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 『탐라성주유사』, 고씨종문화총본부, 1979.
-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의 슬기와 기능 이렇게 이어간다』, 2006. 2.
- 한국장기신용은행·고려대 경제연구소, 『지역경제발전패턴과 제주도의 산업개발전망』, 한국장기신용은행, 1984.
- 허복구·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 세오와 이재, 2013.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화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학술대회〉

- 고광민,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센터, 2023. 7. 10.
- 고부자,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센터, 2023. 7. 10.
- 허복구,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센터, 2023. 7. 10.
- 홍희숙,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한국색채학회, 2003.
- 현해남, 「제주토양을 알면 제주를 안다」, 대한농업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농업공학회, 2003.

〈연구보고서〉

-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제주 천연염색산업 실태조사 및 디렉토리」, 연구용역보고서. 2012.
- 홍희숙 외, 「ICT 및 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중소기업부 연구과제(2020. 6. 1.~2023. 5. 31.)
- _____, 「감물 가공처리 한지가죽 신소재를 활용한 글로벌 명품가방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2015. 9. 1.~2017. 8. 31.)
- 홍희숙, 「신탐라 gift & 체험 프로젝트 사업: 건강기능성 패션상품 연구개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사업(2005. 7. 1.~2006. 6. 30.)
- _____, 「제주 관광기념 의류상품 다양화를 위한 지역패션문화상품의 개발: 생활한복」, 중소기업청 연구과제(2002. 5. 1.~2002. 4. 31.)
- _____, 제주 갈옷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청 연구과제(1999. 5. 1.~2000. 4. 31.)

〈학위논문〉

- 고부자,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관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 _____,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정숙, 「이조 중기 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학술논문〉

- 강경숙·김준표, 「제주도 지역개발시기 제주 여성의 노동과 지위」, 『탐라문화』 69, 탐라문화연구원, 2022.
- 고광민, 「제주도 민구(II)」, 『탐라문화』 제4호, 탐라문화연구원, 1985.
- 고부자,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3, 제주학회, 1986.
- 김동욱, 「홍덕왕 복식 금제의 연구-신라말기 복식 재구를 중심으로-」, 『동양학』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1.
-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 김태보,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발전방향과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 『사회발전연구』 1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1996.
- _____, 「제주지역경제의 발전사적 고찰」, 『사회발전연구』 14,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1998.
- 김현돈, 「제주문화의 재창조」, 『제주리뷰』 3,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7.
- 박순자, 「한국과 일본의 감즙 제조와 염색법 및 염색물 변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22(1),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11.
- 박순자·이춘계, 「명칭으로 본 모직물의 발달-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복식』 21, 한국복식학회, 1994.
- 박춘순, 「중국 남, 북방 소수민족 복식의 비교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1.
- _____, 「중국묘족 복식의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1.
- 박춘순·임영주, 「홍노의 복식문화 소고」, 『중국사연구』, 25, 중국사학회, 2003.
- 배숙희, 「元末·明初の雲南과 故元 後裔의 濟州 移住」, 『동양사학연구』 119, 동양사학회, 2012.
- 변수진, 「감즙 염색물의 특성과 염색성」, 『예술논집』 7,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2006.
- 서봉하,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 복식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0.
- 소황옥, 「한·몽 복식문화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22, 비교민속학회, 2002,

91~132쪽.

- 손경자,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복식의 양식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14, 한국복식학회, 1990.
- _____,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I)-고려시대의 몽고 침략기를 중심으로-」, 『복식』 16, 한국복식학회, 1991.
- 송준영, 「1960~1980년대 제주도 관광이미지에 대한 서설적 연구-관광사진첩 속 시각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8, 제주학회, 2022.
- 이재필,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文化財』 49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 이혜선, 「갈옷 연구」, 『제주도연구』 19, 제주학회, 2001.
- 임준성, 「금남 최부의 <탐라시 35절>」, 『도서문화』 3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 장현주,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 『복식』 54(8), 한국복식학회, 2004.
- 조우현·김미진,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통해 본 한국패션」, 『복식』 65(7), 2015.
- 조희진, 「몸빼’를 통해 본 의생활의 전통과 외래문화」, 『실천민속학연구』 4, 2002.
- 진성기, 「갈중이와 제주인의 지혜」, 『제주도 지방의정』, 제주도, 1996.
- 한영숙, 「감즙과 감즙 염색 면직물의 항균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대한가정학회, 2005.
- 현해남·장공만·오상실·정종배, 「Groundwater Ubiquity Score를 이용한 제주도 토양 특성별 농약의 지하수 오염가능성 평가」, 『농약과학회지』 11(3), 한국농약과학회, 2007.
- 홍병숙·정미경, 「나일론이 의생활 및 섬유 산업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945년부터 1970년을 중심으로-」, 『복식』 28, 한국복식학회, 1996.
- 홍희숙, 「제주지역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문화상품 ‘갈옷’ 패션이미지와 ‘갈옷’ 구매 행동」, 『제주도연구』 26, 제주학회, 2004.
- _____, 「추구혜택과 패션이미지가 제주지역 패션문화상품 갈옷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2), 대한가정학회, 2001.
- 홍희숙·김기억,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줌치한지 종이소재의 강도 변화- 감물염색가공 여부와 감물농도 차이에 따른 변화」, 『한국의류학회지』 42(2), 한국의류학회, 2018.
- _____,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펄프가 혼합된 줌치한지의 감물염색에 따른 강도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45(6), 한국의류학회, 2021.

〈신문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자료(2008. 3. 20.)
- 『경향신문』 1면, 1973. 1. 6.
- 『경향신문』 7면, 1975. 2. 10.

『경향신문』 13면, 1996. 5. 27.
『경향신문』 21면, 1997. 4. 25.
『경향신문』 20면, 1998. 1. 3.
『경향신문』 15면, 1998. 9. 25.
『농촌여성신문』, 2012. 9. 3.
『동아일보』 1면, 1924. 8. 27.
『동아일보』 1면, 1924. 8. 29.
『동아일보』 5면, 1928. 10. 16.
『동아일보』 3면, 1929. 11. 24.
『동아일보』 5면, 1930. 11. 19.
『동아일보』 4면, 1934. 12. 12.
『동아일보』 3면, 1935. 10. 4.
『동아일보』 7면, 1938. 9. 16.
『동아일보』 1면, 1946. 12. 20.
『동아일보』 7면, 1965. 9. 9.
『동아일보』 7면, 1970. 7. 31.
『동아일보』 1면, 1970. 7. 1.
『동아일보』 5면, 1978. 1. 6.
『동아일보』 5면, 1979. 10. 28.
『동아일보』 35면, 1996. 9. 7.
『동아일보』 43면, 1997. 11. 11.
『동아일보』 11면, 1998. 6. 4.
『매일경제』 29면, 1998. 6. 3.
『안양광역신문』(anyangnews.net), 2023. 7. 27.
『연합뉴스』, 2023. 6. 21.
『제민일보』, 2023. 6. 21.
『제주매일』, 2023. 6. 21.
『제주신문』, 2023. 6. 21.
『제주의소리』, 2023. 6. 21.
『제주의소리』, 2022. 12. 21.
『제주일보』, 2003. 9. 30.
『제주일보』, 2022. 8. 18.
『제주일보』, 2023. 6. 21.
『제주환경일보』, 2014. 9. 28.
『제주환경일보』, 2023. 2. 20.
『조선일보』 1면, 1931. 4. 10.
『조선일보』 6면, 1935. 2. 27.
『조선일보』 3면, 1935. 8. 9.

- 『조선일보』 3면, 1935. 8. 16.
 『조선일보』 5면, 1938. 8. 28.
 『조선일보』 5면, 1940. 7. 16.
 『조선일보』 7면, 1964. 9. 6.
 『조선일보』 5면, 1974. 7. 12.
 『조선일보』 3면, 1988. 9. 18.
 『조선일보』 27면, 1991. 9. 3.
 『조선일보』 5면, 1993. 3. 18.
 『조선일보』 35면, 1994. 9. 16.
 『조선일보』 35면, 1998. 9. 25.
 『조선일보』 39면, 1999. 3. 11.
 『한겨레』 19면, 1994. 6. 7.
 『한겨레』 13면, 1994. 9. 6.
 『한겨레』 17면, 1995. 7. 18.
 『한겨레』 17면, 1996. 3. 28.
 『한겨레』 5면, 1996. 9. 14.
 『한겨레』 11면, 1998. 8. 29.
 『한라일보』, 2023. 6. 21.

〈누리집〉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중국정사조선전>신당서(新唐書)(1)>동이열전(東夷列傳)>고구려(高句麗)>“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幘”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jo&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jo_015r_0020_0010_0030&position=-1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중국정사조선전>신당서(新唐書)(1)>동이열전(東夷列傳)>신당서>신라>“男子褐袴. 婦長襦”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levelId=jo_015r_0020_0030_0030&types=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구당서>고구려>“國人衣褐戴弁, 婦人首加巾幘”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ko&types=o&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ko_034_1550_0010&position=-1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고려시대>선화봉사고려도경>권23 풍속[雜俗] 2>특산물[土産]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cnkd&bookId=&types=o#detail/cnkd_023_008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고려시대>선화봉사고려도경>권19>백성(民庶)>주인(舟人)>“短褐被體, 下無袴襦”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cnkd&types=o#detail/cnkd_019_006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중국정사조선전>송사>외국열전>고려>성종 11년, A.D.992>“縑袍短褐, 玉粒桂薪, 堪憂食貧, 若爲卒歲”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jo&types=r&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jo_018r_0010_0010_0150&position=-1

김영순(여, 67세, 대정읍 하모2리), <보리타작소리>(1989. 5. 24. 채록), 『한국민요대전』 ([https://urisori.co.kr/urisori-origin/doku.php?id=jj:namjeju:namjeju-0506&s\[\]=%EA%B0%88%EC%A4%91%EC%9D%98](https://urisori.co.kr/urisori-origin/doku.php?id=jj:namjeju:namjeju-0506&s[]=%EA%B0%88%EC%A4%91%EC%9D%98)).

시경>국풍>1권 주남(周南)>2.葛覃(칠탕굴)>“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莫莫, 是刈是漙, 爲絺爲綌, 服之無斃”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2510&Lang=%ED%95%9C%EA%B8%80&Page=1>

시경>국풍>빈풍>7월>“一之日鬻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2510&Lang=xxx&Page=15>

안장현, “제주도 풍물 1970년대의 제주”, 『안장현의 문화유산과 사진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2018. 2. 27.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hnjh1204&logNo=221217543853>

윤시동,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index/GC00701548?category=%EC%9D%B8%EB%AA%85&depth=2&name=%EC%82%AC&page=13&search=%EC%8B%A0%EA%B4%91%EC%A7%9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도로정비 새마을운동 전경(제주도)』, 『국가지정기록물 온라인 전시관』, 1972. <https://theme.archives.go.kr/next/onlineGallery/relationRecord.do?menuType=6&page=4>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보도자료, 통계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구조 변화』, 2017년 4월 3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5148&list_no=359766&seq=4

제주지역 갈옷 전문업체 매장 방문 및 홈페이지 조사.

〈부록〉
옛 사진 속의 갈옷



〈사진 1〉 두 농부가 지계를 지고(1914년 5월, 대정읍 상모리) 사진 토리이 류우조오(鳥居龍藏)

조선총독부에서 촉탁을 받고 제주도에서 인류학을 조사한 토리이 류우조오(鳥居龍藏)는 이 사진의 캡션에 '제주 남 제주 대정리 농부'라고 기록하였다. 뒤에 보이는 산은 '바굼지오름'이 아닌가 한다. '바굼지오름'은 안덕면 사계리 3123-1번지에 있는 오름이라는 말이다. 앞서가는 농부는 머리에는 '털벌립'을 쓰고 하얀 적삼과 중의(남자의 여름 홰바지)를 입고 맨발에 짚신을 신었다. '털벌립'은 쇠털로 만든 모자이다. 중의에는 '정강다님'이라는 대넒으로 무릎 바로 밑을 매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정강다님'을 줄라매는 일을 '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뒤따라가는 농부는 머리 에 '정당벌립'을 쓰고 감물을 들인 '갈적삼'과 '갈중의'를 입고 발에는 '가죽보선' 위에 짚신을 신고 있다. '정동벌립'은 땀땀이땀굴로 엮어 만든 '병거지'의 하나로 차양이 넓은 모자이고,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홰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홰바지, 그리고 '가죽보선'은 마소 가죽으로 보선처럼 만든 방한용 신이라는 말이다. '가죽보선'에는 줄로 발과 발목을 묶었다.



〈사진 2〉 아랫도리에 ‘갈중의’만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제주도 사람들은 짚으로 날을 촘촘히 짜서 만들어 곡식 따위를 담는데 쓰는 그릇인 떡서리를 ‘뵉’이라고 하고, 떡서리를 짜는 일을 ‘졸다’라고 한다. 한 노인이 ‘갈중의’를 입고 허리띠를 둘러매고 앉아 떡서리 졸고 있다.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홀바지라는 말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떡서리의 날줄을 ‘날’, 씨줄을 ‘돌레’라고 한다. 제주도에 서 떡서리는 여러 가지가 전승되었다.

곡식 한 섬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떡서리를 ‘훈섬들이’라고 한다. ‘훈섬들이’라는 떡서리 날줄은 80개 정도이다. 곡식을 명석에 넣고 담아 나를 때 쓰는 떡서리를 ‘날렛뵉’이라고 한다. ‘날렛뵉’이라는 떡서리 날줄은 47개 정도이다. 돼지우리라는 ‘통시’의 거름을 담아 소의 길마에 지어 나를 때 쓰는 떡서리를 ‘걸름착’이라고 한다. ‘걸름착’의 날줄은 25개 정도이다. 한 노인은 ‘걸름착’이라는 떡서리의 날줄에 씨줄을 돌리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떡서리의 씨줄을 ‘돌레’라고 한다. 그리고 떡서리를 짤 때, 한 뼘 정도의 밑 돌레가 짜지면 그 중심에 긴 줄을 꿰고 천장에 매달아 일한다. 이때의 줄을 ‘베또롱줄’이라고 한다.



〈사진 3〉 윗도리에 베적삼, 아랫도리에 ‘갈중의’를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제주도 사람들은 짚으로 날을 촘촘히 짜서 만들어 곡식 따위를 담는데 쓰는 그릇인 떡서리를 ‘멕’이라고 하고, 떡서리를 짜는 일을 ‘졸다’라고 한다. 한 노인은 윗도리에 하얀 베적삼, 아랫도리에는 ‘갈중의’를 입고 난간에 앉아 떡서리를 짜고 있다.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훌바지라는 말이다. 백색 윗도리와 갈색 아랫도리가 잘 어울린다. 제주도 사람들은 떡서리의 날줄을 ‘날’, 씨줄을 ‘돌레’라고 한다. 제주도에서 떡서리는 여러 가지가 전승되었다. 날줄의 숫자로 미루어볼 때 ‘날렛멕’을 짜고 있는 모양이다. ‘날렛멕’을 ‘날레멩텡이’라고도 하였다. 주로 곡식을 담고 방아를 찧으러 갈 때 쓰이는 수가 많았다.



〈사진 4〉 윗도리에 마고자,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한 노인이 윗도리에 '마고자', 아랫도리에 '갈중의'를 입고 앉아 '구덕'이라는 바구니를 짜고 있다. '마고자'는 여름에 여자들이 집안에서 입는 옷옷이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마고자'는 제주도 이외의 육지부 사람들은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옷을 마고자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제강점기 때(1929년) 만든 제주도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에서도, 제주도에 저고리 위에 덧입는 마고자 같은 옷을 입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마고자'는 삼베로 옷깃과 옷섶이 없이 간단하게 만들었다. 여름에 입는 옷인 만큼 소매도 짧다. 그리고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 수 있게 만들었다. 단추가 흔해지면서부터 제주도식 마고자는 고안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훌바지라는 말이다. 노인이 짜고 있는 바구니를 '질구덕'이라고 한다. '질구덕'은 제주도 여자들이 비교적 거친 짐 따위를 담고 질빵에 걸어 등에 지어 나르는 운반 도구 중에서 가장 큰 대그릇이다. '질구덕'은 씨줄 대오리인 '구른놀'은 11개, 날줄 대오리인 '선놀'은 7개로 구성되었다. '구른놀' 11개 중 8개는 '놀대'(날줄의 대오리) 2개를 붙이고 하나의 '구른놀'을 만들기도 하였다. 제주도 해녀들이 갯밭으로 물질하러 갈 때 빨감, 옷가지, '테왁', '망사리' 등 여러 가지 물질 도구를 담고 질빵에 걸어 지어 나르는 수가 많았다.



〈사진 5〉 윗도리에 적삼과 조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한 노인이 윗도리에 적삼과 조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 ‘배’를 드리고 있다. ‘배’는 밧줄이라는 말이다. 밧줄 드리기는 이미 낡은 밧줄 따위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보통 세 가닥으로 하여 더 굵고 단단하게 꼰다는 말이다. 제주도에서는 ‘총배’라는 밧줄을 드리는 수가 많았다. ‘총배’는 ‘물총’이나 ‘남총’으로 드렸다. ‘물총’은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이고, ‘남총’은 종려나무의 줄기를 싸고 있는 털이라는 말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가는 줄 따위의 여러 가닥을 양손으로 비비면서 엇감아 한 줄로 만드는 일을 ‘꼰다’라고 하고, 보통 세 가닥의 줄을 하나로 땅는 일을 ‘드린다’고 한다. 그리고 밧줄을 드릴 때 외가닥의 줄을 감는 막대를 ‘초생이’라고 한다. 노인은 ‘초생이’에 감은 한 가닥의 줄을 풀며 밧줄을 드리고 있다. 저 멀리 ‘출’을 진 소와 농부가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추분(9월 23일경)이 지나고 있는 계절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추분 때부터 소의 월동 사료인 ‘출’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사진 6〉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점뱅이’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한 농부가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점뱅이’ 입고 ‘돛걸름’을 쌓고 있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고, ‘갈점뱅이’는 감물을 들인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흠바지라는 말이다. ‘돛걸름’은 돼지우리인 ‘돛통’에서 돼지 똥오줌과 빗물이다, 보릿짚이나 검질, 그리고 사람의 똥오줌 등이 함께 오랫동안 절여지고 삭혀져서 만들어진 거름이라는 말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망종(6월 6일경) 무렵이나, 상강(10월 23일경) 무렵에 ‘돛걸름’을 냈다. 망종 무렵에 ‘돛통’에서 낸 ‘돛걸름’은 고구마 밭에 밑거름으로 주었고, 상강 무렵에 낸 ‘돛걸름’은 보리밭에 밑거름으로 주었다. 한 농부의 옷매무새로 보면 상강 무렵에 ‘돛걸름’을 내고 있는 모양이다.



〈사진 7〉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94년, 안덕면 사계리) 사진 박홍범

한 농부가 윗도리에 ‘갈적삼’을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를 입고 앉아서 빗자루를 매는 수수인 ‘비대죽’의 이삭을 ‘호미’라는 낫의 등으로 이삭을 떨어내고 있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갈적삼’은 매듭단추 대신 단추를 채웠다는 점이 돋보이고, ‘갈중의’에는 대님을 꿰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빗자루를 매려고 기르는 수수를 ‘느랭이대죽’이라고 하였다. ‘느랭이대죽’은 발벼를 심은 ‘산디밭’ 밭담 주위에 심는 수가 많았다.



〈사진 8〉 윗도리에 무명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한 농부가 윗도리에 무명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 감저(甘藷) 모종에 물 아니면 오줌을 주고 있다.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흘바지이다. 무르팍 쪽에는 형겅을 덧대어 기웠다. 대넘은 묶지 않았다. 제주도 사람들은 고구마를 '감저'라고 하였다. '감저'를 옮겨심기에 앞서 음력 이월 스무날 무렵에 '감저' 모종을 심었다. '감저' 모종 발은 가렸다. 보통 '질왓'에만 '감저' 모종을 놓았다. '질왓'은 물이 고이는 밭보다는 물 빠짐이 좋으나 점토질의 밭이어서 질었을 때는 몹시 흠이 차지는 밭이라는 말이다. '감저' 모종을 '뜯밭'에 놓으면 순은 나오지만 길게 자라지 못하였다. 그러니 '질왓'이 없는 농부는 이웃집 모종 발을 빌어 놓는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가물면 '감저' 모종의 줄기는 잘 썬지 못하였다. 그러면 오줌이나 물을 '감저' 포기마다 주었다. 고구마 잎줄기는 오줌이나 물을 먹어야 길게 뻗었다.



〈사진 9〉 윗도리에 러닝셔츠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농부 세 사람이 말에 ‘낭테’를 채우고 조의 씨앗을 뿌린 땅거죽을 다지고 있다. ‘낭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면 수없이 박아 붙여 만들어 조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땅거죽을 다지는 도구라는 말이다. 이런 일을 ‘볼린다’고 한다. ‘볼린다’의 ‘볼르다’는 발로 밟게 한다는 말이다. 비교적 젊은 농부 두 사람은 윗도리에 러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신식 바지를 입고 있지만, 비교적 나이든 농부 한 사람은 윗도리에 러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를 입고 있다.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훌바지이다. ‘갈중의’에는 대님을 묶지 않았다. 제주도 사람들은 장마가 겹친 소서 무렵에 밭에 조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땅거죽을 마소의 발이나, ‘낭테’의 발이나, ‘돌테’의 발로 밟아주었는데, 이는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돌테’는 조나 밭벼 씨앗을 뿌리고 나서 돌맹이로 토양을 다지는 도구라는 말이다. 조나 밭벼의 씨앗을 밭에 뿌리고 나서 ‘낭테’나 ‘돌테’로 땅거죽을 다지는 일은 제주도 동부지역에서 전승되는 수가 많았다.



〈사진 10〉 윗도리에 러닝셔츠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농부 세 사람이 '곰베'로 흙덩이를 때리며 펴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흙덩이를 깨뜨리거나 씨앗을 뿌린 뒤에 흙을 덮는 데 쓰는 도구인 곰방메를 '곰베'라고 한다. 비교적 젊은 농부 한 사람은 윗도리에 러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신식 바지를 입고 있지만, 비교적 나이든 농부 두 사람은 윗도리에 러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를 입고 있다.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홰바지이다. 가운데서 일하는 농부는 '갈중의'에 대님을 매지 않고 있고, 오른쪽에서 일하는 농부는 '갈중의'에 대님을 매고 있다.



〈사진 11〉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60년대, 제주시 아라동) 사진 홍정표

‘테우리’ 한 사람이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 ‘세미양오름’(575m) 북쪽 들판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가꾸고 있다. ‘테우리’는 말이나 소를 들에 놓아 돌보며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삿갓’은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 모양의 모자이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갈적삼’은 매듭단추 대신 단추를 채웠다는 점이 돋보이고, ‘갈중의’에는 대님을 뒀다. 제주시 아라동 사람들은 청명(4월 5일경)부터 소서(7월 7일경)까지, 이웃끼리 번갈아가면서 암소와 수소를 따로따로 가꾸었다. 이렇게 가꾸는 소를 ‘변췌’라고 하였다. ‘변췌’는 소를 기르는 사람끼리 여러 마리 소를 한 데 모아 주인들이 차례를 정하여 들에 몰고 나가 먹이는 소라는 말이다. 그리고 암소만 모아놓고 가꾸는 ‘변췌’를 ‘암췌변’, 수소만 모아놓고 가꾸는 ‘변췌’를 ‘부렁이변’이라고 하였다. 사진 속 ‘테우리’는 ‘부렁이변’을 가꾸고 있는 모양이다.



〈사진 12〉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60년대, 조천읍 신촌리) 소장 고광민

한 노인이 윗도리에 갈적삼을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를 입고 조천읍 신촌리 ‘돈물’에서 아이들이 그물로 몰아온 송어를 ‘족바지’라는 그물로 잡고 있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돈물’은 조천읍 신촌리 2385-1번지에 있는 해수호(海水湖) 이름이다. 송어는 민물과 해수를 넘나드는 능력을 갖춘 물고기다. 특히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물통이면 산란장으로 제격이다. ‘돈물’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송어 양식장이 있다. 송어는 자연산 어린 송어를 잡아다가 이 ‘돈물’에서 일정 기간 키웠다. 양식의 기본은 종묘(種苗)다. 종묘의 방식은 인공과 천연이 있다. 이곳 ‘돈물’의 양식은 송어 새끼를 잡아다가 양식하는 천연 종묘법이였다. 동짓달이 되면 송어 새끼들은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 크기가 2cm쯤 되면 해안 깊숙이 단물이 솟구치는 ‘수물’ 주변으로 떼 지어 몰려든다. 이때 송어 새끼들을 잡아다가 ‘돈물’에 풀어놓는다. 3년이 지나 40cm쯤 자라면 그물로 손쉽게 잡았다. ‘족바지’는 고기를 잡는 국자 모양의 작은 그물이라는 말이다.



〈사진 13〉 머리에 ‘박세기모자’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한 어부가 머리에 ‘박세기모자’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 ‘터우’ 위에서 ‘국자사들’로 자리돔을 잡고 있다. ‘박세기모자’는 해방 이후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하면서 쓰고 왔던 모자이다. 미군들은 제주도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과 바퀴 먹게 되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터우’는 삼나무 여러 개로 평평하게 만든 배라는 말이다. ‘국자사들’은 국자의 형태로 생긴 자리돔잡이 그물이다. ‘국자사들’로 자리돔 잡는 일은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수가 많았다. 일정한 자리돔 어장으로 가서 닻을 드리워 ‘터우’를 세워놓고 ‘국자사들’을 배의 이물 쪽으로 드리운다. 바로 이 이물 중간쯤에 ‘국자사들’ 손잡이를 걸쳐 두는, 나무로 만들어 고정된 갈퀴 비슷한 고리가 장치되어 있다. 이를 ‘버텅’이라 한다. ‘버텅’에 끼워 놓고는 한 손으로 ‘국자사들’ 손잡이를 잡아 준다. 그래야 ‘국자사들’ 손잡이가 조류에 쓸리지 않는다. 나머지 한 손으로는 물안경을 잡고 물속으로 들여다보며 자리돔 떼가 그물 위에 몰려든 것을 확인한다. 자리돔 떼들이 확인되면, 배의 이물에 ‘국자사들’ 손잡이를 받치고 약 60도 각도로 비스듬히 눕혀 잡아 당긴다. 그물을 거의 수면 위로 올려놓고 그릇으로 자리돔을 뜨면서 잡는다.



〈사진 14〉 머리에 ‘대패랭이’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1981년 음력 2월 15일, 우도) 사진 현용준

우도에서 열린 영등굿의 한 제차(祭次)에서 심방이 머리에 ‘대패랭이’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 수탉의 코를 꿰어 끌고 마을을 돌고 있다. ‘대패랭이’는 대를 다듬어 엮어 만든 갓모자 모양의 모자이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갈중의’에는 대님을 매고 있다. 우도 영등굿에서 이때의 굿을 ‘말축굿’이라고 한다. 현용준은 『민속사진집 靈』에서, 1981년 음력 2월 15일에 이루어진 우도의 ‘말축굿’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말축’은 메뚜기의 제주말이다. 메뚜기는 예로부터 농사에 피해를 많이 주므로 우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말축굿’이 단독으로 행해졌었다. 곧 우도 하우목동에서 마을 아래쪽에서 붉은 수탉 두 마리의 코를 꿰고 풍악을 울리며 심방들이 그 수탉을 끌어 마을 한 바퀴를 양쪽으로 돌아 마을 위쪽에서 서로 만나면 마을 한가운데 길로 내려와 선창에 이르고 이 닭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서 바다에 던지는 모티프로 되어 있었다. 수탉이 메뚜기를 모조리 잡아먹고 바다로 사라져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 굿이 중간에 없어졌는데, 이 굿이 이번에는 영등굿과 결합이 되어 영등굿이 끝날 무렵, 이 ‘말축굿’을 첨가하였다.



〈사진 15〉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굴중의' 입고(1914년 5월, 제주시 삼양동) 사진 토리이 류우조오(鳥居龍藏)

한 소녀가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굴중의' 입고 삼양동 선사유적지에서 서 있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굴중의'는 감물을 들인 여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굴중의'에는 대님을 땀다. 어느새 키가 쑥 커버렸는지 '굴중의'는 무릎 아래까지 올라왔다.



〈사진 16〉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뻔' 입고(197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한 아낙네가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뻔' 입고 공동수도에서 '허벅'에 물을 길고 있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몸뻔'은 감물을 들인 여자들이 쉽게 통으로 입을 수 있는 고무줄 흠바지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한라산 어승생담을 비롯한 대규모 저수지가 건설되어 마침내 제주도에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었다. 마을 공동수도가 마을에 설치되었지만, 제주도 여성들의 '허벅'에 물을 길고 운반하는 노동은 계속되었다.



〈사진 17〉 윗도리에 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뭇뻬’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저 멀리 비교적 나이 든 아낙네는 하얀 무명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뭇뻬’ 입고 ‘곰베’로 흙덩이를 바수고 있고, 가까이 비교적 나이 어린 아낙네는 검은 물 들인 무명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뭇뻬’ 입고 ‘끄슬퀴’를 끌며 땅거죽을 펴고 있다.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이고, ‘갈뭇뻬’는 감물을 들인 여자들이 쉽게 통으로 입을 수 있는 고무줄 훔바지이다. ‘곰베’는 흙덩이를 깨뜨리거나 씨앗을 뿌린 뒤에 흙을 덮는 데 쓰는 도구인 곰방메라는 말이다. ‘끄슬퀴’는 길쭉길쭉한 잎나뭇잎을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도구라는 말이다.



〈사진 18〉 머리에 밀짚모자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빼’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한 아낙네가 머리에 밀짚모자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빼’ 입고 앉아서 막대기로 참깨를 털고 있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몸빼’는 감물을 들인 여자들이 쉽게 통으로 입을 수 있는 고무줄 흠바지이다. 참깨는 처서(8월 23일경) 전에 베어 묶어 세워 7일쯤 말린 후에 털었다. 그런데 참깨를 5일쯤 말렸을 때 큰비가 오면 참깨 농사는 허탕이 되고 만다. 만일 참깨가 비에 젖으면 빗물이 씨방으로 들어가 마른 참깨를 바깥으로 밀어 내버린다. 즉, 씨방이 비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깨 부껏다’고 한다. ‘부껏다’의 ‘부끄다’는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밀려나다’라는 말이다. 이러니 참깨 농사는 “항에 들어가야 깨라고 한다”고 할 정도로, 마지막 과정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깨는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털어 탈곡하여 항아리에 들어가야 마음이 놓이게 되는 곡식이다. 내일 털려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었다가 그날 저녁에 비가 오는 날이면 참깨 씨방에 빗물이 차 날알이 그냥 나와 버렸다. 이렇게 되면 농부들의 마음도 허망하다. 허망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참깨를 털어 내야 했다.



〈사진 19〉 머리에 수건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뺨'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저 멀리 갈옷을 차려입은 남편인 듯한 남성은 말을 몰며 '몰방아'를 돌리고 있고, 가까이 있는 부인인 듯한 여성은 이삭을 빗자루로 쓸어 올리고 있다.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뺨'을 입었다. 수건은 머리에 쓰는 형겁이고,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홉옷이고, '갈몸뺨'는 감물을 들인 여자들이 쉽게 통으로 입을 수 있는 고무줄 훌바지이다. '몰방아'는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사람, 말, 소 따위로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 따위를 찧는 연자방아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몰방아'를 '몰방이', '몰방애', '몰구레'라고도 일컫는다. 제주도 '몰방아'는 제주도의 원초적인 탈곡(脫穀)과 도정(搗精)의 도구는 아니었다. 『증보 탐라지』(增補耽羅誌, 김영길 번역본)가 편집된 조선조 영조 41년(1765)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몰방아'가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몰방아'는 제주도가 아닌 육지부에서 전승되는 연자방아처럼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마소 또는 사람이 끌게 하여 걸곡을 찧고 알곡을 뿜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몰방아'에서, 조 이삭에서 낱알을 떨어내는 일, 보리의 걸겍질을 벗겨 보리쌀을 만드는 일, 발벼나 나락의 겍질을 벗겨 찹쌀과 벱쌀을 만드는 일, 가루를 만들려고 알곡을 뿜는 일 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 이삭에서 낱알을 떨어내는 일과 보리의 걸겍질을 벗겨 보리쌀을 만드는 일은 거의 마소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수가 많았다.



〈사진 20〉 윗도리에 러닝셔츠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뻔' 입고(1960년대, 제주도) 사진 홍정표

연자매에서 껍질을 벗겨 놓은 보리쌀을 명석 위에 널어 말렸다. 그동안에 종종 '당그네'로 저어주었다. 한 아낙네는 윗도리에 러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갈옷을 입고 마당에 껍질을 벗겨 놓은 보리쌀을 명석에 널어 말리는 동안에 '당그네'로 저어주고 있다. '당그네'는 곡식을 말릴 때 고르게 펼치거나 모을 때 쓰는 도구이다. 이것은 애월읍 금성리 고정숙(1939년생, 여) 씨 집에서 쓰던 것이다. '주베낭'(구실잣밤나무)에 날을 세운 판대기(가로 37.5cm, 세로 17.0cm)에 구멍을 뚫고 자루(112.0cm)를 박아 만들어 '날레'를 저을 때 썼다. '날레'는 "말리거나 별을 찌기 위해 마당에 펼쳐 놓은 명석에 널어놓은 곡식"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도구를 제주도 다른 지역에서는 '날레군데'라고도 하였다.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32-01

제주특별자치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 가치

발행일 2023년 8월 21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

전화 064-710-6973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전화 064-900-1817

인쇄 도서출판 각 유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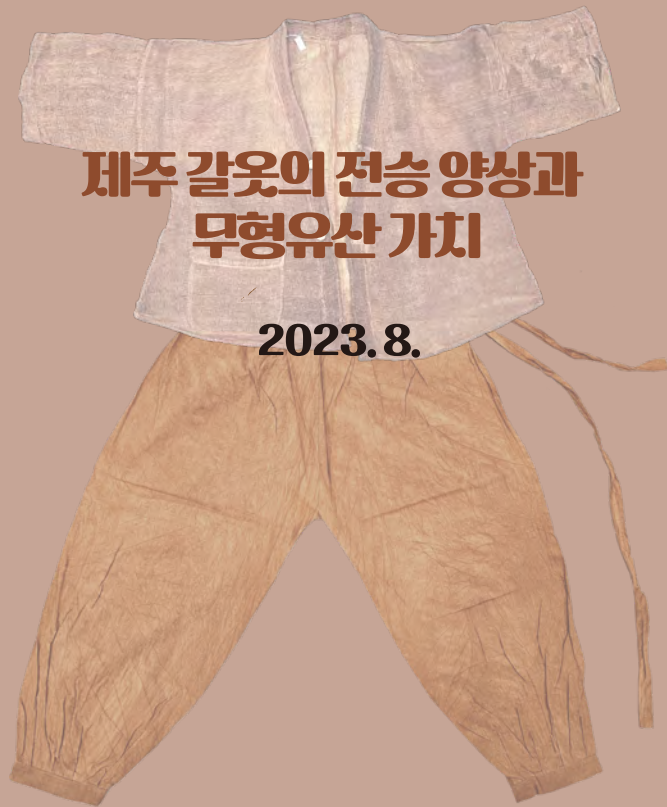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6길17 2층

전화 064-725-4410

ISBN 979-11-88339-95-2 93090

비매품

- 이 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 가치**

2023. 8.

비매품

93090



9 791188 339952

ISBN 979-11-88339-95-2